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조선왕릉 擇地와 山論

2013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이 덕 형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호섭

## 조선왕릉 擇地와 山論

A Study on the Selection Land and Sanron(Fungsugiri)  
of Joseon Royal Tombs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이 덕 형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호섭

## 조선왕릉 擇地와 山論

A Study on the Selection Land and Sanron(Fungsugiri)  
of Joseon Royal Tombs

위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이 덕 형

이덕형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 조선왕릉의 擇地와 山論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이 덕 형

본 연구에서는 조선 국왕의 권위와 통치력의 변화과정을 왕릉의 擇地와 山論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조선왕릉의 조영은 새로 즉위한 국왕이 가장 먼저 수행하는 과제였다. 특히 왕릉의 조영과정과 절차는 예제에 따라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다. 왕릉의 조영을 예제에 따라 행한 것은 왕릉조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통치자로서의 정통성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릉을 조영하는 모든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왕릉을 조영하기 위한 택지의 선정은 다른 무엇보다도 진중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 하였다. 왕릉택지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는 풍수적 측면에서吉凶여부를 검증 받아야 했다. 이때 국왕의 장지 후보지에 대한 논의는 지관들이 올려 보낸 ‘山論’을 가지고 하였다. 산론이란 지관들이 산을 둘러본 후 풍수적인 측면에서 길흉을 검토한 보고서이다. 국왕과 총호사 등은 산릉도감에서 보고 받은 여러 곳의 산론을 놓고 우열을 가리면서 葬地를 결정 하였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왕릉을 조영할 때 이와 같은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승하한 후 5일이 지나서 성복을 하였다. 성복을 하기 전까지는 선왕의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사실은 성복하기까지 5일 동안 새로운 국왕의 즉위와 국왕의 장례를 준비 하였다. 성복을 마친 후 보위에 오른 국왕은 선왕의 국상을 치르기 위해 국장도감 · 빈전도감 · 산릉도감 등을 구

성하고 조직을 이끌어 갈 책임자를 임명하였다. 이때 삼도감을 지휘하는 총 책임자는 총호사라 하였고, 각 도감의 우두머리는 제조라고 하였다. 총호사는 주로 우의정이 임명되었고, 각각의 제조는 국장 임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조직은 국상 기간 동안만 유지되었으며, 총호사를 비롯한 각 제조들은 국상기간 중 몇 차례 任免되었다.

총호사와 산릉도감에서는 국상에 쓰일 葬地를 찾기 위한 조직(看審團)을 구성하였다. 왕릉의 장지로 사용하기 위한 山을 풍수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看審(또는 看山)이라고 하였다. 이때 간심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地官 또는 地師라 하였고, 그들 중 우두머리를 相地官이라고 하였다. 상지관은 관상감에 소속된 관원이었으며, 상지관을 비롯하여 간심에 참여하는 집단을 看審團이라고 하였다. 간심단은 산릉도감에 소속된 관원 신분의 지사와 方外地師로 구성되었다. 간심단에 소속된 방외지사는 풍수지리에 관한 지식을 인정받아 추천에 의해 합류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직에 있지 않아 職名이 없기 때문에 임으로 軍職을 부쳐주어 국가의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간심단은 총호사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왕릉의 장지로 쓰일 후보지를 간심하였다. 간심 대상지는 당초 봉표를 해 둔 곳과 여러 관계자들이 추천으로 선택된 곳들이었다. 이때 간심 대상지로 선택된 곳은 사대부들의 무덤이 있는 곳과 기존에 조영된 왕릉의 주변 산줄기, 그리고 민가가 있는 곳과 무덤이 조영되지 않은 새로운 곳이었다. 그런데 간심 대상지는 왕대별로 또는 시대별로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간심대상지가 달라지는 원인과 이유 등을 국왕의 권위와 연계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첫째, 조선왕릉의 택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地理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살펴보았다. 둘째, 조선후기 왕릉택지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등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았다. 연구 자료는 연대기 자료와 『산릉도감의궤』 등 문헌 자료와 현존하는 왕릉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자료와 실존하는 현장의 상황을 비교 검토해 가면서 지리에 대한 인식을 검토했다. 이때 천장된 왕릉과 舊墳이 있었던 곳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穿鑿하였다. 셋째, 조선후기에 왕릉을 택지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山論을 분석하

였다. 왕릉택지과정에서 작성된 산론은 국왕을 비롯하여 총호사 등이 기본적으로 참조했던 1차 자료였다. 이때 간심단의 지관들이 작성한 산론은 어떤 풍수론을 적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산론의 작성 형식과 구성은 시대적으로 또는 왕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호 비교를 해 보겠다.

이상과 같은 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왕릉 택지를 결정할 때 당대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둘째 산론의 내용을 통하여 조선후기에 펼쳐진 풍수의 내용과 인식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이다. 본 연구는 조선왕릉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왕릉의 택지는 국왕이 승하한 후 대략 1개월 동안 발생한 일들이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왕릉 택지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못했다. 그리고 산론에 등장하는 풍수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당시 지관들의 생각을 모두 이해하였다고는 볼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왕릉 택지의 시사점을 구체화시키지 못했다. 또 모든 왕릉의 의궤에 있는 산론을 살펴 보지 못한 것은 산론에 대한 논쟁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나타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된 연구에서 보완하겠다.

【주요어】 조선왕릉, 왕릉택지, 택지, 왕릉 입지, 산론, 풍수지리,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경향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제 2 장 조선왕릉의 조영 .....	10
제 1 절 조선왕릉의 형식과 입지 .....	10
1. 왕릉의 조영형식 .....	10
2. 왕릉의 입지 .....	24
제 2 절 조선왕릉의 遷葬과 舊陵地 .....	32
1. 천장왕릉 .....	32
2. 구릉지에 조영된 왕릉 .....	37
제 3 장 조선왕릉의 택지과정 .....	39
제 1 절 왕릉택지의 요건과 선정기관의 구성 .....	39
1. 왕릉의 택지와 선정 요건 .....	39
2. 왕릉택지 선정기관의 구성과 활동 .....	44
제 2 절 조선왕릉의 택지선정 검토 .....	53
1. 15세기에 조영된 왕릉택지 .....	53
2. 16세기에 조영된 왕릉택지 .....	60
3. 17세기에 조영된 왕릉택지 .....	62
4. 18세기에 조영된 왕릉택지 .....	106

제 4 장	조선왕릉의 山論 .....	115
제 1 절	조선후기 왕릉택지의 산론 .....	118
1.	17세기에 조영된 왕릉택지의 산론 .....	118
2.	18세기에 조영된 왕릉택지의 산론 .....	158
제 2 절	왕릉 택지의 산론 검토 .....	184
1.	간심단의 산론 작성 추세 .....	184
2.	산론의 풍수적 경향성 검토 .....	190
제 5 장	결 론 .....	196
【참고문헌】	.....	200
ABSTRACT	.....	208

## 【 표 목 차 】

[표 2-1] 고려 공민왕릉과 조선 태조비 정릉의 입지비교 .....	11
[표 2-2] 고려왕릉의 석물 치장 현황 .....	14
[표 2-3] 조선초기 왕릉의 조영제도 .....	23
[표 2-4] 조선왕릉 천장 사례 .....	33
[표 2-5] 조선 국왕 사친 무덤의 천장 .....	36
[표 3-1] 조선전기 충호사 및 산릉도감 제조 현황 .....	45
[표 3-2] 조선후기 인조 ~ 경종대 충호사 및 산릉도감 제조 현황 .....	46
[표 3-3] 조선후기 영조 ~ 헌종대 충호사 및 산릉도감 제조 현황 .....	47
[표 3-4] 조선후기 왕릉 간심 상지관 현황 .....	49
[표 3-5] 조선후기 왕릉 간심에 참여한 방외지사 .....	50
[표 3-6] 세종의 舊 英陵 택지 선정과정 .....	55
[표 3-7] 세조 光陵 택지 선정과정 .....	57
[표 3-8] 성종의 宣陵 택지 선정과정 .....	59
[표 3-9] 중종의 靖陵 택지 선정과정 .....	60
[표 3-10] 인종의 孝陵 택지 선정과정 .....	61
[표 3-11] 1600년 7월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 왕릉택지 .....	63
[표 3-12] 1600년 8월 ~ 9월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 왕릉택지 .....	66
[표 3-13] 1600년 10월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 왕릉택지 .....	67
[표 3-14] 1600년 10월 ~11월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 왕릉택지 .....	68
[표 3-15] 인열왕후 한씨의 간심 대상지 .....	69
[표 3-16] 인열왕후 한씨 산릉 1차 간심 대상지 .....	70
[표 3-17] 인열왕후 한씨 산릉 2차 간심 대상지 .....	71
[표 3-18] 인열왕후 한씨 산릉 3차 간심 대상지 .....	71
[표 3-19] 인조왕릉 간심지 1차 간심단 .....	73
[표 3-20] 숙종대 천장을 주장한 자와 사유 .....	77
[표 3-21] 영조대 좌의정 이집의 상소 내용 .....	77
[표 3-22] 영조 7년 장릉 봉심의 내용 .....	78

[표 3-23] 인조 長陵 천장시 총호사와 상지관 .....	79
[표 3-24] 영조대 인조 장릉 천장시 지관과 간심 대상지의 산론 .....	80
[표 3-25] 효종 영릉 국장시 총호사 및 삼도감 .....	81
[표 3-26] 효종영릉 1차 간심 .....	82
[표 3-27] 효종영릉 2차 간심 .....	84
[표 3-28] 효종 왕릉 택지 간산 대상지 .....	86
[표 3-29] 효종 영릉 3차 간심 .....	87
[표 3-30] 효종 영릉 4차 간심 .....	89
[표 3-31] 효종 영릉 5차 간심(수원 호장의 집 뒷산) .....	90
[표 3-32] 효종 영릉 5차 간심(영릉 홍제동) .....	90
[표 3-33] 효종 영릉 택지 수원 호장의 집 뒷산 불가론 .....	91
[표 3-34] 효종 영릉 6차 간심 .....	93
[표 3-35] 효종 영릉 7차 간심(건원릉 서쪽 산줄기) .....	94
[표 3-36] 효종 영릉 8차 간심(건원릉 안과 화접동) .....	95
[표 3-37] 효종 영릉 수원 호장 집 뒷산 철회 요청 .....	96
[표 3-38] 효종 영릉 천장 1차 간심 .....	101
[표 3-39] 현종과의 일문일답 .....	101
[표 3-40] 숙종비 인현왕후 민씨 국상시 총호사 및 삼도감 당상 .....	106
[표 3-41] 인현왕후 민씨 택지 간심단 .....	107
[표 3-42] 인현왕후 민씨의 택지 간심단의 준비물 .....	107
[표 3-43] 숙종 국장시 택지 간심단 .....	112
[표 4-1] 현종 국상시 총호사 및 삼도감 당상 .....	118
[표 4-2] 현종 승릉 1차 간심지 .....	119
[표 4-3] 현종 승릉 1차 간심단 .....	119
[표 4-4] 회양부사 정창도 산론(교하 월룡산) .....	120
[표 4-5] 부사정 홍석구 산론(교하 월룡산) .....	122
[표 4-6] 교하 월룡산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122
[표 4-7] 장단 읍견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123
[표 4-8] 갈현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123

[표 4-9] 장단 서곡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124
[표 4-10] 회양부사 정창도 산론(장단 서곡) .....	124
[표 4-11] 부사와 신경운 산론(장단 서곡) .....	125
[표 4-12] 부사정 홍석구 산론(장단 서곡) .....	125
[표 4-13] 양주 화접동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127
[표 4-14] 회양부사 정창도 산론(양주 화접동) .....	128
[표 4-15] 건원릉 내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132
[표 4-16] 英陵 내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138
[표 4-17] 광주 번천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138
[표 4-18] 금천 남자하동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143
[표 4-19] 승릉 택지를 위한 재간심지 평가 .....	145
[표 4-20] 승릉택지 양주 화접동 재평가 .....	146
[표 4-21] 승릉택지 광주 번천 재평가 .....	150
[표 4-22] 교하의 산론에 대한 간심단의 평가(승릉) .....	152
[표 4-23] 건원릉에 대한 간심단의 재평가(승릉) .....	155
[표 4-24] 경종의 국상시 총호사 및 삼도감 당상 .....	158
[표 4-25] 경종의 산릉택지 1차 간심단 .....	158
[표 4-26] 경종의 초기(9월5일 경) 간심지역과 결과 .....	160
[표 4-27] 경종의 왕릉택지 2차 간심단(재 간심단) .....	160
[표 4-28] 경종의 왕릉택지 재간심 소견(겸교수 곽진곤 등) .....	161
[표 4-29] 경종의 왕릉택지 재간심 소견(사용 나만우 등) .....	162
[표 4-30] 경종의 왕릉택지 재간심 소견(사용 경엽 등) .....	162
[표 4-31] 경종의 재 간심지역 4곳에 대한 총호사의 서계 .....	163
[표 4-32] 경종의 산릉 택지에 대한 재 간심 이후 산릉 결정과정 .....	164
[표 4-33] 장자가 승계한 경우에 조영된 왕릉의 택지 .....	187
[표 4-34] 자신의 아들에게 보위를 이어준 국왕의 왕릉택지 .....	187
[표 4-35] 자신의 아들에게 보위를 이어주지 못한 국왕의 왕릉택지 .....	188
[표 4-36] 왕릉의 좌향 현황(『증보문헌비고』 참조) .....	193

## 【 그림 목 차 】

〈그림 2-1〉 고려 공민왕대 장명등과 조선 태조대 장명등 .....	16
〈그림 2-2〉 조선 태종대 장명등 .....	18
〈그림 2-3〉 최영장군 묘 .....	25
〈그림 2-4〉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현·정릉 .....	26
〈그림 2-5〉 오형산의 기본 도형(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1999, 127쪽 참조) .....	28
〈그림 2-6〉 숙종 명릉 산도 .....	29
〈그림 2-7〉 숙종 명릉 위성도 .....	30
〈그림 2-8〉 숙종 명릉 현황 사진 .....	30
〈그림 3-1〉 교하로 천장된 인조 長陵 (2010년 9월 28일 이덕형) .....	98
〈그림 3-2〉 여주 홍제동으로 천장된 효종의 寧陵 (2010년 7월 6일 이덕형 촬영) ..	104
〈그림 3-3〉 숙종 명릉 入首處 (2010년 6월 18일 이덕형 촬영) .....	114
〈그림 4-1〉 현종의 승릉 (2009년 5월 6일 이덕형 촬영) .....	157



HANSUNG  
UNIVERSITY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경향

조선왕릉<sup>1)</sup> 40기는 2009년 6월, 일괄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릉에는 유교사상이 반영된 한국 장묘문화의 정수가 담겨있다. 둘째, 조선왕릉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공간배치를 통해서 석물 등의 치장물들이 갖고 있는 조형 예술적 가치 등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조선왕릉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왕릉의 조영과 관리, 의례 등의 실행에 관한 내용들이 실록이나 의궤 등에 기록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조선왕릉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을 담고 있는 결정체이다. 첫째, 조선왕릉을 조영하는 과정에서 국왕은 총호사를 임명하고 교체하는 등 인사권을 발동했다. 이러한 인사권은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새로운 국왕의 정권 장악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했다. 더구나 왕릉택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군신간에 또는 당색을 달리하는 사대부들 간에 해계모니가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조선왕릉을 조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재들이 대량으로 필요했다. 왕릉의 조영에 투입되는 자재는 목재와 석재를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소재가 사용되었다. 특히 석재는 왕릉 주변의 산에서 채굴하기도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강화도에서 가져왔다. 목재도 인근지역에서 확보하기도 했지만 관곽 등에 사용되는 항장목 등 중요한 목재는 강원·충청지역에서 가져다 사용했다. 이렇게 전국 각처에서 들어오는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사용되었다. 조선후기 숙종조에 이르러 왕실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석물 등의 크기를 대폭 축소하였다. 그리고 현종의 국장을 진행할 때는 효종의 구 영릉을 천장하면서 땅에 묻어두었던 석물을 다시 꺼내어 사용하기도 했다. 셋째, 왕릉을 조영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은 하삼도에서 징발하는 인력과, 승군 등을 합쳐 3,000~5,000명가량이 투입 되었다. 왕릉 능침의 내부조영을 석실

1) 본문에서 왕릉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왕의 왕릉을 칭한 것으로서 왕비의 왕릉은 앞에 누구의 비 ○○왕후 ○○씨라고 칭할 것이다.

로 만들 경우에는 대략 5,00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회격으로 만들 경우에는 대략 3,000명가량 투입되었다. 그리고 왕릉을 조영한 후 행하는 제례 등은 조선사회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국왕은 제례의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군신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했고, 백성들에게는 국왕의 위엄을 보이는 현장으로 삼았다. 넷째, 조선왕릉을 조영할 때는 당대 활동했던 최고의 장인들이 투입되었다. 왕릉을 조영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미술·조경 등의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왕릉의 조영물 들을 세심히 살펴보면 당대의 예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도 있다. 특히 석물의 조각을 살펴보면 석재의 재질에 따라서 조각의 미적 표현이 달라졌고, 대를 이은 국왕의 성향에 따라서 왕릉 능침에는 다양한 문양이 조각되었다. 혼유석 앞에 조영되는 석등(長明燈)은 시기적으로 외관의 모양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때 석인들의 얼굴상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기도 했다. 석인이 상에서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이유는 동원된 장인이 公役僧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조선왕릉은 왕과 왕후의 사후 공간이자 왕조의 정통성을 표방해 주는 상징적인 영역이었다. 그리고 왕위를 계승한 군주와 후손들로서는 혈통과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성역의 장소이기도 하다.

조선왕릉의 위치는 조선의 국왕과 사대부들이 유교적 입장과 풍수적 입장을 바탕으로 비정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42기의 조선 왕릉이다. 조선왕릉의 위치는 대부분 한양을 중심으로 사방에 분포되었다. 그런데 왕릉 택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왕과 사대부들은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왕릉택지를 택정하는 가운데 발생했던 정치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다.

조선 왕릉에는 왕릉을 관리하기 위한 관원이 상주하였다. 때로는 이와는 별도로 중앙의 관원을 파견하여 관리 감독을 하기도 하였다. 국왕은 각 왕릉들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능행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능제를 통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때 왕릉의 능제와 관련해서는 三名日에 조정에서 행하는 朝會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sup>2)</sup> 그 형식의

2) 강제훈, 「조선 초기의 朝會 의식」, 『朝鮮時代史學報』 28, 2004 ; 「조선 世宗朝의 조회」, 『한국사연구』 128, 2005 ; 「조선시대 조참의식의 구성과 왕권」, 『조선왕실의 가례 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기본 절차 등은 유사하게 진행하였다. 국왕 입장에서 치르는 능제와 능행은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드러내어 왕권을 공고히 하고 군신 간의 질서를 강조하며 유교적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조선왕릉은 군신들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 되었다. 따라서 왕릉을 조영하기 위한 위치 선정, 조영 과정, 사후 관리 등은 국가적으로 매우 신중히 처리되었다.

한편 조선은 유교적 이론을 통해 나라를 운영했지만, 궁궐 등 중요한 시설 등을 조영할 때는 풍수지리설을 도입하였다. 풍수지리의 요체는 길지를 얻어 후손의 발복을 기원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풍수법은 아직 유교적 예제가 정착되기 전인 조선 초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왕릉 조영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 등에서 활용 되었다. 국가의 기관 중에는 관상감을 두어 풍수학과 지리학을 전담하는 관원을 배치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관상감이 관원은 잡과인 음양과 취재를 통해서 정식으로 발탁되는 관원이었다.<sup>3)</sup>

왕릉 택지의 실무는 보통 국왕이 승하한 뒤 임시로 조직되는 산릉도감에서 시행하였다. 산릉도감의 실무자인 相地官과 이들이 추천한 地官들은 왕릉 간심 대상지를 상대로 풍수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서 일정한 양식으로 국왕에게 보고하는데 이것을 ‘山論’이라고 한다. 산론의 내용은 해당지역에 대한 풍수적 견해였으며, 국장이 끝난 뒤 『산릉도감의궤』에 간심대상지를 둘러본 날짜별로 기록해 두었다. 산론에는 대상지역을 검토한 날짜, 참여한 인물, 대상지역에 대한 평가, 풍수적 특징 등등이 기록된다. 그래서 왕릉의 입지를 풍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1차 자료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릉 조영 횟수도 늘고, 또 정치적, 풍수적 이유로 왕릉의 遷葬도 여러 차례 진행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론은 왕릉택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지관들이 평가한 산론을 보면 내용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된 사례는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조선왕릉의 택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산론을 통하여 그 의미와 실체를 검토하고자 한다.

3) 『經國大典』 권3, 예전, 諸科. 서운관에는 천문, 금루, 풍수학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習讀으로 각각 20명, 40명, 10명을 정원으로 하였다.(『世宗實錄』 권29, 세종 7년 8월 30일(丙申)) 『경국대전』에서는 생도의 수가 천문학 20명, 지리학 15명, 명과학 10명이었다.

조선왕릉에 대한 연구경향은 조선왕릉이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점 전후를 기해서 살펴보겠다. 왕릉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로는 1959년 김원룡이 왕릉에 치장된 석물 중 석인의 조각에 대한 연구가 있다.<sup>4)</sup> 이후 1976년 유영교는 조선왕릉 석인석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왕릉의 석물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언급하였다. 그 후 석물과 관련된 연구는 1978년 최인성에 의해서 왕릉 석물 중 무인석의 갑주에 표현된 형태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sup>5)</sup> 이후 근 30년 동안 왕릉에 관한 연구로 약 30편 가량 발표 되었고,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된 후 왕릉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지금까지 약 75편 가량 발표되었다. 이때 발표된 왕릉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풍부한 연구 성과를 보였지만, 미시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한 실정이다. 조선왕릉의 연구 성과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릉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된 역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이다. 역사학계의 연구 경향은 주로 왕실의 상징과 권위가 어떻게 표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한형주의 「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정비와 운영」에서는 “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제도적 마련과 의식 정비, 종묘와의 차별성, 그리고 능행의 정치사적 의미 등을 천착함으로써 왕릉의 역사적 위치를 찾아보려고 하였다.”<sup>6)</sup> 당시 국왕들은 행차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국왕의 장엄함을 보이고, 동시에 선왕의 왕릉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은 효의 실천을 보이는 것이기도 했다. 이때 능에서 치러지는 제사는 속제였기 때문에 제사과정이 비교적 간략하여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왕릉에서 치러지는 제사를 천착한 연구가 있기까지는 왕실의 상·장례 절차 및 제사 의례에 대해서, 조선왕릉의 능묘비와 왕릉의 축조 및 관리 그리고 천릉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되었다.<sup>7)</sup> 이 외에 개별 왕

4) 김원룡, 「李朝王陵의 石人彫刻-李朝彫刻樣式的 變遷」, 『아세아 연구』 통권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59,

5) 유영교, 「朝鮮王朝後期王陵의 石人石獸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최인성, 「朝鮮王朝 王陵武人石像의 甲骨形態에 對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6) 한형주, 「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정비와 운영」, 『역사민속학』 33호, 2010, 116쪽.

7) 정종수, 「조선초기 상장의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이민식, 「朝鮮時代 陵墓碑에 관한 研究 : 京畿道 地方을 中心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이희중, 「17, 8세기 서울 주변 왕릉의 축조, 관리 및 천릉 논의」, 『서울학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1, ;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강제훈, 「조선초기 朝儀의 의례구조와 상징」, 『한국사연구』 vol

릉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정해득은 현릉원과 화성건설을 대상으로 정조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풍수지리적인 요소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세자의 무덤을 새로 조영하고 그 배후에 화성을 건설할 때 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sup>8)</sup> 한편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遷葬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본 연구도 있었는데, 천장을 풍수적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sup>9)</sup> 이 외에도 조선왕릉을 동아시아 국가의 왕릉과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다.<sup>10)</sup>

둘째, 조선왕릉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은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조선왕릉과 관련된 사회분야로 풍수학적 측면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풍수지리와 연관된 연구는 고려조와 연관하여 진행된 이병도의 『고려시대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병도는 고려시대를 연구하면서 그의 저서 序言 첫머리를 圖讖으로 시작하였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도참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서의 말미에는 조선 세종조에 발생했던 國都 主山문제에 대해서 거론 하였다. 이때 ‘조선 초기에 재임했던 태조와 태종 그리고 세종 등의 국왕들은 고려조에 성행하였던 사상이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고 하였다.<sup>11)</sup> 이후 도참 연구는 최병헌이 이어받아 나말여초 도선의 풍수지리설을 검토한 결과 “풍수지리설에 있어서 신비적인 요소만 제거하고 나면 그것은 훌륭한 인문지리학의 일종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며, 후세에 와서 미신적인 도참 신앙화된 풍수지리설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sup>12)</sup>고 하였다. 이병도와 최병헌의 연구는 국가의 경영과 풍수지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학문적 토대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도참과 관련된 연구는 답보상태에 있다가 최창조에 의해서 다시 연구가 재개 되었다. 그의 연구에서 도참을 비롯한 도선풍수는 ‘땅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였다.<sup>13)</sup> 이 말은 조선왕릉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

137, 2007, ;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7.

8) 정해득,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의 수원 이음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9) 신재훈, 「조선 전기 遷陵의 과정과 정치적 성격」,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0) 김무영, 「조선왕릉과 明代 묘장제도의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흰낫비, 「한국과 베트남 왕릉의 성격 비교 연구 : 조선과 원조시대 왕릉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1) 이병도, 『高麗時代의 研究』, 아세아문화사, 1979, 개정판. 412쪽.

12) 최병헌, 「도선의 생애와 나말·여초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연구』 11, 1975, 103쪽.

어 보이지만, 실은 그 이면에서 왕릉택지가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도선풍수는 최원석에 의해서 裨補風水로 재해석되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sup>14)</sup> 그리고 조선시대에 한양천도와 관계되어 도읍과 궁궐 등과 관련된 풍수지리 신앙을 연구한 자료가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1976년 김임규가 왕릉에 대한 풍수신앙을 시작으로 조선의 풍수사상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조선왕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풍수지리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왕릉의 입지에 대해서 좌향 또는 형국과 관련지어 풍수적 길흉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요 주제였다.<sup>15)</sup>

셋째, 조선왕릉에 투영 되어있는 문화를 주제로 삼은 연구경향을 살펴보겠다. 이 분야에는 건축과 미술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릉에 대한 건축학적 측면의 연구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김영빈의 연구가 주목된다.<sup>16)</sup> 그의 연구는 조선왕릉에 치장되는 건축물과 석물 등 모든 치장물의 조영기법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왕릉의 조영기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후 김영빈의 후속 연구로 왕릉 능력의 배치와 능상구조의 변천, 재실공간과 정자각을 대상으로 건축과정 및 관련 장인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sup>17)</sup> 그리고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神路·御路의 조영, 석물조

13)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 민음사, 1997, 184쪽.

14) 최원석, 「도선풍수의 본질에 관한 몇가지 연구」, 『응용지리』 vol7, 1994. ; 최원석, 『우리땅 풍수기행』, (주)시공사, 2000. ; 최원석, 「비보(裨補)의 개념과 원리」, 『민족문화연구』 vol34, 2001.

15) 김임규, 朝鮮時代 王陵에 관한 風水信仰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강환웅, 「朝鮮初期의 風水地理思想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덕형, 「선조대 유릉 택지에서 드러나는 왕릉 조영의 변화와 원인」,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2010. ; 이재영, 「朝鮮王陵의 風水地理的 解釋과 計量的 分析 研究」, 동방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장성규, 「《朝鮮王朝實錄》의 風水地理文獻 研究 : 《靑鳥經》·《錦囊經》·《狐首經》을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대윤, 「朝鮮時代 國王胎峰의 風水의 特性 研究」, 동방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덕형, 「조선왕릉 조영형식의 변천과 왕릉 입지 고찰」, 『소통과 인문학』,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 백남대, 「朝鮮王室 喪禮에 나타난 陰陽五行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태일 「朝鮮의 王陵과 胎峯의 比較 研究 : 同氣感應論과 風水理論을 中心으로」, 동방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수동, 「조선시대 陰陽科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6) 김영빈, 「풍수사상에서 본 조선왕능원묘 조성기법에 관한 연구(상)」, 『한국전통문화연구』, vol 4, 1988. ; 김영빈, 「풍수사상에서 본 조선왕능원묘 조성기법에 관한 연구(下-1)」, 『연구논문집』, vol 41, 1990. ; 김영빈, 「풍수사상에서 본 조선왕능원묘 조성기법에 관한 연구(下-2)」, 『연구논문집』, vol 42, 1991.

영에 사용된 척도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고,<sup>18)</sup> 최근 조선왕릉을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한 사례도 있다.<sup>19)</sup> 다음은 조선왕릉에 대한 미술사적 측면의 연구이다. 주로 왕릉에 치장된 석물의 미술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가장 많은데, 이 중 석인과 문·무인석에 대해서 형태와 복식 및 변화에 관한 연구, 석등 및 장명등과 석수 등 치장물에 조각된 문양 및 단청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sup>20)</sup>

이상의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조선왕릉을 대상으로 정치·사회·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 17) 이영, 「朝鮮時代 王陵陵域의 建築과 配置形式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상협,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안경호, 「조선 능제(陵制)의 회격(灰隔) 조성방법」, 『정신문화연구』 32호, 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이우중, 「조선 왕릉 광중 탄격(壙中 炭隔) 조성의 배경과 시대적 변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호, 대한건축학회, 2010. ; 김상협, 「조선왕릉 회격현궁(灰隔玄宮) 축조방법 연구」, 『건축역사연구』 2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2. ; 신지혜, 「조선 숙종대 왕실 喪葬禮 設行공간의 건축특성 : 빈전·산릉·혼전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문영식, 「조선후기 山陵都監儀軌에 나타난 匠人의 造營活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장경희, 「조선 시조왕릉의 정자각 내부 의물 연구」, 『한국공예논총』 15호,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12.
- 18) 김환철, 「조선후기 왕릉 석물조영에 사용된 척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9) 조운연, 「朝鮮王陵의 陵域 復元에 관한 研究」, 祥明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9.
- 20) 정명호, 「韓國 石燈樣式史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시기와 대상은, 조선후기에 조영된 왕릉(17세기~18세기)중 왕릉의 입지가 택정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왕릉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시대 후기를 집중하여 설정한 이유는 그 이전시기에 조영된 왕릉의 자료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선 후기에 조영된 왕릉들에 대해서는 연대기 자료와 함께 『국휼등록』과 『산릉도감의궤』 등의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 핵심주제로 설정한 ‘산론’은 연대기 자료에도 일부 전해지고 있지만 주된 자료는 『산릉도감의궤』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왕릉의 택지과정과 山論을 풍수와 역사를 결합한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결국 조선왕릉에 담겨있는 정치와 문화적인 측면을 고찰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조선왕릉의 조영과 형태,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는 기존 연구 성과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요약, 정리하는 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필요한 부분은 상세히 보완하여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에 주로 사용한 자료로는 의궤, 등록 등의 사료이며, 내용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연대기자료를 통해 상호 보완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도 많이 참조하였는데, 풍수에 대한 배경과 석물의 치장 및 양식의 변화, 그리고 음양과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들은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조선왕릉의 택지와 산론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조선왕릉의 택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地理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왕릉의 조영형식과 입지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때 풍수적 이유 등으로 천장된 왕릉과 舊壙이 있었던 곳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천착해 보도록 하겠다.

제3장에서는 조선후기 왕릉 택지과정에 대해서 검토해 어떤 사람이 어느 지점을 택지하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택정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정의 흐름을 살펴보겠다. 단 합장왕릉은 국왕

이 승하하기 전에 왕비의 우측에 능 자리를 남겨두는 壽陵제도가 채택되었기에 왕비의 능소를 택지할 때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제4장에서는 조선후기에 왕릉을 택지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山論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왕릉의 택지를 선정하기 위해 작성된 산론은 국왕을 비롯하여 왕릉의 택정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참조했던 1차 자료였다. 본고에서는 17세기와 18세기에 조영된 왕릉을 대상으로 산론에 적용된 풍수론과 작성 형식 등을 검토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밝혀 보겠다.

이상과 같은 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왕릉 택지를 결정할 때 중요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둘째 왕릉의 택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산론은 왕릉택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조선왕릉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기간은 국왕이 승하하여 成服을 한 후부터 대략 1개월의 기간 중 발생한 일들이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의 두 가지 측면의 의의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론의 해석은 분명 오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계속된 연구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HANSUNG  
UNIVERSITY

## 제 2 장 조선왕릉의 조영

### 제 1 절 조선왕릉의 형식과 입지

#### 1. 왕릉의 조영형식

조선왕릉은 승하한 국왕의 존재를 부각시켜주는 상징으로서 단지 화려하고 장엄하게 보이기보다는 현존하는 국왕의 意義와 정통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sup>21)</sup> 현재의 조선왕릉이 조영되기까지 그 이전 시대의 왕릉들은 어떤 형식으로 조영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여말선초의 왕릉제도

조선왕릉의 시작은 태조비 신덕왕후 강씨의 貞陵부터이다. 貞陵은 고려 말에 축조된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玄·正陵을 모범으로 한 듯한데, 왕릉을 조영하는 형식과 치장된 석물들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玄·正陵의 능침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단에는 무인석을 배치하였고, 중간 단에는 문인석과 장명등, 그리고 상단에는 능침과 기타 부속물들을 배치하였다. 하지만 貞陵과 玄·正陵은 입지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玄·正陵은 山麓에 貞陵은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영된 것이다. 고려 말기에 조영된 玄·正陵과 조선 초기에 조영된 貞陵을 토대로 왕릉의 입지와 조영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1〉은 고려말 공민왕릉의 玄·正陵과 조선의 태조비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을 대상으로 조영시기와 입지의 현황을 비교해본 표이다. 이 두 개의 왕릉만 놓고 본다면 고려와 조선의 왕릉 입지는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1)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6쪽 참조.

구분	고려 공민왕 비 노국공주의 정릉	조선 태조비 신덕왕후 강씨 貞陵
조영시기	노국공주 1365년	1396년
입지	산록	평지

〈표 2-1〉 고려 공민왕릉과 조선 태조비 정릉의 입지비교

왕릉의 입지는 대개 首都의 위치와 자연환경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고려의 경우 수도 개경이 평지라기보다는 산악지형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도성 외곽의 경계를 정방형으로 하지 못하고 산악의 능선을 따라 건설되었다. 다만 성내 궁궐을 축조할 때에만 임의적으로 평지를 조성하였지만 그마저도 자연적인 높낮이는 유지하면서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개경의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고려왕릉을 조성할 때에도 작용하였다. 즉, 고려왕릉은 궁궐 축조 때와 유사하게 산줄기를 중심으로 그 끝이 평지에 이르기 전 완만한 경사지 중턱에 입지하였다.

고려왕릉의 규모는 신라의 왕릉과는 달리 땅속에 광을 파서 현실을 조영한 후 시신을 매장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평지에 조영하였던 신라의 왕릉보다 봉분의 규모가 작아졌다. 고려왕릉의 현실은 대략 깊이 10척 내외, 폭 9척 내외, 높이 7~8척 내외이고, 돌을 쌓은 위에 관곽을 놓기 위한 4각의 광혈을 두었다. 4벽 및 천정의 내면에는 회칠을 바르고 벽화를 그렸는데, 천정에는 일월성신과 은하수 등 별자리를, 4벽에는 방위에 따라 四神을 그렸다.<sup>22)</sup>

왕릉 능침 외부의 치장은 통일신라의 성덕왕릉, 경덕왕릉, 흥덕왕릉의 전통을 따라 12각 병풍석에 난간석을 두르고 석수를 사방에 배치하였으며, 능 앞에는 석상과 석인을 배치하였다. 다만 장명등과 망주석을 배치한 것이 신라의 왕릉과 차별되는 요소이다.<sup>23)</sup> 능역은 대개 3~4단의 형태로 구획하여 치장하였다.

가장 위에 있는 1단 구역은 장대석 윗 구역으로서 봉분을 세우고, 주위에는 12각 병풍석과 난간석을 둘렀으며, 네 면에는 석수(호랑이와 양)를 배치하였다. 봉분 뒤쪽에는 곡장을, 앞쪽에는 석상(훈유석)과 망주석 1쌍을 배치하였다. 2단 구역에는 석등(장명등)과 문석인 1쌍을, 3단 구역에는 정자각을 세웠다. 이러한 고

22) 장경희, 『고려왕릉』, 예맥, 2008, 19쪽.

23) 위의 책, 20쪽.

려왕릉의 양식은 조선 왕릉으로 계속 이어져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왕릉제도로 정착 되었다.<sup>24)</sup>

고려왕릉의 입지가 산의 중턱 경사지인 반면, 조선왕릉의 입지는 좀 더 평지에 가까운 낮은 경사지이다. 풍수에서는 이런 곳을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곳(非山非野)’이라고 표현하는데, 조선왕릉이 이런 곳에 입지한 이유는 산에서 형성된 氣를 지속적으로 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풍수에서 말하는 ‘生氣(生命之氣)’는 만물의 생명 기운이다. 이러한 생기는 背山 뒤쪽의 산줄기를 통해서 穴처로 이동되는데, 이렇게 穴처로 이동하여 땅속에 흐르는 기운을 ‘地氣’라고 한다. 이러한 지기는 산이 시작하는 곳에서 발생하여 산줄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변의 영향을 받아 바위산이나 흙산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산은 살아있는 생물체에 비유되어 바위산은 骨山, 흙산은 肉山으로 분리한다. 대개 산줄기가 높고 험한 산은 골산으로 이지만, 산줄기가 낮은 곳을 향해 내려와 물줄기와 만나는 곳에 다다르면 육산으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그래서 골산은 산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勢山이라 하고, 육산은 모양이 갖추어진 산이라 하여 形山이라고 한다. 풍수지리에서 추구하는 ‘명당’은 보통 형산에서 찾는다.<sup>25)</sup>

고려왕릉은 개성과 장단 그리고 강화 등에서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왕릉의 입지는 일반적으로 구릉진 언덕 중간입지에 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좌측(동쪽)에 청룡이, 우측(서쪽)에 백호를 이루는 언덕이 있고, 후방에 주산이 있다. 백호는 능의 전방으로 우회하며, 이때 명당 안에 흐르는 물의 水界는 백호능선의 선형을 따라 왕릉 앞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가는 지세를 이루고 있다. 대개 이러한 곳에 입지한 고려왕릉의 현황은 제1대 태조 현릉에서 제34대 공양왕까지 왕과 왕비의 왕릉은 총 60기이다. 이들 고려왕릉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개경을 중심으로 조영되었다. 특히 개성의 송악산 북쪽과 만수산의 남쪽 일대에는 20여기의 고려왕릉이 있다.<sup>26)</sup> 그 가운데 고려말에 조성된 현정릉은 송악산 북쪽과 개성 서쪽의 만수산 남쪽 기슭 서쪽 맨 끝에 있다. 현정릉의 주산은 봉명산으로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무선봉의 산 중턱에 자리

24) 앞의 책, 『고려왕릉』, 2008, 예맥, 16쪽.

25) 장영훈,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사, 2000, 16~21쪽 참조.

26) 개성과 강화도 이외의 지역에 조성된 고려왕릉은 삼척과 파주에 있는 제 34대 공양왕의 고릉이 유일하다.

잡고 있다.<sup>27)</sup>

고려후기에 조영된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玄·正陵을 대상으로 살펴보면,<sup>28)</sup>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의 정릉을 조영할 때 王福命에게 국장을 주관하게 하고 4도감과 13색을 설치하였다. 노국대장공주의 능지는 개풍군 해선리 봉명산에서 남향으로 내려오는 무선봉의 산중턱에 자리를 잡아 정릉을 조영하였고,<sup>29)</sup> 정릉 서쪽에는 원찰 운암사가 들어섰다.<sup>30)</sup> 이때 능침의 치장은 그 이전의 왕릉을 조영할 때의 양식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sup>31)</sup> 다만 공민왕의 현·정릉에 치장된 석물은 2배수로 배치되었다. 이 양식은 공민왕의 현·정릉이 쌍릉으로 조영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모습은 조선 태종의 현릉을 조영할 때 다시 나타난다. 더불어 현·정릉은 고려 왕릉에 치장된 석인에게 갑옷을 착용시켜 문·무인을 확실하게 차별시켰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 왕릉만이 문·무석을 모두 세울 수 있는 능묘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sup>32)</sup> 아래 〈표 2-2〉는 현존하는 고려왕릉에 남아있는 석물의 종류를 열거해놓은 것으로, 이를 통하여 고려왕릉을 조영할 때 치장된 석물의 현황을 알 수 있다.<sup>33)</sup>



27)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I』 종합학술조사보고서, 2009, 17쪽 참조.

28) 고려왕릉의 대부분은 현재 북측에 있는 관계로 실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공민왕릉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29) 『고려사』 권41, 「세가」 41, 공민왕4.

30) 『고려사』 권89 「열전」 제2, 후비2, 노국 대장공주. 운암사 동쪽 기슭에 장례하였으며 그 능 이름을 정릉이라 하였고, 운암사에 밭 2240결과 노비 46명을 바치어 돌아간 이의 명복을 빌게 할 것, 능지기 룡호 114호를 두고 만기가 되어도 폐지하지 않게 할 것을 맹세한다. 운암사는 원래 敎宗에 속하였으나 지금은 창화사로 개칭하고 禪宗에 속하게 하였으며 또 광암사라고 개칭하였다.

31) 현재 고려왕릉은 모두 60기로 알려져 있으나 왕릉의 유구가 파악된 것은 18기뿐이다. 고려 제 1대 태조에서 34대 공양왕의 왕릉에 조영된 치장물의 유형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32) 장경희, 앞의 책, 120쪽.

33) 이창환,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 1권, 2009, 18쪽.

대수	묘호	능호	호석	십이지석	난간석	상석	망주석	석등	석수	석인	정자각터	표석
1	태조	현릉(顯陵)	○	○	○	1	2	1	4	2	○	○
2	혜종	순릉(順陵)	○		○	1						
3	정종	안릉(安陵)	○	○	○	1		1	3			
4	광종	헌릉(憲陵)	○	○		1	2	1	4	2	○	○
5	경종	영릉(榮陵)	○	○	○				4		○	○
6	성종	강릉(康陵)	○			1	1		2		○	○
8	현종	선릉(宣陵)	○	○	○	1	2	1	4	4	○	○
11	문종	경릉(景陵)	○		○	1	2	1	4	3	○	○
12	순종	성릉(成陵)	○		○	1			3	2	○	
16	예종	유릉(裕陵)	○		○	1						○
20	신종	양릉(陽陵)				1				2		○
21	희종	석릉(碩陵)								2	○	○
23	고종	홍릉(洪陵)				1				4	○	○
24	원종	소릉(昭陵)	○	○	○	1	1	1	7	4	○	○
29	충목왕	명릉(明陵)	○	○	○	1		1	4			○
30	충정왕	충릉(聰陵)	○		○	1	2	1		4		○
31	공민왕	현릉(玄陵)	○	○	○	2	2	2	8	8	○	○
34	공양왕	고릉(高陵)	○	○	○	1	2	1	4	2	○	○

〈표 2-2〉 고려왕릉의 석물 치장 현황

## 2) 조선 초기 왕릉의 조영형식

본고에서는 조선초기의 왕릉 조영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 시기는 고려의 왕릉제도와는 다르게 왕릉에 치장되는 석물들과 능침의 양식 등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 조선만의 왕릉제도가 정착되어가는 수순이기도 했다. 태조비 貞陵에서 세조의 광릉까지 각각의 왕릉을 대상으로 살펴보

졌다.

왕릉을 조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국장제도와 조영 규범이 필요했다. 조선은 개국을 한 이후 치러진 국장 중 貞陵, 건원릉, 정종비 정안왕후 김씨의 厚陵을 조영할 때까지는 4도감 13소를 설치하여 국장을 치렀다. 당시 4도감 13소 제도는 고려의 국장 제도였으나 조선이 건국 된지 얼마 안 지났기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고려의 국장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는 없었기에 조선의 국장제도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래서 태종은 조선의 상·장례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의례상 설소를 설치하는 등 고례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고례연구는 세종 대에 예조와 의례상정소, 집현전에서 唐 社友의 『社氏通典』, 宋 朱熹의 『家禮』, 주희의 제자였던 黃幹이 완성한 『儀禮經傳通解續』 그리고 송대의 『文獻通考』 등을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sup>34)</sup> 특히 1444년(세종 26)에는 집현전에 오례의의 주해를 상세하게 정하도록 하였고,<sup>35)</sup> 완성된 초본은 의정부에서 마감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세종은 『오례의』가 편찬되기 전 홍서하여, 뒤를 이은 문종이 즉위년(1451)에 완성시켜 『세종실록』 「오례」로 집성하였다.<sup>36)</sup> 이후 세조는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세종 대에 정리한 『오례의』를 수정하여 예전의 끝에 붙이라 하였다.<sup>37)</sup> 이 사업은 세조의 뒤를 이어 예종과 성종대 까지 지속되어 1475년(성종 6)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어 『국조오례의』를 반포하였다. 이제 조선은 조선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의례제도가 완성되어, 조선 건국의 정통성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sup>38)</sup>

한편 고려왕릉의 양식을 살펴보면 玄·正陵 조영시 현장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고려의 환관 金師幸<sup>39)</sup>을 주목해 볼만하다. 왜냐하면 김사행은 고려조에 이어 조선조에 이르러서도 궁실의 건설이나 왕릉을 조영할 때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

34) 『세종실록』 권43, 세종 11년 2월 10일(병술).

35)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10월 11일(병진).

36) 임민혁, 「조선 초기 국가 의례와 왕권」, 『역사와 실학』 43, 2010, 47-48쪽.

37) 『국조오례의』 서문.

38) 임민혁, 「조선 초기 국가 의례와 왕권」, 『역사와 실학』 43, 2010, 76쪽.

39) 『고려사』 권122, 「열전」 제35, 환자. 김사행의 처음 이름은 광대이다. 공민왕의 총애를 받고 여러 관직을 거쳐 판 판내부사 벼슬을 하였다. 성질이 간교하였으며 왕의 뜻을 맞추어 正陵과 영전의 공사를 크게 일으켜서 지극히 사치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이로 인하여 재력이 고갈되고 백성들이 편히 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죽은 후에 공민왕을 미혹하게 하여 공사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논죄되어 익주의 관노로 편입시키고 그 집을 몰수했는데 신우가 왕으로 되자 그 죄를 용서해 주고 告身을 돌려주었다. 공양왕 때 판내시부사로 되었다

였기 때문이다. 김사행은 조선이 건국된 직후 새 도읍의 종묘·사직·궁전·조시를 만들 때,<sup>40)</sup> 경복궁의 팔각정을 수리할 때,<sup>41)</sup> 수창궁의 서쪽 침실을 헐고 2층 궁전을 건축할 때,<sup>42)</sup> 그리고 조선의 태조 계비 신덕왕후 강씨가 승하하자 貞陵과 정릉의 원찰 흥천사를 지을 때<sup>43)</sup> 관여하였다.

김사행이 실무를 담당했던 현·정릉에 치장된 장명등(석등)과 정릉 장명등(석등)은 형태와 치장이 매우 흡사하다. 또 두 장명등의 화창은 모두 4각형이다. 이런 4각형 화창의 장명등은 조선 초기인 정종의 후릉과 당시에 조성된 사대부들의 묘에서도 발견된다. 즉, 김사행은 왕릉 조영에 있어서 고려와 조선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이다. 이후 조선시대 왕릉의 장명등의 형태는 사각 → 팔각 → 사각 등의 순서로 변화했다. 한편 김사행의 활동은 태조7년에 참수되면서 끝을 맺었고, 그 맥은 朴子靑<sup>44)</sup>이 이어갔다.



〈그림 2-1〉 고려 공민왕대 장명등과 조선 태조대 장명등

40)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2월 10일(을유).

41)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6월 3일(정축).

42)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1월 2일(임인).

43)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2월 19일(임인).

44) 한국역대인물 종합 정보 시스템. 박자청 1357년(공민왕 6)~1423년(세종 5). 조선 초기의 무신으로서 본관은 영해寧海, 황희석의 家人이다.

박자청은 김사행이 참수당한 후 태종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조정의 토목사업과 왕릉의 조영작업에 관여하였다. 그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목건축 사업으로는 이궁의 제조,<sup>45)</sup> 문묘수축,<sup>46)</sup> 군자감 수축,<sup>47)</sup> 창덕궁 누각과 침실의 건축, 진선문 밖의 돌다리 건설,<sup>48)</sup> 경복궁 행랑의 건설<sup>49)</sup> 등을 들 수 있다. 왕릉과 관련된 업무로는 1403년(태종 3)에는 태종의 명으로 신의왕후 한씨의 제릉에 신도비와 비각을 세울 때,<sup>50)</sup> 그리고 1407년(태종 7)에는 제릉 감독총제가 되어 제릉 개수를 지휘하였고,<sup>51)</sup> 1408년(태종 8)에는 제릉에 난간석과 석란, 石人 등을 치장하는데 관여하였다.<sup>52)</sup> 이때 〈그림 2-1〉의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 장명등은 〈그림 2-2〉의 신의왕후 한씨의 제릉에 있는 석등과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박자청은 제릉을 완공한지 2개월 뒤인 1408년(태종 8) 5월 24일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자 국장도감판사자격으로 조묘도감의 제조가 되어 건원릉 조영에 참여하였다.<sup>53)</sup> 건원릉이 들어설 능역지는 검교참찬의정부사 김인귀가 하륜에게 양주검암을 추천하여 태종이 결정하였다.<sup>54)</sup> 당시 건원릉을 조영할 때 동원된 인력은 충청 3,000명, 풍해도 2,000명, 강원도 500명 등 이었다. 박자청은 이들 역군을 이용하여工匠과 함께 왕릉조영을 시작하였다.<sup>55)</sup> 그리고 1410년(태종 10)에는 제릉에 비각을 고쳐 세워<sup>56)</sup> 왕릉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하였다. 태종에 의해서 제릉에 세워진 태조비 신의왕후 한씨의 신도비와 석등은 하나의 전례가 되어 이후 태조의 건원릉, 태종의 헌릉, 세종의 영릉까지 세워져 조선 초기 왕릉을 특징짓는 하나의 기념비적 치장물이 되었다.<sup>57)</sup> 건원릉 조영에 참여한 박자청은 고려 공민왕의 현·정릉과 자신이 개수한 태조비 신의왕후 한씨의 왕릉의 조영형식을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45)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10월 25일(정해).

46)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2월 14일(기해).

47)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2월 14일(신해).

48)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3월 18일(무인).

49)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2월 6일(을묘).

50)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10월 20일(갑자).

51)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10월 8일(무자).

52)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3월 10일(기미).

53)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27일(을해).

54)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6월 28일(을사).

55)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5일(신해).

56)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3월 18일(갑신).

57) 장경희, 「조선 태조비 신의왕후 제릉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63호, 2009, 9쪽.



〈그림 2-2〉 조선 태종대 장명등

한편 건원릉과 태종의 헌릉 장명등 앞에 놓여있는 좌향석은 왜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다. 다만 정조의 왕릉을 조영할 때 만들어진 산릉도감의 궤의 도설에는 크기와 설치하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좌향석은 능침과 산형의 지형지세를 측정하여 능침 전면 장명등 앞에 설치하는 석물인데, 모양과 배치 그리고 설치하는 위치는 사찰의 석등 앞에 놓아는 배례석과 매우 흡사하다. 이 좌향석은 태조 건원릉에 이어 태종의 헌릉에까지만 나타나고 그 뒤로부터는 외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건원릉의 능실형식은 서운관에서 석실로 축조할 것으로 건의하였다.<sup>58)</sup> 하지만 태종은 세자 이제(양녕대군)에게 명하여 종묘에 나아가 점(粧)을 쳐서 石室으로 정하였다.<sup>59)</sup> 그 뒤 건원릉의 재궁을 개경사라 하여 조계종에 소속시켰다. 이로서 태종에 의해서 조영된 건원릉의 능실은 석실로 조영되었고, 자연스럽게 조선 초기 왕릉 능실제도의 규범이 되었다. 태종이 상왕으로 재위하고 있던 1420년(세종 2년)에 태종 비 원경왕후 민씨가 승하하였다.<sup>60)</sup> 태종은 건원릉을 조영할

58)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9일(을묘).

59)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26일(임신).

때 4도감13색을 설치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3도감체제로 구성하였다. 산릉은 광주 대모산의 산줄기를 택했다. 태종이 선택한 광주 대모산의 능역지는 하륜과 이양달을 시켜 수릉지로 확보해 둔 곳이었다. 산릉의 조영은 산릉도감 제조가 된 박자청이 공조참판 이천과 함께 태종비 원경왕후 민씨의 산릉 役事를 하였다.<sup>61)</sup> 박자청은 태종이 원경왕후 민씨의 산릉을 조영하기 위해 경기·충청도에서 각각 3천명, 강원·황해도에서는 각각 2천명, 水軍 4천명을 징집한 인력을 이용하였다.<sup>62)</sup> 이때 산릉의 능실은 태종의 명에 따라 석실로 하되 바닥은 돌을 사용하지 않고 석회와 세사를 사용하여 조영하였다.<sup>63)</sup> 그리고 석등 앞에는 건원릉처럼 좌향석이 치장되었다. 태종은 원경왕후 민씨의 능침을 좌로 약간 치우치게 조영하여 우측 자리를 남겨 훗날 자신의 신후지지로 삼게 하였다. 원경왕후 민씨의 능소 혈장의 천광깊이는 13척 3촌이었고 흙의 빛깔은 번지르르하고 윤택하여 水氣는 없었다고 전해진다.<sup>64)</sup>

태종은 1422년(세종 4년) 5월 10일 연화방 신궁에서 승하하였다.<sup>65)</sup> 세종은 3도감을 구성하면서 박자청과 심보를 산릉도감 제조, 그리고 공조참판 이천을 국장도감 제조로 임명하였다.<sup>66)</sup> 태종의 능침을 조영하기 위하여 세종은 인부 2천명을 징발하여 태종의 능침을 쌍릉 형식으로 조영하였다. 그렇지만 능침의 상설제도는 건원릉의 제도와 다르지는 않았고, 단지 상설만 두 배로 치장하였을 뿐이다. 즉 태종과 태종비의 능침 앞에는 각각 단릉일 때 치장되는 상설을 한 것이다. 이로서 조선왕릉 조영제도에서 단릉으로 조영된 건원릉에 이어 쌍릉 형식이 등장하였다.

한편 1423년(세종 5년) 박자청이 죽은 후 국왕 산릉 능역 역사는 공조판서 이천이 이어갔다. 이천은 조선이 건국된 후 태조2년 별장에 임명되어 태종 2년 무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이천은 세종 재위당시 장영실 등과 함께 여러 계측 기계

60)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7월 10일(병자).

61)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7월 10일.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이원으로 국장도감도제조를 삼고, 호조 판서 정역과 전 유후 권진과 공조참판 이천으로 제조를 삼고, 청평 부원군 이백강으로 산릉도감제조를 삼고, 판좌군도총제부사 박자청·전 부윤 서선으로 제조를 삼았다.

62) 『세종실록』 권9, 세종 2년 8월 15일(신해).

63) 『세종실록』 권9, 세종 2년 9월 4일(기사).

64) 『세종실록』 권9, 세종 2년 9월 7일(임신).

65) 『세종실록』 권16, 세종 4년 5월 10일(병인).

66) 『세종실록』 권16, 세종 4년 5월 10일(병인).

등을 발명하여 세종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문종은 세종이 승하하자 이천을 중추원사로 임명하여 산릉 역사를 담당하게 하였다.<sup>67)</sup> 이때 조영된 왕릉이 舊 英陵으로 현재 순조의 인릉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세종의 구 영릉이 조영되면서 그 이전의 왕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치장물이 등장하였다. 조선왕릉 능침 주위에 치장되는 석물 중 구 영릉이 조영되기 이전에는 石馬가 치장되지 않았다. 석마의 새로운 등장은 고려후기의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로 송대 황제와 황후릉의 석물제도가 기록되어있는 『송회요집고』에서 참작되었다. 그래서 구 영릉에는 북송 황제의 능격에 따라 석마를 추가하여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1442년(세종 24)에는 ‘산릉수리도감’을 설치하여 건원릉과 제릉·현릉에 석마를 더하여 치장하도록 하였다.

조선 5대 왕으로 등극한 문종은 재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였다. 단종은 문종의 국상을 치르기 위하여 윤사로를 빈전도감제조로 삼고, 영의정 황보인을 빈전·국장·산릉 등 3도감의 총호사로 삼았다.<sup>68)</sup> 이때 황보인, 우의정 김종서, 좌찬성 정분 등은 산릉도감과 국장도감의 제조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종친의 대표로 산릉 조영에 관여하여 석실 제조를 담당하는 수기색제조를 맡았다.<sup>69)</sup>

문종의 산릉은 삼도감과 수양대군에 의해서 건원릉처럼 계좌정향으로 자리를 잡고 병풍석과 난간석을 치장한 모습으로 조영되었다. 하지만 문종을 조영하면서 신도비는 세우지 않았다. 국왕의 업적은 실록에 상세히 기록되니 신도비는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세조는 1455년 윤6월 11일 조선 7대 국왕에 즉위한 후 14년간 보위에 있었다. 세조는 자신의 보위를 둘째 아들이었던 예종 李暲<sup>70)</sup>에게 양위하였다.<sup>71)</sup> 세조로부터 보위를 양위 받은 예종은 수강궁 중문에서 즉위하였다. 세조는 예종의 즉위식을 본 다음날인 세조14년 9월 8일 승하하였다.<sup>72)</sup> 예종은 즉위한 다음날 부왕의 국상을 치르기 위해 국장도감제조에 고령군 신숙주 등, 산릉도감제조에는 영

67) 『문종실록』 권10, 문종 1년 11월 8일(임인).

68)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5월 15일(정미).

69)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5월 16일(무신).

70) 이황은 훗날 세조를 이어 등극한 예종으로서 재위기간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다.

71)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7일(계해).

72)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8일(갑자). ; 『세조실록』 권47, 세조 14년 9월 8일(갑자).

의정 이준·능성군 구치관 우의정 김질 등을 임명 하였다.<sup>73)</sup> 예종은 세조의 園陵으로 쓸 만한 땅을 찾으라는 명을 내리자<sup>74)</sup> 다음날 밀성군 이침, 영순군 이부, 영의정 이준 등이 풍양으로부터 돌아와 鄭欽之의 분영이 능침에 적합하다는 보고를 받는다.<sup>75)</sup> 예종은 각 도감들에게 정흥지의 묘자리를 다시 살피게 한 후<sup>76)</sup> 상지관 안효례로부터 산릉의 형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들었다.<sup>77)</sup> 아효례로부터 설명을 들은 예종은 세조의 산릉을 정흥지의 분영으로 결정하였고, 능실 조영은 회격으로 만들며, 봉문의 형태는 세조의 유지대로 난간석만 두르게 하였다.<sup>78)</sup>

그러나 고령군 신숙주·능성군 구치관·상당군 한명회·좌의정 박원형· 김질 등 원상들은 예종이 능실을 회격으로 설정한 사항에 대해서 능침을 석실로 쓸 것을 건의하였다. 원상들이 능실의 조영을 석실로 건의한 이유는 첫째 先王의 능침은 모두 石室로 조영 했는데 세조가 遺命으로 쓰지 못하게 한 것은 스스로 억제해 줄 여서 백성의 폐를 덜게 함이고, 둘째 능침이 견고성과 명가·복완 등의 물건을 간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세조가 친히 주관하여 조영한 의경세자와 장순 왕후의 능실은 모두 석실을 쓰고 병풍석만 없었으니 세조의 능실도 석실로 조영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예종은 세조가 석실은 유명무실한 것이므로 쓰는 것이 옳지 못하고, 태비 정희왕후도 세조의 ‘유교를 어길 수 없다.’고 하여 원상들의 석실 조영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았다.<sup>79)</sup> 그래서 세조의 광릉은 지금까지 조영된 왕릉들과는 달리 봉분을 둘러 감싸고 있는 병풍석과 주변의 석물은 난간석만 남기고 모두 없었고, 능실의 조영은 석실에서 회격으로 바꾸어 조영하였다.

한편 세조의 광릉은 주산에서 바라보았을 때 좌측 산줄기에는 정희왕후의 능침을 우측 산줄기에는 세조의 능침을 조영하였다. 이러한 형식을 同園離岡 형식이라고 하는데 세조의 광릉이 조영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조성왕릉의 조영형식이다. 조선왕릉의 동원이강형식은 세조의 광릉 이후 예종의 창릉과, 성종의 친모 인수

73)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7일(계해).

74)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17일(계유).

75)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18일(갑술).

76)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30일(병술).

77)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10월 3일(기축).

78) 『예종실록』 권1, 즉위년 9월 19일條. 예조에 전지하기를, “陵寢에 모두 石室을 썼는데 大行大王께서 석실을 만들지 못하도록 명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遺命을 준봉하여 아름다운 덕을 이룩하게 하라.” 하였다.

79) 『예종실록』 권1, 즉위년 9월 22일(무인).

대비의 능침, 성종의 선능을 조영할 때 이용되었다. 그 후 조선 5대 문종비 현덕 왕후 권씨의 능침이 문종의 좌측 산줄기로, 조선 14대 선조의 목릉이 선조비 유릉 우측 산줄기에 천장되면서 동원이강 왕릉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조영된 동원이강 왕릉은 목릉을 끝으로 더 이상 조영되지 않았다. 아래 〈표 2-3〉은 고려의 공민왕 현정릉 부터 조선 7대 세조의 광릉을 조영할 때 적용된 조영형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의 내용으로는 각 왕릉의 봉분 조영형식과 능실제도, 그리고 좌향석(정중석)과 원찰의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국명	보위	능호	묘호	조영연도	형식	능실제도	좌향석 (정중석)	원찰	조영 관계자
고려	31	正陵	공민왕 비	1365	쌍릉	석실	有	운암사	김사행
		玄	공민왕	1372					
조선	1	貞陵	태조 계비 신덕왕후 강씨	1397 1409	단릉	석실	?	홍천사	
		齊陵	태조비 신의왕후 한씨	1407	단릉	?	?	연경사	
		健元陵	태조	1408	단릉	석실	有	개경사	
	2	厚陵	정종 비 정안왕후 김씨	1412	쌍릉	석실 석실	無	홍교사	박자칭
			정종	1441					
	3	獻陵	태종 비 원경왕후 민씨	1420	쌍릉	석실 석실	有 有	무	
			태종	1422					
	4	舊 英陵	세종 비 소헌왕후 심씨	1446	합장 릉	석실	?	무	이천, 수양 대군
			세종	1450					
		英陵	천장 (이계전 묘터)	1469	합장 릉	회격	無	신록사	정인지, 서거정 구치관 김질 등
	5	顯陵	문종 비	1441	동원 이강	회격	無	무	황보인 김종서 수양대군
			문종	1452					
	7	光陵	세조	1468	동원 이강	회격	無	봉선사	서거정 구치관 김질 등(정흠지 묘터)
			세조 비 정희왕후 윤씨	1483					

〈표 2-3〉 조선초기 왕릉의 조영제도

## 2. 왕릉의 입지

조선왕릉이 들어설 수 있는 지형은 풍수적인 측면에서 길지이어야 했다. 보통 풍수적으로 吉地라 함은 능침자리를 둘러 감싸고 있는 지형이 좌우에 두 개의 龍脈이 생성되어 중앙에 있는 용맥을 감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은 산이 감싸는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깥의 물과는 반대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이런 곳에서는 안쪽의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반대로 바깥쪽의 물이 안쪽으로 넘쳐 들어오지도 못한다. 풍수에서 이런 물의 흐름을 逆水라고 한다. 조선왕릉의 입지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왕릉이 들어서는 입지요소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1) 왕릉 입지의 傳來

고대사회에서 인간은 신분정도에 따른 喪葬禮를 거쳐 사후세계로 인도되었다. 그 중 최고지배층이었던 황제나 왕의 죽음은 그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매장된 입지는 산중·산기슭·평지·강가 등의 지역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왕릉의 입지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통하여 고대국가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 볼 수도 있다.<sup>80)</sup> 고대 삼국 왕들의 무덤에 대해서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당시의 정황, 빈전장소, 상복기간, 왕릉의 위치 등에 관한 내용을 남겼다.<sup>81)</sup> 그들은 선왕의 죽음을 기록으로 전하면서 동시에 때에 맞춘 제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풍습은 고려조에까지 이어져 고려 국왕의 장례절차도 일반인과 달랐다. 그 예는 고려 공민왕의 현정릉을 조영할 당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사대부들의 묘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고려 공민왕의 현정릉 능침은 등

80) 文銀順, 「6~7세기 高句麗 왕릉과 百濟·新羅 왕릉의 구조 비교」, 『고구려발해연구』36輯, 2008, 121~122쪽.

81) 이근직, 「신라의 喪葬禮와 陵園制度」,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8권, 2007, 204쪽.

근 원형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고려 사대부들의 묘는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  
다. 첫째, 바닥에서 돌을 쌓아 무덤의 전면과 양쪽 측면은 반듯한 직사각형의 형  
태를 하고, 묘의 뒷부분만 둥근 원형의 형태로 거북의 꼬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형태, 둘째 앞과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돌을 쌓아 사면을 전부 반듯한 직선  
으로 만들어 직사각형의 형태가 되도록 하였다. 〈그림 2-3〉의 최영장군 무덤  
의 형태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최영장군 묘

그런데 고려국왕의 왕릉을 조영할 때는 비보풍수가 반영되었다. 비보풍수는 전  
체적 국면에서의 상대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大同的인 풍수이며, 터의 좋고 나  
쁨을 차별치 않는 大乘的인 풍수이다. 이러한 비보풍수적 전통은 중국이나 일본  
의 풍수와는 다른 고려시대를 풍미한 한국풍수의 원형이었다. 비보풍수의 주역은  
도선이며, 비보사탑설이 그의 이론적 뼈대였다.<sup>82)</sup> 고려왕릉은 바로 이러한 비보

82) 최원석, 『도선국사 따라 걷는 우리 땅 풍수기행』, 시공사, 2,000, 6쪽.

풍수적 토대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 예는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현·정릉에서 잘 나타난다. 고려 현·정릉은 〈그림 2-4〉를 통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인 풍수론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곳에 조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공민왕의 현·정릉의 산세는 능침으로 들어가는 용맥 산줄기가 중앙의 용맥이 아닌 곁가지 용맥이며, 물의 흐름은 능침 안쪽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과 바깥쪽에서 흐르는 물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물의 흐름을 흉지로 보고 있다. 원래 길지라 함은 하나의 용맥이 있으면 그 좌우에 두 개의 용맥이 생성되어 중앙에 있는 용맥을 감싸는 형태이다. 그리고 물의 흐름은 산이 감싸고 있는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깥의 물과는 반대방향으로 흘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안쪽의 물이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반대로 바깥쪽의 물이 안쪽으로 넘쳐 들어오지도 못한다. 풍수에서 이런 물의 흐름을 逆水라고 한다.



〈그림 2-4〉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현·정릉

특히 현·정릉을 조영한 얼마 안 지나서 조영된 조선왕릉의 입지와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조선왕릉의 입지는 일반적으로 구릉진 언덕 아래쪽에 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좌측(동쪽)에 청룡이, 우측(서쪽)에 백호를 이루는 언덕이, 그리고 후방에는 주산이 있다. 이때 수계를 살펴보면 혈이 있는 곳에서 빠져 나가는 물의 방향과 청룡 백호 바깥쪽에서 흐르는 물의 방향은 서로 반대로 되어있어야 길한 형국으로 본다. 조선시대에 행해진 왕릉의 입지는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켜야 했다. 이런 점을 고려 왕릉과 조선 왕릉의 입지에 있어서 드러나는 차이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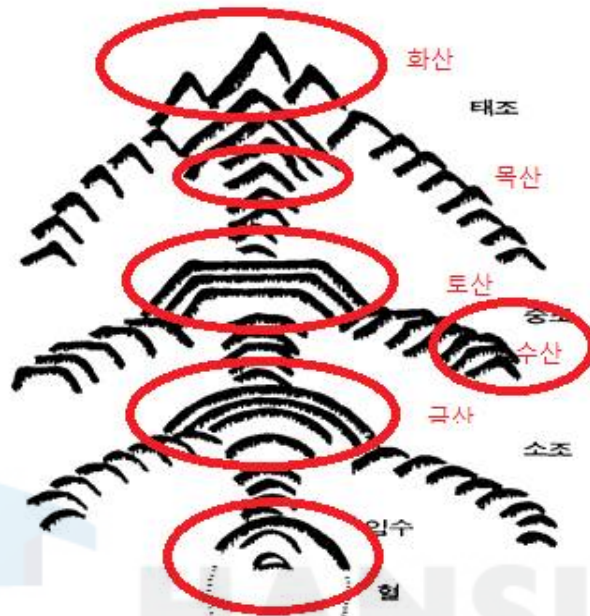
## 2) 왕릉입지의 山論과 山圖

왕릉택지로 사용될 산을 둘러본 후 산세에 대한 길흉을 글로 설명한 산론과 그림으로 설명한 산도가 있다. 조선시대에 산론과 산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관상감의 관원들이었다. 관상감의 관원들은 산론과 산도를 총호사 등에게 올려야 했다. 원래 산도는 언제부터 그려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태종 이방원은 육조의 능을 돌아보고 육릉의 산세를 그렸다.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에 산도가 그려지기 시작한 첫 번째 기록이다. 하지만 현재 그 당시에 그려진 산릉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현재 전해지는 산도를 보면 시대에 따라 회화양식이 달라질 때마다 그 경향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본을 모사할 때는 처음 제작될 당시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때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3)</sup>

〈그림 2-5〉는 풍수 산도를 그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5가지 형태의 산을 조합해 놓은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5개의 산은 ‘오성도’라고도 하는데 불길이 솟아오르는 형상을 한 산을 화산, 산의 모양이 삼각형 형태이면서 끝이 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으면 목산, 산의 상단부가 평평한 형상을 하고 있으면 토산, 자갈한 산들이 물결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수산, 둥근 바가지를 얹어놓은 형상을 하고 있으면 금산이라고 하였다. 이상 다섯 개의 산들은 각각 풍수적 기능과 뜻을 간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도는 풍수서에 삽화되어있는 산도에서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83) 이형운, 「조선시대 산도를 통해서 본 지리인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39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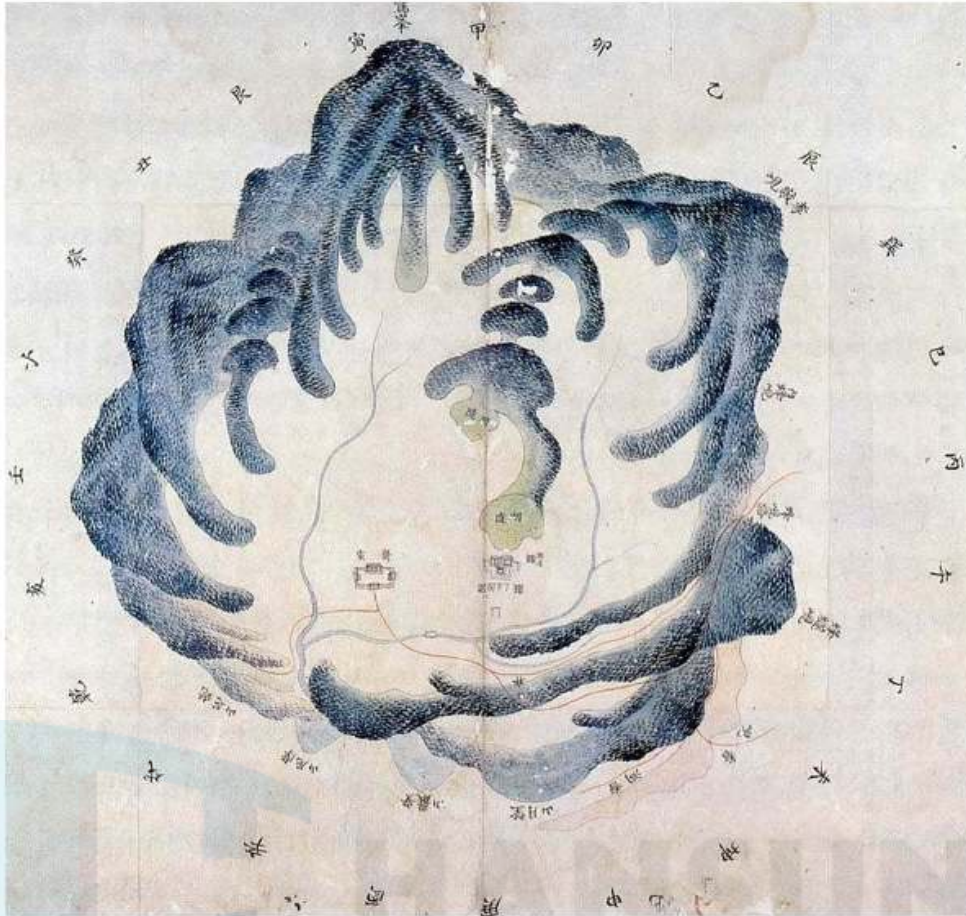
산도는 오성도를 입체와 면체로 번갈아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실제의 산형이 연상되도록 그렸다. 국왕과 총호사 등은 왕릉택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론과 더불어 산도를 참조하여 검토를 해 가면서 산세에 대한 논쟁을 하였다. 논쟁의 결과는 곧 그 대상지를 사용하는 여부를 가리는 행위였다.



〈그림 2-5〉 오형산의 기본 도형(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1999, 127쪽 참조)

〈그림 2-6〉은 숙종의 명릉 산형을 풍수적 사고에 의하여 그려진 산도이다. 명릉의 산도에는 숙종과 제 1계비 인현왕후, 그리고 제 2계비였던 인원왕후의 능침이 표시되어있다. 숙종은 1720년 승하하였고, 계비 인현왕후 민씨는 1701년 승하하였다. 그리고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는 1757년(영조 33) 춘추 71세로 승하하였다. 이로보아 산도가 그려진 시기는 대략 1757년 이후로 보고 있다. 명릉산도가 처음에 그려진 때는 1701년(숙종 27) 인현왕후가 승하하였을 때로 추측된다. 인현왕후가 승하한지 8일이 지난 후 총호사 이세백이 산릉을 둘러보고 와서 산도와 산론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sup>84)</sup>

84)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 8월 22일(신사). 摠護使李世白奉審山陵而還, 進山圖及地師山論, 定以向庚之制.



〈그림 2-6〉 속종 명릉 산도

〈그림 2-7〉은 명릉의 전경을 위성으로 바라본 구글어스 사진인데 이 사진을 잘 살펴보면 산도가 그려질 당시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산도는 〈그림 2-6〉에서처럼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면위에 둥근 형태로 윤곽을 잡는다. 그리고서 가장 중심이 되는 능침의 혈처는 중앙 배치한다.

속종의 명릉은 위성도인 〈그림 2-7〉과 산도인 〈그림 2-6〉을 비교해 보면 실제 지형과 산도의 그림이 일치하고 있다. 위성도인 〈그림 2-7〉은 위쪽이 북쪽이고, 산도인 〈그림 2-6〉의 위쪽 방향이 서쪽이다. 그래서 〈그림 2-6〉을 90도 우측으로 회전하여 실제 지형과 비교하여보면 〈그림 2-7〉의 위성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 숙종 명릉 위성도



〈그림 2-8〉 숙종명릉 현황사진

〈그림 2-8〉은 〈그림 2-7〉의 원 안에 있는 숙종의 명릉을 실제 촬영한 사진이다. 정자각 뒤로 보이는 능침이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의 명릉이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능침이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의 무덤이다. 이러한 왕릉의 형식을 동원이강 왕릉이라고 한다.



## 제 2 절 조선왕릉의 遷葬과 舊陵地

조선왕릉이 다른 국가의 왕릉과 비교하여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으로 遷葬을 들 수 있다. 천장은 이미 조영된 왕릉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천장은 대개 왕릉의 입지에 문제가 발생되어 실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무엇 때문에 천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실제와 그 사유를 밝혀보려고 한다.

조선시대의 왕릉이 천장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와 풍수적인 사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천장은 왕릉뿐만 아니라 왕실의 친인척과 儒家들의 경우에도 행해졌다.

### 1. 遷葬왕릉

조선시대에는 〈표 2-4〉에서처럼 10기의 왕릉이 천장되었는데, 천장 사유는 정치적 및 풍수적인 이유로 구분된다. 10기의 왕릉 중 풍수적 사유로 천장된 왕릉은 세종 영릉, 선조 목릉, 효종 영릉, 인조 장릉, 정조 건릉 등이다. 그리고 정치적 사유로 천장한 왕릉은 태조 비 신덕왕후 貞陵, 중종 비 장경왕후 유씨 희릉, 중종 靖陵, 순조 인릉, 고종 비 명성왕후 홍릉 등이다. 이들의 천장 사유를 다시 조선 전후기로 나눠보면 전기에 4건, 후기에 6건으로 분류된다.

구 분	천장 된 왕릉	초장	천장	구광	신광	천장 주체	천장 사유	구광 터 활용
1	태조비 신덕왕후 강씨 정릉	1408	1409	황화방 북원	사을한 기슭	태종	도성100리 이내	유가의 집터
2	세종 英陵	1450	1469	세곡동 현릉 우측	여주	예종	광중에 물이 난다	23대 순조 인릉
3	중종비 장경왕후 유씨 희릉	1515	1537	세곡동 현릉 우측	고양 서삼릉	김안로	광중 바닥 이 암반	
4	중종 정릉	1544	1562	고양 서삼릉	광주 학당동	명종(문 정왕후)		
5	선조 목릉	1608	1630	건원릉 우측	건원릉 좌측	심명세	광중에 물이 침투	24대 현종 경릉
6	효종 寧陵	1659	1673	건원릉 우측	여주 홍제동	현종	석물에 틈과 물고임	21대 영조 원릉
7	인조 장릉	1649	1731	파주 운천리	파주 교하	영조	능침에 뱀전갈 발생	
8	정조 건릉	1800	1821	용릉 좌측	용릉 우측	순조	능침에 탈이 발생	
9	순조 인릉	1834	1855	장릉 국내	현릉 우측	철종		
10	고종 비 명성왕후 홍릉	1895	1차, 1897. 2차, 1919	송릉 우측	1차, 청량리 홍릉, 2차 남양주 금곡	순종즉 위년	풍수상 길지가 아님	

〈표 2-4〉 조선왕릉 천장 사례

조선전기에 발생한 천장으로는 태조 비 신덕왕후 강씨 정릉, 세종 영릉, 중종 비 장경왕후 유씨 희릉, 중종 정릉 등 4건이 있다. 이들의 천장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종은 1409년(태종 9)에 貞陵을 사을한으로 천장하였다.<sup>85)</sup> 둘째, 예

종은 1469년(예종 1) 세종의 英陵을 여주로 천장 하였다.<sup>86)</sup> 예종이 세종의 영릉을 천장한 이유는 장지에서 물이 나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셋째, 중종은 1537년(중종 32) 자신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의 희릉<sup>87)</sup>을 헌릉 서쪽 언덕에서 고양으로 천장하였다. 그런데 중종의 왕위를 이은 명종은 1562년(명종 17) 장경왕후와 함께 치장되어 있었던 부왕 중종의 정릉<sup>88)</sup>을 고양에서 성종의 선릉 곁으로 천장하였다.<sup>89)</sup> 중종 후기에 거행된 희릉의 천장도 명목상으로는 풍수지리상 불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유는 김안로가 자신의 정적이었던 정광필을 축출하기 위해서였다. 김안로에 의해 희릉이 천장된 후 충호사였던 정광필 그리고 이언적·나세찬·이행·최명창·박소 등 많은 인물들을 유배되거나 사사되었다. 그 와중에 경빈박씨와 복성군 등 종친도 죽음을 당하였고, 왕실의 외척 윤원로·윤원형도 실각 당하였다.<sup>90)</sup> 넷째, 명종대 시행된 중종의 정릉 천장도 표면상으로는 풍수적인 사유였으나, 인종의 뒤를 이은 명종이 중종의 종계를 이은 정통성을 표방하고자 한 뜻에서 실행되었다. 그리고 중종의 정릉 천장은 문정왕후가 중종이 장경왕후와 같은 원칙에 있는 것을 꺼리어 옮기도록 하여 자신이 죽은 후에 같은 무덤에 묻힐 계획을 한 것이다.

다음은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왕릉의 천장으로 선조 목릉, 효종 영릉, 인조 장릉, 정조 건릉, 순조 인릉, 고종비 명성왕후 홍릉 등이 있다. 이들의 천장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조는 1630년(인조 8) 건원릉 우측 산줄기에 있었던 선조의 목릉을 의인왕후 박씨의 무덤이 있는 건원릉 좌측 산줄기로 천장하였다. 이때 천

85)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2월 23일(병신).

86) 세종 28년(1446) 세종비 소헌왕후가 승하한 후 헌릉의 서쪽 산줄기에 쌍실을 갖춘 능을 조영하였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자 합장하였으나 세조 때 영릉의 터가 풍수상 좋지 않다고 하여 왕릉을 옮기자는 주장에 따라 예종1년(1469) 여주로 천장 하였다.

87)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첫 번째 계비인 장경왕후 윤씨의 왕릉으로 서삼능 경내에 있다. 희릉은 원래 헌릉 서쪽 언덕에 조성되었으나 중종의 부마 김안로가 희릉 밑에 큰 돌이 있어 풍수상 불길하다 주장 하여 중종32년(1537) 현재의 위치로 천장하였다. 이후 중종의 왕릉이 장경왕후 곁에 동원이강릉의 형식으로 조성되어 정릉이 되었다. 그런데 명종17년(1562) 문정왕후에 의해 중종의 정릉이 선릉 옆으로 천장되어 장경왕후 왕릉은 다시 희릉으로 불리게 되었다.

88) 정릉은 원래 인종1년(1545) 서삼능 능역에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 윤씨의 왕릉과 함께 동원이 강릉 형식으로 치장 되어 있었으나, 명종17년(1562) 중종의 두 번째 계비 문정왕후 윤씨가 풍수상 좋지 않다 하여 현재의 위치로 천장 되었다.

89) 『신증동국여지승람』 제6권, 「광주목」, 능묘 편. “선릉 주 서쪽 30리 학당동에 있다. 성종대왕의 능이다.”

9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김안로.

장 사유는 선조의 무덤 호석에 틈이 생겨 물이 들어간다는 원주목사 심명세의 상소 때문이었다.<sup>91)</sup>

둘째, 현종은 1673년(현종 14) 건원릉 우측 산줄기에 있던 효종의 寧陵을 여주 홍제동에 있는 세종 英陵좌측 산줄기에 천장하였다. 천장 사유는 역시 능침의 석물에 틈이 생기고, 능역에 물이 고인다는 풍수적 사유였다.<sup>92)</sup> 셋째, 영조는 1731년(영조 7) 파주 운천리에 있었던 인조의 장릉을 파주 교하로 천장하였다. 천장 사유는 능침 사이에 뱀이 있어 흉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sup>93)</sup> 넷째, 순조는 1821년(순조 21) 정조의 건릉을 사도세자의 용릉 우측 산줄기로 천장하였다.<sup>94)</sup> 천장 사유는 건릉의 능침에 탈이 생기는 등 풍수적 사유이었다.<sup>95)</sup> 다섯째, 철종은 1834년 순조의 인릉을 1855년(철종 6) 파주에서 헌릉의 우측 산줄기에 천장하였다.<sup>96)</sup> 그런데 이 자리는 과거 세종이 영릉이 있었던 자리였다. 여섯째, 추존 왕이었던 문조의 왕릉은 천장산 아래 산줄기에서 16년간 있다가 양주 용마산으로 천장된지 6년 후 다시 건원릉 화소지역으로 천장하였다. 일곱째, 고종비 명성황후 민씨의 洪陵은 고종의 왕릉과 합장하기 위해 1919년 3월 4일 천장산 아래에서 현재의 자리로 천장하였다.

국왕의 사친 천장 사례는 〈표 2-5〉에서처럼 연산군의 사친 폐비윤씨, 인조의 사친 정원군, 정조의 사친 사도세자, 현종의 사친 문조 등이 있다. 성종의 왕비였던 폐비윤씨의 무덤은 연산군이 화릉으로 추송하였으나,<sup>97)</sup> 연산군이 폐위되자 회묘로 강등되었다. 조선 16대 인조는 사친 정원군의 무덤을 양주에서 김포로 천장한 후 국왕으로 추송하였다.<sup>98)</sup> 조선 22대 정조는 사친 사도세자를 추송하기 위하여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성으로 천장시킨 뒤 무덤의 봉호를 영우원, 현릉원 등으로 승격시켰다.<sup>99)</sup> 문조는 원래 석관동에 있는 경종의 의릉 좌측에 조성되

91) 『인조실록』 권22 인조 8년 2월 4일(갑인).

92) 『현종실록』 권19 현종 12년 8월 24일(임인).

93)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3월 16일(기묘).

94) 『순조실록』 권23 순조 21년 3월 22일(임신).

95) 『순조실록』 권7 순조 5년 4월 9일(임술).

96) 『철종실록』 권7, 철종 6년 1월 18일(임오).

97) 『연산군일기』 권52 연산군 10년 3월 24일(을유).

98) 정원군은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사친으로 1632년(인조 10년) 왕으로 추송되어 元宗이 되었다. 부인은 인현왕후 구씨이며 원래의 묘는 양주군에 있었고 인조가 즉위하자(1622년) 홍경원이라는 園號를 받았다. 1627년(인조 5년) 김포로 천장되었고, 1632년 원종이 왕으로 추송되면서 章陵이라는 능호를 받았다.

99) 용릉은 조선 영조의 둘째 아들로서 사후 왕으로 추송된 장조와 부인 헌경왕후 홍씨를 합

어 16년간 있다가, 풍수상의 이유로 양주 용마산 아래로 천장되었으나 6년 후인 1855년(철종 6) 다시 건원릉 좌측 산줄기로 천장하였다.<sup>100)</sup>

번호	천장된 사친	초장	천장	舊墳	新墳	천장주체	천장사유
1	연산군 사친 폐비윤씨 회묘	1482	1969	현 경희대 의료원	서삼릉 국내	연산군	개발
2	인조의 사친 정원군 章陵	1619	1627	양주 합촌리	김포 성산	인조	풍수상 흉지
3	정조의 사친 사도세자 용릉	1762	1789	양주 배봉산	화성	정조	풍수상 흉지
4	헌종의 사친 문조 수릉	1830	1차, 1846 2차, 1855	의릉 좌측	1차:양주, 용마산 2차:건원릉 좌측	1차:헌종 2차:철종	풍수상 흉지

〈표 2-5〉 조선 국왕 사친 무덤의 천장

이상 천장의 원인과 이유를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왕릉을 비롯한 왕실 무덤의 천장은 국왕과 왕실의 일원들이 관여를 했지만, 천장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들은 대개 사대부들이었다. 이로 보아 조선시대의 유가들은 분명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지만, 풍수지리설의 학설과 논리 또한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장한 무덤이다. 원래 용릉은 1762년(영조 38) 5월 21일 뒤주 속에서 죽은 사도세자를 7월 23일 배봉산 아래 언덕에 예장하여 수은묘라 하였다. 이후 정조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수은묘를 영우원으로, 존호는 사도에서 장헌으로 바꾸었다. 1789년(정조 13년) 영우원은 다시 현유원으로 바꾸고, 동년 10월 7일 수원 화성으로 천장하였다. 1899년(고종 36) 11월 장종으로 추승되고 왕릉 능호를 용릉이라 하였고, 그해 12월에는 장종에서 장조로 묘호가 다시 바뀌었다.

100) 『철종실록』 권7, 철종 6년 1월 18일(임오).

## 2. 舊墳地에 조영된 왕릉

조선시대에 천장된 왕릉은 10기이다. 천장된 후 남아있던 舊墳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세종의 구 영릉터에는 순조의 인릉이 천장되어 왔다. 천장 사유는 仁陵을 봉안한 지 21년이나 되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철종은 순조의 인릉이 풍수상 자리가 좋지 않다고 하자, 천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능지를 찾아 나섰다. 領府事 鄭元容 등이 “지금 慈教는 至誠에서 나온 것이고, 筵席에서의 하교는 聖孝가 감동된 것이니, 欽仰을 금할 수 가 없다. 그러나 지극히 중대하고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니, 우선 術業이 精明한 사람을 널리 구하여 상세히 看審하게 한 후에야 행할 수 있겠습니다.”<sup>101)</sup> 라고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인릉의 천장은 철종이 獻陵에 나아가 親祭하면서 직접 看審하였다.<sup>102)</sup> 그 후 순조의 인릉은 현릉의 오른편 언덕으로 천봉되었다.<sup>103)</sup> 순조의 인릉이 천장한 곳은 과거 세종 영릉이 있었던 자리이다. 세종의 영릉이 천장된 이유는 광중에 물이 나온다는 이유를 들어 여주 홍제동으로 천장 하였다. 그런데 근 400여년이 지난 후 그 자리에 순조의 인릉이 천장되어 왔다.

선조의 목릉은 임진왜란 후 건원릉 우측 산줄기에 조영되었다. 이때 광해군은 임영대군의 묘산에 선조의 왕릉을 조영하려고 했었다. 그 이유는 충호사 기자헌이 선조의 능 자리에 대해서 상소한 내용 때문이었다. 상소의 내용대로라면 건원릉은 광해군에게 매우 불리한 곳이었다. “충호사 기자헌이 아뢰기를, “土人 鄭熙周의 말에 의하면, 李淳風의 地理書에 있는 五音山 死者生運의 相生相克法에 ‘金山에 木生人을 장사지내면 자손이 9년 안에 병을 얻어 죽게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山陵의 正穴이 金方이고 大行王의 본래 生命은 木에 속하기 때문에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여러 術官들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sup>104)</sup> 그러나 예조에서 이순풍의 산론은 듣도 보지도 못한 풍수설이라 일축시키며,<sup>105)</sup> 임영대군의 묘는 왕릉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와 함께 건원릉 우측 산줄기와 수원을 추천하였다.<sup>106)</sup>

101) 『철종실록』 권7, 철종 6년 1월 18일(임오).

102) 『철종실록』 권8, 철종 7년 2월 20일(무신).

103) 『철종실록』 권8, 철종 7년 2월 22일(경술).

104) 『광해군일기』 권2, 광해 즉위년 3월 15일(임인).

105) 『광해군일기』 권2, 광해 즉위년 3월 15일(임인).

결국 선조의 목릉은 예조의 강력한 추천과, 당시 정국을 쥐고 있었던 이덕형과 이항복의 반목으로 건원릉 우측 산줄기로 결정되었다.<sup>107)</sup> 하지만 목릉은 무덤이 조성 된지 22년 뒤 인조에 의해서 천장하였다. 인조대 원주목사 심명세는 인조에게 목릉의 인산과정을 상소하면서 천장을 주장하였다. 심명세는 인조에게 “목릉은 穴道가 우뚝 드러나고 지형이 비탈지고 험준하고 안쪽에 가려주는 산이 없어 큰 들과 평평히 맞닿아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 곧바로 보이니,,,”<sup>108)</sup> 라고 상소 하였다. 당시 인조는 자신의 사친 정원군을 추숭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였다. 인조는 사친 정원군을 추숭하기 위해서 1627년 이미 김포로 천장을 해놓고 있었다. 이런 상황 하에 1630년 심명세의 상소가 올라온 것이다. 이에 인조는 목릉을 지금의 자리로 천장한 후<sup>109)</sup> 5년 뒤 사친 정원군을 추숭시켰다.<sup>110)</sup> 선조가 천장하고 남은 舊陵地에는 조선 24대 헌종 비 효현왕후<sup>111)</sup>의 왕릉택지로 결정되었고, <sup>112)</sup> 그 후 헌종과 계비 효정왕후 홍씨도 좌우에 치장되었다.

효종은 1673년(현종 14) 10월 7일 건원릉 우측 산줄기에서 세종의 영릉이 있는 여주 홍제동으로 천장하였다.<sup>113)</sup> 효종의 무덤이 천장된 이유는 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분명 풍수적인 문제가 있어 천장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정조는 자신이 조부 영조의 무덤을 조영한다. 정조가 영조의 능 자리를 선정하는 과정은 사친 사도세자의 천장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는 매우 간소하였다..

사실 이러한 예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가 자신들의 사적인 삶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국왕 무덤을 놓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 된 것은 국가 통치 권력의 중심축이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왕릉의 천장과 구광의 활용은 조선을 이끌어간 사대부 유가들의 풍수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06) 『광해군일기』 권3, 광해 즉위년 4월 1일(정사).

107) 『광해군일기』 권3, 광해 즉위년 4월 25일(신사).

108) 『인조실록』 권22, 인조 8년 2월 4일(갑인).

109) 『인조실록』 권23, 인조 8년 11월 4일(기묘).

110) 『인조실록』 권26, 인조 10년 5월 11일(무신).

111) 안동김씨 김조근의 달로 1823년(순조 28) 3월 14일 태어났다.

112) 『헌종실록』 권10, 헌종 9년 9월 18일(정해).

113) 『헌종실록』 권27, 헌종 14년 10월 7일(계묘).

## 제 3 장 조선왕릉의 택지과정

### 제 1 절 왕릉택지의 조건과 선정기관의 구성

#### 1. 왕릉의 택지와 선정 요건

##### 1) 유교적 요건

조선의 유가들은 왕릉택지를 하는데 있어서 유교적 도리를 표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입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조선 왕릉의 분포 양상을 보면 대부분 도성을 중심으로 약 40km이내에 분포하고 있다. 한양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북서쪽에 서오릉·서삼릉·파주삼릉·장릉 등이 있고, 북동쪽에는 동구릉·광릉·태강릉·의릉 등이 조영되어있다. 그리고 한강 남쪽에는 현릉과 인릉 그리고 여주에 英陵과 寧陵 등이 있다. 이렇게 도성을 중심으로 왕릉이 배치된 사례는 중국 황릉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명나라의 13개 황릉은 북경 북쪽에 집단으로 조영되었고, 청나라 황릉은 북경기준 동·서쪽 근 100여km 밖에 집단적으로 조영했다. 그런데 조선왕릉이 도성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것은 중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삼아서 취한 것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명나라와 조선의 건국 연대는 같은 시기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조선과명나라는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건국한 나라였기 때문에 예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릉을 집단적으로 조영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국왕들이 선대의 왕릉에 행차하여 능제를 행 한 것에서, 그리고 국왕에 즉위한 후 선왕의 능침에 배알하러 가는 행차에서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 주는 예로 영조대에 행해진 능행을 예로 들어보겠다. 보위를 이은 국왕은 선왕의 왕릉을 조영함으로 백성들에게 국왕의 권위를 드러낸다. 그리고 왕릉의 조영이 끝나게 되면 그곳에 행차하여 능제를 행한다. 이때 능제를 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고을로부터 각종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궁이 있는 도성에서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고,

왕릉 주변에는 능행과 능제를 위한 인력과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관아가 있어야 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 되어야 국왕은 능으로의 행차가 수월했을 것이다.

이러한 능행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영조대에는 무려 44회의 능행이 실행되었다.<sup>114)</sup> 그래서 영조는 능행을 위한 계획을 무리 없이 실행하기 위하여 능이 있는 지역을 거리에 따라서 분류해 놓았다. 그 내용은 1749년(영조 25) 영조의 명으로 간행된 『度支定例』에 실려있다. 『度支定例』의 내용에는 왕릉을 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單陵, 近陵, 遠陵, 諸陵, 豐德 및 驪州陵幸 등으로 구분하였다.<sup>115)</sup> 이때 원릉은 ‘經宿之地’ 즉 하루 이상 걸리는 곳이며 제릉은 동쪽과 서쪽에 있는 五陵이라고 하였다. 풍덕과 여주는 거리가 멀어 여러 날이 소요 되므로 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9세기 초 호조의 財用에 대한 기록인 『萬幾要覽』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다만 『萬幾要覽』에서 지칭하는 제릉은 곧 ‘동칠릉’과 ‘서오릉’을 말하는 것이다.<sup>116)</sup> 국왕의 능행에 있어서 굳이 거리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능행에 수반되는 비용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조선조의 역대 왕들은 능행에 알맞은 거리인 한양 100리 이내에서 명당을 찾았다.<sup>117)</sup>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대부 자신들의 宗山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함과 국왕의 능행시 뒤따르는 수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인 것으로도 보인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점을 왕릉 택지에 있어서 유교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즉 왕릉의 택지에는 능행을 하였을 때 가급적 당일 환궁을 할 수 있는 거리의 개념이 반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4)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110쪽 표 26 참조

115) 『度支定例』 권1 排設房 別例.

116) 김지영, 앞의 논문, 2005, 125쪽 참조.

117) 성동환, 「현릉원 천원과 화성건설을 통해 본 정조의 풍수지리관」, 『한국사상사학회』 2001, 한국사상사학 제17집, 126쪽.

## 2) 풍수적 요건

조선왕릉의 입지와 현황을 논하는데 있어서 풍수지리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풍수지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擇地 · 도읍 · 궁택 · 능묘의 위치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치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일이다.<sup>118)</sup> 이러한 논리는 결국 고려를 이어 건국한 조선에서도 초기 定都·營陵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sup>119)</sup>

조선건국 초, 계룡산 일대에 도성을 새로 수축하려다가 포기한 사건이 있었다. 계룡산의 땅은 산이 乾方(북서방향)에서 오고 물이 巽方(남동방향)에서 흘러간다고 하니, 이것은 송나라 胡舜臣이 이른 바, ‘물이 長生을 破하여 衰敗가 곧 닥치는 땅’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데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때 태조는 고려의 여러 산릉의 길흉을 조사해 보고토록 하였다.<sup>120)</sup> 그것은 고려의 운명이 산릉의 길흉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태조의 명에 따라 하륜등은 산수의 오고간 것을 조사해 보니, 길흉이 모두 맞아떨어졌다고 했다. 그리하여 태조는 계룡산의 역사를 그만두고 다른 땅을 보도록 하였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보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태조의 풍수에 대한 신뢰는 매우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동북면은 우리 조상의 산릉이 있는데, 그 산맥의 地理가 보통 땅과는 아주 다르다”<sup>121)</sup>고 하면서 산줄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태조가 승하하자 영의정부사 하륜 등을 보내어 산릉 자리를 보게 하였다.<sup>122)</sup> 이때 왕릉 대상지로 둘러본 자리들은 原平의 예전 蓬城, 海豐의 幸州 등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양주의 儉巖이 태조의 왕릉 입지로 택지 되었다.

유교이념 하에서 풍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시기는 세종연간이었다. 세종은

118) 이기백, 「한국 풍수지리설의 기원」, 『한국사 시민강좌』 제14집, 1994, 2쪽.

119) 이상태, 「조선 초기의 풍수지리사상」, 『사학연구』 제39호, 1987, 204~205쪽.

120)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2월 11일(임오). 또 한 사유는 도읍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남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擇中論으로서, 도읍지 선정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인식되었다.(賀業鉅 저·윤정숙 역, 『중국 도성제도의 이론』, 이회, 1995, 85쪽).

121)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5월 27일(병진).

122)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6월 12일(기축).

상·장례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한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길지와 길일을 얻어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이유로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세태에 대해서 ‘先王의 制禮는 天子·大夫·士를 막론하고 葬事에 대한 기한이 각각 달수로 정해 있는데, 후세의 陰陽家들이 많은 禁忌에 구애되어 시기가 넘어도 장사하지 아니하니, 나는 심히 민망히 여기는 바다’라고 책망을 한 뒤, 그 규정을 새로 정비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sup>123)</sup> 그래서 贊成致事 鄭以棼등이 정리하여 만들어진 책이 『葬日通要』이다.<sup>124)</sup>

세종은 주자가 수용한 사마광과 程子の 卜地에 관한 견해를 적극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사마광의 「葬論」이나 程子の 「葬說」은 모두 禍福說을 취하지 않고 禁忌에 구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례의 이치에 가장 가까워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조선 사회도 사마광이 언급한 바와 같은 세태가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이었다. 세종의 정책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신분에 따른 장사 기한을 준수토록 하여 왕권을 확립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동기감응설을 수용하여 왕릉의 길지 선택에 풍수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수론은 조선 중기에 이르러 풍수론이 중국의 당, 송 이후로 두 유파로 갈라진 것처럼 조선에서도 形勢論(形氣論과) 理氣論으로 갈라진다. 형세론은 중국의 강서지방에서 유행했다고 해서 강서법이라고도 하며, 산과 물의 형세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또 하나는 이기론으로 복건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였으며 방위파라고도 한다. 이기론은 경우에 따라 이론이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았다. 이는 술사들마다 나침반(패철)을 놓고 측정한 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고, 또 술사들 사이에 나침반 측정 지점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수법 체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

123) 『세종실록』 권3, 세종 원년 3월 9일(계축).

124) 『장일통요』에서는 첫 머리에 『禮記』·『春秋』에 기재된 葬期의 설을 실었다. 이것은 王制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당시 민간의 상례에는 불교의 유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김현전 제학 윤회 등은 불교 유습의 척결뿐 아니라, 『文公家禮』에 의하여 卿士와 庶民의 喪祭에 관한 예를 정하여 품위와 등급에 차등을 둘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水陸齋만을 설행하게 하고 그 나머지 예절의 조목은 하나같이 『주자가례』에 의거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세종은 ‘천자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 士는 1개월’이라는 신분에 따라 장사의 기한에 차등을 둔 예제를 마련하였다.

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합리적인 설명에 한계가 있었던 이기론에 대해서 정조임금은 이기론 보다는 형세론을 더 중시하였다. 정조는 형세와 이기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것이긴 하지만 형세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형세에 따른 좌향을 취하되, 분금은 부수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만약 형세가 뚜렷하여 분명히 안대를 취할 수 있으면 분금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이유는 정조는 “이기론은 난해하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을뿐더러 분금으로 인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하며 형세론을 중요시 했다. 정조 시대에 대부분의 지사들은 이기론을 고집하여 이론에 집착하였다면, 정조는 눈으로 보아 편안하고 아름다움을 주는 곳을 선호하였다. 그래서 정조는 분금을 맞출 때에도 확실하게 형세로 드러나는 구슬을 향해 안대를 맞출 것을 지시했다.<sup>125)</sup> 그리고 광중의 깊이에 있어서도 만약 흑시라도 7자에 이르지 않고도 황색이 열리지려고 하면 곧 중지하여야하니, 대개 누런 곳을 뚫고 지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조는 원침의 혈이 평탄하기 때문에 얕지도 않고 깊지도 않게 파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모름지기 열게 파고 깊이 파지 말아서 차라리 길한 기운이 밑으로 지나가게 할지언정 위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뜻을 명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서 미리 살펴 정하라”고 지시한다.<sup>126)</sup> 풍수의 목적인 “乘生氣”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개 이러한 이유로 왕릉택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수반 되었다.

125) 성동환, 『현릉원 천원과 화성건설을 통해 본 정조의 풍수지리관』 2001, 한국사상사학 제 17집, 128쪽 ~ 142쪽 참조.

126)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22일(병오)

## 2. 왕릉택지 선정기관의 구성과 활동

### 1) 총호사 및 산릉도감 제조 임명

국왕이 승하하면, 예조에서는 의정부에 申報하고서 중외에 파발을 보내 訃告함과 동시에 공문을 보내어 각각 그 직무를 다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조에서는 빈전·국장·산릉의 3도감을 설치하였다. 3도감에는 각각 제조를 정하고 총괄하는 도제조로는 總護使라 칭하여 喪葬에 관한 모든 일을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였다.<sup>127)</sup> 산릉도감은 조선 초기 왕릉을 조영할 때 임시로 설치되는 기구로서 총호사가 전체적으로 지휘하였다. 주요 구성원은 제조·도청·낭청·감조관·산원·의원·서원·녹사·서리·고직·사령 등이었는데, 대개 산릉도감에 소속된 관원들이었다.

산릉도감의 임무 중 가장 먼저 실행되는 임무는 국왕의 육신을 매안할 터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 터는 풍수적으로 길지이어야 했다. 그래서 산릉도감에서는 왕릉의 능소 대상지에 대한 풍수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했다. 그 인력은 대개 관상감의 풍수를 담당하는 관원을 활용하였으나 때로는 재야의 인물을 추대하여 활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선발된 지관들 중 우두머리를 相地官이라 하였다. 상지관과 지관들은 관상감의 관원들과 함께 看審團을 구성하였다.

조선왕릉을 조영하는 총 책임자였던 총호사와 산릉을 조영하는 산릉도감제조의 현황 그리고 상지관의 활동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1〉은 조선 전기에 왕릉을 조영할 때 총호사와 산릉도감제조의 현황이다. 조선전기 까지 총호사와 산릉도감제조를 맡았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총호사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삼도감의 제조 이름만 거론되었다. 아마도 총호사는 대개 삼정승 중 한사람이 맡아 국장업무를 추진했을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조묘도감도제조 또는 삼릉도감도제조라는 용어가 등장하다가 문종의 현릉을 조영하면서 총호사가 등장하였다.

127) 『國朝五禮儀』 권7, 흥례, 戒令.

해당 왕릉	총호사 및 산릉도감 제조		
태조 건원릉	造墓都監判事	판좌군도총제부사	朴子靑
정종 후릉	산릉도감제조	전 도총제 전 도관찰사	呂 稱 李伯持
태종 현릉	山陵都監都提調 제조 제조	청평부원군 판좌군도총제부사 -	李伯剛 朴子靑 沈 寶
세종 영릉	산릉도감제조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	李 藏
문종 현릉	삼도감 총호사	영의정	皇甫仁
단종 莊陵			
세조 광릉	산릉도감제조	영의정 능성군 우의정 좌찬성 우찬성 중추부 지사 한성부윤 예조판서 이조판서	李 浚 具致寬 金 碩 金國光 韓繼美 金漑·尹士昕 徐居正 任元濬 成 任
예종 창릉	산릉 도감제조	창녕군 청천군 우의정 진례군 행 호군	曹錫文 韓伯倫 金國光 李 衡 韓致亨
성종 선릉	산릉 도감 제조	좌참찬 공조 판서 광양군	鄭文炯 柳 洵 李世佐
증종 정릉	산릉 도감 제조	공조판서 이조정랑 호조판서	柳仁淑 柳 洵 愼居寬
인종 효릉	산릉 도감 제조	예조판서 공조판서 동지중추부사	林 權 鄭士龍 權應昌
명종 강릉			
선조 목릉	총호사	우의정	許 瑱

〈표 3-1〉 조선전기 총호사 및 산릉도감 제조 현황

〈표 3-2〉는 조선후기 인조 ~ 경종대 왕릉을 조영할 때 총호사와 산릉도감 제조조의 현황이다. 이 시기에는 총호사와 산릉도감제조조의 이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총호사는 인조의 국장을 제외하곤 한명이 주관하여 산릉이 완료될 때까지 책임을 다했다. 다만 산릉도감 제조는 업무의 성격상 여러 분야를 관장하다 보니 여러 명을 동시에 임명하여 업무를 보게 하였다.

	산릉도감 제조		
	직위	직함	성명
인조 長陵	총호사	영의정	李景奭
		영의정	鄭太和
	산릉 도감 제조	군자감정	趙 翼
		우의정	鄭世觀
		우의정	韓興一
		-	尹履之
		판의금부사	李時昉
		형조판서	呂爾載
효종 寧陵	총호사	영의정	沈之源
	산릉 도감 제조	좌의정	鄭致和
		개성유수	金南重
현종 崇陵	산릉 도감 제조	우의정	洪重普
		한성부윤	閔鼎重
숙종 明陵	총호사	좌의정	李健命
	산릉도감제조	공조판서	申 任
		경주부윤	金 演
		-	李光在
		예조판서	俞命弘
		영의정	洪致中
		홍문관교리	李 緯
		형조판서	俞集一
		병조판서	趙道彬
		-	李光在
		정언	吳命峻
경종 懿陵	산릉도감제조	우의정	沈壽賢
		정랑	李明彦
		-	師 尙
		-	李光在

〈표 3-2〉 조선후기 인조 ~ 경종대 총호사 및 산릉도감 제조 현황

〈표 3-3〉은 조선후기 영조에서 조선 말기 헌종대 왕릉을 조영할 때 총호사와 산릉도감 제조의 현황이다. 특징적인 사실은 정조대에 진행된 영조의 국장시기에만 여러 명의 총호사가 임면되었다. 그런 반면에 다른 국왕의 국장 때에는 한명의 총호사가 주관하였다.

이상 〈표 3-1〉 ~ 〈표 3-3〉까지 총호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인조와 영조의 국장에서는 다른 국왕의 국장에서와는 달리 다수의 총호사가 등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조 元陵	총호사  산릉도감제조	영의정	申 晦
		영의정	金尙喆
		영의정	金陽澤
		영의정	鄭存謙
		이조판서	尹東暉
		이조판서	洪樂性
		호조판서	具允鉦
		공조판서	朴宗德
		예조판서	金鍾正
		-	李重祐
정조 健陵	총호사 산릉도감제조	형조판서	韓光會
		좌의정	李時秀
		한성부 판윤	徐有隣
		형조판서	金文淳
순조 仁陵	총호사 산릉도감 제조	병조판서	李得臣
		좌의정	洪奭周
		병조판서	徐畊輔
		형조판서	李勉昇
헌종 景陵	총호사 산릉도감 제조	-	金敎根
		영의정	趙寅永
		형조판서	趙鶴年
		목사	李鼎臣
		정헌대부	尹致秀
		-	李軒求
		한성부 판윤	洪在喆

〈표 3-3〉 조선후기 영조 ~ 헌종대 총호사 및 산릉도감 제조 현황

## 2) 산릉간심과 상지관의 활동

### (1) 相地官의 선정

相地官이라는 용어는 ‘상지를 하는 관원’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듯하다. 조선 초기에 상지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세종대 부터이다. 1436년(세종 18) 세종은 知承文院事 鄭陟에게 명하여 相地와 畫工을 거느리고 함길도 · 평안도 · 황해도 등의 道에 가서 산천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려 오게 하였다.<sup>128)</sup> 이때의 상지는 ‘지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1441년(세종 23) 빈궁의 능소인 안산 고읍을 간심하는 과정에서 典農寺의 종[奴] 睦孝智가 上言하기를, “무릇 相地法 은 祖宗으로써 근본을 삼는 것이오니,,,,,,”<sup>129)</sup> 여기서 상지법은 ‘지관’이 풍수를 보는 법을 말한다. 이후 1468년(예종 즉위년) “세조의 능소를 찾기 위해 신숙주 · 구치관 · 조석문 등에게 상지관을 거느리고 경기에 가서 상지하게 하였다.”<sup>130)</sup> 라는 구절에서 상지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여기서 상지관은 조선조 때 觀象監의 한 벼슬로서 대궐 자리·능 자리 등의 ‘地相을 보는 벼슬아치’를 말한다. 요약하자면 상지관은 궁궐이나 왕릉을 택지할 때 지리나 지세, 풍수 등 포괄적인 의미로 ‘지형을 살피는 관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지관은 어떻게 선출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왕릉의 산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대부분의 논란은 산릉 대상지의 풍수적 평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때 산릉에 대한 풍수적 평가는 산릉도감에서 구성한 看審團이 주관하였다. 간심단은 여러 지관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들 중 풍수학에 밝은 사람을 선발하여 상지관으로 임명하였다. 상지관으로 선발된 지관들은 대개 관상감에서 활동하는 관원들이었다. 관상감 관원들이 품계와 구성은 교수 이하의 관원들로서 지리학교수(종6품) 1명, 주부(종6품) 2명, 직장(종7품) 2명, 봉사(종8품) 2명, 부봉사 3명(정9품), 참봉 3명(종9품) 그리고 지리학훈도(종9품)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131)</sup> 이중에서 풍수지리에 정통하고

128) 『세종실록』 권71, 세종 18년 2월 29일(을축).

129) 『세종실록』 권93, 세종 23년 8월 25일(기축).

130)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18일(갑술).

131) 『經國大典』 권1, 이전, 경관직.

경험이 많은 자를 선발하여 산릉도감에 파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4>는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간심단의 현황이다.

구 분	상지관
인 조	관상감 교수 崔 楠, 관상감 부봉사姜後尙 <sup>132)</sup>
효 종	관상감 교수 洪汝博, 전 훈도 金克晩 <sup>133)</sup>
현 종	관상감 교수 柳庭翰, 관상감 교수 韓必雄 <sup>134)</sup>
숙 종	관상감 교수 韓斗翼, 관상감 겸교수 李聖時 <sup>135)</sup>
경 종	관상감 교수 鄭 倬, 전 첨사 朴枝萬 <sup>136)</sup>
영 조	관상감 교수 朴象器, 전 주부 尹就殷 <sup>137)</sup>
정 조	관상감 교수 朴興素, 전 찰방 安思彦 <sup>138)</sup>

<표 3-4> 조선후기 왕릉 간심 상지관 현황

간심단에 합류한 지관들 중 방외지사가 있다. <표 3-5>는 방외지사들로서 이들이 간심단에 합류한 상태에서 현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직명이 없기에 임으로 軍職을 부쳐주었다. 국가의 업무를 현직 관료가 아니면 담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散料이 지급되었다.<sup>139)</sup> 국장 당시 간심에 참여하는 지관들은 관직에 있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었다. 이들은 향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던 중 국장이 발생되면 임시로 지관에 봉해져 공무를 수행하였다. 그래서 동시대에 생존했던 인물들은 국장과 관련하여 몇 차례 간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132)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장서각, 2007), 12쪽.

133) 『효종산릉도감의궤』(K2-2320) 좌목.

134) 『현종산릉도감의궤』(K2-2323) 좌목.

135) 『숙종산릉도감의궤』(K2-2328) 좌목.

136) 『경종산릉도감의궤』(K2-2329) 좌목.

137) 『원릉산릉도감의궤』 3월 초5일, 좌목.

138) 『건릉산릉도감의궤』 좌목.

139) 『효종산릉도감의궤』(K2-2320) 계사, 5월 17일.

구 분	국장 때 간심에 참여한 방외지사
인 조	전정량 成櫟, 전현령 李衍, 이필, 최남재
효 종	반호의, 전 별제 이유필, 이필, 이간, 전 사과 윤홍경, 부사과 성준룡, 전참의 윤선도, 행부호군 이원진, 목릉참봉 이최만, 사인 박세옥
현 종	회양부사 鄭昌燾, 부사정 洪錫龜, 호조정랑 南宮楫, 전정량 愼景尹, 전주부 權順善, 전사용 權順泰, 지관 潘好義, 金克晩, 이유필, 남언호, 좌참찬 李尙眞과 호조참의 鄭維岳, 전 현감 李取晩
숙 종	도감 지사 한두익 박종검, 검교수 이성시 및 방외지사 전직장 하주, 조지서별제 양재흥, 국별장 이신정, 유학 김용명
경 종	검교수 곽진곤, 교수 김우하, 훈도 정탁, 동지 지여항, 전첨사 박지만, 사과 이철, 사용 나만우, 사용 이준재
영 조	도감 지사 교수 안사언, 전주부 박상기, 전현감 車亨道, 사인 張振翼, 전주부 李衡允, 金鼎相, 李秀弼, 吳震說, 金道鼎, 전오위장 金重河, 유학 安載健
정 조	행호군 金養直, 행부호군 鄭旭, 돈녕부주부 金應一, 훈원원판관 崔翼, 부사용 尹守九, 丁志璿, 姜必齊

〈표 3-5〉 조선후기 왕릉 간심에 참여한 방외지사

간심단 일행은 총호사를 비롯하여 예조판서, 관상감제조, 지관, 화원, 書寫員, 서리, 書員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들 중 상지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산릉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이었다. 현종이 승하했을 때 상지관 등 간심단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종이 승하한 후 일주일 쯤 지나서 숙종은 관상감에 대행대왕의 산릉을 간심하는 일에 착수하도록 명했다. 이 명을 받은 관상감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보관 중인 장부를 열람하여 간심할 만한 산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해당 전문가와 예조의 관원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일정한 논의를 거쳐 대상이 될 만한 산을 확정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sup>140)</sup> 처음에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풍수상 적지가 아닐 경우에, 산릉도감에서는 다시 치부책을 반복하여 조사하고 열람하였다. 그리하여 대상지를 추가로 초출하고, 이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조와 간산에 참여한 지사를 포함하여 경외의 지사들에게도 추천을 의뢰하였다.

140) 『현종산릉도감의궤』 계사, 8월 26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효종 국장 때 지사로 참여한 전참의 윤선도와 행부호군 이원진이다.<sup>141)</sup> 看山에는 산릉도감 당상이 함께 가는 사례가 본래 없었다. 그렇지만 작질이 높고 풍수에 해박한 사람이 여러 의논을 절충하고 취사할 수 있다고 하여, 산릉도감 제조로 하여금 지관들을 거느리고 가도록 하였다.<sup>142)</sup> 총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지휘하기도 하였으며, 예조판서와 관상감제조도 참여하였다.

산릉의 간심과 결정은 왕실의 안녕과 발전을 기약하는 심리적·관습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 간심에는 당시 최고 수준의 지사가 참여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추천된 지사는 예외 없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효종 국장 때 추천된 전 현령 李衍의 불참 문제로 시비가 일었다. 이간은 뒤에서 언급할 것처럼, 인렬왕후의 장릉을 택지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인조 入葬 때 길지인지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여 그 자질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地術을 높이 평가해 이번 간심에도 참여토록 추천되었다.

한편 산릉도감은 병조에 요청하여 소속 상지관 등이 타거나 물건을 실을 말을 지급하게 하였다. 또 대상지의 간심이 끝날 때마다, 총호사는 임금에게 山論과 山圖를 포함한 狀啓를 올렸는데, 이에 따라 산도를 그릴 화원이 따라갔으며, 그에 필요한 도구 일체도 장만해 가야 했다. 지관들은 산릉지의 간심뿐 아니라, 산릉지가 결정이 된 후에는 혈 자리를 측정하는 裁穴을 하고 그곳에서 正穴을 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혈자리를 표시하고자 사방에 封標하고 울타리를 빙 둘러 쳐놓았다. 그 후 길일을 정하여 穿壙하고, 金井을 열며, 補土하는데 이를 직접 실행하거나 감독 지시하였다. 택일은 승하한 국왕의 생년월일을 계산하여 길일과 길시를 택하는 행우로서 관상감에서 정하였다. 택일과 관련해서는 산릉의 役事를 시작하는 날, 나무와 풀을 베고 흙을 파는 일과 관련하여 后土神에게 제사지내는 날, 용가를 짓고 금정을 파는 날, 발인 및 하현궁하는 날과 시각 등이다.

141)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5월 16일.

142) 『현종산릉도감의궤』 계사, 8월 26일.

## (2) 왕릉 택지 후 상지관의 활동

왕릉으로 사용될 산릉 택지가 결정 되면 산릉도감에서는 본격적으로 산릉 조영 작업에 착수하였다. 산릉도감에서는 玄宮 및 정자각, 齋房을 영조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각 소의 임무는 왕릉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건축물과 상설을 준비하는 것이었다.<sup>143)</sup>

상지관의 또 다른 업무로 산릉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시설 건축물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실제 왕릉을 답사해 보면 각 왕릉에 치장된 조영 형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왕릉이 자리 잡고 있는 지형의 지세에 따라서 시설물들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비보풍수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왕릉을 택지함에 있어서 길지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실제 왕릉을 조영하는 과정에서 보토의 대소 그리고 연지의 모양이 원형 또는 방형으로 조영된 이유가 바로 상지관들의 또 다른 활동인 것이다.

143) 산릉도감에서 시설물을 축조하는 부서를 조성소·대부석소·소부석소·보토소·별공작·분장홍고·변와소·수석소라 하였다. 이들 각 부서의 책임자는 감조관 이었다. 이들 각 부서의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 조성소 : 정자각 이하 각 건물의 조성을 담당한 부서이다. 좌목을 보면, 낭청 2명과 감조관 3명,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석소 : 羊石 馬石 籠臺 加簷 등 봉분 주변의 석물 조성을 담당하였다. 浮石은 돌을 떠내다라는 순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좌목을 보면, 낭청 3명과 감조관 2명,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소부석소 : 정자각 이하 모든 축조물의 기초를 세우는 공역을 담당하였다. 좌목을 보면, 낭청과 감조관 각 1명과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보토소 : 능지를 풍수지리의 기준과 형식에 맞게 땅을 돋우고 사초를 정비하는 공역을 담당하였다. 별공작 : 정자각과 전사청 및 각소에서 필요로 하는 기물을 제작하여 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성소의 감조관이 겸찰하였다. 冊印別工作이라 하여, 印幟과 竹冊幟 官敎外函을 만들고 各房에 진배하는 소용잡물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다. 감역관 1명과 기타로 구성되었다. 분장홍고 : 정자각 이하 각처의 塗縹와 鋪陳 그리고 그 제작을 담당한 장홍고의 임시 파견분소이다. 分差官 1명과 기타로 구성되었다. 포진은 각양의 紙地와 油氈, 席子 등을 가리킨다. 변와소 : 각 종류의 瓦甴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부서이다. 분차관 1명과 기타로 구성되었다. 瓦甴 근처에 설치되었으며, 瓦의 종류로는 中大瓦와 小方甴, 大防草, 常防草, 半方甴, 常瓦 등이 있다. 수석소 : 원의 조성에 필요한 돌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소는 소부석소의 낭청과 감조관이 兼察하였다.

## 제 2 절 조선왕릉의 택지과정 검토

상지관을 비롯하여 간심단은 왕릉택지를 위하여 간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간심대상지는 기존에 치부 해 두었던 봉표지와 각 처에서 추천된 곳을 검토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개 간심대상지로 선정되는 곳의 위치는 각 왕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각 왕릉 간심 대상지 위치는 사대부들의 묘산, 왕실 가족의 묘산, 아무런 묘도 조성되지 않은 새로운 곳, 선왕의 왕릉 능역, 그리고 승하한 국왕이 생전에 지정한 곳 등이다. 이러한 간심 대상지는 조선시대 전 기간 중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 1. 15세기에 조영된 왕릉택지

조선 태조의 健元陵은 동구릉에서 가장 중앙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원릉은 주산인 검암산 아래 중심 능선에 癸坐丁向(정북에서 동쪽으로 약간 기운 방향)으로 조영되었다.<sup>144)</sup> 건원릉의 택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실록에 매우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당초 태조는 수릉제도를 택하여 택정을 해놓은 상태였다.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판삼사사 정도전 등에게 廣州의 壽陵을 살피게 하였다.<sup>145)</sup> 하지만 태조가 승하하자 태종은 태조의 왕릉 택지를 영의정부사 하륜에게 맡겼다. 하륜은 검교판한성부사 劉旱雨와 전 書雲正 李陽達 등이 原平의 예전 蓬城에서 길지를 얻었다고 하여 가서 보았으나 봉성의 땅은 쓸 수 없고, 海豐의 幸州에 있는 땅이 地理의 법에 조금 합당하다고 하였다.<sup>146)</sup> 그 뒤 검교참찬의정부사 김인귀가 추천한 儉巖을 왕릉택지로 결정하고 건원릉을 조영하였다.<sup>147)</sup>

정종의 후릉은 개성군 풍덕군 울촌에 쌍분으로 조영되어있다. 두 개의 봉분중 서쪽의 봉분이 정종의 능이며 동쪽 봉분은 정안왕후의 능이다. 후릉은 송악산을 주산으로 하고, 그 능선을 이은 언덕에 입지하고 있다. 북쪽에 앉아 남쪽을 향하

144)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54쪽 참조

145) 『太祖實錄』 권8, 태조 4년 7월 11일(壬寅).

146) 『太宗實錄』 권15, 태종 8년 6월 12일(己丑).

147) 『太宗實錄』 권15, 태종 8년 6월 28일(乙巳).

는 형태로 정남에서 서측으로 5도 기울은 계좌정향으로 조영되었다.<sup>148)</sup>

태종은 좌의정 하륜에게 廣州에 가서 壽陵자리를 보게 하여 광주 서쪽에 있는 대모산의 남쪽 산줄기를 택정하였다.<sup>149)</sup> 1420년(세종 2) 태종 비 원경왕후 민씨가 승하하자, 건원릉 화소지역을 외면하고 대모산 자락에 능자리를 정했다.<sup>150)</sup> 이 자리를 穿壙깊이는 13척3촌이었으며, 흙의 빛이 번지르르하고 윤택하여 水氣는 없었다고 전한다. 태종은 원경왕후 민씨의 능을 동쪽으로 치우치게 치장하여 서쪽자리를 남겨두어 훗날 자신의 자리로 삼았다.<sup>151)</sup> 이곳 현릉의 지세는 대모산을 주산으로 하고, 중심 능선 끝자락에서 북측에 앉아 남쪽을 바라보는 즉 정남에서 동측으로 10도 기운 乾坐巽向이다. 右王左妃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쌍릉으로서 현릉 碑陰記에 보면 ‘북쪽으로 도성까지 30리쯤 되는 거리이며, 산맥이 장백산에서 내려와 남쪽으로 수 천리 지나 상주 속리산에 와서 서쪽으로 꺾여있고, 또 수백리를 지나 천의 청계산에 이르러 다시 동북쪽으로 꺾이어 한강 앞에 그쳤는데 이것이 대모산으로 되었다.

세종도 태종이 그랬던 것처럼 현릉의 서편에 壽陵처를 확보 하였다. 우의정 하연 등은 수릉을 쓰일 자리를 보고 와서 山論의 조목을 講論하여 글을 올렸다.<sup>152)</sup> 이 글의 주요 골자는 〈표 3-6〉과 같다. 당시 세종의 수릉지를 살펴보고 온 간심단의 의견은 큰 견해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당시 서운부정 최양선은 혈자리가 본래 壬落인데 坎落을 주장하다가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sup>153)</sup> 세종은 이러한 시비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강론으로 채택하여 현릉과 세종의 수릉지는 풍수상으로 온전한 길지임을 주장하였다. 이후 세종의 舊 英陵은 현릉에서 서쪽에 있는 산줄기에 조영되었다. 하지만 예종 즉위년 정희왕후와 한명회 등은 세종의 구영릉이 풍수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여흥 성산의 이계전 분묘가 있는 곳으로 천장하였다.<sup>154)</sup>

148)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1』, 266쪽 참조.

149) 『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11월 15일(戊申).

150) 『世宗實錄』 권9, 세종 2년 8월 24일(庚申).

151) 『世宗實錄』 권9, 세종 2년 9월 7일(壬申).

152) 『세종실록』 권108, 세종 27년 4월 4일(정미).

153)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 정월 30일(병술).

154) 『예종실록』 권2, 예종 즉위년 12월 27일(계축).

구분	산논 내용
1	동서 두 穴이 모두 圖局의 한 가운데에 있다.
2	이 혈은 치우침이 없고 뺄들어짐도 없으며, 八方應對가 온전하여 이지러짐이 없다. 그리고 산이 두텁고 길어서 힘이 넉넉하고 먼 형세가 있으며, 기울어지고 뺄들어졌든가 고단하고 쭈그러진 모양이 없는 中正한 땅이다.
3	主山이 壬에 있고 머리를 숙인 것도 壬이 되어, 純一하고 잡되지 아니하며, 山骨이 역력하고, 내려온 용이 端的하여 연하고 붙고 비껴서 나온 형상이 없으며, 좌우 案對가 알맞고 평평하고 바르며, 한 기운이 일어나고 옆드리면서 굴실굴실 내려와서 5천 3백여 척에 이르러 그쳤다.
4	西穴은 端的하게 일어나고 옆드리면서 東穴과 가지런히 내려왔으니 이는 두 개의 혈을 사용할 수 있는 산이다.
5	현릉으로 두 개의 산줄기가 들어오는 것은 主山과 客山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산줄기가 주산인지에 대해서 다투는 형상이 있음을 주인과 손님의 정이 없다고 이른 것이지 한 산에 두 혈을 가리킨 말은 아니다.
6	어떤 자가 동혈은 正龍이고, 서혈은 傍龍이라 한 것에 대해, 호순신의 大五行法과 論水를 주요 근거로 하여 반박하고, 대모산 정맥이 壬으로 떨어져 두 가지로 나누어서, 乾亥로 머물러서 현릉의 主穴이 되고, 한 가지는 壬으로 머물러서 서혈이 되었으며, 또 主峯과 좌우의 案對의 여러 봉이 모두 土山인데, 돌이 있으니, 이는 壬으로써 임을 응하고 솟로써 솟을 응한 것이니, 이른바 자식이 어미를 떠나지 아니하여 기운이 온전한 땅이다. 두 혈의 길고 짧음도 서로 멀지 아니하고, 한 기운을 나누어 받아 가지런히 내려와서 중앙에 닿아 함께 우뚝 솟았는데, 명당의 물이 그 오는 것은 근원이 없고, 그 가는 것은 흐름이 없으며, 사방이 합하여 두루 돌았으니 上으로 좋은 땅이다. 한 산의 大局 안에서 동서 두 혈의 坐向이 모두 바르니, 偏과 正의 구분은 감히 의논할 수 없다.

〈표 3-6〉 세종의 舊 英陵 택지 선정과정

문종은 부왕 세종의 舊 英陵 근처에 마련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sup>155)</sup> 하지만

155)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5일(병인). 세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壽陵은 모름지기 獻陵 옆에 잡아야 하고, 만일 되지 않는다면 장차 능을 새로 잡아서 쓰겠다’ 하시었으니, 선왕의 뜻은 先陵에 모시어 장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또 지금의 대행 대왕이 또한 일찍이 英陵 서쪽 산등성이에 말을 멈추고 풍수학 관원에게 묻기를, ‘이것이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穴이냐?’ 하고 한참동안 두루 보았으니, 비록 현저히 말씀은 하지 않았으나 그 뜻은 또한 선릉에 모시어 장사하고자 한 것이다.

문종의 왕릉은 건원릉 내 좌측 산줄기에 조영되었다. 이때 풍수사 목효지는 단종에게 문종의 능 자리로 사용될 현릉 내 서쪽 산줄기에 대한 풍수적 견해를 밝혔다.<sup>156)</sup> 그 내용은 “현릉의 來脈은 나는 듯한 봉우리에 거꾸러지는 다리로, 주인은 약하고 객은 강하여 산의 근원이 막다른 땅이다. 그리고 수맥은 동쪽을 향하여 등저 흐르고 穴道는 굽으니 正龍正穴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sup>157)</sup> 다음날 수양대군과 황보인 김종서 등은 목효지를 불러 문종의 능소로 어디를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목효지는 새로운 능 자리로 麻田縣 북쪽의 癸坐丁向 혈과 長湍縣 북쪽의 壬坐丁向 혈을 추천하면서 이들 두 자리의 산수 형세가 건원릉보다 좋다고 하였다.<sup>158)</sup> 하지만 목효지가 언급한 장소는 당시의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만일 목효지의 말 대로 마전이나 장단의 산세가 건원릉 지세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건원릉은 중국사신 ‘기보’ 등이 말한 것처럼 ‘天作의 大地’는 아닌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목효지의 장소는 수양대군과 황보인 등에 의해 묵살되고, 건원릉 좌측 서쪽 혈에 문종의 현릉이 조영되었다.<sup>159)</sup>

단종은 嚴興道에 의해서 강원도 영월 동을지산 산자락에 暗葬된 후 1698년(숙종 24)에 이르러서 추복되었다. 숙종대 발견된 단종의 매장지를 왕자의 무덤을 조영하는 예법으로 치장하였다.

세조의 광릉은 양주 검암산으로 향하는 맥이 잠시 멈추어 혈이 맺어진 곳에 조성되었다. 그곳은 태조의 건원릉이 가까이 있는 곳이다. 예종이 세조의 왕릉 택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표 3-7〉과 같다. 이때 목효지가 건원릉의 산세를 긍정적

156) 이정주, 「세종대~단종대의 정치 변동과 풍수지리 -풍수가 목효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6, 2011.

157)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5일(병인).

158)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6일(정묘). 長湍縣 북쪽의 壬坐丁向 혈이라 하였는데 아마도 壬坐巳向을 誤記한 듯하다. 壬坐丁向은 없다.

159) 『단종실록』 권2, 단종 즉위년 7월 24일(乙卯). 세조와 안평 대군·황보인 등에게 명하여 건원릉에 가서 동혈을 살펴보고 정하게 하다. 영릉의 西穴을 파니 돌이 있어서, 세조와 이융·황보인·김종서·정분·이정녕·정인지·이사철·민신·이사순·이순지 및 풍수학 낭관에게 명하여 건원릉에 가서 東穴을 살펴보고 정하게 하였다. 처음에 영릉 南穴에 물이 있으므로 정인지가 다시 다른 穴을 相地하려 하지 않고, 위의 천광에 가깝게 하려 하니 여러 대신들이 따르지 아니하고서 다시 西穴을 相地하였다. 정인지가 기꺼이 행하려 하지 않으니, 세조가 강제한 다음에 이를 상지하여 壙을 팠는데, 또 돌이 있었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蓋石을 뜨는데 무지개가 곧 나타나서 건원릉에 닿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날짜	지관	간심지	평가
9월 13일	하동군 정인지 <sup>160)</sup>	英陵	-
9월 18일	밀성군 이침 영순군 이부 영의정 이준	豐壤	鄭欽之의 분영이 산 모양이 기이하고 빼어나서 능침에 매우 합당하다. <sup>161)</sup>
9월 19일	고령군 申叔舟	풍양	相地官이 모두 말하기를, '정흠지의 분영이 매우 좋아서 李之直의 분영보다 낫다.'고 하는데, 단지 한 사람만이 말하기를 오른쪽 팔뚝이 좁고 主穴이 기울어져서 흠이라고 하였다. <sup>162)</sup>
9월 23일 9월 26일 9월 28일	고령군 신숙주 능성군 구치관 창녕군 조석문 상당군 한명회 좌찬성 김국광 중추부지사 서거정 예조판서 임원준 상지관 <sup>163)</sup>	연희궁	쓸 만하나 다만 조금 이로우 뿐이다.
		驪興 權聰 부모 묘자리	상지관은 적극 추천
		勝山	
		鄭欽之 朴崑의 묘자리	서거정은 두 대의 자리중 선택 주장
9월 30일	안효례와 경기도사 박승 하동군 정인지	정흠지와 유건의 묘	정흠지의 묘 자리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유건의 무덤이 더 좋다고 추천
	고령군 신숙주와 밀성군 이침·영순군 이부	정흠지와 유건의 묘	유건의 무덤은 쓸 수가 없고 정흠지의 무덤이 능침의 자리로 적합 <sup>164)</sup>
10월 1일	安孝禮와 崔灝元	정흠지의 묘자리	산세가 능침에 적당하나 다만 主穴이 기울어져서 補土하여야 쓸 수 있습니다
	曹守宗	정흠지의 묘자리	백호 안에 작은 언덕을 없애면 더욱 좋습니다. <sup>165)</sup>
10월 3일	안효례	정흠지의 묘 자리	안효례를 당상관으로 승격시킨 후 정흠지의 분영을 산릉으로 정함 <sup>166)</sup>

〈표 3-7〉 세조 光陵 택지 선정과정

160)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13일(기사).

161)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18일(갑술).

162)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19일(을해).

163)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23일(기묘). ;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26일(임오). ;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28일(갑신).

164)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30일(병술).

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을 뒷받침 하는 평가가 있었다. 세조의 능자리를 간심하는 과정에서 정인지가 廣平大君·平原大君 두 大君과 文宗의 묘 자리를 살펴 볼 때에 검암산을 보니, 靑龍 밖에 山水가 등을 저서 흐르고 主穴이 기울고 돌(石)이 많아 쓸 만하지 못하다고 하였다.<sup>167)</sup>

이러한 사료를 통하여 건원릉 동쪽에 있는 문종의 현릉은 풍수적 측면에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건원릉 화소지역에는 문종의 현릉이 조영된 이후 근 200년이 지난 후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산릉이 조영 될 때까지 아무도 왕릉 자리로 선택하지 않았다. 더구나 세조는 자신의 아들 의경세자의 묘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건원릉 화소지역이 언급되었으나 선택하지 않았다.<sup>168)</sup> 이처럼 조선 전기에 왕릉을 조영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능역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예종의 산릉은 懿陵의 북쪽으로 정해졌다.<sup>169)</sup> 이 자리에 대해 정인지만이 “이 산은 청룡이 높고 백호가 낮으니 그다지 사용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다만 서울에서 가까운 점만 취할 뿐입니다”<sup>170)</sup>라고 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지만, 대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성종은 1494년(성종 25년) 12월 24일에 승하하였다. 1495년 1월 10일 윤필상 등을 山陵看審事로 삼고, 이주일 뒤 산릉 자리를 보고 와서 書啓를 올렸다.<sup>171)</sup> 서계의 내용은 〈표 3-8〉에서처럼 왕릉을 택지하는 과정에는 윤필상 · 최호원 · 임원중 등이 주도하여 연산군과 논의 하였다. 주요 간심지는 광평대군의 묘역, 고양군의 관사 뒤, 정이의 묘 등 이었다. 이 세 곳에 대한 평가는 최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광평대군의 묘역이 가장 길한 곳이라고 하였다. 당시 연산군은 이 세 곳 중에서 고양군 관사 뒤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총호사 등은 조부도 국왕에게 있어서는 백성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결국 성종의 왕릉택지는 광평대군의 묘가 있는 곳으로 결정 되었다.

165)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10월 1일(정해).

166)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10월 3일(기축).

167) 『예종실록』 권1, 예종즉위년 10월 1일(정해).

168)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9월 12일(계유).

169) 『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 12월 10일(기미). 지금의 서오릉 경릉의 우측 산줄기.

170) 『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 12월 12일(신유).

171) 『연산군일기』 권2, 연산군 1년 1월 10일(갑오).

지관	간심지	평가
윤필상 등	廣平大君의 묘 鄭易의 묘 高陽郡 官舍	안산 앞에 官이 있고 주산 뒤에 鬼가 있으며, 3월과 4월은 月靉이 되, 어 廣平大君의 묘를 으뜸으로 치고 鄭易의 묘와 高陽郡 官舍 자리가 차 순위 이다.
최호원	고양군	고양군의 땅은 吉만 있고 凶은 없는 것이 광평대군의 묘와 다름이 없으나, 고양에는 다만 초목이 없고, 광평의 묘에는 『胡舜申』의 ‘산이 높고 물이 또 오는 것이 염려된다[恐]’는 말이 있다.
연산군	高陽郡 官舍 廣平大君의 묘	여러 능에 다 官과 鬼가 있다면 고양군 관사도 흉할 것은 없을 듯하며, 광평대군은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도 또한 병이 있기에 부적합하다.
윤필상	정이의 묘	임금의 능으로 합당하나, 광평의 묘에 비하면 훨씬 못하다.
최호원	정이의 묘	『地理書』에 ‘得水가 上이 되고, 藏風이 다음이다’라고 하였는데, 정이의 묘는 청룡이 짧고 백호가 낮고 멀어서 바람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이유로 국왕의 능에는 부적합하다.
임원준	건원릉·현릉	건원릉·현릉은 광평대군의 묘보다는 못하다. 비록 영순군·회원군은 일찍 죽었으나, 그 자손에는 또 번성한 집이 많다.
	고양군	고양은 결코 쓸 수 없고, 월산의 묘는 正穴이 아니다.
	정이의 묘	정혈이 아니다.
	具成良의 묘	산이 험하고 물이 적으니, 다 쓸 수 없다.
	김포·마전의 官舍 자리	광평대군의 묘지보다는 못하다.
	총 평	광평의 묘가 제일이다.
연산군	광평대군의 묘	성종의 능자리로 결정 <sup>172)</sup>

〈표 3-8〉 성종의 宣陵 택지 선정과정

172) 『연산군일기』 권2, 연산군 원년 정월 10일(갑오).

## 2. 16세기에 조영된 왕릉택지

중종은 1544년(중종 39) 11월 15일 승하하였다. 당일 좌·우상이 이조와 함께 의논하여 국장도감을 설치했다.<sup>173)</sup> 5일 뒤 중종의 성복을 거행하고, 세자가 창경궁 명정전 침하에서 즉위하였다. 성복을 마친 11월 25일 총호사 윤인경 등은 山形圖 및 看山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왕릉택지를 시작 하였다. 〈표 3-9〉는 인종이 중종의 정릉을 택지하는 과정이다.

날짜	지관	간심지	평가
1544년 11월 20일	우의정 윤인경	敬陵의 靑龍	-
		禧陵의 서쪽 1백 50보 지점	희릉 서쪽 이 국용에 합당하다.
11월 27일	윤인경	禧陵의 서쪽 1백 50보 지점	재간심하였으나 국용에 합당하다.
12월 2일	윤인경	楊州·廣州	합당한 지역 없음
		희릉에서 1백보 지점	합당한 지역으로 국용에 적합
12월 5일	부제학 송세형	희릉의 서쪽 1백50보 지점	당초에 정해진 결정을 번복하지 말 것 주장
12월 6일	대간	총호사가 데려간 지관 尹霖이 희릉 서쪽 150보 지점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권세를 가진 간신들이 자기들과 다른 자들을 포함하기 위해 꾸민 계략에서 나온 것이니 사실에 동요되지 말 것을 주장.	
12월 13일	윤인경 예조당상 산릉도감 당상	희릉의 서쪽 1백50보 지점	다른 산은 모두 高陽의 새로 정한 산릉에 비해 반에도 미치지 한다. 그래서 國用으로 쓰기에는 처음 결정한 희릉 서쪽 150보 지점이 적합하다.
	인종		“산릉은 이전에 정한 곳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표 3-9〉 중종의 靖陵 택지 선정과정

173) 『중종실록』 권105, 중종 39년 11월 15일(경술).

인종은 즉위한 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되어 승하하였다.<sup>174)</sup> 인종의 국장과 관련하여 送終의 모든 일은 백성의 폐해를 덜도록 힘쓰라는 유지에 따라 대비가 靖陵 근처에서 찾아보라고 하였다.<sup>175)</sup> 좌의정 유관이 간심하고 돌아와서 靖陵의 백호 너머에 형세는 크지 않으나 둘러싼 형상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하였다.<sup>176)</sup> 인종의 희릉 산릉 선정과정은 매우 소략한 편이기는 하나 나름 풍수적 논란은 있었다. 〈표 3-10〉은 인종의 왕릉택지에 대한 내용이다.

날짜	지관 및 관계자	간심지	평가
1545년 7월 1일			인종 승하
7월 5일	중종비 문정왕후	靖陵 인근을 대상지로 선정	-
7월 8일	좌의정 유관	靖陵의 백호 너머	국용에 합당한 지역 발견
7월 11일	영의정 윤인경	靖陵 근처	정릉 인근을 다시 살펴 보니 정릉 백호너머에 艮木山이 있는데 艮坐坤向이고, 得水得破는 卯得申破인데, 靑龍은 겹으로 싸이고 백호는 세 겹으로 되어 體勢가 감싸여 있고 水靑龍이 감돌아 案帶가 되었으며, 水口가 막혔고 刑穴이 분명하여 길하고,  흉함이 없는 것이 정릉의 형세와 같다. 다른 곳에는 이와 같은 데가 없으니 이곳으로 정하길 바란다.
	중종비 문정왕후 및 명종		영의정 윤인경의 뜻대로 정릉 근처로 결정

〈표 3-10〉 인종의 孝陵 택지 선정과정

174) 『인종실록』 권2, 인종 원년 7월 1일(신유).

175) 『인종실록』 권2, 인종 원년 7월 5일(을축).

176) 『명종실록』 권1, 명종 즉위년 7월 8일(戊辰).

### 3. 17세기에 조영된 왕릉택지

#### 1) 선조의 왕릉택지

선조는 초장지에서 풍수적 결함이 발생되어 원비 의인왕후 박씨의 우측 산줄기로 천장하였다. 선조의 천장지는 건원릉을 기준으로 보면 동쪽 이고,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유릉 쪽에서 보면 서쪽 산줄기이다. 이는 의인왕후 박씨의 유릉과의 능자리 배치에 있어서 右上左下라는 자리매김에 맞는 배치이다. 우상좌하라는 배치의 원리는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혈을 중심으로 四神이 형성되는데 혈의 좌측을 청룡, 우측을 백호라고 한다. 청룡은 양의기운이고 백호는 음의 기운이다. 무덤을 조영하는 것 자체는 자연의 기운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 원리인즉 청룡의 우측에는 음의 기운을 배치하고, 바로 옆에는 다시 양의 기운을 배치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원리가 풍수지리에서 논하는 조화의 원리이다. 선조가 천정한 목릉의 택지과정은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능소를 택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선조 비 의인왕후 박씨는 1600년(선조 33년)이었던 6월 27일 46세로 소생 없이 승하하였다. 의인왕후 박씨가 승하하자 당일 빈전도감 · 산릉도감 · 국장도감이 구성되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가 구성되었다. 좌의정 李憲國을 摠護使로, 柳永慶·黃璫·李好閔을 빈전도감 제조로, 李忠元·尹自新·韓浚謙을 산릉도감 제조로, 李廷龜·金晬·盧稷을 국장도감 제조로, 尹洞을 수릉관으로, 李德章을 시릉관으로 삼았다.<sup>177)</sup> 하지만 의인왕후 박씨의 왕릉택지는 국장기간 5개월이라는 규정을 넘기도록 택정하지 못했다. 〈표 3-11〉에서 〈표 3-14〉에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택지과정을 월별로 나누어 구분해 놓았다. 표의 전거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활용하였다.

〈표 3-11〉에서는 1600년(선조 33) 7월 간심단의 활동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쟁 직후여서 국장에 쓸 만한 산을 등급을 나누어 置簿해 놓은 문적이 유실되었고, 능소를 간심 할 술관 또한 모두 흩어진 뒤였다. 그래서 관상감에서는 왕릉택지를 선왕의 능원 화소지역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였다.

177) 『선조실록』 권126, 선조 33년 6월 27일(무술)

날짜	간심 대상지 추천인	간심 대상지역	능소 간심단	왕릉택지 논쟁
7월 1일	관상감 술관	건원릉 화소지역	관상감	선조 승낙
7월 14일	선조	이 지방의 묘산	총호사 이현국은 중국인 섭정국에게 의뢰	선조 승낙
7월 21일		고양 仇知道 안산 所 足 古 介, 두모포	윤근수, 섭정국, 양문성. *섭정국은 구 지도와 소죽고 개 좋다고 함.	22일 * 총호사 이현국, 예조판서 이호민, 공조판서 이충원, 병조참위 한준겸 → 재평가 한 후 조선의 풍수론과 다름을 이유로 반대
7월 21일	총호사 이현국, 예조판서 이호민, 공조판서 이충원, 병조참판 한준겸	포천 신평의 두개의 혈 자리	지관 이의신 * 이의신은 『옥수진경』의 글을 인용하여 사용불가 판정	22일 *총호사 이현국은 예전에 사용했던 자리인지 살핀 후 결정요구.
7월 25일	* 능소 간심단 의견 영의정을 비롯한 삼공은 『오례의』와 건원릉의 치수를 확인하여 다시 신평에 대조해 사용여부를 결정하자고 함.			* 선조는 壬火로 측정된 방위를 믿을 수 없고, 쌍분을 조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평을 쓰기 어렵다고 하였다. 섭정국에게 다시 청문하라 명함.
7월 26일		신평	섭정국 *정혈의 백호에 일족은 쓸 수 있어도 타인을 쓸 수 없다.	* 수파는 감싸 안고 돌아 흘러가는 물이 보이지 않아야 길하다. 또 초도를 보고 좋다고 하였으나 물 흐름을 보고 청룡쪽에 둔덕이 있어야 백호쪽을 쓸 수 있다. 고 하였음. 산릉공사 착수

〈표 3-11〉 1600년 7월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 왕릉택지

그리고 산릉을 간심할 술사로 총호사 이현국은 중국인 섭정국을 추천하였다. 이때 총호사 이현국과 중국인 술사 섭정국과 포천을 간심하고서 포천은 단혈과 장혈 등의 성향을 갖고 있어 『玉髓眞經』에 의하면 백호란 땅속에 있는 龍身虎頭의 위엄을 가진 무서운 神으로서 만약 그 자리를 침범하게 되면 문득 큰 화가 생긴다고 하여 쓸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선조는 자신의 풍수관을 밝힌다.

“내가 지리의 내용은 모르지만, 이른바 수파설은 무슨 이치인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二十四山의 설 또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다만 宅兆를 점쳐서 體魄을 편히 안장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개 체백을 안장하는 곳은 사방의 산세가 구비하여 바람이 자고 양지바르며 토질이 두텁고 물이 맑으면 곧 吉地가 되는 것이다. 내 성미는 산천이 깊고 경내가 그윽하며 겹겹이 둘러 쌓여 塵世와 서로 격리된 곳을 좋아한다. 만약에 길가의 천박한 땅으로 殘山斷岸이라면 비록 眞龍의 자리가 있더라도 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포천의 산지는 두 穴이 있는데, 左穴은 짧고 수파가 좋지 않으며, 右穴은 길고 수파도 흠이 없다고 한다. 설사 수파의 설이 허튼 말이 아니어서 북을 치는 대로 북소리가 울리듯 보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大行은 親子가 없으니 좌측의 단혈에 쓸 수 있으며, 훗날 내가 우측의 장혈로 들어가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또 그 두혈에 모두 雙墳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한 곳에는 쌍분을 만들 수 있고 한 곳에는 쌍분을 만들 수 없는지, 두 곳 모두 一墳밖에 만들 수 없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곡절을 또한 모두 알고 싶다. 다만 우측의 혈은 뒤에 쓸 수 없다는 말을 하니, 그 術을 모두 헤아릴 수 없다.”<sup>178)</sup>

이 기사를 통해서 선조는 이미 풍수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는 왕릉을 조영할 지형에 대한 풍수적 환경을 논하고 있고, 좌우 용맥이 처한 수파도 구분하고 있으며, 풍수적 입지에 따르는 화복설도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서 두 혈에는 단릉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쌍분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7월 25일에는 지금까지의 국왕들과는 달리 왕릉의 입지로 쓸만한 곳이 있으면 거리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풍수의 길흉론에 대해서 상당히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선조의 사친은 조모 창빈안씨의 무덤을 길지를 찾아 양주에서 한강을 건너 동작에 이장을 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조의 이런 심정은 다음날에도 표출된다. 즉 선조의 내심에는 이 기회에 풍수상 길지를 찾아서 수릉지로 삼으로 했던 것이다.

178)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2일(계해).

“내 뜻은 하나의 혈처에 쌍분을 만드는 것일 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天壽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 그 葬制 또한 알 수 없으나, 역대 2백 년 동안 모두 이 산에 장례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수파가 비록 좋더라도 年運이 불길하면 쓰지 아니하므로 각기 능을 차지하여 畿內에 널리 있다. 우선 靖陵으로 말하더라도 정릉·禧陵·泰陵 3릉을 각각 다른 곳에 썼다. 幽明이 그 이치는 같은 것인데 어찌 미안한 일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번 산릉의 일을 계기로 하나의 大山을 얻는다면, 비록 천수산의 제도와는 같지 못하여 몇 대 밖에 못 쓴다 하더라도 오히려 산릉을 각기 정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처음 간심할 때 내가 內官에게 이르기를 ‘길가의 비천한 곳은 비록 길지라 하더라도 나는 취하지 않는다. 만약 길지를 얻지 못하면 며칠 길 밖이라도 또한 무방하다.’고 하였으니, 나의 말은 오늘날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곧 만세의 계책이다.”<sup>179)</sup>

한편 병조참판 한준겸은 신평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의신의 간심 결과에 대해서 “이른바 수파설은 胡舜申의 설에서 나왔기 때문에 술관등이 書啓한 것이며, 이십사산의 설은 天干·地支 등으로 술관이 또한 아울러 서계한 것”<sup>180)</sup>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총호사 이한국도 한준겸의 말에 동조를 하였다. 7월 26일 기사에서 한준겸은 『호순신』의 법은 고려조에서는 수파를 따지지 않았는데 조선에서는 수파를 운운하고 年運까지 가리게 되니 더욱 쓸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은 풍수에 구애되어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 한준겸의 이러한 논리로 포천 신평에는 능역 조선이 시작되었으나, 8월 29일 전 참봉 박자우의 상소로 인하여 포천 신평의 役事는 멈추었다. 박자우는 신평의 입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풍수설은 그 유래가 오래인데 대체로 논하면 氣가 모이고 기가 흩어지는 것뿐입니다. 이른바 기가 모인다는 것은 山勢가 모여들고 靑龍·白虎가 穴을 호위해주는 것이고, 이른바 기가 흩어진다는 것은 山形이 등을 돌리고 달아나며 청룡·백호가 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sup>181)</sup>

이 상소로 인하여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왕릉택지는 신평을 포기 하고, 건원릉 좌측 산줄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선조 대에 행해진 풍수법은 호순신의 풍수법 등이 여전히 활용 되었고, 왕릉택지는 새로운 곳을 찾기 보다는 기존의 왕릉 능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79)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6일(정묘).

180)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2일(계해).

181) 『선조실록』 권128, 선조 33년 8월 29일(기해).

날짜	간심대상지 추천인	간심 대상지역	능소 간심단	왕릉택지 논쟁
8월 29일		* 전참보 박자우 상소, 신평은 국장지로 불가하다고 함.		
9월 1일		박상의 와 박자우는 ‘水破에 관한 설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었지만 그 설을 채용한다면 이 뗏자리는 쓰기가 곤란할 듯하다. 이 의신만 호순신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하지도 함		
9월 3일		총호사는 신평을 버리자고 하였다.		
9월 6일	*조선인 김여건 김덕원 송 건 이의신 박상의 박자우	* 왕릉택지 논쟁 총호사 이현국의 보고 : 술사 김여건·김덕원·송건 등은 후생 말학으로 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이의신이란 자도 술사 축에는 들지 못하는 자로 國用的 법규를 알지 못합니다. 박상의의 경우는 여러 차례 불렀으나 오지 않아 끝내는 강제로 잡아다 간심을 하게는 하였으나 그가 術業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글을 모르는 자이니 믿기 어렵습니다.		
9월 8일		加次里	* 능소 간심단 섭정국 : 분간을 못함 박상의 : 신좌을향 박자우 : 산도를 청룡이 끊기게 그렸음, 그러나 윤근수 등은 청룡은 실제 있었다고 기록.	
9월 10일		윤두수·이현국 등이 신평을 버리자고 하여 선조가 최종 승낙		
9월 14일		안산 소죽고개, 고양 구지 도	성영 등이 간심한 뒤 돌아왔다	애초 총호사 등이 조선의 풍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 했던 곳
9월 14일	* 능소 간심단 예조 참판 유영길,인산 도감 제조 이충원, 행 호군 정구 및 박상의·김여건, 성영·김시현·이의신			
9월 21일	* 능소 간심단 이순풍의 후손 이문통은 조선에 나경 도입			
9월 24일		東道 세곳	예조판서 홍진	
9월 28일		건원릉, 광릉 화소 구역	인산도감이 총호사의 뜻으로	선조의 반대. 건원릉에는 쓸 수 없다.
9월 29일	* 왕릉택지 논쟁 이문통 : 가차리 辛坐乙向, 신평 亥坐巳向 이호민 묘는 ‘이는 하늘을 불사르고 타고르는 촛불 형국[燒天蠟燭形]이다.			

〈표 3-12〉 1600년 8월 ~ 9월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 왕릉택지

날짜	간심대상지 추천인	간심 대상지 역	능소 간심단	왕릉택지 논쟁
10월 1일	박원종 묘산		이문통에게 간심 요구	
10월 1일	9월 14일 총호사 등	* 간심 대상지역 이호민 집안의 묘산, 광주 리중 집안의 묘산 양천 김응남, 부평 목승평 집안의 묘산 * 세곳을 대상지로 결정 교하현 뒷산과 평구의 박원종 묘산(이호민 묘산보다는 좋다) 포천 가차리는 이문통도 길지라고 하였다.		
10월 2일	양주 도혈리		박중선	이문통이 불가하다고 평가
	* 능소 간심단 : 관상감 제조 정구가 통사 이민성과 지리관 박상의를 대동하여 이문통과 동행. * 이문통은 아래 세 곳을 간심			
10월 5일	* 왕릉택지 논쟁 (이문통 간심결과) 1. 교하현의 뒷산과 저현 : 임좌 병향 (박상의는 이문통 의견에 동의, 이의산·송운·안평국·송건 등은 반대) 2. 이민성은 신평은 조선술사. 가차리는 중국인 술사가 간심한 사실을 일러주었다.			
10월 7일	선조는 중국인 이문통이 정한 자리를 사용하고자 함			
	행 충무위 사직 정구의 상소, 신평 또는 선왕의 능에서 찾자			
10월 9일	* 왕릉택지 논쟁 : 이문통이 택지한 저현은 보토만 80자, 穴道가 바르지 못함, 한쪽으로 치우친 支脈이 경사져 내린 곳, 案對와 朝宗水는 비록 明麗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맥이 향하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고, 안쪽의 龍虎도 낮게 이루어져 좌우 모두 문제가 있다. 총호사는 사용불가 판정, 박상의 만 찬성, 김덕원, 김여건은 신평 추천. 이때 선조가 교하 저현을 강력히 주장할 때 박상의는 선조의 눈치를 보느라 이문통의 의견에 동조.			
10월 11일	* 간심지역 : 이호민 묘산, 박상의가 본 저현 주위		선조는 섭정국에게 간심의뢰	
10월 15일	섭정국의 간심 거부, 저현으로 확정			
10월 21일	저현의 보토문제로 박동량 상소, 선조는 독장 이호민 묘소추천			
	일관 남응련	『선택요략』의 내용으로 보면 꺼릴 것이 없다. 그러나 年克이 있으니 동지 전에 능역 역사를 마쳐야 한다고 하였다. 동지는 24일 남아 있었음.		
	윤은보 묘산		박상의 간심 : 쓸만하다.	

〈표 3-13〉 1600년 10월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 왕릉택지

날짜	간심대상지 추천인	간심 대상지역	능소 간심단	왕릉택지 논쟁
10월 22일	日官 南應年)이 《선택요략(選擇要略)》에 의해 독장산 결정			
10월 25일	조정지 는 윤두수 묘산을 새로 언급			
10월 26일	이항복 등은 윤두수에게 책임이 없음을 고하며 대상지가 아니라고 함			
10월 29일	정언 홍서봉 : 신이 지금 因山都監의 당상관 이충원 등의 서계를 보고 상지관 김여견의 말을 들으니 이호민 묘산에는 물기가 있고, 흙이 단단하여 사용하기 어렵다고 람			
10월 30일	이헌국은 독장산에 물이 나와 양주 윤은보 묘산, 남양 이홍섬, 남찰방의 묘, 남 양객사의 뒷산, 윤두수 묘산 등 새로 검토요청			
11월 2일	인산도감에서 독장산 물이나오고 토기가 없어 사용불가 확정			
11월 3일	총호사 이헌국	양주에 琅城君 韓씨의 묘산과 趙士秀의 묘산 선왕의 능역지 재거론		
11월 6일	총호사 이헌국: 낭성군 한 보의 묘산, 건원릉		이정구가 위 지역 검토	
	광릉, 건원릉		이정구	
	윤두수 묘산		유인길이 간심	
11월 7일	영의정 이항복 등 : 건원릉 화소지역으로 결정			
11월 11일	건원릉 산줄기에 대해서 박자우 다섯 번째 산줄기, 이의신 두 번째 산줄기 좋다고 함			
11월 13일	영의정 이항복 등: 건원릉 좌측 세 번째 산줄기로 결정			

〈표 3-14〉 1600년 10월 ~11월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 왕릉택지

## 2) 인조의 왕릉 택지

인조는 1694년(인조 27) 6년 5월 8일에 창덕궁 정전에서 승하하였다.<sup>182)</sup> 세자는 5일 뒤 성복을 한 후 즉위하였다. 효종이 즉위하자 총호사는 예조당상과 관상감제조 등을 대동하고 봉심에 나섰다. 인조의 왕릉택지는 인조비 인열왕후 한씨의 장릉 우측으로 정하여져 있었다. 그래서 인조의 장릉 선정과정은 인열왕후 한씨의 국장 때, 산릉선정과정을 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인조비 인열왕후 한씨는 1635년(인조 13) 12월 9일 申時에 산실청에서 승하하였다.<sup>183)</sup> 산릉의 간심은 승하한지 3일이 지나서 관상감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 후 성복을 마치고 산릉을 간심토록 했다. 이때 예조에서는 상지관과 술업에 박통한 자로서, 전좌랑 成樞, 전현감 朴弘中, 삼등현령 李衍, 전사과 李震龜 등을 추천했다. 당시 이간은 평안도에 있었으므로 감사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올라오도록 조치했다.<sup>184)</sup> 그리고 이때 관상감에서 추천하여 간심에 참여한 지관과 능소대상지는 〈표 3-15〉과 같다.<sup>185)</sup>

지 관	간심 대상지
鄭熙周, 李弘義 崔 現, 李尙馨 成汝?, 金百年 成 櫟, 李 衍 申 潁, 李震龜 崔 楠, 姜後尙 申 伋, 金百鍊	영릉 홍제동, 교하현 터, 교하현 서쪽의 고 판서 정연 묘산 광주 上道の 안여경 묘산, 下道の 임영대군 묘산 下道の 이지방 묘산, 수원 객사 뒤, 남양 객사 영릉 안 좌우변의 산록

〈표 3-15〉 인열왕후 한씨의 간심 대상지

왕릉 간심단은 〈표 3-16〉에서 표기된 간심 대상지를 둘러보기 위하여 교하를 거쳐 여주로 갔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간심한 후 그에 대한 산론을 작성하

182) 『인조실록』, 권50, 인조 27년 5월 8일(병인).

183) 『인조실록』 권31, 인조 13년 12월 9일(을유).

184) 『인열왕후국효등록』 인조 13년 12월 12일.

185) 『인열왕후국효등록』 인조 13년 12월 29일.

여 보고하였다. 〈표 3-16〉은 『인렬왕후 한씨 국휼등록』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간심 대상지	산론
영릉 홍제동	홍제동의 좌우 형국과 영릉 월변의 어수정동은 국용에 쓸 만하다고 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임금은 홍제동은 길이 멀어 쓰기 어렵다고 했다. <sup>186)</sup>
교하현 터	국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산론 내용 기록 없음
교하현 서쪽의 고 판서	
교하현 서쪽의 정연 묘산	
광주 上道の 안여경 묘산	
下道の 임영대군 묘산	
下道の 이지방 묘산	
수원 객사 뒤	
남양 객사	
영릉 안 좌우변의 산록	

〈표 3-16〉 인렬왕후 한씨 산릉 1차 간심 대상지

처음에 교하를 거쳐서 여주로 갔다. 이들이 간소한 결과는 임금에게 계문되었다. 美德한 곳은 나오지 않았고, 하자나 병이 있더라도 취할 만한 곳은 도형을 갖추어서 올려 보냈다. 홍제동은 원거리라는 이유로 폐기되고, 여러 지관들에게 쓸 만한 땅을 널리 물었다. 그리고 거기서 왕릉 능소로 쓰여 질 國用置簿 중에서 다시 골라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다시 간심지로 선정된 곳은 〈표 3-17〉이다.<sup>187)</sup>

186) 『인렬왕후국휼등록』 인조 14년 1월 1일.

187) 『인렬왕후국휼등록』 인조 14년 1월 3일.

간심 대상지	산론
광주 고읍의 향교 뒤	국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산론 내용 기록 없음
광주 남면의 제안대군 묘	
양주 송산의 윤은보 묘	
豊壤의 舊闕터	

〈표 3-17〉 인열왕후 한씨 산릉 2차 간심 대상지

이렇게 근기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곳을 둘러보았으나 쓸 만한 터를 찾지 못하던 중 광릉의 큰 산 사방 백 리에 반드시 쓸 만한 땅이 있다고 하여 가보았다. 그랬더니 광릉 우변의 泉嶺 아래에 있는 庚坐甲向之原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추천되었으나 선택되지 않았다.<sup>188)</sup> 그러던 중 1636년(인조 14) 2월 9일 영상 윤방, 우상 홍서봉이 3차로 坡州 지방을 추천 하였다. 이곳은 당시 한양 북쪽에 조영된 파주삼릉(공순영릉)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였다.<sup>189)</sup> 〈표 3-18〉은 당시 지관 이간이 적극 추천하여 능소로 결정된 곳이다. 훗날 이간은 장릉이 천릉되어 매우 난처한 곤란을 겪는다.

간심 대상지	산론
고 부윤 李幼澄의 묘가 있는 산	지관 李衍이 앞장서서 의논하여 합당하다고 함

〈표 3-18〉 인열왕후 한씨 산릉 3차 간심 대상지

인열왕후 한씨의 능소가 파주로 결정 되자 총호사 홍서봉 등은 파주의 산릉에 가서 卯坐酉向으로 穴을 정했다.<sup>190)</sup> 이 과정에서 왕릉 대상지를 풍수적으로 논한 산론은 전해지지 않는다. 단지 이간의 추천으로 선택 된 파주의 능소 대상지에는 古塚이 7백 56개소인데, 그 중에서 주인이 있는 무덤이 89개소, 주인이 없는 무덤이 6백 67개소였다고 한다. 인조는 썩은 뼈를 거두어 묻어 주라고 하였

188) 『인열왕후국호등록』 인조 14년 1월 8일.

189) 『인조실록』 권32, 인조 14년 2월 9일(갑신).

190) 『인조실록』 권32, 인조 14년 2월 13일(무자.)

다.<sup>191)</sup> 이로 보아 이곳은 오랜 기간 묘터로서 일정한 격식을 갖춘 곳으로 보인다. 그리고서 인접해있던 長湍의 한 面을 파주에 소속시켰는데 長陵과 경계가 서로 접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92)</sup>

한편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 부왕 인조를 인열왕후 한씨와 합장을 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효종의 뜻이라기보다는 인조가 생전에 남긴 유지를 실천하려는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효종은 술업에 정통한 자들을 불러 산릉으로 사용하려는 장릉을 다시 간심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인조의 왕릉 택지를 위한 간심단으로 지관 전정량 成櫟, 전현령 李衍 등이 동참 하였다. 그런데 간심단이 구성되자 대사헌 조익은 이 두 사람이 인조의 왕릉 택지에 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인조비 인열왕후 한씨의 국장 때 산릉 택지에 관여했던 자 들로서 택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간이 보여준 풍수술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자질 또한 의심스럽다는 것 이었다.<sup>193)</sup> 인열왕후의 능소를 택지할 당시 지사 김백련과 여러 술사들이 좋지 않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직까지도 장릉의 풍수적 길흉에 대해서는 분간되지 않고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간을 왕릉 간심에 동참시킬 수 없다는 것 이었다. 그리고 관상감 소속 지관들이 산릉의 풍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해도 이간 때문에 의견을 소신껏 제시하지 못한다고 도 하였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외방의 술사들을 모아서 정밀하고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길흉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이에 대하여 예조에서는 풍수의 말은 아득하고 애매하여 알기가 어렵고, 풍수를 보는 자들 중 출중한 자가 있지 않아 각자 소견을 고집하기만 하여 믿고 따를 수 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풍수사의 말로 인하여 사대부의 사이에도 무덤을 고쳐 정하고 천장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여 근일의 폐풍이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君父의 送終禮는 壽莊보다 막중한데 이미 일호라도 미진한 말을 들었으니, 충호사가 돌아온 뒤에 여러 대신과 회의하여 처리하도록 건의했다.<sup>194)</sup>

191) 『인조실록』 권32, 인조 14년 2월 19일(갑오).

192) 『인조실록』 권32, 인조 14년 3월 27일(임신).

193)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효종 즉위년 5월 17일. “(상략, 내용 참조 필요) 또 듣건대 구봉서가 아버지를 장사지낸 땅은 이간이 택했고, 그 후 십여 년 쯤에 구봉서 父子가 모두 죽고 無後인 집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대부 집도 이간의 술을 사용하여 見敗한 자가 역시 많다고 합니다. 이로써 본다면, 이간의 地術은 미상한 것이 분명합니다.

194)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효종 즉위년 5월 17일.

조익의 이러한 논리는 꽤 설득력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이 문제는 장릉의 풍수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하여 시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관들이 좋지 않고 한 소문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튿날의 이에 관한 논의에서, 예조에서는 당시에 異論이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고, 총호사 이경석은 “김백련이 산세를 논하는 중에 그 자리의 좋음을 대단히 칭찬한 것이 다른 술사들보다 더욱 심하였습니다.”라고 하여 반대의 입장을 개진했다.<sup>195)</sup> 이에 효종은 “산릉은 바로 先朝에서 정하신 바로서 이미 사후에 묻히시겠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더구나 자손이 번성하고 조금도 해로운 것이 없다. 다만 다시 술사에게 묻기로 한 것은 조금이라도 미진한 곳이 있으면 人力으로 보강하여 미진한 염려가 없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비록 널리 묻는다 해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어 정하는 것은 결단코 할 수 없다.” 하였다. 이때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조익을 허물하고, 옥당도 체직시킬 것을 논하려 하다가 그만두었다.<sup>196)</sup>

이러한 시비로 이간은 배척된 가운데 〈표 3-19〉와 같이 간심단이 구성 되었다. 총호사 이경석은 간심단과 함께 파주에 도착하여, 인열왕후의 능침 아래에서 위를 간심했다.

지관	간심 대상지
성력, 이필, 최남재	인열왕후 산릉과 인근

〈표 3-19〉 인조왕릉 간심지 1차 간심단

그 결과 총호사 이경석 등은 장릉의 형국과 朝對는 문제가 없다고 평 하였다. 그리고 당초 장릉을 정할 때 術人 成櫟, 李衍, 申潁, 鄭熙周, 李弘立, 李震龜, 崔楠, 姜後尙, 申伋, 金百鍊 등이 참여하여 왕릉의 택지로서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역시 다시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sup>197)</sup> 이때 이필은 이번 간

195) 총호사 이경석은 당시 술사들에 대한 평가에서, “당초 산론 때 각각 소견을 진술한 자가 모두 11인인데, 관상감 상지관인 자는 단지 최남과 강후상 두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朝官 및 外官의 術士로서 한 때 山家를 嚮習한 사람들로 이름났다”고 하였다. (『인조대왕국 활동록』 5월 19일)

196)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5월 18일(병자). 이때 효종은 장릉의 선정이 인조의 천 년 뒤의 원대한 뜻이 있었으며, 자손도 번성하여 조금도 해가 없었다고 했다.

심에 처음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도 역시 현재 인열왕후의 능침에는 문제가 없어 인조의 택지로 불가함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효종은 인조의 유지를 받들어 인영왕후의 장릉에 합장하기로 결정 했다.

왕릉의 택지가 결정 되었으니 조영하는 절차가 진행 되었다. 총호사 이경석은 능침의 실을 만들기 위한 재혈 등의 후속작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재혈이란 택지가 결정된 후 능침에 국왕의 시신을 매안할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로서 왕릉을 조영하는 절차 중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조의 능침 재혈은 인열왕후 한씨의 능침을 조영 할 때 이미 표식을 해 두어서 어렵지 않게 진행 되었다. 만일 왕릉 택지를 새로 정하여 재혈 할 때에는 별도로 고유제가 없고 금정을 열 때 토지신에게 고유제를 지냈다. 재혈 할 길일은 일관이 추택하여 5월 26일로 정해졌고, 대신 및 예조당상, 관상감제조, 산릉도감당상이 가서 새벽에 먼저 인열왕후 한씨의 릉에 고유하도록 했다.<sup>198)</sup>

효종의 명에 따라 총호사 등 담당자 들은 재혈 하러 출발했다. 능소에 도착한 이들이 泛鐵(나침반)을 사용하여 방위를 측정해 나갔다. 방위를 측정해 나가는 기본적인 방법은 먼저 坐向을 정해야 하는데 산줄기 즉 용맥이 내려오는 뒤쪽 방위가 坐가 되고, 앞쪽이 向이 된다. 이때 시신의 머리는 좌 방향에 놓여야 하고, 다리는 향 방향에 놓아야 한다. 인조의 능침 좌향을 정할 때 에는 역시 지관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이때 참여한 성력, 이필, 최남재, 강후상 등은 서로 자세히 의논하여 합의하였다.

다음으로는 正穴을 裁定하였다. 혈은 풍수에서 요체가 되는 장소이다. 시신이 직접 땅에 접하여 그 生氣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며, 터럭 끝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안 되었다.<sup>199)</sup> 그만큼 혈을 정하는 定穴은 대단히 복잡한 편이고 매우 신중해야 했다. 정혈의 재정이 이루어지면, 그곳을 封標하였다. 『주자가례』를 보면, “네 귀통이는 그 흙을 밖으로 하고 가운데를 판 것은 흙을 남쪽으로 하며 각각 풋말을 하나씩 세운다. 남쪽 문에 해당하는 곳에는 풋말 두 개를 세운다”고 하였다.<sup>200)</sup> 왕릉의 봉표에도 이 방식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7)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효종 즉위년 5월 19일.

198) 『인조대왕국휼등록』 효종 즉위년 5월 19일.

199) 최창조, 「風水說 坐向論上의 吉凶判斷에 관한 緯學的 解釋」, 『地理學』 26, 1982, 95쪽.

200) 『주자가례』 권4, 상례, 治葬.

이후 인조 장릉 국장을 총괄하는 총호사는 영의정 이경석에서 우의정 정태화로 바뀌었다. 이때 영의정 이경석이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은 아니었고 『오례의』에 따르면 좌의정이 총호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침 좌의정 김상헌이 자리를 말미를 받아 집에 있었으므로 우의정 정태화가 맡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열 왕후 한씨의 국장 때 좌상 오윤겸이 병중이어 우의정 홍서봉이 대행한 사실이 있었다.<sup>201)</sup> 이후 인조는 1649년(효종 즉위년)9월 20일 長陵에서 장례를 지냈다.<sup>202)</sup>

인조의 왕릉이 조성된 후 80여 년이 지난 후인 1731년(영조 7) 장릉은 천장되었다. 인조의 장릉이 천장되기에 앞서 1686년(숙종 12) 鴻山의 幼學 方叔齊 “기해년 이후 災禍의 빌미가 多端하니, 혹시 파주 땅의 장릉이 適地를 얻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산세를 살펴볼 기회를 달라고 청하였다. 숙종은 이를 묵살할 수 없어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김수항은 널리 자문을 구하여 대처하자고 하였으나, 우의정 李端夏는 풍수상의 이유로 천장을 결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주장에 숙종도 동의하였다.<sup>203)</sup>

그러나 이러한 천릉 논의는 수그러들지 않고 이듬해 다시 제기되었다. 전 훈원 판관 許彬은 장릉의 龍穴과 砂水가 허물어진 데가 많으니 地理를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고 잘잘못을 정하게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이를 방숙제가 상소한 뜻과 똑같다고 하였으니, 숙종은 이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천봉을 건의한 사유는 역시 풍수상의 禍福說이었다. 그리하여 숙종은 현직 대신, 육경·판윤 및 삼사의 장관과 도승지가 경외의 지사 중에 術業이 정밀하고 밝은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가서 능침을 살펴본 다음에 보고하라고 명하였다.<sup>204)</sup> 숙종이 인조 장릉의 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풍수에서 長生을 해친다는 말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시행된 것으로 여겨진다.<sup>205)</sup>

허빈의 상소로 인해 조정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언 金洪福이 그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상소를 올려 허빈의 무리들이 왕실에서 왕자 등이 변성하지 않는 것을 선대의 왕릉 능침에 이상이 있어서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201)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8월 8일(을미).

202)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9월 20일(병자).

203) 『숙종실록』 권17, 숙종 12년 12월 7일(정사).

204)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 8월 10일(병진).

205) 『長陵遷陵時山陵都監儀軌』(K2-4803) 계사, 영조 7년 3월 16일.

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서 숙종은 능침의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하였다.<sup>206)</sup> 이에 영의정 남구만을 비롯한 여러 신하와 감여를 잘 아는 사람 13명이 참석하여 장릉 형국을 살펴보았다.<sup>207)</sup>

봉심 후, 남구만 등이 올린 산론과 산도를 본 숙종은 천장의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백호의 낮고 평평한 곳에 흙을 쌓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뒤에도 허빈 등은 그 뒤에도 두어 차례 상소를 올려, 형국에 흙이 있으므로 시급히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자 여러 지사들에게 이를 조목조목 논변하게 하여 천장에 대한 거부의를 확고히 하였다.<sup>208)</sup> 그래도 천릉 주장이 가라앉지 않자, 영의정 남구만과 김수홍 이상진 등은 다시 장릉을 살펴 본 후 돌아왔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각자 다른 견해를 제시 하였다. 숙종대에 진행된 장릉의 천장에 대한 논의는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진의 견해도 신뢰성이 부족했으며, 그가 지술이 가장 뛰어난 인물로 추천한 임대도 썩 내켜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같이 의견통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숙종은 ‘水火의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면 50여 년이나 된 지금 옮겨 모시는 일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외방에 있는 대신과 2품 이상의 관원에게 다시 의논하도록 하였으나 결정하지 못하였다.<sup>209)</sup>

허빈의 상소 이후 2개월여가 지났어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뿐 논의가 귀결되지 않자, 숙종의 용단을 촉구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숙종 자신이 장릉을 살펴 본 후 천장을 실행 여부를 결정 하라는 것이다.<sup>210)</sup> 숙종은 고심 끝에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봉심하기로 하고, 드디어 행행하였다.<sup>211)</sup> 그 후 아마도 숙종을 비롯하여 조정에서는 천릉은 불가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모양이다. 그런데 원종의 아들인 능원대군 보의 아들 영풍군과 광주인 이동영 등이 장릉의 흙을 논하고,<sup>212)</sup> 1년 뒤에 첨사 허빈이 다시 상소하여 그 이전의 논리를 설명하였지만,<sup>213)</sup>

206)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 8월 11일(정사).

207)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 8월 29일(을해).

208)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 9월 3일(무인).

209)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 9월 19일(갑오).

210)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 9월 30일(을사).

211)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 10월 9일(갑인).

212)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 10월 15일(경신) ;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 11월 20일(을미).

213) 『숙종실록』 권19, 숙종 14년 9월 13일(임오).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시킬 수 없었다.

〈표 3-20〉에는 숙종대 인조 장릉에 대해서 천장을 주장한 자들과 그 사유를 정리해 놓았다. 주요 사유는 모두 풍수상 문제가 있는 사유로 천장을 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이에 대해서 숙종은 풍수에 조예가 있는 자들을 불러 청문을 하였고, 또 자신이 직접 행행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숙종의 청문에 답한 자들은 모두 현재의 장릉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숙종은 천장 불가라는 판정을 내리게 되었다.

천장을 주장한 자	천장을 해야 하는 사유
1686년(숙종 12) 유학 방숙제	장릉 택지의 잘못된 판단
전 훈련원 판관 허빈	용혈사수의 훼손
영풍군	풍수의 흠
광주인 이동영	풍수의 흠

〈표 3-20〉 숙종대 천장을 주장한 자와 사유

그 후 장릉은 방화나 개수 등으로 수난을 겪다가, 1731년(영조 7)에 와서 다시 천장이 논의되었다. 천장 논의의 계기는 좌의정 이집이 전한 이변에 근거하였다. 陵寢 사이에서 뱀이 꼬아리를 틀고 있는 변이 있어 가끔 출몰한다는 것이다. 〈표 3-21〉과 같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본인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 고했다.

좌의정 이집의 상소	“이 능을 처음 開墳할 때에 뱀의 변이 있었으나 총호사 金自點이 숨기고 그대로 능을 봉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고 판서 尹絳은 장릉이 ‘牛頭穴에 長生破’ 이라는 내용을 → 고 상신 尹趾善(윤강의 子)에게 → 판부사 민진원(윤지선의 사위)에게 → 좌의정 이집에게 전달	

〈표 3-21〉 영조대 좌의정 이집의 상소 내용

그러자 예조판서 申思喆도 “그때 한 중이 있어 壙中을 다지면서 소리치기를, ‘正穴을 버리고 蛇穴을 쓰는구나’ 하더니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속담을

전하기도 하였다. 영조는 이런 사실을 접하고 大臣과 예조 당상에게 地師 및 南原君을 데리고 長陵에 가서 奉審하게 하였다.<sup>214)</sup> 우의정 조문명, 예조 판서 신사철, 남원군 등은 영조에게 봉심하러 나간다는 뜻과 함께 인사를 올리는 자리에서 능 위에 뱀의 변괴가 확실하다고 하고, 남원군은 그 당시 지사 이간이 홀로 길지라고 하여 일을 그르쳤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영조는 땅을 잘 보는 지관을 데려가서 둘러보고 이후 천장의 절차를 세우라고 하였다.<sup>215)</sup>

영조는 대체적인 논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천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굳어졌다. 봉심한 일행이 돌아와 복명한 내용도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풍수상의 이유로 천장을 할 수는 없으나 뱀이 출현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일이니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지 들어보자고 하였다.<sup>216)</sup> 이에 임금은 장릉을 옮겨 불안하는 일로 時任·原任 대신 및 文武 宗臣 2품 이상을 궁궐로 불러들여 각기 소견을 들었다. 이때 판부사 민진원을 비롯하여 모두 능침에 문제가 있으니 마땅히 즉시 옮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판부사 이관명은 병이들어 상소문으로 대신하였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풍수의 설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의리로써 결단’ 하라는 내용 이었다.<sup>217)</sup> <표 3-22> 는 판부사 민진원 여부사 이관좌가 봉심한 후 결론을 정리한 것이다.

장릉 봉심 주관	봉심내용
판부사 민진원	뱀 등이 있어 천장을 하여야 한다.
영부사 이관좌	천장 동의

<표 3-22> 영조 7년 장릉 봉심의 내용

영조는 천장을 결심한 뒤 판부사 민진원에게 왕실과는 친족관계이니 영의정 홍치중과 함께 장릉을 봉심하라고 하였다. 이후 봉심하고 돌아와 풍수상의 문제가 아니라 배이 자리를 잡고 있어 매우 불길하니 즉시 천장을 해야 한다고 하자 영

214)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3월 16일(기묘).

215)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3월 19일(임오).

216)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3월 23일(병술).

217)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3월 29일(임진).

조는 영의정 홍치중을 총호사로 삼아 천장을 추진하였다.<sup>218)</sup>

장릉의 천장은 계축년의 예에 의거하라고 했으니, 계축년의 예는 1673년(현종 14)에 단행된 효종릉 寧陵의 천장을 말한다. 천장을 하기 위한 대상지에 대한 간심이 시작되었다. 장릉을 천장하기 위한 기구와 조직은 〈표 3-23〉과 같다. 이대 정탁은 治山할 때 간역할 일로 특별히 임명된 자였다.

담당자	간심 대상지
총호사 상지관	영의정 홍치중 관상감교수 金佑夏, 오위장 禹炯, 부사용 鄭倬

〈표 3-23〉 인조 長陵 천장시 총호사와 상지관

총호사 홍치중은 여러 지사를 거느리고 헌릉의 局內를 간심한 후 돌아와 지사 李鳳鳴 등이 영조에게 “헌릉의 旁穴은 龍局이 雄渾하나 和平하고 雍容함은 厚陵의 방혈만 못함이 있는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헌릉의 산의 형국을 말한 것으로서 헌릉 우측 산줄기는 산세와 전체적인 형국이 웅장하고 화평하나 전체적인 느낌은 후릉의 우측에 있는 혈보다 못하다는 것이다.<sup>219)</sup>

당시 후릉의 방혈에 대해서는 판부사 민진원이 간심하고 나서 상소를 올렸다. 그는 후릉의 傍穴에 대해 여러 지사들이 칭찬한 바와 같이, “혈의 뒤에서 내려온 산맥이 고르게 모아지는 형세를 하고, 후릉 앞에 다가오는 산세는 바르고 局內가 넓고 평탄하며 水口의 조밀함이 긴밀하다고 하였다. 그때 함께 간 여러 신하들의 소견이 같았으므로 드디어 뒷산으로 걸어 올라가 제 5節에 이르러 여러 지사로 하여금 節마다 쇠를 놓아 보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내려온 脈이 모두 格에 맞는다고 하였다. 민진원은 후릉의 방혈을 길지로 본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사 李弼과 馬翼龍 등이 옆에서 휘방을 놓아 말하기를, “西方이 낮아 凹風이 들어오며, 脈이 癸丑을 범하여 吉地가 못됩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서쪽 언덕이 낮아서 낮게 포복하여 밀려들어오는 바람이 들어오며, 맥은 정방향이 아닌 계축 즉 북쪽과 북서쪽의 경계선에 있는 방향의 산줄기로 바르지 못한 산줄기(용

218)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4월 10일(임인).

219)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4월 24일(병진).

맥)라는 것이다. 이에 영조는 현릉의 다른 혈을 찾아보라고 하였다.<sup>220)</sup>

총호사 홍치중 등은 다시 여러 陵의 旁穴과 交河의 邑治를 看審하고 돌아와 교하의 산세가 국장에 합당하다고 하였다.<sup>221)</sup> 영조는 공조판서 權以鎭, 수원부사 李衡佐 에게 교하에 가서 산세를 보고 오라 하였다. 5월 13일 총호사 홍치중과 이 두 사람은 교하를 다녀와 영조에게 客舍 뒤가 正穴이라고 하였다. 이때 윤희는 다른 지사들은 향교 뒤가 정혈이라 하니 영부사 李光佐를 다시 보내 살펴라 하였다.<sup>222)</sup> 이광좌는 객사 뒤를 국장에 합당한 터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sup>223)</sup> 이때 장릉의 천장이 교하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판부사 민진원은 권이진의 풍수술은 믿을 수 없기에 후릉의 방혈을 고집하였으나<sup>224)</sup> 영조는 교하를 택했다. 총호사 홍치중 등이 교하의 새 능의 혈을 재고 돌아와 우참찬 윤순이 재혈처 뒤의 龍節이 雄偉하고, 뒤의 來脈이 王자의 형상이 있다고 하여 영조는 기뻐하였다고 전한다.<sup>225)</sup> 〈표 3-24〉는 인조의 장릉이 천장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지관과 대상지를 열거해 놓은 것이다.

지관	간심 대상지
총호사 홍치중	현릉과 후릉의 방혈 사용 가능함
판부사 민진원	현릉과 후릉의 방혈 사용 가능 함
지사 李弼과 馬翼龍	후릉 방혈 사용 불가
총호사 홍치중 등	교하의 읍치 국장 지리로 합당
都監堂上 趙遠命, 尹游	교하읍치 국장 자리에 합당
공조 판서 權以鎭· 水原府使 李衡佐	교하 客舍 뒤가 正穴
영부사 이광좌	교하 객사 뒤

〈표 3-24〉 영조대 인조 장릉 천장시 지관과 간심 대상지의 산론

220)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5월 3일(을축).

221)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5월 8일(경오).

222)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5월 13일(을해).

223)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5월 17일(기묘).

224)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5월 18일(경진).

225)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5월 28일(경인).

숙종대와 영조대에 진행된 천장 사유는 풍수적 이유에서 능침의 훼손이라는 이유로 천장이 결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장하여 새로 조영되는 능소의 택지는 풍수상 길지 이어야하는 조건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 3) 효종의 왕릉택지

#### (1) 천장 전 舊寧陵의 택지 선정과정

효종은 1659년(효종 10) 5월 4일 오시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였다. 총호사를 비롯한 각 도감의 제조들이 임명되었다. 경종은 이들에게 산릉을 조성하기 위한 능지를 찾게 하였다.<sup>226)</sup> 〈표 3-25〉는 효종의 국장시 총호사를 비롯하여 삼도감 제조에 임명된 자 들이다.

국장 삼도감	담당자
총호사	좌의정 심지원
빈전도감 제조	李時昉, 尹絳, 李一相 (都廳 : 李慶徽, 洪處尹)
국장도감 제조	鄭維城, 許積, 尹絳 (都廳 : 李時術, 鄭萬和)
산릉도감 제조	鄭致和, 金南重, 洪重普 (都廳 : 李晩榮, 趙胤錫)
銘旌書寫官	李正英

〈표 3-25〉 효종 영릉 국장시 총호사 및 삼도감

총호사와 산릉도감에서는 간심대상 지역으로 관상감의 장부에 수록되어 있는 12곳과 장릉 내외를 간심하라는 명을 받았다.<sup>227)</sup> 산릉 후보지의 간심은 총호사 심지원이 예조 당상관과 관상감 제조, 산릉도감 제조, 부호군 이원진, 윤선도, 그리고 기타 여러 지관들이 동남방을 간심하고, 예조판서 윤강, 지관 반호의, 이유

226) 『(효종)산릉도감의궤』(K2-2320) 계사, 5월 초9일.

227) 『현종 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9일(기사).

필, 이필, 이간, 윤흥경, 부사과 성준룡 등은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5월 14일부터 시작되었다.<sup>228)</sup>

그런데 이 시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 여러 불편함이 뒤따랐다. 비가 많이 내려 산릉 간심을 하루나 이틀 미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간심은 그 중차대함을 고려하여 術業이 精明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고자 했다. 그리하여 사대부 중에서 전참의 윤선도와 행부호군 이원진이 풍수에 曉解한 인물로 가장 저명하다고 하여, 이 두 사람을 동행토록 했다.<sup>229)</sup> 총호사 심지원이 윤선도와 이원진을 대동하려 했던 것은 산을 찾아볼 때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기도하지만, 실은 조선의 관리들이 상습적으로 해왔던 책임회피 수단이었다. 즉 혼자서 결정을 하게 되면 훗날 능지의 선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모두 혼자서 감당해야했기 때문이다. 〈표 3-26〉은 윤강등이 효종의 산릉을 간심했던 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sup>230)</sup>

지관	예조판서 윤강, 지관 반호의, 이유필, 이필, 이간, 윤흥경, 부사과 성준룡 등	
5월 18일	장릉 능소	지관들은 모두 하나도 알맞은 곳이 없다는데 동의하였다.
	광주 임영대군 묘산	조금은 形穴이 있지만 국량이 국장의 쓰임에 맞지 않는다.
	이지방의 묘산	전혀 형혈이 없어 결코 취할 수 없다
	현릉 내 瓮岩洞	이곳도 형혈을 이루지 못하였다.
	현릉 내 梨樹基洞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 간심하니, 밝게 형혈이 있었다. 하지만 좌우 주위의 산은 끝내 못보고 말았다.
	안여경 산소	산세가 雄偉하고 형국이 주밀하여 십분 완전하였지만 新舊의 무덤이 한 岡 위에 첩첩일 뿐 아니라 혈을 이룬 것도 본래 불분명하여 국용에 맞지 않는 듯하였다.
5월 21일	영릉 右岡	이곳은 本陵의 護砂이며 左砂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장지를 비교해 논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홍제동	혈의 岡이 있기는 하지만 俗眼에 들어오지 않았다

〈표 3-26〉 효종영릉 1차 간심

228)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5월 14일.

229)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5월 16일.

230)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5월 22일.

지관들은 시간에 쫓겨 대상지를 세밀히 관찰하고 여러 조건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간심할 수 없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의 형세만 볼 뿐이며, 하루에 두세 곳을 간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지 여러 지관이 동시에 간심한다는 사실이 그나마 불명확성을 보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후보지의 풍수에 대한 소견은 예관과 지관의 의논이 달랐다.

이 당시 산릉치부에서 초출하여 계하한 곳은 12곳이었다. 이외에 장릉 내외 및 월룡산이 포함되었다. 그중에서 현릉 이수동, 건원릉 제일강, 광릉 홍제동, 임영대군 묘산, 안여경 묘산, 월룡산 등은 예조판서 윤강과 여러 지관의 소견이 같지 않아 귀일되지 못하였다. 이때 윤강은 여러 지관들이 말한 것 중 弘濟洞이 산맥이 멀리서 왔고 힘이 차고 局이 크다고 매우 훌륭한 양 말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풍수는 “대체로 자리를 고르는 데는 마땅히 穴을 위주로 해야 하므로, 혈 만 花假가 되어 있으면 龍虎가 둘러싸고 있거나 朝案이 수려한 것들은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 이라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윤강은 眞穴로는 오직 임령대군 산소와 현릉 내의 한 곳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이 두 곳을 다시 간심해 보자고 하였다.<sup>231)</sup> 윤강이 현종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은 아마도 사대부의 의중을 대신 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윤강이 좋지 않다고 말한 홍제동은 이후에도 계속 대상지로 언급되었었다. 그리고 진혈처는 왕실의 일원이었던 임령대군의 묘자리와 현릉의 한 곳이 좋다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홍제동에 있는 사대부들의 산지와 묘는 건들이지 말고, 왕실의 종친들의 묘 자리나 선왕의 왕릉 능역에서 찾아보라는 뜻으로 보인다.

윤강은 “현릉 이수동, 건원릉의 제일 첫째 등성, 영릉 홍제동, 임영대군 묘, 안여경 묘, 월룡산 이 여섯 곳을 지금 다시 간심하려 하는데 목릉참봉 이최만, 사인 박세황이 풍수에 효해하고 술업이 정명하다고 하여 이들을 추가로 데려갈 것을 청하여 동행 하였다.”<sup>232)</sup> 〈표 3-27〉은 윤강이 목릉참봉 이최만, 사인 박세황과 간심하고 돌아온 뒤 보고한 내용이다.

231) 『현종 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24일(갑신).

232)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5월 24일.

지관	예조판서 윤강, 목릉참봉 이취만, 사인 박세항	
5월 25일	현릉이수동	자세히 살펴보기 못한 곳이기는 하였지만, 밝은 형혈이 있는 것으로 보고는 다소 기대를 한 편이었다.
	건원릉 제일강	-
	영릉 홍제동	-
	임영대군 묘산	모두 형국이 淺狹하고 청룡은 의심하지 않지만 백호는 아주 길어 하나도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 전의 부정적 견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안여경 묘산	-
	월룡산	-

〈표 3-27〉 효종영릉 2차 간심

간심지에 대한 기록에는 건원릉의 제일 첫째 등성, 영릉 홍제동, 안여경 묘산, 월룡산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서 『(효종)산릉도감의궤』에 현릉 이수기동에 대해서 윤선도를 비롯한 모든 지관들은 오인이었음을 지적했다. 윤선도는 分脈이 結項하지 않고 落脈 역시 법에 맞지 않으며 右肩은 오목한 틈이 있어 결코 着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원진도 맥이 추하고 혈이 치우쳤으며 우견도 또 무너져서 결코 착안할 땅이 아니라고 했다. 반호의와 이필, 이취만, 박세항 및 여러 지관들도 역시 모두 우견이 오목하게 무너진 것이 큰 흠이 된다고 보았다.<sup>233)</sup>

두 팀으로 나뉘어 추진된 효종의 산릉 후보지 간심은 특별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던 중 6월 3일 산릉도감에서는 다시 치부책을 반복하여 조사하고 열람했다. 그리하여 심히 形이 없다고 하는 곳들은 제외하고 15곳을 초출했다.<sup>234)</sup> 산릉간심처 초출별단을 보면, 광릉 화소 밖 金礎 묘산, 포천 신평, 광주 속달 東萊君 묘산, 수원부 호장 집 뒤, 수원부 향교 뒤, 남양 서면 홍정승 묘산, 양주 下道 大鳥田 이유인 묘산, 양주 서면 조수준 묘산, 교하 와동, 광주 남면 이중 묘산, 양주 해동촌, 남양 홍기영 族葬山, 장단 진동면 서곡 김영렬 묘산, 양주 동면 와초 화

233)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5월 28일.

234)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6월 초3일 ;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3일(임진).

산군 묘산, 남양 옛 郡의 터 등이었다.

예조판서 및 윤선도, 이원진은 즉각 간심단에 합류하라는 명을 받고, 초4일 저녁에 숙배하고서 이튿날 파주목에 도착하였다. 초6일에 바로 장단 땅의 김영렬 묘산으로 가서 간심했다. 전참의 이원진 이하 및 여러 지관은 모두 김영렬 묘산이 형혈이 있다고 하더라도 착안하기에 부족하다는 견해였다. 다음날에는 교하 땅의 윤반 묘산으로 이동했는데, 형세가 자못 좋아서 사대부 묘산으로 논한다면 얻기 어려운 땅이라고 했다. 산 아래의 閭家에서 지숙하고 아침에 행주로 출발한 일행은 뱃길로 강을 건너고 양천 부평 안산 길을 거쳐 광주 남양 수원 등지를 간 산했다.<sup>235)</sup> 간심단은 현장에서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았다. 그리하여 대체적으로 國用으로 쓸 만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총호사가 일정의 진행상황과 함께 간산 결과를 요약하여 장계로 보고하였다. 장계에서는 산론을 작성한 다거나 도형을 그렸다는 언급이 없어도 이를 모두 준비하는 것은 의당 해야 할 일이었다.

장단과 교하 등지의 置簿處를 간심한 결과를 馳啓한 일행은 같은 날 행주와 부평부, 초9일에 안산군을 거쳐 광주 하도의 동래군 정난종 묘산으로 가서 간심했다. 지관들의 의논이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국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남양부 옛 군의 터와 故相 홍섬 묘산도 국용에 불가하다고 했다. 이날 미시쯤에 간심단에 有旨가 접수 되었는데 내용은 지관들로 하여금 각각 그 능소 간심 대상지를 추천 하라는 것 이었다.<sup>236)</sup> 앞서 치부책에서 15곳을 초출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치부책에 등재된 간심 대상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간심차 나가있는 지관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그들의 추천이 더욱 필요 했을 것이다.

새로운 간심 대상지를 별단으로 써서 올린 일행은 수원부로 향했다. 수원부 호장 집 뒤의 산을 간심한 지관들은 모두 역량과 형국이 실로 국용에 알맞다고 하였다. 전참의 이원진과 전승지 윤선도 등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산 아래의 혈이 두 곳인데 이원진과 윤선도의 소견이 같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역세게 쏟아져 내리는 비 때문에 상세히 간심하지는 못하였다. 이유필과 박세욱 등이 추천한 안산 땅의 산을 보고자 했으나, 지관 등의 말이 유자신 묘산은 첩첩하고 형혈의 유무도 논할 것 없어 결코 쓸 수 없다고 하고, 박세욱이 추천한 산 역시 알맞지

235)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6월 8일.

236)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6월 11일.

않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두 곳은 포기했다. 그러자 이들에게 재 추천을 요구했던 모양인데, 이유필은 김사형의 묘산이 전부터 名墓로 칭송이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두었고, 박세옥은 양주 땅 최가의 묘산으로 수정하여 추천했다.<sup>237)</sup> 〈표 3-28〉은 이때 지관 등이 추천한 간심대상지 목록이다.

지관	간심대상지 추천
박세옥	안산 유현 강가 묘산 남향
이필	적성 감악산 아래 자좌오향
반호의	영평 近佳山 南辛龍 유좌묘향
기중운	왕십리 밖 동향 장유혈
홍여박	관악, 선정릉, 양재대로岬, 북변 방하교, 동변 인가처, 자동입수 서북향처, 별아현 동월변, 남향산 독서당, 서변 대산
이유필	양근 중은동 김사형 묘산, 안산 유자신 묘산

〈표 3-28〉 효종 왕릉 택지 간산 대상지

일행은 호장집 뒤의 산 다음으로 府內의 산을 간심했다. 이 산은 局勢가 宏大하고 원근의 여러 산과 여러 岡이 둘러싸 안지 않음이 없었다. 풍수를 모르는 자가 보더라도 편히 그 큰 형세를 알 것이라 했으니, 대체로 진선진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혈은 재삼 올라가 살펴보니, 이른바 癸坐丁向의 혈로 귀일되었다. 이 혈의 상하좌우로 여러 지관의 의견의 차이가 없지 않았으나, 상세히 살펴보고서 합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원진과 이최만 두 사람이 약간의 흠을 지적했다. 이원진은 占혈한 혈이 별도로 주산의 굽이에 있다고 한 것이다. 이최만은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이른바 혈이 懸急한 듯하다는 것은 진실로 옳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혈의 眞假가 반드시 흠색의 美惡로 증명되는데, 이곳의 흠색은 심히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지적이 진선진미하다는 결론에 방해되지 않아, 드디어 산론을 작성하고 도형을 그리도록 하였다.<sup>238)</sup>

237)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6월 12일.

238)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6월 13일.

예판 이하가 왕십리에 이르자, 임금은 양주 해동촌 및 京城 西道 淨土 근처를 간심한 후에 그 나머지 먼 곳은 간심하지 말고 올라오라고 분부했다.<sup>239)</sup> 이날 산릉도감에서는 금번에 간심한 장단 김영렬 묘산, 교하 윤반 묘산, 광주 정난종 묘산, 남양 옛 군의 터, 홍법동 홍언필 홍시영 묘산, 광주 이중 묘산, 홍여박이 추천한 양재역 뒷산 및 한강 북변산, 기중윤이 추천한 왕십리 해동촌 李忠緯 묘산과 정토 근처에 대해 지관 등이 일일이 작성한 山論과 부호군 이원진과 윤선도 등이 상문한 별단을 書啓했다. 그중에서 윤반 묘산과 정난종 묘산, 홍언필 묘산, 한강 북변산 네 곳은 국용에 알맞지 않기는 하나 조금은 우월한 측면이 있어 별도로 도형을 만들어 바쳤다.

간심 결과는 6월 15일 예조 판서 윤강, 관상감 제조 이용시는 간심 결과를 현종에게 고하였다.<sup>240)</sup> 〈표 3-29〉는 예조 판서 윤강, 관상감 제조 이용시 등이 보고한 내용이다.

지관	총호사 및 관상감 제조 이용시, 이원진, 윤선도 등	
6월 15일 간심 대상 지역	남양의 옛 고을 터	* 간심결과 윤강은 임금의 명으로 등급을 매긴다면 수원 의 戶長 집 뒷산이 용혈사수가 으뜸이니 천 재일우의 길지로서 결코 다른 산에 비교할 수 없으나, 네 곳의 산은 결코 국용에 합당 치 못하다고 하였다. 그 외 등급을 매기면 ① 교하 윤씨의 산, ② 남양 홍씨의 산, ③ 광주 정씨의 산, ④ 한강 북쪽 산
	장단의 김영렬 묘산	
	교하의 윤반 묘산	
	광주의 鄭蘭宗, 이중	
	남양의 홍언필, 홍기영	
	양재역 뒷산	
	한강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산	
	왕십리 해동촌	
	이충작 묘산	
	정토 근처	

〈표 3-29〉 효종 영릉 3차 간심

239)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6월 15일.

240)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6월 15일 ; 『『현종 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15일 (갑진).

이러한 간심 결과에 대해, 영돈녕부사 이경석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좌의정 심지원은 나라에서 쓸 만한 곳으로 두 곳밖에 없다면서 홍제동과 수원의 산을 추천했다. 이 홍제동은 선조 때와 인조 13년에도 사용하고자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임금에 묻자, 이 경석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 하고 영의정 정태화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임금은 이 말을 받아서 “홍제동은 거리가 멀어 불편하니, 수원 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종의 이 의견에 대해 입시해 있던 대신들은 대체로 찬동하였다. 그러나 판중추부사 송시열과 예조판서 윤강은 반대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송시열은 “수원은 국가의 關防 지역으로서 선대왕께서 일찍이 마음을 두셨던 곳인데, 하루아침에 헐어버려 군과 민이 살 곳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선대왕의 평상시 뜻이 아니지 않을까 염려아옵니다”라고 하면서 관방 지역임을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朱子の 山陵論에 근거하여 길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거리의 원근에 구애받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윤강은 穴形이 너무 길어 흠이라고 하였다. 송시열은 또 程子の 五患으로 성곽이 가장 나쁘다고 하니, 심지원은 수원에 원래 성곽이 없다고 했다.<sup>241)</sup>

이처럼 수원의 산을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 송시열을 중심으로 이견이 제시된 가운데, 임금은 교하 월룡산을 재심하도록 명했다. 이에 대해 총호사는 윤반 묘산은 곧 왕후 兩位 考妣의 무덤이 모두 이 땅에 있어 형세상 사용할 수 없으며, 월룡산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아뢰었다. 그 이유는 이원진 처가 이곳에 묻혀 있었는데, 예조당상이 가서 본 후에 이원진이 즉시 그 처의 무덤을 옮기고 보니 광중에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나머지인 4곳을 여러 지관 등이 재심하기로 했다.

수원 호장집 뒷산을 재심한 총호사 일행은 별단을 올렸다. 이 별단에서도 영릉 홍제동과 수원의 산을 놓고 이견이 벌어졌다. 총호사는 수원 호장집 뒷산이 “來勢의 起伏이 節節하여 법에 알맞고 청룡과 백호는 겹겹이며 案對는 정이 있고 형국은 雄偉하니,” 역량과 文明이 홍제동보다 낫다고 하며 여러 지관의 소견이 하나로 일치되고 있다고 했다. 〈표 3-30〉은 이 4곳에 대한 간심 결과이다.<sup>242)</sup>

241)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16일(을사).

242)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6월 16일.

지관	총호사를 비롯하여 예조판서 윤강, 관상감제조 오준, 산릉도감제조 정치화, 부호군 이원진과 윤선도, 참봉 이취만 등	
6.17	수원 호장집 뒷산	* 간심결과 수원 호장집 뒷산만 국용에 적합
	홍언필 묘산	
	동래군 묘산	
	한강 북변산	

〈표 3-30〉 효종 영릉 4차 간심

이들은 “홍제동은 용호가 첩첩으로 돌아가며 감싸안고 있기 때문에 문채가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에, 병으로 따라가지 못한 윤선도는 총호사에게 글을 주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곧 “산릉에 알맞은 곳은 영릉 방혈이 上이 되고 그 다음은 수원 같은 곳이 없다. 그리고 건원릉의 여러 산등성이보다도 낫다고 하였다. 이는 모두 천재일우의 땅으로 다행스럽게도 얻었으니, 멀다고 구매하지 말고 영릉으로 정하여 上으로 생각하고, 폐단을 염려하지 말고서 수원으로 정하여 다음으로 생각한다. 그 작은 것을 돌아보고서 큰 것을 잃을 수야 있겠는가. 조정에서는 아직도 持難함이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고 仰屋을 이기지 못하여 기운이 막혀 있다”고 하며, 영릉 홍제동이 수원의 산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원진도 이것이 진혈이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그 나머지 간심처는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평가되었다.<sup>243)</sup>

이에 현종은 첨지 윤선도를 불러와 부호군 이원진과 대면하게 하여 이튿날 이들과 함께 영의정 정태화, 판중추부사 송시열, 대사헌 송준길 등과 함께 모였다. 이 자리에서 양 간심처를 놓고 쟁론이 벌어졌다. 〈표 3-31〉과 〈표 3-32〉는 수원 호장의 집 뒷산과 영릉 홍제동 두 곳을 간심한 결과에 대해서 효종과 총호사 그리고 윤선도, 이원진 송시열 등이 주고받은 내용이다.

243)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6월 18일.

간심지 평가자	간심지 : 수원 호장의 집 뒷 산
심지원	“지형 산세가 매우 훌륭하고 둘러싸인 형세가 흠결이 없어 신의 범안으로도 좋게만 보였습니다
윤선도	이원진이 점찍은 곳은 峽落
이원진	윤선도가 좋다는 곳이 護砂

〈표 3-31〉 효종 영릉 5차 간심(수원 호장의 집 뒷산)

윤선도와 이원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다시금 수원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영의정 정태화는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자 했다. 효종은 왕릉을 조영하게 되면 이사해야 되는 민가와 경작을 못하게 될 전답이 도합 얼마나 되는지를 임금이 묻자, 준비된 別紙를 올리면서 정태화는 “가구 수는 5백여 채이고 전답은 7백여 結”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고을의 소재지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를 문답하고는, 판중추와 대사헌의 소견을 물었다.

간심지 평가자	간심지 : 영릉 홍제동
윤선도	수원이 쓸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에 비해 홍제동이 더 낫다는 것이다. 윤강 혼자서 홍제동이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윤강	“英陵이 地氣를 다 받은 곳이라면 그곳은 바로 枝葉 사이에 맺어진 혈입니다”라고 하여, 그 흠결의 근거를 제시
송시열	홍제동을 지관들은 다들 좋다고 하는데 윤강의 말만 듣고 버리려는 저의를 의심했다. 健元陵이 있는 여러 산등성이 중에도 틀림없이 쓸 만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누누이 아뢰었다

〈표 3-32〉 효종 영릉 5차 간심(영릉 홍제동)

송시열은 임금의 뜻이 이미 수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그 뜻에 그저 순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임금이 만약 홍제동에다 뜻을 둔다면 여러 신하들도 틀림없이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홍제동으로의 결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송시열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심지원과 정태화는 매우 못마땅해 했다. 임금 역시 뜻을 굽히지 않자, 송시열은 健元陵이 있는 여러 산등성이 중에도 틀

림없이 쓸 만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누누이 아뢰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예조에서는 본조의 당상관과 산릉도감·관상감의 제조 등을 수원으로 보내 裁穴하고 오게 할 것을 청하여, 수락을 받았다.<sup>244)</sup> 이렇게 효종의 산릉이 수원으로 결정되었는데도, 반대 기류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표 3-33〉은 수원 호장집 뒷산은 국용에 부적합하다고 논쟁한 인물과 내용이다.

수원 반대	간심지역에 대한 평가 내용
부호군 이상진 <sup>245)</sup>	풍수상의 흠을 들면서 반대
총호사 심지원 <sup>246)</sup>	이 상소에 대해 유념하겠다는 비답을 내렸다는 이유로 재핵을 못하겠다고면서 노골적인 불만
판중추부사 송시열 <sup>247)</sup>	자신의 발언으로 대신이 불안을 느끼게 한 죄로 사직을 청했다.
咸陵君 이해 <sup>248)</sup>	송시열이 거론한 정자의 오환을 재론하면서 윤강이 지리를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음을 꾸짖고는 홍제동을 극구 찬미했다.
연양부원군 이시백 <sup>249)</sup>	연거푸 세 차례나 차자를 올려 수원은 쓸 자리가 못된다고 극구 진변
원평부원군 원두표	상소문을 올려 홍문관과 사간원에서 산릉에 관하여 논의한 소장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하교에 대하여 언로의 개방을 요구

〈표 3-33〉 효종 영릉 택지 수원 호장의 집 뒷산 불가론

이러한 반대 여론에 대해 당시 사관은 “이상진과 이해는 송시열의 논리에 동조하는 자들”이라면서, “홍제동이 선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쓸 곳이 못 된다는 하교가 있었다면, 수원이 비록 만세 이후에 오환이 있을지라도 衣冠을 간직해둘 곳이 수원 말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 하고는, 송시열의 선창으로 조정 전체가 그리로 쏠려 淸議라도 되는 양하고 있다고 논설했다. 이해의 상소도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한 것은 물론이다.<sup>250)</sup>

수원 산의 하자를 말하는 상소문은 분분이 답지했다. 현종은 풍수설을 모르는

244)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19일(무신).

245)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0일(기유).

246)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0일(기유).

247)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0일(기유).

248)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1일(경술).

249)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2일(신해).

250)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1일(경술).

자의 산릉에 관한 소장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정원에 명하였다.<sup>251)</sup> 이처럼 일부의 반대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결정된 산릉에 대한 후속작업이 단행되고 있었다. 총호사 이하는 수원부로 가서 행부호군 이원진, 첨지 윤선도 및 여러 지관들과 더불어 裁穴과 封標를 상의하고 尺量을 했다. 그리고 재혈을 마치고 들어와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택일하도록 할 것을 아뢰어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sup>252)</sup>

그러나 총호사 심지원도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후속작업을 추진하기에 곤란함을 느꼈다. 이에 그는 택일하라는 명을 정지하고 빨리 2품 이상의 재신과 삼사관원들이 빈청에서 회의하여, 모두 불가하다고 한다면 기한에 구애하지 말고 다시 간심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임금은 즉시 택일할 것을 명했다. 총호사는 玄宮을 내릴 날이 9월 중에는 길일이 없어 부득이 10월 1일 발인하여 4일에 현궁을 내리기로 날을 잡았다고 하였다.<sup>253)</sup>

여전히 소장이 분분한 가운데, 함릉군 이해로부터 배척당한 예조판서 윤강이 사직상소를 올리고 전 영중추부사 원두표도 상소하여, 수원 산은 쓸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극구 말하고 또 윤강이 지술이 부족하다고 배척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총호사 심지원은 이상진·유계·이광재로 하여금 수원 산과 홍제동을 다시 보게 할 것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때 이상진은 廣州 圓寂山이 용세가 좋고 獻陵 내의 梨樹洞이 예로부터 일컫던 자리라고 하면서 이 두 곳을 보게 할 것을 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sup>254)</sup> 대사헌 송준길이 사직상소를 올려, 반대여론을 그냥 물리쳐버릴 것이 아니며 경기 내의 여러 산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금은 “산릉 문제는 이미 다시 보기로 하였으니 경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고 했다. 이조판서 송시열도 동시에 상소하여, “지금은 위로 공론도 무섭고 아래의 못 기룡도 너무 절박하여 감히 輦下에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기에 곧바로 성 밖으로 나와 엄명을 기다리는 것이오니, (중략) 산릉이 끝나기를 기다릴까 합니다.”라고 하여 물러날 뜻을 밝혔다.

예조판서 윤강 등은 다시 수원부로 가서 산형을 본 후에 부호군 이상진 등 3인

251)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1일(경술).

252)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현종 즉위년 6월 24일 ;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253)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254)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이 각각 소견을 써서 별단을 올려 보내고 곧바로 광주 땅으로 향했다.<sup>255)</sup> 이런 와중에도 또 완남부원군 이후원이 수원 산은 쓸 곳이 못 된다는 상소를 올렸다.<sup>256)</sup> 반대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다른 산을 간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호사 심지원은 “같은 시각에 한쪽에서는 산을 찾고 다른 한쪽에서는 山役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수원의 산역을 잠시 정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임금은 그대로 산역을 시작할 것을 명했다. 이에 대해 대사헌 송준길이 상차하여 산역의 정지를 청하자, 이상진이 돌아올 동안까지 정지하도록 하였다.<sup>257)</sup>

그러나 그 다음날에 광주의 원적산 등을 간심한 예조판서 윤강 등이 그 결과를 보고했다. 〈표 3-34〉는 예조판서 윤강이 다시 가서 간심을 하고난 후 보고한 내용이다.

간심지 및 평가자	간심지 : 광주의 원적산, 廣津江 위의 산, 梨樹洞
예조판서 윤강	행호군 이상진이 추천한 광주 땅의 元積山은 행릉의 止處를 찾아 보니 모두 형국이 있더라도 穴道가 협착했습니다.
	이광재가 추천한 廣津江 위의 산은 용혈과 砂水가 모두 법에 알맞더라도 역량이 큰 쓰임에 알맞지 않은 듯하며
	梨樹洞의 산은 이상진 등 3인이 모두 莊이 대국 안에 있어 자상못 雄偉한 기가 있고 主星은 明的하지 않은 듯하며 혈장은 龐大보다 지나치고 이 외에 역시 흠있는 곳이 많다

〈표 3-34〉 효종 영릉 6차 간심

이에 현종은 “그렇다면 수원을 그대로 쓰라”고 했다.<sup>258)</sup> 이에 따라 산역이 재개되었다. 그런데 임금이 대신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다시금 산릉에 대한 송시열의 생각을 물었다. 송시열은 수원에는 언제나 6, 7천의 병마가 주둔해 있고, 三南의 요충지대에 해당되므로 만약 변란이 있게 되면 틀림없이 싸움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왕릉을 조영하면서 수백 호의 민가를 일시에 철거하고 분묘들을 옮기고 생업을 깨트린다면, 그에 따른 원한과 한탄이 국가에 화를 불러 일으

255)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현종 즉위년 6월 26일.

256)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6일(을묘).

257)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8일(정사).

258)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현종 즉위년 6월 29일 ;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9일(무오).

걸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뜻을 보였다. 송시열이 이를 극력 간쟁하면서 이어 健元陵 원편 등성이를 여러 지관에게 다시 물어볼 것을 청했다.

현종은 건원릉 원편 산등성이를 두 능의 龍虎로 써도 두 능에 방해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 이원진 · 윤선도와 여러 지관들에게 물어 아뢰라고 하였다.<sup>259)</sup> 건원릉 서동의 간심 결과에 대해 연양부원군 이시백은 건원릉 원편 산등성이에 대해서 충호사가 물으니 쓸 수 없는 곳이라고 한 사실을 고했다. 〈표 3-35〉은 연양부원군 이시백의 세 가지 주장 이다.

구분	연양부원군 이시백 주장
1	고 相臣 李恒福이 경자년 懿仁王后 국장 때에 전후 議啓한 것들이 모두 그의 문집 속에 있는데, 건원릉의 여러 산등성이에 대하여 그 형세들을 매우 자세히 논했다는 것이다. 그 만큼 이 자리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
2	건원릉은 바로 태조가 無學과 함께 골라잡은 자리라는 것이다.
3	선조 때의 술사 李懿信·朴尙毅 등은 사실 요즈음 풍수설을 안다는 자들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곳이야말로 쓸 만한 순수한 길지라는 것으로, 오늘 지관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편 첫째 등성이 외에 다른 등성이들도 많은데, 원편 첫째 등성이만 보고 다른 등성이들은 보지 않는 이유는 무어냐고 따져 물었다.

〈표 3-35〉 효종 영릉 7차 간심(건원릉 서쪽 산줄기)

이상진 이하 여러 지관들로 하여금 건원릉의 원편 첫째 등성이부터 다른 여러 등성이까지 다시 보고 수원의 혈도도 다시 상량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임금은 후자의 제안만 수용하는 것으로 그쳤다. 또 이어진 상소는 부호군 이상진이 올린 것이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洪汝溟이라는 자가 어느 재상집에 와서 수원 산보다 나은 다른 산이 있다고 극력 소개한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를 찾아 불러 보았더니, 서울 근지에 국장을 할 만한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그곳을 답사해 보니, 그 한 군데는 건원릉 안의 西洞으로서 白虎가 두 겹을 막혀 있는데다 형세가 소명하고 바르며 기상도 혼후하여 순수하고 아름답기가 東局의 여러 능들과 막상막하였고, 또 한 군데는 佛岩山 아래의 花蝶

259)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30일(기미).

洞으로 星峰이 우뚝 솟아 있고 雙乳가 혈을 이루고 있어 기세가 청수하고 웅장하여 존귀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果川 땅이었는데, 미처 가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상 세 곳을 추천하고 지관으로서 조량과 李衍, 李光載를 천거했다. 그러나 막상 총호사가 나갈 때는 이간과 조량을 대동하지 말도록 했다.<sup>260)</sup>

이렇게 반대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건원릉 안과 화점동을 간심하라는 명이 내려졌다.<sup>261)</sup> 수원에 재혈처를 잘못 정한 것에 대한 연양부원군 이시백의 지적에 따라 다시 간심하라는 명도 내려졌다. 그런데 간심단에는 원래 조량이 동참하게 되어있었다. 총호사 심지원은 “조량은 전일에 수원에서 卜山할 때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했다.<sup>262)</sup> 사실 조량을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뇌물 수수에 대한 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이상진과 함께 답사하여 길지로 본 그를 대동하기란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표 3-36>은 건원릉 안과 화점동을 간심한 결과이다.

간심지 및 평가자 <sup>263)</sup>	간심지 : 건원릉 안과 화점동
부호군 이상진 대사성 유 계 전장령 이광재 심종적, 신경윤, 김태후	홍여명이 좋다고 한 능 안의 산은 흙이 없지 않고, 奇重胤과 李蕊이 보았다는 穆陵 원편 산등성이는 큰 자리로 쓸 수 있다고 못 논의가 일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sup>264)</sup>
첨 지 윤선도	건원릉 원편 등성이는 그 국세가 수원만 못하다는 것을 일찍이 아뢰바 있고, 불암산은 그게 바로 火山인데 화산 밑에는 혈이 맺지 않는다고 古方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다.

<표 3-36> 효종 영릉 8차 간심(건원릉 안과 화점동)

이렇게 목릉의 원편 산등성으로 기우는 듯하자, 총호사 심지원은 재혈과 장례

260)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2일(신유).

261)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현종 즉위년 7월 2일 ;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2일(신유).

262)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현종 즉위년 7월 2일.

263) 『(효종)산릉도감의궤』 계사, 7월 2일 ;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2일(신유).

264)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4일(계해)

의 기한 등을 논의할 것을 청하였다. 건원릉 서쪽 산줄기의 형국에 대한 현종의 질문에 총호사는 “그곳 형국이 수원보다 낫다고 한데 있어서는 신이 감히 알 수 없으나, 백성을 옮기고 읍을 옮기는 폐단이 없으니 이것이 편리하다고 봅니다.”라고 하고, 윤강도 수원만 못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갈등양상으로 치닫게 된 책임으로 사직을 청하였다. 공조판서 정치화도 새로 본 산등성이를 매우 훌륭하다고 누차 찬미했다. 그러자 윤강은 “수원 산은 그만두어야겠습니다.”라고 하여 포기 의사를 나타냈다.<sup>265)</sup>

대사간 이정기 등은 첨지 윤선도의 불경죄를 탄핵하면서 압박했으나, 임금의 마음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총호사 심지원도 이에 힘입어 수원의 여러 산을 다시 보았는데, 다행히도 乾坐로 된 산등성이가 다소의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풍수설을 아는 사람들이 해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나, 여러 대신 및 유신들과의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을 청했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 영의정 정태화를 비롯하여 영중추부사 이경석, 연양부원군 이시백, 이조판서 송준길 등이 빈청에 모였다. 이시백과 이경석은 연명으로 상차하여 수원 산을 쓰지 말 것을 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종은 “건좌로 된 산은 흠이 없지 않기 때문에 경들의 말이 비록 간곡하지만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였다.<sup>266)</sup> 〈표 3-37〉는 수원 호장 집 뒷산을 간직한 후 철회를 요청하는 지관들의 현황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수원 호장 집 뒷산 철회 요청
7월 8일	이경석·이시백은 “구구한 생각은 차차로 대략 밝혔으므로 삼가 재량하여 취사를 정하시기를 바랄 뿐 달리 아뢴 말은 없습니다.”
	대사헌 채유후, 대사간 이정기, 사간 이후, 헌납 강호, 정언 여성제·권상구
	부호군 이상진, 예조 판서 윤강, 완남 부원군 이후원이 서로 이어 소를 올려, 건좌의 산을 높이 찬미하고 수원을 그대로 쓴다는 명령을 거두도록 청하였으나 거절
	홍문관이 상차하여, 수원 산을 그대로 쓴다는 명령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거절

〈표 3-37〉 효종 영릉 수원 호장 집 뒷산 철회 요청

265)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7일(병인).

266)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8일(정묘).

심지원은 대간의 논계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니 논계가 맞기를 기다렸다가 재할 할 것을 청하자, 임금은 잠시 형세를 관찰하라고 하였다.<sup>267)</sup>

그 뒤 호군 이상진이 또 상소하여 윤강과 윤선도를 비판하고,<sup>268)</sup> 송준길은 수원을 꼭 쓰지 말자고 하는 데는 깊은 뜻이 따로 있으니, 그것은 우리나라 秘記에 ‘국가에 일이 있으면 수원에서 변이 일어나 서울과 나라 안이 불안해질 것이다’라고 한 말에 근거한 우려 때문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사관은

“수원은 서울 인접의 重鎭으로서 하루아침에 읍을 옮긴다면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 조정 신료들이 난색을 표하는 자가 많았고 그리하여 산릉을 정하는 논의가 오래도록 결정이 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준길이 儒者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여, 마치 禍福으로 상대에게 충격을 주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는 뜻이 하였으므로, 식자들이 비웃었다.”라고 비판하였다.<sup>269)</sup>

그렇더라도 대세는 바뀌어 나갔다. 임금은 대신들과 모인 자리에서, “산릉 문제에 대해 의논이 분분하므로 내 감히 독단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거쳐 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신들의 말이 모두 건좌의 산이 수원보다 낮다고 하니 그리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sup>270)</sup> 한 달여를 끌어온 산릉의 선정 문제가 결국 이렇게 일단락되었다.

## (2) 천장된 효종 寧陵의 택지과정

효종의 영릉이 조영되고 1년이 지난 이듬해 7월, 봉분에 치장된 석조물에 틈이 생기고 정자각의 기와 위 석회 등이 벗겨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수릉관이 보고해 왔다.<sup>271)</sup> 당일 경기감사는 6월에 상당한 가뭄이 있었는데 장단 등지에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있음을 알려왔다. 우의정 원두표 등이 봉심한 결과를 보면, 석물이 꺼졌거나 틈이 생긴 곳이 모두 26군데이고, 정자각에 바른 석회도 일곱

267)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9일(무진).

268)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11일(경오).

269)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11일(경오).

270)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11일(경오).

271) 『현종실록』 권3, 현종 1년 7월 18일(신미).

군데가 벗겨졌으며, 기와도 거의 절반은 색이 붉어지고 또 깨진 곳도 있었다.<sup>272)</sup> 참고로 아래 〈그림 3-1〉은 현재 교하에 있는 인조 장릉의 봉분이 무너져 내린 사진이다.<sup>273)</sup> 이때 송시열은 고쳐야 한다면 제대로 고치고, 호석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있어 세종의 영릉처럼 흙으로 된 봉분으로 고칠 것을 주장 하였다. 그리고 송준길은 우선은 급한 대로 수리를 하고 훗날 크게 다시 고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였다.<sup>274)</sup>



〈그림 3-1〉 교하로 천장된 인조 長陵 (2010년 9월 28일 이덕형)

이에 현종은 영릉에 직접 거둥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를 지시하였다.<sup>275)</sup> 때 장릉 조영을 총괄하였던 좌의정 심지원은 여덟 번이나 사직을 청하였다.<sup>276)</sup> 이후

272) 『현종실록』 권3, 현종 1년 7월 23일(병자).

273) 조선왕릉은 봉분이 비교적 높게 치장 되어있는 것에 비해서 봉토의 사면 경사가 급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屏石이 아래에 둘러쳐 있고 그 위에 봉토가 조성되는 구조이기에 폭우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사진을 게재한 이유는 천장을 했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너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다. 이 사진을 촬영하기 며칠 전인 2010. 9. 19(일) ~ 9. 21(화) 까지 교하에는 86mm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274) 『현종실록』 권3, 현종 1년 8월 5일(무자).

275) 『현종실록』 권3, 현종 1년 8월 27일(경술).

예조판서 윤강 등이 영릉의 석물을 고쳤다.<sup>277)</sup>

그러나 그 후에도 석물과 사초 등에 지속적으로 이상이 발생해 해마다 개수하였다. 해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자, 드디어 천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종 10년에 영릉 제관으로 차출되어 다녀온 좌참찬 송준길이 석물의 개수를 건의하고, 또 “신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 산등성이에 올라 살펴보니, 光明灑落한 곳일 뿐만 아니라 先陵과 함께 한 곳에 있으니, 그 정리에 있어서도 역시 편안해 보였습니다. 혹 어떤 지관의 무리가 능소를 옮기자고 청하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실로 망령된 말이니 일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sup>278)</sup> 영릉이 풍수상으로 길지임에는 틀림없으니, 그 이전부터 천릉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풍수가들의 말을 듣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아마 현종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풍수상의 길흉 논리에 자못 신경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현종 14년에 영림부령 이익수가 상소를 올려, 영릉의 10년 전과 현 상태를 자세히 전하면서 천릉이 어렵다면 개봉할 것을 건의하였다.<sup>279)</sup> 10년 전의 상태는 봉릉의 대세가 서북방으로 기울어진 듯하면서 평평하고 낮아져 다른 능과 같지 않았으며, 석물의 큰 틈은 팔뚝도 들어갈 만하다고 하였다. 국장을 치른 다음해에 봉릉의 지대석을 배치한 곳이 장맛비로 인하여 꺼져 내려서, 지면의 흙을 파내버리고 대석을 드러나게 하였기 때문에 그 형세가 평평하고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여졌다. 석물의 틈은 더욱 벌어지고 틈 안은 텅비어 내부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도 없고 지대석에는 고인 빗물이 배수가 안 되어, 아무리 보수를 해도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종은 석물 틈으로 빗물이 흘러들어간 壙中의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을 것이며 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심 끝에 이익수를 불러서 다시 영릉의 현황을 재확인하였는데, “틈이 가장 큰 곳은 그 안이 매우 넓어서 木尺으로 헤아려 보면 막힘없이 깊이 들어간다”고 하였다.<sup>280)</sup> 현종은 대신과 正卿, 三司의 장관은 이익수와 함께 가서 영릉을 살펴보라고 명하였다. 이를 뒤 봉심하러 나가는 일행에게는 “능 위의 12면을 얇은 油紙에다 圖形을 만들고 크

276) 『현종실록』 권3, 현종 1년 8월 14일(정유).

277) 『현종실록』 권3, 현종 1년 10월 12일(갑오).

278) 『현종실록』 권16, 현종 10년 3월 11일(갑진).

279)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3월 24일(갑오).

280)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4월 2일(신축).

고 작은 틈을 하나하나 자로 재어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였다.

봉심한 결과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은 풍수상의 卜吉의 잘못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石役이 견실하지 못했던 것에 있었다. 해결방안으로는 개봉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강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현종은 신해년의 일과 英陵 천봉 사유를 상고해 오라고 하고, 당시의 도감 당상 이하를 잡아다가 문초할 것을 지시하였다.<sup>281)</sup> 신해년의 일은 선조대에 북도에서 능을 개봉한 사례를 말한다.

그 후 조정의 아들 부수찬 조위봉이 전후로 봉심에 참여했던 신하들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sup>282)</sup> 현종은 이에 따라 틈의 分數를 기록한 봉심 문서가 남아있는지를 아뢰라거나,<sup>283)</sup> 대신 이하가 해야 하는 봉심을 예조당상만을 보낸 당해 당상과 낭청을 국문하고 엄히 물어 처치하도록 하였다.<sup>284)</sup> 현종은 영릉의 조성과 봉심, 개수 등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당사자들의 잘못을 들추어 그 책임을 물어갔다. 천릉의 불가피성을 이미 결단하고 이를 별다른 저항 없이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게다가 전례를 상고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이렇다고 할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종은 이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지, 예조판서 조형 등을 부른 자리에서 ‘실록을 상고해 보니 개봉에 관한 규례가 없었다’고 하면서 卜山능 구해서 遷陵할 뜻을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 현종은 먼저 破陵할 길한 해를 지사에게 물어 의논하도록 하였다.<sup>285)</sup> 그리고 봉심 문서의 허위와 날조를 낱낱이 밝혀, 당시 대신이었던 판부사 정치화와 선공감제조였던 좌상 김수항을 파직하고 죄명을 기다리도록 하였다.<sup>286)</sup> 그 후 이들에 대한 처결을 확정하고, 우의정 김수흥과 예조의 판서 및 당상을 인견한 자리에서 천릉에 대한 그들의 동의하에 定山을 명하였다. 현종의 명에 따라 예관은 관상감 제조를 포함하여 지관 과 지술에 정통한 사대부를 데리고 근방의 여러 산을 간심하게 하였다.<sup>287)</sup> 현종은 우의정

281)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4월 5일(갑진).

282)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4월 11일(경술).

283)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4월 17일(병진).

284)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4월 18일(정사).

285)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4월 19일(무오).

286)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4월 22일(신유).

287)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5월 5일(갑술).

김수흥 등에게 이르기를, 금년에 능을 옮기면 좋다고 하니 內梓宮 을 예비하고 기다리도록 하라고 하였다.<sup>288)</sup> 〈표 3-38〉은 효종의 영릉 천장과 관련하여 처음 간심을 한 결과이다. 특징적인 사실은 세종의 영릉 홍제동이 당초에는 거리가 멀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다시 또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sup>289)</sup>

지관	총호서 김수흥, 예판 및 관상감 제조 및 도감 당상 조형과 민유중	
현종 14년 5월 26일	健元陵	* 간심결과 여러 지관이 모두 말하기를 ‘ 英陵 안의 홍제동 이 가장 좋다.’고 하였는데, 건원릉에 비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光陵	
	英陵	
	楊州 花蝶洞	
	水原 읍내	

〈표 3-38〉 효종 영릉 천장 1차 간심

〈표 3-39〉는 현종이 산릉 도감 당상인 조형 과 민유중 과 다른 지관들을 불러다가 간심한 상황을 직접 물어본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sup>290)</sup>

지관	산릉 도감 당상인 조형 과 민유중 과 다른 지관
花蝶洞	형세가 꽤 좋지만 穴위에 10여 개의 옛무덤이 있으니 쓸 수 없을 듯
寧陵	백호 밖 첫 번째 언덕이 영릉 에 비교해 낮지만 마무리되는 마당이 작으니, 모두 英陵 안쪽 弘濟洞의 순수하게 좋은 곳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

〈표 3-39〉 현종과의 일문 일답

효종의 천장지에 대해서 여주 홍제동으로 의견이 일치되어가는 경향이 보이자 우의정 김수흥, 예조 판서 조형, 산릉도감제조 민희, 관상감제조 민유중 등이 수원에 가서 재혈을 하고 오겠다고 하였다.<sup>291)</sup> 총호사 김수흥 등은 5일 뒤 수원 홍

288) 『현종개수실록』 권27, 현종 14년 5월 15일(갑신).

289)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5월 26일(을미).

290)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5월 27일(병신).

291)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6월 2일(경자).

제동에서 돌아와 재혈과 택일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천릉을 하기위한 택일 중 舊陵을 파묘하는 날은 9월 29일, 新陵에 玄宮을 내리는 날은 10월 7일이 길하다고 하였다.<sup>292)</sup> 하지만 택일은 산릉도감의 지관 潘好義 등은 10월 25일 午時가 매우 좋다고 하였다.<sup>293)</sup> 실제 효종의 구 영릉을 파묘하는 시각은 卯時로 고쳤고,<sup>294)</sup> 玄宮을 내리는 날은 지관 반호의 등이 10월 25일 午時에 시행하기로 하였다.<sup>295)</sup>

택일에서 파묘하는 날과 하현궁하는 날의 간격은 대개 7일 전후이다. 이것은 천릉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용되는 일정이기도 하다. 실제로 산릉도감에서는 현종에게 하현궁할 예정일이 舊陵을 헐 날과 고작 7일 이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하게 되면 일들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하현궁하는 날짜가 잡혀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날짜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sup>296)</sup> 그래서 택일의 이면에는 어떤 사안을 해결하려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다.

효종의 구 영릉을 예정된 날짜인 9월 29일에 파묘 하였다. 행 판중추 김수항, 총호사 김수흥, 공조 판서 이정영, 호조 판서 민유중, 대사헌 장선징, 병조 판서 김만기, 호조 참판 김휘, 좌윤 권우, 형조 참판 정익, 예조 참판 이은상, 대사간 신정, 교리 임상원 등이 현장을 다녀와 현종에게 보고하였다. 裳石과 屏風石 안에 탈이 난 이유는 상석 상단이 正地臺와 下地臺의 두 돌 사이에 끼여 있지 않고 다만 정지대의 아래에만 붙어있어서 상석이 밀려나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때 상석 아래의 흙은 정상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난간석을 고정하는 재료는 벽돌이어야 되는데 잡석으로 되어있어 봉분을 덮고 있는 석회가 밖으로 밀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 내용 중 상석 아래의 흙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그것은 비록 병풍석과 난간석 등이 밀려 틈이 벌어졌더라도 상석 아래의 흙이 정상이었다면 물이 광중까지 침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297)</sup> 이것은 다음날 재궁을 꺼내면서 확인된다. 낙선군 이숙, 행 판중추

292)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6월 7일(을사).

293) 『현종개수실록』 권27, 현종 14년 7월 7일(갑술).

294)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7월 6일(계유).

295)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7월 7일(갑술).

296) 『현종개수실록』 권27, 현종 14년 7월 7일(갑술).

297)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9월 29일(을미).

송시열 · 김수항, 총호사 김수홍, 익평위 홍득기, 동평위 정재륜, 영양군 이현, 북창군 이정, 복선군 이남, 북평군 이연, 호조 판서 민유중, 병조 판서 김만기, 좌윤 권우, 호조 참판 김휘, 예조 참판 이은상, 병조 참판 김우형, 공조 참판 민점, 강화 유수 민시중, 대사간 신정, 집의 이단석, 장령 유연, 교리 임상원 · 윤지선 등이 보고한 내용에 “재궁을 幕次에 봉안한 뒤에 살펴보니, 조금도 상처가 없고 옷칠의 색깔도 완전하였습니다. 또 壙中에 들어가 살펴보니 外梓宮 안은 마르고 깨끗하여 흙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sup>298)</sup> 즉 광종의 사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총호사 김수홍은 사방의 돌을 파낼 때에는 꽤 습기가 있었으나 다시 3척을 파 보니 흙 색깔이 건조하고 습기가 없었다고 하였다.<sup>299)</sup> 재궁은 10월 4일 출발하여<sup>300)</sup> 10월 5일 新陵에 도착하였다.<sup>301)</sup> 그리고 10월 7일 巳時에 下棺하였다.<sup>302)</sup>

재궁이 떠나고 난 후 구릉의 상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천릉도감 당상 김휘와 우승지 심재 등은 능침의 구석구석을 살펴며 문제가 있는 곳을 조목조목 나열해 가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주된 내용은 능침 내부구조 중 석재의 가공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sup>303)</sup> 보고를 접한 현종은 당시 산릉에 관여했던 도감 당상과 낭청 등을 잡아 들였다.<sup>304)</sup> 다음날 송시열은 舊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구릉을 파묘하여 흙을 1尺 정도 파내려 간 뒤에 광종 재궁 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새로 잡은 곳이 아무리 좋다 한들 원래 있던 곳만 하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천장을 결정한 상태이기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sup>305)</sup> 송시열이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은 아마도 당초 신릉 조영에 관여하였다가 지금 잡혀들어 온 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20일경 新陵 조영이 끝난 뒤 구릉과 관련된 문책이 뒤따랐다. 정치화에게는 큰 제사지내는 丘壇을 훼손한 법률을 적용하여 죽음에 해당되나 병조의 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으니 사형을 감하여 주었다. 하지만 현

298) 『현종개수실록』 권27, 현종 14년 9월 30일(병신).

299) 『현종개수실록』 권27, 현종 14년 10월 1일(정유).

300)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10월 4일(경자).

301)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10월 5일(신축).

302)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10월 7일(계묘).

303)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10월 10일(병오).

304)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10월 11일(정미).

305)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10월 12일(무신).

종은 산릉을 조영할 때 감독관 이었던 신명규·이정기에게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하라고 하였으나<sup>306)</sup> 죄를 감해주어 濟州로 유배 보냈다.<sup>307)</sup>

한편 현종은 새로 조영되는 寧陵은 쌍분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호사 김수흥에게 물었다. 이에 도감 당상 민유중은 “만약 쌍분으로 쓴다면 正穴이 가운데에 있어 비어버리게 됩니다. 지관들이 모두 말하기를 ‘아래 穴도 아주吉하다.’고 합니다. 만약 상·하혈에 쓴다면 그것은 쌍릉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영형식은 동원 상하봉으로 지금까지 조선 왕릉의 조영에서 채택되고 있지 않았던 양식이였다. 그리고 봉분의 형태는 세종의 영릉과 세조의 光陵처럼 屏石을 세우지 않기로 하였다.<sup>308)</sup> 천장하는 능소를 선정하고 봉분을 조영하는 형식과 택일까지 마친 후 총호사 김수흥 등은 재혈처의 壙中죽업을 하였다. 현종이 광중의 사정을 물으니 광중의 토질은 정세하고 견고하며 색 또한 윤기가 있었고, 광중을 팔 즈음에 마치 시루에서 나오는 기운처럼 훈훈하게 온기가 올라와 반호의 등 여러 지관들이 모두吉하다고 하였다.<sup>309)</sup> 바로 그곳에 조영된 왕릉이 〈그림 3-2〉이다.



〈그림 3-2〉 여주 홍제동으로 천장된 효종의 寧陵 (2010년 7월 6일 이덕형 촬영)

306)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11월 2일(정묘).

307)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11월 3일(무진).

308)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6월 20일(무오).

309)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9월 4일(경오).

효종의 영릉을 조영하면서 이전까지는 치장되지 않았던 표석이 설치되었다. 행판중추부사 송시열은 새로 조영되는 효종의 영릉에 표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현종은 모든 왕릉에 다 세우자고 하였으나 송시열은 우선 新陵에 세우고 추후 다시 논하자고 하였다.<sup>310)</sup> 하지만 실제로 새로 조영되는 효종의 영릉에 표석을 세우고자 한 송시열의 뜻에 반대의 기류가 있었다. 영돈녕부사 金佑明은 國陵에 표석을 세우는 것은 3백 년 동안 행하지 않던 일이었고, 新陵의 石物은 일체 英陵을 보고 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 놓고 표석을 세우고자 한 것을 지적하였다. 더구나 新陵에 일단 표석을 설치하게 되면 각 능에도 모두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서 왕릉에 표석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왕릉인 줄 모르겠냐며 표석에 대한 것은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311)</sup> 하지만 현종은 “다른 능의 경우에는 비록 뒷날 세우더라도 英陵은 같은 산 안에 있으니 新陵과 함께 동시에 세워야 한다.” 고 하였다.<sup>312)</sup>

송시열은 표석에 대해서 공자가 季札의 묘에 篆字로 墓表를 쓴 예를 들었다. 그 내용은 계찰 이 나라를 사양했던 의리야 말로 泰伯이나 伯夷와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그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공자가 그 묘에 비를 세워 篆刻을 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 그 공이 전해지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표석의 설치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다.<sup>313)</sup> 효종의 新陵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송시열은 표석세우는 일에 대해서 현종의 의지를 파악하였다. 표석세우기를 원한다면 다시 명을 내리라는 것이었다.<sup>314)</sup>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숙종 대에 모든 왕릉에 표석이 설치되었다. 新陵 조영은 총호사 이하 여러 執事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sup>315)</sup>

310)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8월 18일(을묘).

311) 『현종개수실록』 권27, 현종 14년 9월 9일(을해).

312)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9월 11일(정축).

313)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9월 17일(계미).

314)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10월 12일(무신).

315)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11월 25일(경인).

#### 4. 18세기에 조영된 왕릉택지

##### 1) 숙종 명릉의 왕릉택지

숙종은 1721년 6월에 경덕궁에서 승하였다.<sup>316)</sup> 숙종은 인현왕후 민씨가 안장된 명릉 서쪽에 안장 되었다. 인현왕후 민씨의 국휼 때, 숙종은 자신이 묻힐 곳으로 산릉의 우측을 비우는 제도를 택했다. 이 제도는 장릉에 의거하여 刻石을 裁穴處에다 표시해 두었다. 정혈을 裁定하고서 開土하는 일에는 먼저 능소에 사유를 고하기 위해 택일하도록 했다.<sup>317)</sup> 그런 이유로 숙종의 장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인현왕후 민씨의 능소 선정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인현왕후 민씨의 왕릉택지 선정과정

아래 〈표 3-40〉은 인현왕후 민씨의 국장을 담당했던 장례 담당 관리들이다.<sup>318)</sup> 특징적인 것은 서종태는 빈전도감과 국장도감의 제조를 겸하고 있었다.

구분	담당 주무관
총호사	좌의정 이세백
빈전도감 제조	서종태·김진귀·민진후
국장도감 제조	김구·김창집·서종태
산릉도감 제조	엄집·홍수헌·조상우
수릉관	여산군·이방
시릉관	내관 신해

〈표 3-40〉 숙종비 인현왕후 민씨 국상시 총호사 및 삼도감 당상

316) 『경종실록』 권1, 경종 즉위년 6월 8일(계묘).

317) 『(숙종)산릉도감의궤』(K2-2328) 계사, 경종 즉위년 6월 13일.

318)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 8월 14일(기사).

명릉에 먼저 치장된 인현왕후 민씨는 1701년(숙종 27) 8월 14일 축시 사경 일  
점에 창경궁 경춘전에서 승하였다.<sup>319)</sup> 인현왕후 민씨의 산릉은 1680년(숙종 6년)  
인경왕후 김씨의 국장 당시 살펴본 봉표지 중, 卯坐의 언덕에 장사지내기로 하였  
다. 그리고 虛右의 제도는 長陵과 같게 하도록 하였다.<sup>320)</sup> 그럼에도 인현왕후 민  
씨의 성복이 끝난 후 간산하는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 되었다. 이때 간산 활동에  
참여한 지관들은 〈표 3-41〉과 같다.<sup>321)</sup>

지관	관상감교수 朴振門, 검교수 南世郁, 전첨정 鄭倬, 전현감 崔斗明, 전찰방 權順泰, 절충 李薰廷, 전초관 李煒, 전참봉 愼懋
----	---

〈표 3-41〉 인현왕후 민씨 택지 간심단

간심단 일행에게는 타고 다닐 말이 제공되었고, 갖춰야 할 준비물은 〈표 3-4  
2〉와 같다.<sup>322)</sup>

구분	간심에 필요한 준비물
圖形	搗鍊紙 5장, 草圖形 草注紙 5장, 結裹 楮注紙 2장, 油紙 3장, 洪道大 1개, 초석 2립, 条索 반거리, 簧필 2자루, 진묵 2정.
장계	초주지 2장, 유지 2장, 초석 1립, 서판 2부, 조삭 반거리.
산론	백필 8자루, 진묵 4정, 백지 1권

〈표 3-42〉 인현왕후 민씨의 택지 간심단의 준비물

다음은 인현왕후 민씨의 卯坐之岡에 대한 산론을 살펴보겠다. 인현왕후 민씨의  
간심단은 가장 먼저 敬陵 화소 안의 卯坐之岡을 간심했다. 이곳은 1680년(숙종  
6) 인경왕후 김씨의 산릉 간심 때 참여했던 지관들은 7명이었는데 그들이 간산을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23)</sup>

319) 『仁顯王后國恤謄錄』(K2-3003) 숙종 27년 8월 14일.

320)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 6월8일(신사).

321) 『仁顯王后國恤謄錄』(K2-3003) 숙종 27년 8월 20일.

322) 『仁顯王后國恤謄錄』 숙종 27년 8월 20일.

323) 『仁顯王后國恤謄錄』 숙종 27년 8월 22일.

### ① 전현감 최두명

산을 간심한 즉, 主勢가 응위하고 혈장이 端妙하며 流神이 법에 맞는다. 다만 卯坐山은 금년에 삼살을 범하는 것이 끝난다. 이 살은 여러 살 중에서 制月이 심히 어렵다. 또 卯龍이 卯坐로 곧바로 내려오고 곧바로 받으니 원래 음양가의 正格이 아니다. 용맥이 卯(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방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갑좌(정동에서 북쪽으로 15도 기운 방향)나 을좌(정동에서 남쪽으로 15도 기운 방향)를 사용하여야한다. 만약 갑좌경향으로 사용한다면, 용의 向配가 맞고 또 삼살의 拘忌를 면하는데 갑좌 역시 坐殺이 있더라도 삼살에 비하여 기휘하는 바가 조금 가볍다. 갑좌경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맞을 듯하다.

### ② 전참봉 신무

경릉 화소 안은 전부터 卜定한 혈이다. 용맥은 여러 산줄기중 하나이며, 局은 中落의 세를 얻었다. 묘좌의 주산은 아름답게 피어올라있으며, 앞에 있는 산줄기는 주산과 반대로 開帳하여 명당의 局이 融結한 곳이다. 또 내려온 맥에는 맑은 기운이 있고, 뺏어내린 여러 마디가 조아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의 小星을 만들었다. 주산의 봉우리는 굴곡하여 떨어져서 平洋에 있고 좁게 조여들어오면서 만들어진 穴은 圓淨廣厚하여 제왕의 능묘에 正合하다. 다만 卯入首와 묘좌유향은 直作한 혐의가 없지 않아 전일에 간심한 여러 사람들이 마땅히 묘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 것을 알지 못하겠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갑좌경향을 사용해야 한다.

### ③ 사과 이위

主星이 尊重하고 혈장이 풍후하며 용호가 彎抱하여 편안한 명당이 되었다. 명당의 局內는 평정하며, 앞의 안산은 맑은 기운이 있고, 水星이 亥(북쪽)으로 가면서 水口가 닫혀있다. 祖山으로부터 맑은 기운으로 들어온 卯龍이 入首하고 生方에서 물을 얻으니 이는 명당이 생기를 모은 땅이라 이를 만하여 극히 귀한 格이다. 묘룡 묘좌유향은 방서에서 扶桑木金鷄 金向克龍身이라 했다. 방서에는 이러한 금기가 있어 갑좌경향으로 정한다면 龍向이 서로 칭송하여 극히 법도에 맞으니 묘입수 갑좌경향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 ④ 지리학 겸교수 남세욱

용이 가는 것이 길고 멀며 大頓小起하여 帳 가운데서 떨어진 맥이 胎息이 분명하다. 주산으로부터 들어온 용맥은 묘좌로 入首하여 혈형이 풍후하고 명당이 평정하다. 겹겹으로 쌓인 용호는 수구를 단계하여 生水와 朝堂을 이루게 하였다. 국장 밖에 있는 산줄기들은 사산을 맞이하여 橫案이 정이 있고 음양은 배합되었다. 이러한 국장은 기를 모으고 바람을 갈무리하여 산가에서는 단아하게 법도에 맞는 것으로 본다. 단 묘좌유향이 수구와 더불어 서로 가까운 것이 역시 박약한 듯하다. 갑좌경향과 庚寅庚申으로 分金하면 흉을 피할 수 있다.

#### ⑤ 부사과 정탁

대개 이 산은 成龍이 정성스럽게 좌우로 진행되어 卯방향으로 들어와 束氣結咽하였다. 이땐 만들어진 四山 局勢의 혈은 龍虎가 灣包하고 主星이 尊重하며 그 역량이 크고 넓어 堂局의 眞的이 큰 쓰임에 진실로 맞는다. 재혈지법으로 논한다면 이른바 묘좌 명당의 기운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듯하고, 주성 역시 바르지 않은 모습이 있다. 묘입수 갑좌경향 경인경신으로 분금하여 사용한다면 당국이 동글고 평평하며 주객이 서로 칭송하는데 이는 이른바 龍眞穴의이라는 것이다. 갑좌경향 외에 다른 뜻이 없으며, 당초에 묘좌로 말한 것은 누구의 소견인가. 다만 갑좌가 좌살을 만나더라도 制用하는 법이 있다

#### ⑥ 부호군 이신정

龍行이 멀리 오고 開場落脈이 굴곡하고 활동하여 胎息이 분명하다. 산줄기로부터 들어오는 입수가 妙를 만들어 혈형이 풍후하고 명당이 평원하며 용호가 중첩하여 수구를 지킨다. 사산 밖의 수세는 생수를 얻으니 실로 산가의 여러 법도에 맞아 귀격의 땅이다. 묘좌유향은 안산이 조금 치우치고 수구가 박약하여 조금의 흠이 되는 듯하다. 갑좌경향은 卯龍의 上格일 뿐 아니라 橫案이 만회하여 정이 있고 外朝가 모두 읊을 하여 相應하니 갑좌경향은 다시 진달할 바가 없다.

#### ⑦ 교수 박진문

일찍이 경신년(1680, 숙종 6년)에 경릉 화소 안의 묘좌유향처를 간심하고 산론

을 갖춘 적이 있다. 지금 다시 간심하니, 용세의 굴곡과 穴星의 端妙함, 기타 案對와 水法이 전의 산론과 조금도 이동이 없지만 그때 못 의논이 모두 묘좌유향을 좋다고 했다. 신 홀로 묘입수 갑좌경향으로 사용해도 불가함이 없겠다고 했다. 지금 다시 보니 이른바 묘좌유향의 안대가 特朝의 형상이 되더라도 명당이 기울어진 모습이 있는 듯하고, 금년 묘좌는 역시 삼살을 만나기에 제용이 어려우니 갑좌경향 경인정신으로 분금하여 사용한다면 당국이 평정하고 주안이 정이 있으며 마디마디 합격이어서 조금도 흠결이 없다. 갑좌는 좌살을 범했어도 삼살에 비하면 그 차이가 낮아 제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릉은 이렇게 별다른 논쟁 없이 경릉 안으로 결정되었다. 정혈은 갑좌경향으로 재정하여 봉표 하였고,<sup>324)</sup> 재혈 할 길일을 정한 후<sup>325)</sup> 승릉 인산 때 虛右제도를 사용하였다. 이때 정자각은 중간에다 조성하여 우변으로 치우치지 않고 혼유석 장명등은 배치하지 않고서 허우지처에 설치하고 양석과 마석 및 곡장은 예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 정혈 등의 표시도 승릉의 예대로 석각을 사용했다. 장릉의 경우에는 한 자쯤 되는 나무를 정혈에 묻어 표시하고 두 조각의 石刻에다 坐向과 穴深, 灰隔, 圓徑을 전교에 따라 줄이라는 등의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 새겨서 우변 제2 석호 옆에 묻었다. 승릉의 경우에는 각석을 정혈 중심에 묻어 표시하고, 십자 모양을 새겨서 사방 좌향을 밝혔다.<sup>326)</sup>

한편 혈심은 예전의 방식대로 10척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1척을 줄여 9척을 사용토록 했다.<sup>327)</sup> 장릉 석각에는 10척에서 1척5촌을 줄이라고 되어 있었다. 여러 지관이 이 산릉의 산세가 웅장함에 이르지 못하니 혈심은 너무 깊어서는 안 되며, 장릉의 혈심이 적중한 듯하다고 하여, 이에 따라 8척 5촌으로 했다. 그런데 재혈도 여러 지관들이 참석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산릉에 坐殺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일단 지관들의 견해가 귀일된 대로 재혈하고 돌아왔으나, 지관 8인 중에서 최두명의 견해는 조금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았다. 穿山透地하는 법으로 논하는 그의 소견은 明的했으며, 다른

324) 『(인현왕후)산릉도감의궤』 계사질, 숙종 27년 8월 25일.

325) 『仁顯王后國恤謄錄』 숙종 27년 8월 26일.

326) 『(인현왕후)산릉도감의궤』 계사질, 숙종 27년 9월 초2일.

327) 『仁顯王后國恤謄錄』 숙종 27년 9월 초3일.

사람들의 견해는 오행의 生克未克으로는 흠이 있다고 했다. 원래 재혈처를 놓고 벌이는 상쟁은 元岡의 好否나 坐向의 變動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며, 氣脈의 流注가 毫分間인 상쟁에 불과하다. 어쨌든 한 사람의 이견이라도 그 시비를 명백히 변별하여 의심을 타파해야 하므로 전참의 신경운, 전부사 김준, 전사서 김재 등을 불러 의논하여 정하도록 했다. 신경운은 경신년 국휼 간산 때 참석했었기에 이 岡의 형세를 자세히 알고 있으며, 김준은 상지술이 신경운만 못하나 재혈 법에는 최고로 정밀하며, 김재는 地家の 소견이 精明하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 후 총호사 이하와 지관들은 다시 능소로 가서 상세히 간신했다. 이들은 최두명이 언급한 내용을 반복하여 논란하면서 다툼 끝에, 모두 격에 맞아 조금도 흠이 없는 곳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각자의 소견을 써서 산론 별단을 올렸다.

“대개 地家에서 이른바 穿山透地의 법은 사람들의 소견이 각자 다르다. 신무 이하 여러 사람은 혈 뒤의 二節 변동처로 천산을 삼아 己卯이고 좌변 정묘와 우변 기묘로 투지를 삼았다. 최두명은 혈 뒤의 結咽處로 천산을 삼아 己卯이고 좌변 정묘와 우변 계묘로 투지를 삼았다. 피차 말한바 누가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겠지만, 오행의 生克으로 논하건대 모두 격에 맞아 진실로 다행이었다가 그 후 최두명이 마음이 변하여 전에 본 그의 기묘의 정묘 계묘는 법에 다 맞지만, 신무 등이 기축의 정묘 기묘는 결코 기묘가 아니지만 이에 계묘인 것은 오행에서 상극이 되어 법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와서 간신했 때 신경운 등이 재삼 범철로 자세히 살핀 후, 신무 등이 말한바 기축 천산과 기묘 투지는 조금 달랐다. 설령 최두명이 말한 바와 같이 기묘가 아닌데 과연 계묘가 된다고 해도 기축에서 기묘를 넘어서 계묘가 차차로 상생하니 저절로 법에 맞는다. 최두명이 말한바 실로 자세히 살피지 못한 소치에서 나왔거니와, 이 역시 지가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법이 아니다. 시비를 무론하고 이것에 구애할 필요는 없다.”<sup>328)</sup>

그리하여 인현왕후 국장 때 명릉의 선정은 그 이전과는 달리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숙종의 뜻에 따라 虛右 제도를 채택하여 재혈의 내용을 石刻한 뒤 그곳에 묻었다. 땅에 묻을 石刻에 기록할 내용의 별단을 작성하였다.<sup>329)</sup>

328) 『仁顯王后國恤謄錄』 숙종 27년 9월 초3일.

329) 후에 이같이 재서 정하려는데, 퇴광 제도가 협소한 듯하여 신사년 예대로 의대와 서책을 들이지 말도록 하였다.(『(숙종)산릉도감의궤』 계사, 6월 26일), 虛右正穴 石標所刻, 艮龍卯入首 甲坐十庚向 丙寅丙申分金, 正穴右邊埋標下石所刻, 左邊艮龍卯入首甲坐庚向丙寅丙申分金, 穴深十尺內減一尺五寸以金井上面爲准, 灰隔四尺內減一尺地灰用三寸, 外祔宮 길이 7척6촌1분, 너비 3척3촌4분, 위에 쓰는 황판 두께 4촌, 封陵 圓經 25척, 돌난간 후면부터 앞

## (2) 숙종의 명릉

숙종의 국장은 산릉을 정혈을 찾고 재혈처를 간심하는 일만 있었다. 총호사이건명은 숙종의 유지를 따라 인조의 장릉을 모범으로 왕릉을 조영하자고 하였다.<sup>330)</sup> 재혈처 간심은 〈표 3-43〉에 있듯 총호사를 비롯하여 여러 지관들이 함께했다.<sup>331)</sup>

지관	총호사와 도감당상 도청 낭청 각 1원, 예조당상, 관상감제조, 본감지사 한두익 박종검, 겸교수 이성시 및 방외지사 전직장 하주, 조지서별제 양재홍, 국별장 이신정, 유학 김용명 등이 참석했다.
----	---

〈표 3-43〉 숙종 국장시 택지 간심단

총호사 등은 開土의 길시로 결정된 午시를 기다렸다가 석표를 발굴했다. 석표는 정혈의 중심에 묻혀 있었다. 십자의 형태를 새겨서 좌향을 나타냈고, 또 그 오른쪽 한 자 쯤에 돌 두 조각이 묻혀있었다. 이 돌에는 1701년(숙종 27) ‘신사년 국장 때 전교한 까닭에 양 곳에 표시를 묻는다’고 새겨져 있었다. 좌향과 分金은 모두 그 당시의 재혈이 극히 정밀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 의논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하여 예에 따라 封標하였다.<sup>332)</sup>

숙종의 재혈처는 일찍이 1680년(숙종 6)에 간산할 때 경릉 화소 내의 兩岡에 산 하나와 양 혈이 있는데 이것 역시 가장 좋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시 봉심하여 산을 정하는 일은 없으므로 甲坐之岡으로 정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虛右 제도는 인조의 장릉에 의거하라고 하였다. 승릉 인산 때 虛左 제도를 사용하였는데 정자각이 중앙에 구성되어 우변으로 치우치지 않았고, 혼유와 장명등의 치장물을 허우에는 배치하지 않았는데 양석과 마석 및 곡장은 모두 전

면까지 地勢流下 1척5촌, 新陵 圓經과 虛右地 圓經 양 사이의 서로의 거리는 1척(이상 영조척), 돌난간은 한결같이 장릉 승릉의 제도에 의거할 것, 석물 체제와 대소는 모두 후릉의 척수를 사용할 것, 퇴광의 좌우는 각각 5촌을 줄이고 길이는 2척을 줄이며, 例納 및 遺衣服 외에 내전에서 내온 衣櫛와 서책 같은 물건은 모두 들이지 말 것.

330) 『경종실록』 권1, 경종 즉위년 6월 13일(무신).

331) 『(숙종)산릉도감의궤』(K2-2328) 계사, 경종 즉위년 6월 15일.

332) 『(숙종)산릉도감의궤』 계사, 경종 즉위년 6월 17일.

례에 의거하여 설치하였다. 금번 숙종의 능침을 조영할 때도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였다.

右邊艮龍卯入首甲坐庚向丙寅丙申分金 刻石埋標虛右處는 승릉을 조영한 예에 의거하여 圓經을 따라서 미리 배치하여 돌을 감쌀 일로 전교하였다.<sup>333)</sup> 그런데 좌향과 분금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산릉의 石標에서것을 살펴보면 甲坐庚向에서 分金은 丙寅丙申으로 각표 하고 인현왕후 왕릉은 庚寅庚申분금이였다. 좌향이나 분금이 舊陵과 더불어 본래 異同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분금은 시체나 관을 묻을 위치를 똑바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차이가 있는 까닭을 지사에게 문의하니, 구릉에 사용한 庚寅庚申분금은 대왕의 年甲에 좋지 않아 꺼리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숙종의 유지대로 崇陵등록을 상고해 보았다. 그랬더니 두 룡의 좌향은 酉坐卯向으로 같으나, 분금은 대왕릉이 癸酉癸卯이고 명성왕후 왕릉은 구기가 있어 內壙은 辛酉辛卯로 하였다. 이렇게 內外坐의 차이는 좋지 않은 것을 꺼리기 위한 조치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숙종의 명릉 외향은 승릉의 예에 의거하여 따라서 하도록 하였다.<sup>334)</sup> 이처럼 혈처의 내외 좌향이 결정되자, 각향의 택일이 이루어졌다. 금년의 甲坐山은 傍陰符(매장을 꺼림)를 만났지만 여러 살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으로, 方書에 있는 制用之法을 써서 택일했다.<sup>335)</sup> 이러한 택일에는 地官과 日官의 참석 하에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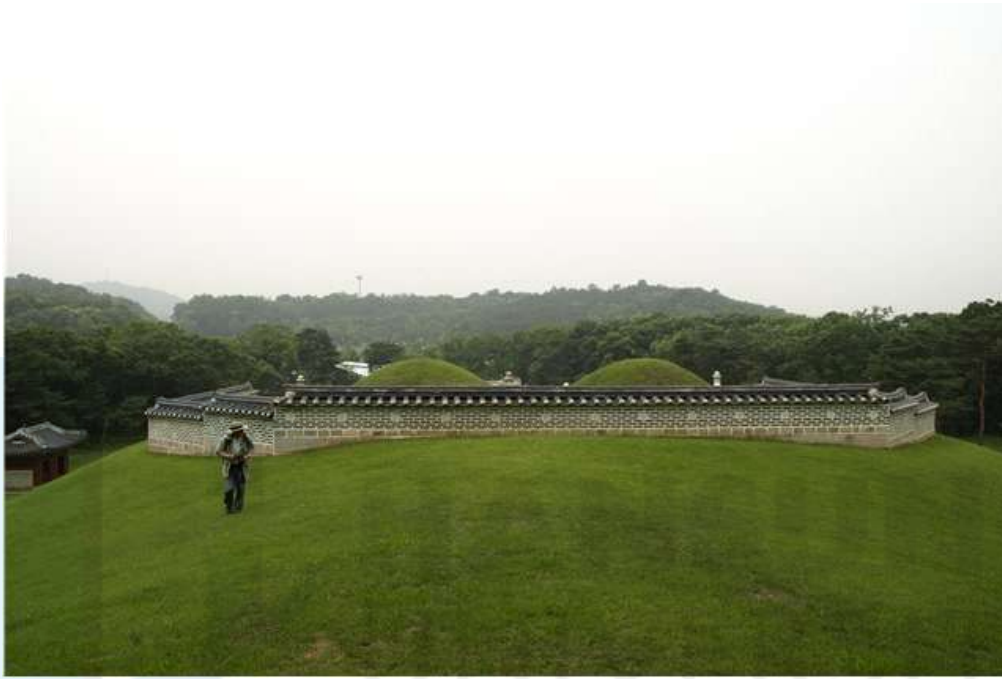
한편 숙종의 명릉을 조영하면서부터 표석(碑碣)은 왕릉 조영에 필수적 치장물이 되었다. 영의정 김창집과 총호사였던 좌의정 이건명은 숙종의 명릉과 승릉과

333) 분금이란 용어가 조선조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숙종 9년(1683)이라 하는데, 『풍수학사전』 205쪽) 여기에서 ‘승릉의 예’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이전 시기로 소급될 수 있다.

334) 『경종실록』 권1, 경종 즉위년 6월 18일(계축).

335) 『(숙종)산릉도감의궤』 계사, 경종 즉위년 6월 18일. 각향택일별단 산릉 艮龍卯入首甲坐庚向丙寅丙申分金 亥內得水辛破, 시역 7월 29일 묘시, 참초, 파토 이상 8월 초8일 진시 먼저 동방을 팔 것, 先陵에 고유는 같은 날 새벽에 행함, 후토제는 같은 날 새벽에 행함, 옹가를 만드는 것은 9월 초6일 묘시, 개금정은 9월 초9일 오시, 혈의 깊이는 8척5촌<영조척 사용>, 외재궁을 모시고 가는 것은 9월 12일 묘시, 외재궁을 내리는 것은 穿壙을 마친 후에 시간을 따를 것, 찬궁을 여는 것은 10월 19일 묘시에 먼저 서방을 破할 것, 발인은 10월 20일 축시, 行喪의 凶方은 壬地, 周堂은 空, 成殯은 산릉에 도착한 후 시간을 따를 것, 산릉에서 찬궁을 여는 것은 10월 21일 축시에 먼저 서방을 파할 것, 발인의 출발은 같은 날 찬궁을 연 후에 시간을 따를 것, 하현궁은 10월 21일 진시, 的呼는 계사계미, 正沖은 갑신, 同沖은 경신<이상은 하현궁 때 조금 피한다>, 喪主不伏方은 亥子丑地, 取土 吉方은 甲庚地,

익릉에 표석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에 경종은 차례대로 세우라고 하였다.<sup>336)</sup> 이때 표석의 뒷면에는 『璿源譜略』에 실린 바에 의하여 誕生·卽位·昇遐의 연월일 및 在位 몇 년, 春秋 몇 년을 아울러 새기도록 하였다.<sup>337)</sup> 그리고서 산릉의 坐向·水破·分金을 써서 刻字한 것과 인현왕후의 국상 때 산릉 右便의 비워 둔 곳에 묻은 분금과 좌향 그리고 傳敎에 의하여 새긴 것을 아울러 下磚石 아래에 묻었고,<sup>338)</sup> 1720년(경종 즉위년)10월 21일 〈그림3-3〉처럼 명릉에 장사하였다.<sup>339)</sup>



〈그림 3-3〉 숙종 명릉 入首處 (2010년 6월 18일 이덕형 촬영)

336) 『경종실록』 권1, 경종 즉위년 8월 28일(무신).

337) 『경종실록』 권1, 경종 즉위년 9월 18일(임오).

338) 『경종실록』 권1, 경종 즉위년 10월 11일(갑진).

339) 『경종실록』 권1, 경종 즉위년 10월 21일(갑인).

## 제 4 장 조선왕릉의 산론 검토

조선시대에 국왕이 승하하면 국장을 이끌어 갈 조직과 담당 관리들이 선정된다. 이때 국장도감은 재궁을 궁중에서 발인하여 장지까지 옮기는 과정에 대한 일을 담당하였고, 빈전도감은 승하한 국왕을 모실 빈전을 설치하고 발인 때까지 재궁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산릉도감에서는 성복 후 능소를 선정하고 능침을 조영하는 전 과정을 담당하였고, 혼전도감에서는 신위를 종묘에 모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국상이 끝난 후 의궤청을 설치하여 의궤를 편찬하였다. 그 중 『산릉도감의궤』는 산릉도감에서 왕릉을 조영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어난 내용들을 기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그 기록들은 능지 선정을 후한 간심, 능소를 조영하기 위한 자재의 수급 및 능원 일대의 토목공사, 능침에 조영되는 건축물(정자각과 재실 등) 조영, 능침의 개광과 재혈, 석물의 조영과 설치, 능원의 조경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산릉도감의궤』는 보통 상편과 하편 등 두 권의 책으로 작성되었다. 상편에는 도면과 목차가 있는데 대개 의궤의 내용 중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실려 있고, 하편에는 산릉도감 부속기구의 의궤가 수록되었다. 상편의 목차를 살펴보면 座目, 傳敎, 啓辭, 移文, 來關, 禮關, 甘結, 式禮, 附 儀軌, 書啓, 論賞 등이고, 하편의 목차는 三物所, 造成所, 大浮石所, 小浮石所, 爐冶所, 補土所, 輸石所, 別工作, 分長興庫, 燔瓦所 등으로 구성되었다. 산릉도감의 상편에 수록된 ‘좌목’은 산릉도감 임원들의 명단과 任免날짜를 수록하고 있다. ‘전교’는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啓辭 및 狀啓를 날짜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산릉도감의 전교 또는 계사의 내용을 토대로 산릉도감의 役事 진행일정 및 과정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문’은 산릉도감에서 다른 관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을 모은 것이고, ‘내관’은 산릉도감에서 접수한 공문을 모은 것인데 의궤에 따라 ‘이문’ 항목에 한데 묶어서 정리하는 경향도 보인다. ‘예관’은 예조에서 보내온 문서로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길일을 정하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있다. ‘감결’은 산릉도감에서 하부 관청에 지시하는 문서를 모은 것으로 주로 물품마련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식례’는 산릉도감에서 활동하는 임원과 諸員役들에 대한 科料 및 雇價를 정리한 것이다. ‘의궤’는 산릉도감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고, ‘서계’와 ‘논상’은

산릉 구역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賞與에 관한 내용으로 1등~3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산릉도감의 하편에는 산릉도감의 부속기구의 의궤를 수록하였다. 각 所마다 소관업무를 관장하여 처리한 후 그 내용을 각각 다시 의궤형식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의궤는 독립적으로 각 所의 임원 명단인 ‘좌목’, 각 소의 일지를 정리한 ‘日錄’, 각 소의 작업에 소용되는 물자의 조달과 관련되어 작성된 문서들을 정리한 ‘稟目秩’, ‘移文秩’, ‘甘結秩’, ‘來關秩’, 물품 재료와 제작방법을 기록한 ‘造作秩’, 각 소의 작업에 동원된 匠人과 募軍의 명단과 부역일수를 정리한 ‘匠募秩’, 작업에 소용된 자재와 빌려 쓰고, 반납한 것, 쓰다 남은 것에 대한 처분을 요청한 내용을 담은 買入秩, 用還秩, 還下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산릉도간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는 ‘조묘도감’이라고 하였으나 조선의 2대 국왕 정종의 국장부터 ‘산릉도감’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의궤의 내용을 구분해 놓은 「啓辭편」에 있는 ‘산론’을 주목하고자 한다. 의궤의 계사편에는 조선왕릉을 조영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일들을 날짜순으로 기록해 놓았다. 산론은 계사편에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지는 않고, 왕릉을 조영하는 일정 가운데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때로는 별단의 형식으로도 되어있다. 산론의 내용은 택지 선정에 관여한 인물들과 그들이 살펴본 택지 후보지에 대한 평가이다. 그래서 왕릉의 택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론은 논란의 중심에서 논의의 주제로 상정되었다. 이때 각 지관들은 같은 지역을 동시에 견문을 한 뒤 산론을 작성하였는데 의견은 하나로 귀결되지 않았다. 대개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 왕릉 택지로 가능하다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뉘었다. 지관들이 생각하였던 대상지의 견문에 대한 차이는 추후 왕릉의 택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었다. 그래서인지 지관들은 자신의 소견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너무 과열되어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한편 산릉의 간심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 몇 차례 더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1차 후보지에서 왕릉 후보지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2차로 다시 간심을 하는 경우이다. 이것을 재간심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초간심에 참석했던 지관들 외에 풍수에 밝은 자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더욱 면밀한 검토를 하였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산론은 대개 초간심 때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이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산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만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

면 국왕이 직접 택지 후보지에 행차하여 見聞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국왕과 총호사 등은 최종으로 올라온 산론을 통해 다시 왕릉 택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렇게 해서 왕릉 택지 후보지가 결정 되면 총호사는 관상감의 상지관을 대동하여 혈처를 재혈한 뒤 봉표를 하고서 돌아온다.<sup>340)</sup> 이후 관상감에서 택일한 날짜에 맞추어 해당 장소에서 국왕의 장례가 진행 된다.

산릉도감의 상지관 등이 왕릉 택지로 사용될 대상지에 대해서 견문을 한 뒤 작성되는 산론은 국왕의 장례를 진행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되는 과정중 하나이다. 조선 정부에서는 만일 왕릉 택지에 문제가 발생되면 왕릉을 조영하는 과정 중 또는 조영이 완료 되었더라도 가차 없이 옮기는 작업 즉 遷葬을 결행하였다. 그래서 국장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은 왕릉을 조영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를 ‘택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택지를 하기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산론’인 것이다. 그래서 왕릉택지의 산론은 조선왕릉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왕릉택지의 기본 자료인 산론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에 조영된 각 왕들의 의궤에 있는 산론을 대상으로, 첫째 산론은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 둘째 산론이 작성된 시대 또는 왕대별로 작성법과 규칙에 대해서 살펴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셋째 산론에 적용되는 풍수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풍수지리의 이론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넷째 택지를 결정하는 과정 중 산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340) 이때 재혈이란 능침이 들어설 자리를 사각의 형태로 정하여 표식을 해 두는 것을 말하고, 봉표는 국왕의 능지로 사용하기위한 표식을 해두는 절차를 말한다.

## 제 1 절 조선후기 왕릉택지의 산론

### 1. 17세기에 조영된 왕릉택지의 산론

#### 1) 현종 崇陵 간심단의 구성

현종은 1674년(현종 15) 8월 18일 亥時에 창덕궁 희정당에서 승하였다.<sup>341)</sup> 조정은 <표 4-1> 과 같이 영의정 허적을 원상으로 삼고 국장을 이끌어갈 삼도감을 구성하였다.<sup>342)</sup>

구분	직위
총호사	金壽恒
빈전도감 당상	張善澂 · 李翊相 · 吳始壽
국장도감 당상	閔維重 · 閔熙 · 洪處大
산릉도감 당상	李正英 · 閔鼎重 · 李元禎
명정 서사관	李正英
궁상자서사관	福昌君 李 楨
수릉관	瀛昌君 李 沉
대전관	福善君 李 枬

<표 4-1> 현종 국상시 총호사 및 삼도감 당상

원상 허적은 승지들과 더불어 성복하는 날에 왕위 계승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왕위는 잠시도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sup>343)</sup> 총호사는 아직 성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참여할 상지관들을 불러 모았다. 당시 상지관 교수 남언호는 가평에 있고 전사용 권순태는 강화에 있으며 地術에 曉解한 사람 전정량 신경윤은 금천에 있고, 전 주부 권순선은 아산에 있었다. 각지에 흩어져있는 이들을 제때에

341)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8월 18일(기유).

342)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8월 19일(경술).

343)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8월 21일(임자).

상정할 수 있도록 각 관에 통보하여 말을 지급해 주도록 하였다. 그것은 성복이 끝나면 바로 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기 위해서였다.<sup>344)</sup> 현종이 승하한 지 5일이 되는 날 세자는 현종의 성복을 진행하였고 곧 바로 인정문에서 즉위 하였다.<sup>345)</sup>

성복이 끝나자 관상감에서는 간심 대상지를 숙종에게 보고하였다.<sup>346)</sup> 이때 간심 대상지는 치부에서 골라놓은 곳 외에 몇 곳을 더 추가하였고, 그 사항들을 예관들과 의논하여 별단으로 보고하였다. 이때 간심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곳은 아래 <표 4-2> 와 같다. 간심 대상으로 선정된 10곳은 이미 앞전 왕들의 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망에 올랐던 곳들이 대부분이었다.<sup>347)</sup> 다만 광주 변천과 금천 남하자동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었다.

간심대상지	고양 현달산, 교하 월룡산, 장단 邑堅, 서곡 김영렬 묘산, 갈현, 양주 화점동, 건원릉 내, 영릉 내, 광주 변천, 금천 남하자동
-------	---

<표 4-2> 현종 승릉 1차 간심지

현종의 승릉을 조영하기 위한 1차 간심단은 상지관을 비롯하여 추가로 여러 사람이 선정되었다. 추가로 선정된 부사정 이석구 등 여러 사람들은 풍수와 관련된 지식이 해박하다 하여 불려들었다.<sup>348)</sup> <표 4-3> 은 1차 간심단에 참여한 지관들이다.

상지관	교수 남언호, 전사용 권순태, 전정량 신경운, 전주부 권순선
간심단	제조 민정중, 예조판서 장선징, 관상감제조 정익, 회양부사 정창도, 전 정량 신경운, 호조정량 남궁우, 부사정 홍석구, 지관 반호의 · 이유필 · 권순태 · 남언호 · 김극만,

<표 4-3> 현종 승릉 1차 간심단

344) 『현종대왕국호등록』 숙종 즉위년 8월 21일.

345)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8월 23일(갑인).

346) 『현종대왕국호등록』 숙종 즉위년 8월 23일.

347) 『현종대왕국호등록』 숙종 즉위년 8월 26일.

348) 『현종대왕국호등록』 숙종 즉위년 8월 27일.

산릉도감당상이 看山에 함께 가는 예가 없더라도 이번에는 여러 지관을 거느리고 가도록 했다. 8월 28일 산릉 간심이 시작되어 간심단 일행은 먼저 고양 見達山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바로 교하의 月籠山과 음의 터를 간심했다. 다음은 <표 4-2>에 있는 1차 간심 대상지 10곳에 대한 간심결과가 어지 되었는지 살펴보겠다.

## 2) 간심단의 활동

### (1) 교하의 월룡산 음의 터 간심

교하 월룡산을 간심한 지관은 회양부사 정창도 · 부사정 홍석구 · 겸교수 이유필 등 이었다. 이들이 작성한 산론을 보면 모두 국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회양부사 정창도가 작성한 산론은 형세론으로 분석하였다. 형세론으로 분석할 때는 대개 龍穴砂水의 성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역시 정창도의 산론도 이와 같은 풍수논리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 아래 <표 4-4>는 회양부사 정창도의 산론을 요약한 것이다.

용	월룡산은 土星이 되어 中祖가 되고 특히 별판 가운데에 서있어 존귀함은 비할 데가 없다.
혈	월룡산으로부터 내려와서 퍼지는 산줄기는 두 강이 습襟하는 가운데를 바치고(脚), 오두성을 뒤에 의탁한 下手砂는 매우 힘이 있어 내려오는 맥(降脈)을 겹겹이 감싸 안고, 맑고 단정하면서 활발히 움직여 들어온 入首는 혈을 만드니, 역시 법도에 맞다.
사	명당은 평평하고 바르며, 용호는 둥글게 돌아서 안고, 丙水는 丙地로 내려가며, 심약산은 丁地에서 우뚝 솟으니, 병정의 산수는 壽星의 형상에 따라 응한다.
수	朝山과 案山이 끼고 호위하여 정이 있고, 사방의 국세는 격식에 맞게 되어있다. 비록 최고의 길지라 하여도 진실로 지나친 논의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표 4-4> 회양부사 정창도 산론(교하 월룡산)

이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면, 정창도의 의견은 월룡산은 교하의 북쪽에 위치한 산이다. ‘군의 북쪽 10리에 있다’<sup>349)</sup>고 했다. 월룡산은 존귀한 모습을 지닌 토성과 中祖山<sup>350)</sup>에 비정하였다. 토성은 오성 가운데 하나로서, 좋은 모양이면 왕후 장상과 부자를 배출한다. 양강은 한강과 임진강이며, 합금한다는 것은 혈 뒤에서 나뉘어 내려온 물이 혈 앞에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곳을 지맥이 내려와 받친다고 하였으니, 혈 앞에서 내맥과 습수가 대화합하는 형국이다. 오두성은 鰲頭(烏島)山の 산성이며, 이 산은 군의 서쪽에 위치하여 우백호가 되며 그 끝의 下手砂가 내맥을 겹겹이 감싸안았다. 하수사는 물이 나가는 곳인 水口에서 청룡백호 가운데 긴 쪽의 砂 끝부분이다. 이것이 내맥을 겹겹이 감싸안았으며, 또 주산에서 맑고 예쁘며 활발히 움직여서 내려온 입수가 혈을 만들었다. ‘천리의 내룡은 하나의 혈만이 있다’고 하였다.<sup>351)</sup> 중조산에서 혈처로 이어지는 산 능선인 내룡이 법도에 알맞으니, 이 혈은 명당이다. 내수 곧 명당수는 정남에서 동쪽 15도 각도로 흘러가고, 정남에서 서쪽으로 15도 각도에는 심악산이 우뚝 솟았다. 심악산은 군의 남쪽 15리에 있는데, 주산의 남쪽에 있는 案山에 해당한다. 병정의 산수는 남쪽의 산수이며 수성은 南極老人星이다. 따라서 이 형상은 장수하고 자손이 번창한다. 원국은 곧 羅城으로서, 명당 사방을 감싸고 있는 여러 산이다. 마치 담장이나 성곽의 형상을 한데서 이름 지은 것으로, 이것이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였다. 이러한 간산은 간룡법과 득수법, 장풍법, 사법 등 형세론을 위주로 한 분석법이다.

부사정 홍석구는 용맥과 물의 흐름을 理氣論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홍석구는 산론에서 용맥이나 물이 서로 격이 맞으니, 길지라고 하였다. 홍석구는 월룡산을 설명하면서 정창도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수계에 대하여 물은 丁未의 正方으로 흐르니 이는 木局이라고 이기론적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표 4-5〉는 부사정 홍석구의 산론을 요약한 것이다.

349) 『輿地圖書』 경기도, 교하군.

350) 산의 祖宗으로서 태조, 중조, 소조 산으로 구분되는 데 혈까지 오는 산 중 중간적 위치에 존재한 산을 말한다.

351) 『疑龍經』.

주 산	월룡산이 天財星이라 하였다. 천재성은 요급정의 구성법에서 토성에 해당한다. 이 산이 높이 우뚝 솟아서 기이하고 빼어나 小祖山 곧 주산이 되는 것이다.
용	용맥이 艮坐(동북쪽을 등짐)로 돌고 꺾여지니, 이는 陰龍이다. 이 용맥이 壬坎(북방)에서 혈을 맺고 기운이 癸水甲木에 속하여 짝이 되었다. 물은 丁未의 正方으로 흐르니, 이는 木局이다. 古方과 더불어서 이른바 金羊收癸甲之靈이 상합한다고 하였으니, 금양수계갑지령은 金局인 쫓에서 甲卯까지의 기운이 未方의 墓庫로 달아나 거두어진다는 말이다.

〈표 4-5〉 부사정 홍석구 산론(교하 월룡산)

겸교수 이유필은, 이기론과 좌향론으로 용세의 흐름과 결혈을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얻은 결론은 월룡산은 貴龍正結이며 專氣의 길지이어서 나라에서 쓰기에 알맞다는 것이다. 다만, 부사용 김극만은 案對(案山)의 정이 있음과 堂局의 긴밀함에 있어서는 좌혈이 우혈보다 나은 것으로 보았다.

이상 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표 4-6〉과 같이 정리가 된다. 결국 교하 월룡산은 형세론과 이기론을 모두 적용해 보아도 길지로 확인되어 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심지	교하 월룡산. <sup>352)</sup>
풍수형국	내려오는 형세와 曲節, 형국이 완비되고, 대천과 양강이 바다의 潮水를 서로 만나며, 여러 산은 기이하여 맑은 기운이 있으니 국용으로 적격
좌향	객사 뒤에 있는 곳이 진혈이며 임좌지혈이 주가 되어야 한다. 객사 좌변에 있는 향교 뒤의 쫓좌지혈
종합평가	월룡산에 대해서는 지관 모두 칭찬 일색이었다.

〈표 4-6〉 교하 월룡산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352) 『(현종)산릉도감의궤』(K2-2323) 8월 29일.

## (2) 장단 읍건의 산론

장단의 읍건에 대해서는 교하읍보다 낮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용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표 4-7〉은 장단 읍건의 산론을 종합한 내용이다.

간심지	장단 읍건 <sup>353)</sup>
풍수형국	지관들은 모두 뒤에서 내려오는 용맥이 웅장하게 내려와 넓은 평지를 이루었고, 水口가 긴밀하여 應朝의 森列함이 모두 대지의 규모라고 하여, 그 국량에 있어서 교하읍의 터보다 나은 듯하다고 했다.
종합평가	點穴하기에는 심히 아까운 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지관 반호의 와 이유필·김극만 등도 ‘내려오는 맥이 비록 좋더라도, 結局 뒤에는 거칠고 추한 기운이 떠를 두른 것 같다. 가령 산의 기운이 혈장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全美한 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표 4-7〉 장단 읍건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3) 갈현의 산론

갈현의 간심 결과는 명당으로 여겨지는 요소가 있지만 두세 가지 흠결이 있었다. 〈표 4-8〉은 갈현에 대한 산론을 종합한 내용이다.

간심지	갈현 <sup>354)</sup>
풍수형국 장법	主星이 뛰어나게 준수하여 내려가는 맥이 생기 있게 움직이며, 형국이 틈이없고, 혈도가 풍성하고 두터우며, 朝對가 정이 있으니, 지관들이 국용을 선택하기에 알맞다고 했다.
풍수형국 단점	그런데 갈현을 명당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첫째 枝龍의 역량이 크지 않고, 둘째, 앞의 砂가 끼리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혈 위에 옛 무덤이 5, 6기가 있다는 것이다.
종합평가	국용에 알맞은 땅이라는 평가로 인해 후일의 재 간심을 기약

〈표 4-8〉 갈현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간심단 일행은 갈현을 간심 한 뒤 국용에 알맞은 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353)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초1일.

354)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초1일.

곳은 후일 재 간심을 하기로 하고, 瑞谷으로 향했다.

#### (4) 장단 서곡 산론

이곳은 장단 서곡에 소재한 김영렬 묘산이다. 서곡은 津東面에 속한 마을로서, 府의 동쪽에 있으며 官門에서 10리 떨어져 있다.<sup>355)</sup> 개성부 천마산의 맥이 남쪽으로 내려와 형성된 화장산에서 용이 장막을 열었으니, 이는 貴龍에 속한다. 서곡에 대한 지관들의 일치된 견해는 형세론을 근거로 흠이 전혀 없는 全美한 땅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 혈 위에는 5, 6기의 무덤을 쓰고 있어서, 이로 인해 氣가 많이 새는 것을 면치 못한다고 하여 이를 결점으로 지적하였다. 〈표 4-9〉는 서곡에 대한 산론을 종합한 내용이다.

간심지	서곡
풍수형국 장점	서곡도 내려오는 맥이 웅장하고 기이하며, 형국은 맑고 빼어나며, 혈도는 풍만하고, 朝應이 環列하여 진실로 대지의 규모
풍수형국 단점	이곳도 혈 위에 옛 무덤 5처가 있는 것이 단점이었다.
종합평가	국용에 알맞다는 평가를 받았다.

〈표 4-9〉 장단 서곡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회양부사 정창도는 장단 서곡을 간심한 뒤 산론을 작성 할 때도 〈표 4-10〉처럼 형세론에 입각하여 산론을 작성 하였다.

용	굵은 산줄기가 華莊山에서 넓게 펼쳐지면서 힘차게 진행하여 入首 경계에서 낮게 들어왔다.
혈	그 형세를 바라보니 연꽃을 펼쳐 놓은 것과 같고, 혈에 오르니 봉황이 나는 모양과 같다.
사	양쪽으로 펼쳐지는 두 개의 산줄기는 좌우로 마을을 감싸고 長乳를 드리웠다. 혈장은 풍만하고 좋으며, 역량은 강하고 웅장하다. 堂局은 조밀하여 틈이 없고,
수	內案은 굽어져 감싸 안고, 逆水는 중첩하며, 華表와 羅星이 水口에 진치고, 멀리 밖의 조산이 나열하여 받들고 있으니,

〈표 4-10〉 회양부사 정창도 산론(장단 서곡)

355) 『輿地圖書』 경기도, 장단.

그리고 形局으로 논한다면 全美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혈 위의 고분이 5, 6기가 있어 氣가 많이 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부사와 신경윤도 장단의 서곡에 대한 산론을 〈표4-11〉처럼 物形論<sup>356)</sup>으로 풀어나갔다.

용	화장산은 송도의 大龍의 가지인데, 祖宗이 이미 귀하니 나누어 받은 맥이 마디마디가 다 玉이라 하였다.
혈	혈은 봉황이 비상하는 모양과 같다고 했으니, 태평성대와 제왕을 상징한다.
사	龍勢는 입수 경계에서 변화무쌍하게 起伏하니, 청룡과 백호가 조산으로부터 좌우 여러 겹의 산을 타고 내려와 세 개의 봉우리로 된 主星을 만들었다..

〈표 4-11〉 부사와 신경윤 산론(장단 서곡)

부사와 신경윤은 산론에서 한 개의 산줄기가 두 개로 나뉘어 혈맥을 만드는 穿心の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천심이란 장막을 여는 모습으로 結穴의 필수 조건이다. 산이 장막을 둘러놓은 것처럼 펼쳐진 후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산 능선이 뻗어 나오는 것을 穿心이라 한다. 이때 천심이 되어 새로 생성된 산 능선의 끝부분에서 혈이 맺히게 된다. 이러한 곳을 山盡處라고 한다. 전체적인 품성은 형세가 연꽃의 장막 같다고 했으니, 풍요와 다산 혹은 고귀하고 훌륭한 인물이 탄생할 길지라고 평가했다. 호조정랑 남궁우도 翔舞하는 자태라 하였다.

부사정 홍석구는 〈표4-12〉에서처럼 산의 품성을 예쁜 관성이라 하였고, 혈은 장유혈이라고 하였다.

용	금성은 윗부분이 둥글고 아랫부분이 넓게 퍼져있는 산 모습으로서, 맑고 예쁜 官星이라 하였다.
혈	中臺가 태양으로 금성을 뿔아내어 예쁜 맥이 남향하여 혈을 맺었다고 하였다.
사	두 개의 산줄기가 전개하여 마을을 감싸고 長乳를 드리웠으니, 穴形은 장유이다.

〈표 4-12〉 부사정 홍석구 산론(장단 서곡)

356) 산의 모양을 동물이나 식물의 모양에 비유하여 길흉을 풀이하는 풍수법을 말한다.

長乳穴이라는 것은 乳穴의 六格 중 하나로서, 乳形이 긴 것이다.<sup>357)</sup> 유혈은 혈의 모양이 젓가슴이나 물고기의 부레와 닭의 심장과 같은데,<sup>358)</sup> 두 다리가 정중하게 안으로 싸이고 단정해야 吉格이다. 이 혈 자리는 풍만하고 좋으며, 그 역량이 웅혼하다고 하였다. 혈자리는 入首頭腦, 蟬翼, 穴土, 脣氈 등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장유에는 蟬翼砂가 있다. 堂局은 완밀하다고 하였는데, 당국은 小局이다. 『지학』을 보면, 局이란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를 둘러싼 산줄기 전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국·중국·소국이 있는데, 이는 각각 城·垣·堂이 된다.<sup>359)</sup> 완밀은 周密과 같은 표현으로서, 『인자수지』에서 귀격으로 분류한다. 內案은 內案山으로 굽어져 감싸안은 것을 길한 것으로 보았다. 逆水는 혈 앞에 흘러나가는 물이 앞에서 산이 가로막으면 일직선으로 곧게 흘러가지 못하면서 혈 밖에서 흐르는 물줄기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 나가는 물줄기를 말한다. 이것이 몇 겹으로 중첩되어 重重交鎖 하여 서로 만나 막아주는 것이다. 이는 『청오경』에서 가장 높은 벼슬에 오르는 格局이라고 하였다. 화장산은 동쪽으로는 사미천을 끼고 서쪽으로는 화장천을 끼고 있다. 華表는 화려한 문양이며, 羅星은 수구를 막아주는 砂이다. 그런데 이것이 水口에 진치고 있으면, 『설심부』에서 좋은 땅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였다.

검교수 이유필은 壬坎龍의 午向之穴이라 하면서 삼천 粉黛와 팔백 烟花 같은 형상이라 하여 칭찬하였다. 분대는 화장한 미인 혹은 먹으로 그린 눈썹을 말하며, 연화는 봄의 경치를 말한다.

##### (5) 양주 화접동 산론

이번에는 양주 화접동을 간신했다. 화접동은 양주군에 속한 지명이다. 화접동의 주산은 불암산인데, 이 산은 州에서 남쪽으로 40리에 있다.<sup>360)</sup> 이 주산에서 내려온 용맥이 특별히 화개산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날아가는 봉황과 같다고

357) 육격은 正格으로 長乳, 短乳, 大乳, 小乳가 있으며, 變格으로 雙垂乳, 三垂乳가 있다.(『풍수학사전』 387쪽)

358) 穴象은 四象이 있는데, 窩·鉗·乳·突이다.(『지리정종』 「산룡어류」)

359) 『지학』 제1장 龍論 제4편 ; 허찬구 역, 『지학』, 육일문화사, 2001.

36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양주목.

하였다. 또 그 가운데에서 나온 맑은 맥이 구불구불 하다가 금성과 토성이 되어 잠깐 머물 듯 하더니 나온 短乳가 매우 정교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閃龍作穴의 하나로 보인다. 섬룡작혈은 용이 흘러가다가 잠깐 머물 듯 하면서 용의 측면에 희미하게 혈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리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견상 찾기가 어려운 혈로서, 혈장의 여러 요건을 두루 살펴야 길흉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화점동에 대한 지관들의 견해이다. 여기에는 전현감 권순선, 학생 이흥도가 추가로 참석했다. 〈표 4-13〉은 양주 화점동에 대한 산론을 종합한 내용이다.

간심지	양주 화점동 <sup>361)</sup>
풍수형국 장점	이곳은 내려오는 형세의 기이하고 빼어남과 형국의 웅혼함, 朝對의 정이 있음이 이미 전의 山圖上의 두 곳에 비하여 더욱 나았다.
풍수형국 단점	다만 局內의 短乳穴과 좌방의 長乳穴을 놓고 그 우열에 대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회양부사 정창도, 호조정랑 남궁우, 부사와 신경운 등은 短乳를 眞이라 하고, 부사와 권순선, 지관 이유필, 권순태, 김극만 등은 장유를 眞이라 하였다. 이에 반해 부사정 홍석구, 학생 이흥도는 단유와 장유 두 곳이 모두 結作한 듯하지만 그 우열을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관 반호의와 남언호 등은 청룡 밖의 羅星인 고 상신 南在의 묘지가 眞結이라 하여 다른 지점을 지적했다.
종합평가	이렇게 혈을 논함에 차이가 있지만, 찬미함은 서로 같았다. 그리하여 수목을 작별해 본래의 형상을 다 노출시킨 후에 다시 혈을 살피기로 했다.

〈표 4-13〉 양주 화점동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① 회양부사 정창도

화점동에 대해서 지난해에 간심할 때 자세하게 그 형국을 얻지 못하고 단지 그 쓰기에 알맞음을 논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와서 형세를 살펴보니 〈표4-14〉에서처럼 풍수적 품격을 갖추기는 하였다. 그런데 혈로 확인되는 자리는 윤천뢰의 조상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 산줄기는 청룡의 護砂라고 하여 국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361)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2일.

용	불암산의 주산은 곧 京都로 더불어 나누어서 받은 맥이다.
혈	화개산은 날아가는 봉황과 같아서 정신이 상쾌하고 기이하며, 바라보는 것이 의젓하다. 가운데에서 나온 어리고 조그만 맥은 넘어질 듯 구비 돌아 伏起하여 金土星이 되며 번쩍거리는 단유가 심히 정교하니,
사	內堂이 평탄하고 바르며, 용호가 굽어 감싸 안고, 格局이 맑고 기이하며, 氣勢가 웅혼하다.
수	金臺山과 검단산 봉우리가 만든 문호가 천리이고, 큰 강이 중간에 꺾여서 巽地에 來朝하며, 좌우의 병풍과 막사처럼 생긴 바위들이 겹겹이 纏護하고, 멀리 밖의 秀朝가 뻣뻣하게 끼고서 호위하고, 外洋은 너그럽고 화창하며, 下開는 견고하고, 四神이 入朝하니, 품격을 다 갖춘 땅이라 이를 만하다.

〈표 4-14〉 회양부사 정창도 산론(양주 화점동)

## ② 호조정랑 남궁우

양주 화점동은 “금성중에서 추출된 예쁜 산줄기는 번쩍이는 유혈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穴情이 자못 졸렬하여 식별이 어려우며, 좌변의 혈 역시 가히 의심할 만한데 體가 이미 여위었으면서 굳세고 또 안을 돌아보는 형세가 있다고 하였다. 단유는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간에 매달린 乳가 짧은 것으로, 정창도는 이를 매우 정교하다고 본 반면에, 남궁우는 졸렬하여 분간이 어려운 보일 듯 말듯 한 혈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穿破를 면치 못한다고도 했다. 게다가 左砂에는 옛 무덤이 많은 것도 결점으로 지적되었다. 혈의 결점에 대해서는 부사과 권순선도 혈 앞에 陰砂가 둘러싸고 가까이 좌방을 뚫고나온 孤山이 아주 가까우니, 이것이 명당에 있어서 작은 하자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가운데에서 落短穴을 나누고 內堂은 치우쳐 기운 듯하며 또 專氣의 相이 없다고도 하였다. 陰砂가 있으면 이를 蟬翼이라 하는데, 선익은 매미날개처럼 보이지 않는 砂의 일종이다.

## ③ 부사과 신경윤

화점동 용맥은 본래 경도의 大龍으로부터 나누어 받았는데 내려오는 過峽은 鉛石峴에서 일어나 수락산이 되고, 또 일어나 불암산이 되었으니, 형상이 황제의 자리와 같다고 하였다. 제좌는 가운데 봉우리가 빼어나게 솟아있고 주변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다. 정창도가 본 단유의 견고함은 길한 형세에 대한 설명으

로 이어졌다. 內堂이 평탄하고 바르며, 용호가 굽어 감싸 안고, 格局이 맑고 기이하며, 氣勢가 웅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 명당의 풍수적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외 명당의 풍수적 조건에 대해서도 金臺山과 검단산 봉우리가 만든 문호가 천리이고, 큰 강이 중간에 꺾여 巽地(동남)에서 來朝하며, 좌우의 屏障이 겹겹이 보호하고, 멀리 밖의 秀朝가 뻣뻣하게 끼고서 호위하고, 外洋은 너그럽고 화창하며, 下開는 건밀하고, 四神이 入朝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화점동은 다 갖춘 땅이라 이를 만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단유는 윤천뢰의 조상 무덤이 확실하며, 청룡의 護砂일 것으로 추정했다.

#### ④ 부사과 권순선

불암산의 정미하고 빼어난 기는 나뉘어 두 가지가 되는데, 오른쪽이 건원릉의 龍左인 즉, 이 局은 龍勢의 雄麗함과 국면의 주밀함을 다 진술할 수 없지만, 혈로 들어가는 맥이 맑고 고우며, 연이은 帶가 泡節하여 水木의 혈을 만들고, 朝案과 용호가 모두 지극히 법도에 맞지만 혈 앞에 陰砂가 둘러싸고 가까이 좌방을 뚫고나온 孤山이 아주 가까우니 명당이라 할 수 없는 작은 하자인 듯하다. 또 가운데에서 落短穴을 나누고, 內堂은 치우쳐 기운 듯하고 또 專氣의 相이 없다. 局內의 형세 또한 진결을 환히 알지 못하겠다.

#### ⑤ 부사정 홍석구

이 산은 後龍이 높고 빼어나고, 祖山의 尊重, 屏障과 같은 산줄기가 얹히고 멈추어 있는 현황, 그리고 前對가 그물처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전의 지관들이 논의한 것이 모두 상세하다. 그리고 主星인 華蓋에서 드리워져 내려온 정맥이 비틀거리고 끊어지고 뒤집어지고 일어나 정면의 산은 태음이 되었다. 큰 강을 逆水하여 開局한 산줄기는 역량이 웅장하고 面對또한 밝고 빼어나서, 형세와 기상을 논한다면 衆美가 다 모여 結聚한 땅이라 이를 만하다. 落穴處가 구불구불하여 달리고 희롱하다 初落穴이 되고, 아래로는 편안한 자리에 요를 펼쳐놓은 듯하다. 局勢는 평탄하고 바르며, 後脈이 나뉘어 왼쪽으로 끌어당겨 長乳를 내서 後落이 되었다. 虎砂가 面前에서 局을 견고히 하고서 勢를 달리하니, 이것은 正結인 듯 보이지만 뒤에서 만들어진 혈이 護砂인 듯하다. 이때 뒤에서

들어온 산줄기를 본다면, 이것은 專氣인 듯 보이지만 먼저 만들어진 혈처가 도리어 중요한 자리인 듯하다. 구래서 양 혈중 우측 산줄기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혈은 진혈 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혈은 이미 윤천뢰가 世葬한 땅이 되어 眞氣를 가렸다.

#### ⑥ 학생 이흥도

지리의 현묘함은 진실로 헤아리고 추측하기가 어렵지만, 보통사람의 안목으로 본 바, 龍格은 맑고 빼어나며, 堂局은 긴밀하게 모이고, 大水와 洋朝는 下手가 힘이 있어, 全美한 땅이라 이를 만하다. 다만 생각건대, 長乳, 短乳로 만들어진 두 혈중 어느 더 좋은지 우열을 정하지 못하겠다. 오직 널리 물어 재량해 택하기에 달려있다.

#### ⑦ 부사용 반호의

삼가 양주 화접동을 간심하였더니 兵使 신 윤천뢰의 묘산인 즉, 이 산은 삼각산 대룡의 기를 나누어 받았는데 특별히 서있는 빼어난 것은 곧 수락산이다. 그 行度하는 것은 가히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다시 일어난 불암산은 동쪽을 향하여 흘러 내려가 마디마다 기이하고 교묘하다. 또 이어져 내려오는 나의 큰 봉우리의 형세는 펼쳐진 우산과 같은데 그 가장 높은 정상에서 곧바로 내려온 한 맥이 尹의 산이 되었다. 그리고 한 기슭의 위에다 연이어 장사지낸 열두 무덤 중에서 허리에 있는 맥이 壬으로 들어가 혈을 만들고 물이 辰乙로 흘러 감싸 앉았다. 朝山이 앞을 향하는데 다만 局內에는 고신 남재 父子를 장사지낸 곳이 있으니, 이는 곧 명산이다. 고루한 管見으로는 국이 비록 기이하고 귀하더라도 혹 專氣한 땅이 아닌 듯한데, 또 옛 무덤이 많으니 이미 왕성한 기가 센 것이 흠결이다.

#### ⑧ 겸교수 이유필

이 땅의 근원은 수락산에서 발해 나와서 겹으로 星峰을 일으키고 開帳하여 달려간 지 5,6리에 또 일어나 불암산이 되었다. 연이어 일어나는 산줄기는 큰 산이 되어 혈이 만들어지기 전 3,4節에 大乳의 혈을 만들었다. 혈장은 異常하고 좌우로 기고 호위하며 主勢는 존중하고 垣局은 웅장하여 명당이라 이를 만하다. 다

만, 저 가운데에서 흠이 될 만한 것은 혈장의 위아래로 많이 열다섯의 옛 무덤이 있는 것이다. 또 이 혈의 우변의 한 혈은 곧, 혈맥의 옆으로 자잘한 산줄기가 퍼져나가 있어 좌측 혈의 길함만 못하다.

⑨ 부사용 권순태

이 국은 내려오는 형세가 장려하고, 氣局이 맑고 기이하며, 水勢가 빙둘러 모이고, 下砂가 重鎖하며, 朝對가 나열하고, 後帳이 중첩하며 마디마다 법도에 부합하여 다시 논할 것이 없지만, 혈 위에 옛 무덤이 크고 많아서 정맥이 남았더라도 이것은 큰 하자이다. 우변의 短乳는 혈도가 치우친 듯하고 내당은 옆으로 기울어져 眞的이 되지 못한다.

⑩ 겸교수 남언호

화점동의 來龍의 정미하고 빼어남과 堂局의 回抱, 산과 물줄기의 밝고 고움이 이미 계축년의 산론 안에 기록되어있다. 신의 식견으로는 불암산의 幹氣가 건원릉으로 들어가 그 결가지의 동쪽으로 나온 것은 臣의 선조 개국공신 남재가 장사지낸 땅을 맺으니, 곧 무학이 점친 바이다. 이것은 行龍의 산줄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혈이기 때문에 전일에 본 것들 보다 나은 듯하다. 그러나 橫落은 남아있는 기운이 없고 또 짧아서 旁結인 듯하지만, 專氣의 땅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이 감히 소견을 끝내 진술하지 아니할 수 없었지만, 역시 널리 물어서 취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⑪ 부사용 김극만

화점동은 산세가 수려하고 기상이 맑고 기이하며 結局이 제대로 되었다. 이곳이 大用의 형상에 가합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에 看山할 대의 산론에 모두 있다. 단 穴道가 짧고 작으며, 내당이 좁아 산기운의 조화는 해아릴 수 없고, 맺은 혈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아 알지 못하겠다.

## (6) 건원릉내 우강산론

건원릉 안을 간산할 때 지관 유학 이흥도가 동참했다.<sup>362)</sup> 건원릉에 도착한 간심 일행은 그곳의 여러 岡을 살펴보았다. 〈표 4-15〉는 건원릉 내 우강에 대한 산론을 종합한 내용이다.

간심지	건원릉 내 <sup>363)</sup>
풍수형국 장점	능 오른쪽의 한 洞은 별도로 형국을 이루었는데, 회양부사 정창도 이하 여러 사람 및 여러 지관이 같은 말로 칭찬하였다. 대개 이 산은 主星이 특별히 서있는 단야하고 빼어남이 솜을 얹어놓은 형상과 같았다. 그 아래의 한 층은 인력으로 대를 만든 형상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아래에는 介자 형상을 만들고, 인하여 맺은 乳穴은 豊厚하고 단중하며, 좌우의 용호는 겹겹이 혈을 보호하고, 외백호는 當面하여 봉우리를 만들어서 案으로 삼으니, 모두 국용에 합당하다고 했다. 결코 先陵이 나뉘어 맺은 땅이라고 하며, 이 산의 내백호의 끝은 곧 종전에 간심한 虎인테 形穴이 자못 좋다고 운운했다.
풍수형국 단점	그 나머지 능 내의 枝麓은 모두 불만한 땅이 없고, 사이에 형국이 조금 이루어진 것이 있으나 내려오는 맥의 방위가 기휘가 있었다. 그 가운데의 第一岡은 곧 入格이 아니더라도 역시 하자과 해가 없되, 건원릉과 목릉 사이의 서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결코 役事를 행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표 4-15〉 건원릉 내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① 회양부사 정창도

열들의 여러 岡은 이로부터 건원릉의 砂를 보호하는데 이 강은 곧 별도로 한 局이 된 것이다. 龍의 행세는 頓跌宕起伏<sup>364)</sup>하며 왼쪽으로 굴러서 건원릉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 岡이 되었습니다. 入首의 경계에는 특별히 太陽을 만들어 金星을 이루었고, 또 맥 하나가 太陰을 일으켰다. 금성모양의 산봉우리 아래로 乳頭가 형서 되었는데 혈장은 豊厚하고 좌우는 굽어져 감싸 안으며 명당은 평평하고 바르게 만들어졌다. 이때 虎外의 砂는 逆水하여 案을 만들어 매우 힘이 있고, 面前의 秀朝와 橫開한 屏帳, 帳下의 여러 砂는 절하며 엮드려있는 형상

362)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초2일.

363)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초3일.

364) 산줄기가 상하좌우 방향으로 반복적인 활용을 하는 형상을 말한다.

을 하고 있다. 혈의 뿌리가 고귀하고, 물은 법도에 부합하니 여러 崗의 中舍에서 으뜸이다. 오직 널리 물어서 필히 선택하여야겠다.

## ② 호조정랑 남궁우

건원릉은 龍格이 맑고 귀하며 힘이 모여드는 형세가 여러 산릉에서 첫째이니, 진실로 다시 논의할 것이 없다. 건원릉은 수락산이 祖를 만든 아래에서 불암산 봉우리가 구불구불 힘차게 내려온 산줄기가 횡으로 大局을 열고, 왼쪽으로 굴러서 正結하여 건원릉이 되었다. 또 상하좌우로 힘차게 솟아오르고 내려오는 산줄기는 오른쪽으로 굴러서 별도로 한 局을 형성하여 만들어진 혈이 바로 절터의 뒤다. 그 龍勢는 貴함과 더불어 局勢의 완전함, 穴情의 端厚함, 堂氣의 너그럽고 평탄함, 龍虎의 감싸 안음, 朝應의 밝고 빼어남으로 砂法과 水法이 件件이 법도에 부합한다. 이것은 실로 天秘이면서 地藏으로 후일을 기다려 사용행야 할 터이다. 만약 그 역량의 대소를 논한다면, 비록 건원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능 내의 여러 岡을 비교한다면, 이것이 그 최고임은 그 전후의 증좌가 명백하여 의심이 없고 조금도 하자과 흠이 없으니, 실로 국용에 맞다.

## ③ 부사과 신경운

건원릉의 산줄기와 龍勢에 대해서는 국초에 明師가 검토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건원릉의 산줄기는 여러 곳에서 그 귀함을 드러내고 있다. 入首의 경계에서 일어난 산줄기의 정수리는 단정하였고, 혈에 올라 좌우를 돌아보면 형국의 생김새가 鏡臺와 같았다. 용맥의 끝에서 맺어진 혈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한 쌍으로 작은 산줄기(微砂)가 펼쳐져 方書에 있는 蟬翼같은 것이 있었다. 용호는 혈을 겹겹으로 감싸았고 當局은 가지런히 정돈되고, 오른쪽 가지는 逆轉하여 內氣를 열고, 멀리 山森이 늘어져있어 應案을 만들었으니 건원릉은 眞結이다. 비록 해아려 의논하지 못하더라도 능 내의 여러 岡을 비교한다면, 氣象은 지난해에 간심한 右岡과 自別하여 오히려 국용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이 혈처는 곧 우강을 虎砂로 삼으니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 ④ 부사과 권순선

이 岡은 건원릉의 오른쪽 맥으로 출현하여 구불구불하고 상하 좌우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산줄기의 형세는 범상치 않다. 이 산줄기 용맥은 庚酉에 이르러서 산이 높아지는 봉우리를 만들어 올라가고 내려오는 양음의 조화를 이루었다. 금성이 날개를 펼쳐 그 중간에서 나온 豐乳는 천연의 혈을 만들어 넓고, 높고, 두툼하되 좌우에 평탄한 형상으로 배치되었다. 이때 局場은 안으로는 관대하고 밖으로 좁아서 병 속에 물건을 담아놓은 것 같았다. 외백호는 반대로 돌아가 멀지 않은 堂口에 이르러서 상하좌우로 힘차게 솟아오르고 내려오는 正案을 만들었다. 내외의 물이 역수하여 혈을 얻고 안산은 격에 맞았다. 외대천은 흘러서 橫帶인 듯하고, 멀리서 앞으로 들어오는 산이 羅列하고 층층이 겹으로 빼어나게 아름답다. 氣勢의 웅혼함과 龍局의 明麗함은 진실로 형용하기 어렵다. 지난해 본 바, 우변의 한 혈은 역시 매우 편안하고 온화한데 여기에 앉아서 살펴보니 傍結인 듯하다. 만약 건원릉 내에 남아있는 여러 岡을 논한다면, 가장 좋은 땅이라 이를 만하다.

#### ⑤ 부사정 홍석구

건원릉은 곧 국초에 가장 존귀한 산으로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형세는 진실로 상세히 기술하기 부족하다. 수락산에서 발원한 맥이 멈추고 머무른 뒤에 다시 뛰어오르고 달려서 열두 岡으로 나뉘어졌다. 이때 왼쪽으로 갈라져 나와 만들어진 局의 혈이 곧 건원릉이다. 건원릉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와 만들어진 局의 혈이 곧 새로 점친 혈이다. 이 혈은 入首 경계에서 내려온 勢가 풍만한 長乳의 혈이 되었고, 좌우로 각각 翼砂를 끼고 이중으로 건원릉을 호위하는 여러 岡이 轉抱하여 청룡이 되었다. 오른쪽으로 열린 重岡은 逆轉하여 虎砂 즉 백호가 되어 균형을 유지하면서 둥글게 끌어안아 그 가운데에서 원만하고 깨끗한 명당을 열었다. 원근의 朝案은 하늘을 날 듯 춤추며 어울려 읊을 하며, 기상은 尊重하고 格局은 완비되었다. 종전에 능을 점치고 간심할 때 이 혈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어찌 알려지는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이 때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 ⑥ 부사용 이흥도

건원릉은 국초에 明師가 검토를 하였기에 더 이상 논할 이유는 없다. 건원릉의 용맥은 내력이 우뚝 솟아 뻗어나고 연속하여 여러 峽을 지나며 迎送이 분명하다. 용맥이 횡으로 大帳을 열며 金水가 局을 맺고 衆水가 交鎖하며 여러 산이 끼고서 호위하니 상세히 기술할 필요가 없다. 入首를 하는 용맥은 구불구불하게 빙빙 돌아 경계에서 열을 지어 열들의 岡이 되고, 여러 岡중에서 이 혈이 가장 귀하다. 여러 증좌를 참고하건대, 主星은 端重하고 숨어있는 날개와 같은 미세한 맥은 쌍으로 열려있다. 古格을 참고하건대, 용호가 交牙하고 받들어 모시는 마을이 열을 이루며 혈장이 풍후하여 應峰이 특별히 서있으니, 국용의 땅에 적합하다.

#### ⑦ 부사용 반호의

건원릉 안 우변의 兌龍卯向(서향)의 혈인 즉, 이 혈의 龍勢는 건원릉의 용맥과 동일하고, 그 성품은 억지로 논하지 못하겠지만 웅장한 기운을 품고 있는 산의 氣는 之玄으로 진행하는 골짜기를 지나 특별히 금성을 일으키고, 좌우로 갈라진 맥이 그 왼쪽으로 도는 龍脈과 겹겹이 起伏하고, 逆水行龍하여 건원릉이 되었다. 간심을 한 그 용맥도 오른쪽으로 돌아 오르고 옆드리는 형상과 行度하는 법이 왼쪽으로 도는 용과 더불어 조금도 異同이 없었다. 下手의 봉우리와 산이 겹겹이 우뚝 솟아 서있고 진행하는 용맥이 물길을 막아 金龜가 본받을 만큼 신령하다. 또 內堂이 평평하고 바르며 외양이 관대하고 열리고 통하여 一帶의 맑은 강이 빙 둘러 門外에 도달하였다. 이 산줄기는 森林이 뻗뻗하고 기이한 봉우리가 전후에 나열되어 그 기이하고 귀함은 역시 왼쪽으로 도는 용보다 위아래가 없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혹 능 내에 별도로 자웅의 혈을 맺은 듯한데,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해본 즉 국용의 眞結이 된다. 또 이 혈은 백호의 가장자리이며 기해년에 점친 묘향의 혈 역시 日後의 땅으로 삼을 수 있다.

#### ⑧ 겸교수 이유필

이 산은 내려오는 형세가 멀리서부터 帶貴의 형상을 다 기술하지 못하겠다. 대개 가까운 祖山을 말한다면, 壽遠山의 남쪽에서 나온 용이 帳을 열고 날아올라서 鶴峴에 이르러 장을 열고 골짜기를 지나서 크게 일어나 수락산이 되었다. 이

것이 곧 한 道의 名山이요 五行의 火星이다. 여기에서 추출한 맥이 다시 일어나 불암산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새로 만들어진 龍은 겹겹이 기복하고 마디마다 가지를 생성하였다. 이 용맥은 구불구불 10여 리 달려가 入局에 이르고, 골짜기에 이르러 星峰을 일으켰다. 이 星峰은 두 개로 나뉘어 왼쪽으로 나온 한 용은 건원릉의 산이 되고, 오른쪽으로 나온 한 용은 달려가서 회전하여 연이어 금성을 일으켜 庚酉龍 卯向之穴(서향)을 맺었다. 이 혈장은 豐厚하고 단정하며 좌우로 중첩하여 활처럼 품고 案對는 맑고 기이하여 정이 있었다. 사방의 용맥이 주밀하고 명당이 너그럽고 화창하며 門戶가 열리고 막히니 貴龍에 正結이며 격에 맞는 땅이라 이를 만하다.

#### ⑨ 부사용 권순태

간산을 하는 산줄기는 건원릉의 맥과 더불어 祖宗이 같은 이래로 그 기이함과 빼어남, 면밀하고 뛰어남, 우수하고 훌륭한, 존귀함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다. 중간에 크게 두 개의 산줄기로 갈라진 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 順結한 것은 건원릉이 되고, 順行하여 逆結한 것은 곧 이 혈이다. 용맥의 入首에 이르기까지 산줄기는 상하 좌우로 달려 여러 마디를 형성하여 太陽이 되었다. 이 용맥은 조아리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여 金星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새로 만들어진 어리고 옅은 맥이 豐乳를 드리워냈다. 용맥에서 맺어진 穴度는 단아하고 바르며, 용호는 정이 있고, 堂局은 모여들고, 朝山은 나열하고 下砂는 돌아 감싸안아 특별히 금성을 세워서 절하며 얹드렸다. 應案은 더욱 기묘하여 논증할 수 있으니 나의 천박한 술수로 헤아려보아도 大用할 만하다.

#### ⑩ 겸교수 남언호

건원릉의 형세는 고금의 술사가 다 아는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불암산은 정기를 기르고 빼어남을 잉태하여 專氣해서 남으로 크게 두 개의 산줄기로 갈라진 후에 높이 星峰을 일으켜 나누어진 가지와 갈라진 맥이 상호 用이 되었다. 그 왼쪽으로 轉하는 것은 건원릉과 여러 능의 寢이 되었고, 그 오른쪽으로 轉하는 산줄기는 것은 몸을 달리하여 물을 거슬러 아득히 동쪽으로 향하였다. 이 용맥은 正兎入首하여 나뉘어서 한 局을 여니 역량이 웅혼하였고, 태

음이 星을 이루며 豐乳가 혈을 맺어 穴法이 명백하고, 應案이 단정하고 堂局이 雍容하며 賓主가 서로 칭찬하고, 砂가 이미 정이 있고, 물 역시 純吉하여 遠秀가 끼고 보호하며 護從이 완비되어 件件的 入格이 국용에 알맞았다. 만약 숨기는 바가 있어 금일 일찍이 헤아리지 못한 것을 기다린다면 이는 여지가 있는 것이니 이 같이 함이 그 참인 것이다.

#### ⑪ 부사용 김극만

건원릉은 용세의 귀함과 국세의 기이함은 나라 가운데에서 드물었다. 그렇지만 옛날부터 이 국에 이르러서 혈을 맺은 곳의 主星은 단정하고 중하며 존귀하고, 혈장은 풍후하고 평탄하였다. 용호는 겹겹이 둘러싸여 주인과 객이 正正하게 상대하여 앞에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봉우리가 있다. 뒤에는 이와 동일한 형상이 있고, 구름 밖의 長江은 천 리나 먼 곳에서 발원하여 드러나지 않는 길함을 만들었다. 그 강은 큰 들을 둥글게 흐르면서 띠를 만들어 群朝에 절을 하니 기상이 오르고 형국이 雄偉하였다. 이러한 砂水는 실로 쉽게 얻지 못하는 큰 땅이니 바로 금일의 용도에 알맞습니다.

이번의 看山에는 啓下한 곳이 10처였다. 그중에서 며칠 만에 7처를 간심하고 나머지 3처 중에서 영릉 안 및 광주 樊川을 먼저 다녀온 후에,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자하동을 논의하기로 했다.<sup>365)</sup>

#### (7) 여주 홍제동 英陵 내

여주 홍제동 영릉 내를 간심한 내용은 〈표 4-16〉과 같다. 간심단들이 평가한 산론에서 영릉의 능역 산줄기는 結作이 범상치 않지만 방위에 忌諱가 있다고 하므로 추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365)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4일.

간심지	英陵 내 <sup>366)</sup>
풍수형국 장점	영릉 안의 小弘濟洞은 내청룡과 외청룡 사이에 短乳와 長乳 등 두 개의 穴이 있었다. 장유는 혈장이 풍후하고 당국이 완비되어 先陵 내의 쓸 만한 支麓이며, 단유는 主星이 높이 우뚝 솟아 落脈이 분명하다. 穴道가 바르고 중후하여 形局이 촘촘히 얹혀 있고, 생성된 기운이 정이 있어 국용에 알맞다. 英陵의 북성산 아래에도 역시 丙坐壬向(165도 방향)으로 雙乳穴이 있었다. 정창도 및 부사과 신경윤은 일찍이 보지 못한 큰 結作이라 하였다.
풍수형국 단점	반호의와 이유필 등은 원래 結作이 아니라 하였고, 또 雙乳의 우변에 별도로 만들어진 한 局에 단유혈이 있다고 하였다.
종합평가	여러 사람들의 소견은 결작이 범상치 않지만 방위가 기휘가 있다고 하므로 추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표 4-16〉 英陵 내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8) 광주 변천

간심단이 홍제동 영릉을 看山한 다음 향한 곳은 광주이다. 〈표 4-17〉은 광주 변천에 대한 산론을 종합한 내용이다.

간심지	광주 변천
풍수형국 장점	광주 변천은 내려오는 형세의 웅장하고 빼어남, 형국의 周密함, 應案의 기특함은 이전 山圖上의 여러 산과 비교하면 크게 위아래가 없는데, 近案 外大川이 長生方을 쫓아 來朝하니 실로 얻기 어려운 妙法이라고 했다.
종합평가	여러 지관의 소견은 오직 역량의 대소로써 대략 차이가 있었다. 반호의의 論穴만이 유독 달랐다.

〈표 4-17〉 광주 변천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 ① 회양부사 정창도

광주의 용맥은 南漢의 동쪽 산기슭에서부터 帳을 열고서 가는 형세가 달려서

366)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5일.

올라가고 뛰어오르면서 좌우로 산 마디를 만들었고, 크게 골짜기를 지나서 儼峴이 되었다. 산줄기 용맥은 엄현을 거쳐 또 골짜기를 지나면서 맞이하여 보내주는 것을 반복하다가 盤龍의 局을 만들었다. 이 산줄기는 入首의 경계에서 양 방향을 갈라지어 서로 안쪽으로 품었다. 이때 좌우의 중앙에서 出脈한 酉辛의 산줄기가 落脈하며 砂를 낀 것이 기이하고 교묘하며, 맥 아래의 평지는 隱隆하고 合脈하여 하나가 된 것 같다. 穴星은 四山은 기세가 웅장하게 합수되어 堂局이 긴밀하여 기가 모이는 형국이다. 內案은 굽어서 돌고 중첩되어 안아서 보호하고, 案外의 산세는 고르게 형성되어 堂앞에서 특별히 朝하여 巽地(남동향)가 되었다. 산의 모양은 붓끝처럼 뾰족한 文筆로서 맑고 빼어나며 존귀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산줄기 용맥은 大江과 마주하여 돌아앉아 혈을 만들었는데, 生方의 물은 지극히 完密하게 유입되어 영원하고 무궁하다고 할 것이다.

## ② 호조정랑 남궁우

광주의 용은 남한산에서부터 逆水하고 분등한 지 30여 리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골짜기를 지나고 마디마다 帳을 열었다. 그 入局은 橫帳을 열고 장 가운데에서 하나의 맥이 만들어져 하나의 국을 형성하였다. 이때 중앙의 혈을 중심으로 용호는 돌아서 감싸 안았는데 朝應과 四勢가 긴밀하고 견고하였다. 이 혈에는 八風의 피해가 없을 것이며 三陽이 이미 밝고 生水가 暗朝하여, 비록 그 역량의 경중을 알지 못하지만 매우 굳건한 길지이다.

## ③ 부사과 신경운

남한산의 용이 망월봉에서 꺾여서 동쪽으로 달리다가 골짜기를 지나고, 엄현에서 굴러서 동남쪽으로 달리다가 道馬峙에서 벗어나 떨어지니 出入 行도가 모두 帳中을 거쳐 龍法이 儘美하다. 入首의 경계에서 전개된 양 날개 사이에서 출현한 하나의 맥이 힘찬 기운으로 일어나 長突이 되었다. 혈장은 원만하며 용호가 가지런하고, 당국이 긴밀하여 無甲이며 먼 산이 마주하여 應이 되어 매우 신비한 穴法을 이루었다. 혈 위의 옛 무덤이 眞氣를 범하지 않고, 백 리의 대천이 暗朝하고 長生之方에서 신하노릇 하니 천박한 견해로는 특별히 지적할 만한 하자가 없다.

#### ④ 부사정 홍석구

광주의 용맥은 남한의 동쪽에서 갈라져 博換 過峽하고, 龍勢는 엄현에서 재차 조아리고 넘어질 듯 달리다가 도마치에서 구불구불하게 나뉘어 퍼져서 생기 있게 활동하고 있다. 四神의 산줄기는 국을 맺고, 좌우로 迎送하고 가로로 主星을 맺은 뒤에 중간에서 가는 맥을 추출하여 夾貴가 드리워져 내려가 겹으로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나 그 속은 이어져 推突이 되었다. 혈은 主星에서 나누어 보내어 용호가 둘러 감싸 안고 당국은 아래로 열려 두텁고 중하다. 無甲山이 특별히 서있는 장 밖이 武曲金星<sup>367)</sup>이 되고, 案의 본신인 分龍之水가 길한 방향에 놓여있다. 혈의 정상에는 하나의 옛 무덤이 있지만 安穴處가 상처를 내고 깨뜨리지는 않았다. 좌변의 장유혈은 孫姓 사람 4, 5개의 무덤이 있고 그 帳角 역시 新舊의 무덤이 있는데 정혈이 아닌 듯하다. 局 內의 眞結을 구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버리고 어디서 구하겠는가. 四圍에 完固하게 하자가 없어 재택 취사할 만하다.

#### ⑤ 부사용 이흥도

용이 南漢에서부터 逆水하여 동쪽으로 달려 연달아서 여러 골짜기를 지나 入首하는 때에 心을 뚫고 가운데에서 나와 가로의 帳을 전개하고 국을 맺는 경계에서 기를 합하고 結咽하여 長突을 만들었다. 이때 혈법이 단아하고 신묘하며 맺어진 형국이 아름답게 마주하여 四勢가 진실로 긴밀하며 三陽이 다 갖추어졌다. 물길은 길한 방향으로 은밀하게 형성된 습襟이 뒤에 있으니 여러 증거를 상고해 보아도 별도로 하자가 없다.

#### ⑥ 부사과 권순선

南漢에서 달려온 산의 기운이 큰 강을 만났다가 거슬러 올라가 星峯이 웅장하고 사나우며 枝脚이 무성하다 못해 넘치도록 반복하여 帳을 열고 가운데에서 평지로 기운이 모여 받을 뚫고서 突을 만들었다. 頂頭는 둥글고 용호는 고밀하며 案 밖의 朝山은 단아하고 빼어나서 정이 있으니 得穴이 되었는데 증거이다. 다만 下砂가 한 겹으로 둘러 감싸안은 밖에 纏護가 없이 局勢가 완비되어 明麗한 기가 모자라니 이것이 작은 하자이다.

---

367) 복두칠성의 여섯 번째 별

#### ⑦ 부사용 반호의

삼가 광주 변천의 형세를 살피건대, 한강 이남의 여러 산은 모두 속리산을 祖로 하여 名山大幹의 分派을 이루었다. 이 혈은 南漢의 餘派로 몇 수십 리의 땅에 盤結하여 산봉우리와 뫼가 둥글고 깨끗하며 당국이 원만하게 모여서 솟을 만들었다. 穴形은 眞穴이지만 예전에 고 한성부윤 임중귀의 옛 무덤이 이미 조성되어있다. 바로 그 혈을 세울 땅이 어긋나 穴法을 잃어 穴이 될 자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배치하기가 어려운 듯하며, 垣局이 치우치고 좁아서 차례대로 펼쳐지지 못하여 큰 쓰임에 알맞은지를 알지 못하겠다. 이 혈의 동쪽에는 새로운 무덤이 있는데 辛酉龍亥이며 入首가 亥坐巳向이다. 이 국은 정혈이 되어 보이지만 혈장은 높으면서 짧고 국세는 더욱 치우쳐서 큰 쓰임에 알맞지 않다.

#### ⑧ 겸교수 이유필

광주 변천의 산은 그 근원이 남한산의 동변에서 출발하여 연달아 일으킨 星峯이 골짜기를 지나 엄현에서 도마치의 산이 되어 帳을 열었다. 이 산줄기는 새로 만들어진 어린 용맥으로 逆水하여 달려간 지 몇 수 십리를 지나 入局을 형성하여 庚방향으로 구르고 亥방향으로 굴러 入首되어 長穴을 맺었다. 혈은 巽向之穴로서 혈장이 단정하고 좌우로 끼고 보호하며 안산은 기이하고 빼어나다. 內堂은 굳게 얹히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문호가 열리고 닫히는 형국이라 生旺之方이다. 眞貴한 용의 正結이니 자손이 번성할 局이기는 하나, 分龍의 경계에서 받은 氣가 많지 않고 혈을 맺은 후에 남은 기가 두텁지 않으니 역시 작게 맺은 안온한 땅일 뿐이다.

#### ⑩ 부사용 권순태

남한의 동쪽 기슭에서 발생한 어인 용맥이 逆水하여 거슬러 올라가 몇 수 십리를 지나 혈을 형성하였다. 이 용맥은 轉하여 단단하고 조밀한 局이 되었고, 가운데 산줄기는 落下하여 마치 밭을 뚫고 나온 불쑥 솟아오른 형상으로 혈이 만들어졌다. 穴의 面은 豐圓하고 近案이 긴밀하게 열려있어 정이 있다. 그리고 遠朝가 특별히 빼어나고 존귀하며, 혈에 올라가서 보면 四勢가 周遭하다. 본인은 眞結이라 이를 만하지만, 下手가 孤單하고 국 가운데가 좁아 작은 하자로 생각

한다.

⑪ 겸교수 남언호

번천의 산은 곧 남한산이 江을 거슬러서 크게 다한 것이다. 行龍은 썩썩하고 고우며 열린 국은 固密하며 砂水는 굽어져 감싸안고 있다. 堂口는 굳게 엮어 잠겨있고, 入首에서 크게 끊어진 동쪽 기가 솟을 이루고 있다. 특히 혈 앞의 案山이 우뚝 높이 솟아 빼어나게 아름답다. 긴 내가 앞에 띠처럼 둘러싸고 있으니 용은 진혈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좌우가 일제히 높고, 앞의 물이 약간 곧은 모양으로 되어 국이 좁은데 또 明麗함이 부족하니 조그마한 하자가 없지 않은 듯하다.

⑫ 부사용 김극만

이 산은 남한산을 근본으로 하여 한 가지가 동쪽으로 떨어져 구불구불 달려가 몇 수 십리에 이르러서 큰 강을 거스르고 큰 내를 거슬러서 별도로 한 국을 만들어 乾坐之突穴이 되었다. 穴星은 단아하고 신묘하며, 사방방의 둘레는 주밀하고 앞에는 빼어나고 아름다운 봉우리가 있어 軒舉<sup>368</sup>)하였다. 獻面하고 뒤에는 비단에 수놓은 것과 같은 帳이 있어 중첩되어서 몸을 보호하니 쉬이 얻을 수 있는 正結이 아닐 만하다. 형국이 緊固하여 開暢하지 못하고, 기세가 풍후하여 맑고 기이한 元辰이 부족하여, 바로 堂氣가 좁은 듯하니 혹 작은 하자가 되는 듯합니다.

(9) 금천 자하동

광주 번천에 대한 간심이 끝내고 금천 자하동으로 향할 때, 도감의 移文이 당도하였다. 산릉의 議定이 하루가 급하니 바로 상경하라는 명이였다.<sup>369)</sup> 그동안 간심한 아홉 곳 중에서 지관들이 칭찬한 곳은 교하읍의 터와 장단 서곡, 양주 화접동, 건원릉 내, 광주 번천 등 다섯 곳이었다. 그런데 장단 서곡은 거리가 조금

368) 높이 올라감 혹은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369)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6일.

멀 뿐만 아니라, 혈 위에 고 의성군 김영렬의 무덤이 있었다. 김영렬은 곧 소해왕 후의 외증조이다. 그래서 장단서곡을 제외하고 네 곳은 다시 간심하기로 하였다.

재간심에는 좌참찬 李尙眞과 호조참의 鄭維岳, 전 현감 李取晩이 동참했다. 정유악과 이취만은 풍수에 曉解하다고 사대부 사이에서 칭송이 있는 사람이었다.<sup>370)</sup> 미처 못 본 금천 자하동은 다음날 관상감제조가 지관 2, 3인을 거느리고서 나가고, 그 가합 여부는 다시 살필 때에 取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숙종은 건원릉 안의 혈처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원상 허적은 능소를 쉽게 결정 지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sup>371)</sup> 다음날 관상감제조 민유중은 간심단을 이끌고 衿川 자하동으로 가서 간심하였다. 〈표 4-18〉은 금천 남자하동의 간심단과 평가 내용이다.

간심지	금천 자하동 <sup>372)</sup>
간심단	부사용 이흥도, 관상감제조 민유중, 정랑 남궁우, 부사과 신경윤, 지관 반호와 남언호·권순태
풍수형국 단점	來龍과 局勢가 과연 아름답고 좋는데 뒤의 맥은 破碎處가 있고 또 그 穴形은 추하고 졸렬하며 위아래로 돌이 많아 국용에 부적합 하다고 하였다.

〈표 4-18〉 금천 남자하동에 대한 간심단의 풍수적 평가

한편 재간심을 하려고 출발한 좌참찬 이상진 등은 당일 未時쯤에는 교하현의 객사 뒤와 향교 뒤 두 곳을 간심하였다. 정창도 이하 여러 사람 및 여러 지관 등의 소견은 처음과 다름이 없었는데, 좌참찬 이상진, 호조참의 정유악, 부사과 이취만·권순선, 부사용 이흥도 등의 논의는 대략 異同이 있었다.<sup>373)</sup> 다음날 신시쯤에는 양주 화접동에 이르러 간심하였다. 정창도 이하 여러 사람 및 여러 지관이 처음에 살필 때에는 좌변의 長乳穴을 낮다거나 우변의 短乳穴이 낮다고 하고, 혹은 장유와 단유의 우열을 정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산을 가리고 있던 나무들을 베어 버리고서 다시 형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남궁우 등 7인의 소견

370)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7일.

371)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9월 7일(무진).

372)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8일.

373)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9일.

은 전과 변함이 없었지만, 정창도, 신경윤, 홍석구, 이흥도 등의 소견은 달랐다.<sup>374)</sup>

화접동에 갔다가 건원릉에 이르러서 그 안의 우변에 새로 점친 땅을 다시 간심한 일행의 견해는 처음과 다름이 없었다. 좌참찬 이상진과 호조참의 정유악, 부사과 이취만 등은 모두 처음 보았는데도 역시 국용에 꼭 알맞다고 하였다.<sup>375)</sup> 같은 날 미시에 광주 변천산에 도착한 일행은 간심 후에 그 의견이 역시 처음과 같았으며, 처음 살핀 여러 사람들도 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서로 어긋나는 논의가 없지 않았지만, 별 문제 없는 것 들 이었다. 지관 반호의는 당초에 突穴을 논한 바 있는데, 돌혈은 마땅히 盖法을 사용해야 하지만, 혈 위에 옛 무덤이 이미 있어 바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穴法을 잃을 듯 하다고 하였다. 좌참찬 이상진, 호조참의 정유악, 부사과 이취만 등이 진술한 산론은 별도로 서계하고, 일행은 상경하였다.<sup>376)</sup>

## 2) 승릉의 初看審地 재 간심

다음은 재간심지로 언급된 교하읍의 터와 양주 화접동, 건원릉 내의 우변, 광주 변천 등 네 곳에 대해서 지관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다.

교하읍의 터와 양주 화접동, 건원릉 내의 우변, 광주 변천 등 네 곳을 재간심한 총호사 일행은 임금에게 아뢰었다. 이때 이흥도는 건원릉 안과 변천을 爭雄하는 땅이라 하였으며, 이상진은 별도로 만전의 땅을 구해야 함을 만의 하나라도 바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간심단은 숙종이 건원릉을 지목해서인지 대부분 건원릉이 국용에 최적지라고 하였다.<sup>377)</sup> 대다수의 지관들은 건원릉 내 右岡을 추천하였다. 사실 건원릉 우강은 인조의 장릉을 조영할 때 언급되지 않은 곳이었고, 효종의 영릉은 불길하다 하여 천장한 곳이기도 했다. 당시 현종은 효종의 영릉 천장을 주관하였고, 이듬해 승하하였다. 그러한 건원릉 우강 지역이 현종의 장지로

374)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10일.

375)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11일.

376)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11일.

377) 『(현종)산릉도감의궤』 9월 12일.

결정되어가고 있었다. 〈표 4-19〉는 현종의 왕릉택지로 쓰일 간심지를 둘러본 후 간심단의 뜻은 어떠했는지 살펴본 내용이다.

간심지의 等第	해당지역을 국왕의 능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관
건원릉내 우변	이상진, 정유악, 남궁우, 홍석구, 권순선, 이최만, 반호의, 이유필, 권순태, 남언호, 김극만
광주 변천	정창도
양주 화접동	신경윤, 이상진
교하	-

〈표 4-19〉 승릉 택지를 위한 재간심지 평가

그러면 이 네 곳을 재간심한 후의 각 지관들의 풍수적 견해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다.

#### (1) 양주 화접동 산론

〈표 4-20〉은 양주 화접동에 대한 지관들의 풍수적 견해이다. 양주 화접동이 재간심한 4개의 지역 중 으뜸이라고 주장한 지관은 부사과 신경윤 과 좌참찬 이상진이다.

간심단의 지관	양주 화점동에 대한 지관들의 풍수적 견해
좌참찬 이상진	지금 이 간심한 네 곳 가운데 그 品을 논한다면, 화점동이 마땅히 第一이 되는데 천착해도 남음이 없다.
호조참의 정유악	龍身과 堂局이 좋더라도 혈이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다. 만약 혈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면 龍局이 좋더라도 의미가 없다.
회양부사 정창도	格局이 매우 좋으나 한 岡의 위에 무덤이 많아 용맥이 손상되었을 것이다.
호조정랑 남궁우	龍格은 淸貴하고 局勢가 조화롭게 구성 되었으나, 穴형은 진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부사과 신경윤	격국이 기이하고 빼어나 역량의 광대함은 화점동이 일등이다. 다만 화점동은 혈 위에 옛 무덤이 있어 사용하려면 논의가 필요하다.
부사정 홍석구	맑고 귀한 용맥이기는 하지만 穴道가 드러나지 않아 건원릉 내 南崗 다음이다.
부사용 이흥도	화점동이 이등지역이다.
부사과 권순선	웅장하고 화려하며 격국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穴場이 미진하다.
부사과 이취만	산천이 맑고 승하여 십분 수려하지만 穴形이 짧고 작다.
부사과 만호의	용맥에는 옛 무덤이 열셋이니 국용으로는 불가하지만 건원릉 내 다음으로 좋은 곳이다.
검교수 이유필	산의 용세가 帶貴하고 穴場이 안온하지만 옛 무덤이 많이 있어 삼등이다.
부사용 권순태	용국이 가장 뛰어나지만 혈 위에 옛 무덤이 많으니 이등이다.
검교수 남언호	용세의 맑고 귀함과 前砂의 기이하고 빼어남이 精妙하나 혈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상처가 많으니 4등이다.
부사용 김극만	용맥과 盡善하게 되어있지만 혈에 옛 무덤이 많아서 기운이 빠졌다.

〈표 4-20〉 승릉 택지 양주 화점동 재평가

#### ① 좌참찬 이상진

기해년에 망령되이 진술한 한 상소에서 이 산을 쓰시기를 청하였습시다만, 원래 신이 마음대로 점친 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고 몸소 가서 간심하고 大結局이라 생각하였는데, 그 때 看山한 여러 신하는 그 혈이 작아서 버렸는데 지금 와서 다시 살피니 한결같이 전의 소견과 다르지 않다. 대개 佛巖은 帝座가 되어 존중함이 비할 데 없다. 帳 중에서 내려오는 형세의 종적은 非常한 旺地이다. 高金이 펼쳐져 날고 護身 가운데에서 추출된 어린 용맥에 맺힌 혈이 기이하고 교

묘하며 전면의 排衙가 겹겹이 굳게 닫혀있다. 三山은 拱揖하면서 가운데를 향하고 가운데에는 긴 강이 있고 暗朝穴 위에는 이 그 格局이 맑고 귀하며 기상이 웅위하여, 국장으로 쓰기에 알맞다. 다만 단유와 장유에 대한 뜻 의논은 서로 다르다. 이것은 신의 뜻으로는 짧은 것을 正으로 삼아야 하지만 단유의 새 무덤은 아직도 鑿傷이 근심스러우며, 장유의 첩첩하게 둘러싸인 무덤을 파낼 때에 산맥이 다 파손되면 더욱 어느 곳으로 神穴을 하여야할지 모르겠다. 이는 매우 안타까우면서 난처하다. 오직 논란하여 채택할 것을 권한다.

#### ② 호조참의 정유악

신이 와서 윤천뢰의 산을 보니, 來龍이 기이하고 빼어나며 堂局이 縝密하여 실로 얻기 어려운 아름다운 땅인데, 다만 結穴處는 끝내 분명하지가 않으니 찾아 봐야 하지 않겠다. 地書에 이른바, 眞龍이 엄숙하고 사랑스럽다고 했는데, 그 운운한 것에 따르면 장유는 나른하고 느린 듯하여, 우변 단유의 자못 정교함만 같지 못하다. 하물며 장유라면 많은 무덤이 첩첩이 파내 옮길 때, 땅의 기운이 반드시 새서 다 남음이 없을 것이다.

#### ③ 회양부사 정창도

처음 간심할 때 장유의 혈은 자못 굴곡하여 오른쪽으로 향하는 형세인 까닭에, 단유가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살펴보고자 가려져 있는 수목을 베어버리고 각별히 자세히 살펴본 즉, 단유의 혈은 낙맥이 이미 번쩍하고 堂氣가 옆으로 기울었으며, 장유의 혈맥은 이미 굴곡하여 맑고 또 예쁜 맥의 뒤가 기이하며, 주산이 앞에서 堂氣를 거두니, 장유와 단유의 우열은 현격하게 달라 같은 날에 논의하지 못하겠다.

#### ④ 부사과 신경운

지난번 간산할 때에 화접동의 양 乳중에 단유가 표준일 듯하다고 하였다. 지금 다시 살피기 위하여 좌우의 수목을 베어버리니 砂脚이 다 드러났다. 脈情과 穴法은 전과 비교하여 보니 다르고, 장유의 혈은 明的한 듯하다. 신은 堪輿之術에서 처음에 실제로 보지 못하고 여기에서 알 수 있었는데 點穴之法 역시 옛 사람

도 어려워한 바이다. 지금은 반복해서 소견을 헤아려서 정해야 할 듯한데, 너저분한 잔말을 피하지 못하고 감히 이를 갖추어 진술한다.

#### ⑤ 부사과 이최만

신이 기해년에 간산할 때 봉심하는 행렬에 따라갔다. 지금에 이르러 16년이나 오래되었는데, 당초의 시비가 어떠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거듭 와서 자세히 살핀 즉, 전후의 소견이 미숙하고 성숙함이 현격히 달라 結局의 형상을 상세하게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小祖인 불암산은 形精이 높게 솟아올라 특이해서 비할 데가 없었다. 入穴의 경계에서 다시 일어난 금성은 빼어나고 고우며 광채가 나고 그 아래로 또 한 선의 맥이 戌에서 辛으로 돌고 酉로 돌아서 내려가니 맑고 교묘하다. 그 산줄기는 부드럽고 연하게 와서 纒으로 받아서 側落之法을 만들었다. 전후좌우의 案對와 當局의 배치를 세심히 살피면, 건원릉은 初落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산천의 성정은 만 가지가 있어 같지 아니하여, 바로 내려와서 纒으로 받은 것이 있으며, 纒으로 내려와서 바로 맺는 것이 있고, 혹은 왼쪽에서 번쩍하고 혹은 오른쪽에서 번쩍하여 偏側하지 못할 듯하다는 한 가지의 심은 끝내 虛結이라 이르는 것이 명백하다. 다만 大龍과 結穴, 隱拙이라는 것은 局의 형세를 위엄이 있고 강건하게 형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오른쪽 변은 偏勝하고 堂氣는 조금 기울어 平順之法으로 논한다면, 마땅히 시비의 단서가 있다. 왼쪽 변의 長乳의 혈에 이르러서는 비록 豐大하다고 말하더라도 높지 않으면 辛脈이 사랑할 만하지만 왼쪽 어깨의 바람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고, 낮추어서 앉으면 乾氣가 太長하여 역시 그 타당함을 알지 못한다. 혹 부득이하게 논한다면, 비록 纒으로 치우쳐서 맺었다고 말하더라도 短乳가 나옴만 같지 못하다.

#### ⑥ 부사정 홍석구

전일의 갑작스런 견해는 장유와 단유 양 乳가 그 우열을 정할 수 없다고 감히 딱 잘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무를 베고서 그 堂氣를 보고 등성이에 올라서 그 내려오는 맥을 살핀 즉, 단유 뒤의 맥은 위협할 기운이 있음을 면하지 못한다. 前堂의 혈 자리는 역시 치우쳐 기운 듯하며 뒤도 역시 즐거움이 없어 眞結이 아닌 듯한데, 장유는 곧, 다시 일어난 산줄기 끝이 물을 막고 맥을 가로막

아 구불구불하게 돌고 움직여서 내려갔다. 右砂의 중심이 되는 산줄기는 비록 기울어진 듯 보이지만 명당에 숨어들었다고 이를 수 없으니, 어찌 그 명백한 혈을 버리고 도리어 밝히기 어려운 혈처를 취할 수 있겠는가. 장유의 結作은 의심할 수 없을 듯하다.

⑦ 부사용 이흥도

전일의 갑작스런 견해에서는 당시 장유와 단유 양 乳가 그 우열을 정하지 못했다. 오늘 나무를 벤 후에 세심히 살핀 즉, 단유는 가려진 뿔과 같은 듯하고, 장유는 곧 뒤로 의지하고 앞으로 친하며 좌우로 묶여서 모인 듯하여 바로 順杖之法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2) 광주 변천 산론

〈표 4-21〉은 광주 변천을 재간심한 지관들의 풍수적 견해이다.



간심단의 지관	광주 변천에 대한 지관들의 풍수적 견해
좌참찬 이상진	용맥이 영성하기도 하고 조밀하기도 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삼등이다.
호조참의 정유악	용의 맥과 국이 모두 법에 알맞고, 혈도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 하지만 건원릉의 묘향지혈만 같지 못하다.
회양부사 정창도	堂局이 긴밀하고 또 煞을 벗어나 等第를 논한다면 일등이다.
호조정랑 남궁우	내용이 좋고 結局이 가장 긴밀하지만 혈이 평온하지 못하다.
부사과 신경운	산의 격식이 좋으나 역량이 부족하다.
부사정 홍석구	혈이 기이하고 形局이 긴밀하지만 山氣가 퍼지지 않았다. 변천은 3등이다.
부사과 권순선	형국은 견고하고 긴밀하나 局面이 밝고 화창함이 부족하다.
부사과 이취만	용이 기이하고 혈이 강하다.
부사과 반호의	단지 옛 무덤이 하나가 있을 뿐이어서 혈장의 腦 위를 범하기 때문에 이등이다.
검교수 이유필	巽向山은 용세와 국장이 법에 맞는듯하지만 그 분맥이 된 경계에 기운이 없고, 結穴한 뒤에는 남은 기가 약하기에 4등이다.
부사용 권순태	下手가 孤單하고 局內는 좁기 때문에 제 4등이다.
검교수 남언호	산의 용이 참되고 혈이 的하며 당국이 주밀하나 협착한 하자가 있는 듯하지만 삼등이다.
부사용 김극만	형세가 크고 아름답지만 腦에 옛 무덤이 있으니 맥을 상하게 한 듯하다.

〈표 4-21〉 승릉택지 광주 변천 재 평가

#### ① 좌참찬 이상진

남한강은 後龍의 勢와 逆水의 기운이 멀리에서부터 올라와 물리나고 멈추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枝脚이 무성하게 발생하여 입수지점에 이르러 開帳과 동시에 하나의 토성을 만들었다. 토성의 모서리에서 나온 용호는 서로 交鎖하여 가운데에서 合氣의 맥이 조아리고 올라와 큰 혈을 만들었다. 穴情이 둥글고 깨끗하며 巽地의 貴人이 특별히 찾아와 바르게 대하는 형국이다. 그리고 형국은 긴밀하여 한 점의 바람도 받지 아니하니 진실로 아름다운 땅이라 이를 만하다. 다만 落山 가운데에 있는 까닭에, 四山의 面面이 다 결실이 되지는 못하였다. 또 그 突頂에는 하나의 옛 무덤이 있는데 이미 땅이 패여 상처가 나 기운이 새어나갔을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깝다.

## ② 호조참의 정유악

신이 와서 광주 변천의 산을 본 즉, 後龍이 남한강에서 날아들 듯 하고, 逆水 한지 몇 십리를 지나 開帳하여 局을 형성하였다. 이 국장은 웅장하게 합수되어 굳게 엮혀있어 바람 한 점 들어올 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있다. 낙맥은 좌우 마디마다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홀연히 일어나 산을 만들고, 가운데에서 돌출한 혈은 원만하여 사랑할 만하다. 면전의 特案은 바르고 빼어나 정이 있으니, 이는 術家에서 말하는 速發之地인데, 다만 옛 무덤이 정혈의 윗머리를 범하여 과연 흠결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겠다.

## ③ 부사과 이최만

신이 삼가 변천의 혈을 살핀 즉, 용이 달린 지 몇 수십 리에 사산이 둘러 감싸 局을 맺었다. 入局의 경계에서 일어난 金水가 힘을 모아 솟아오르자 突穴을 일으켰고, 案對가 높이 뛰어올라 諸水の 朝堂이 완비된 땅이라 이를 만하다. 다만 突形이 너무 강하고, 전면이 치솟아 높고, 백호의 밖에 있는 물이 가깝고, 청룡의 밖에 있는 砂가 얇은 것이 흠이다. 용호가 일제히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규모가 작아 서로 마주 대하는 모습과 局內의 형국이 막히고 비좁은 상태이다. 사대부가의 산소로써 논한다면, 龍穴이 족합니다만, 국용에 쓰인다면 신은 감히 그 사이에 망령되이 논하지 못하겠다.

이상 변천에 대한 지관들의 풍수적 견해를 종합해 보면 회양부사 정창도만 일등이라 하였다. 다른 지관들은 변천의 용맥이 격식을 이루지 못했고, 혈이 맺어지지 못한 형국이라고 하였다. 지관들은 변천을 이야기 하면서도 매번 건원릉을 상대로 우열을 가리고 있었다. 특히 호조참의 정유악은 건원릉 내에 있는 우강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묘향지혈이라고 하는 좌향 까지 언급하였다. 이런 사례로만 보아 이미 지관들 사이에서는 현종의 장지를 건원릉으로 귀착시키려는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3) 교하 객사 뒤와 향교 뒤의 산론

교하에 대한 간심에서 지관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고 밝히기도 하였지만 이미 예전의 山家들이 언급했던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직접 밝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수단이었다. 부사와 신경운의 견해에서 이런 사례가 등장한다. 그 외 지관들은 대개 자신의 견해를 기탄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국왕 숙종의 뜻이 건원릉으로 귀착되었기 때문이다. 〈표 4-22〉는 교하에 대한 지관들의 풍수적 견해이다.

간심단의 지관	교하에 대한 지관들의 풍수적 견해
좌참찬 이상진	교하는 사 등이다. 그 이유는 산세가 혹은 영성하고 때로는 뻣뻣하여 분간을 할 수 없다.
호조참의 정유악	이곳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 곳이다.
회양부사 정창도	산의 형국은 잘 갖추어져있고, 水勢또한 좋기는 하지만 웅혼한 기상이 모자란다.
호조정랑 남궁우	용이 귀하고 국이 아름다우며 혈도 형온 하여 흠이 없을 듯하다.
부사과 신경운	터의 혈은 局이 끝나는 곳에 있고 용은 힘이 부족하여 4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山家의 형세를 들었을 뿐이다.
부사정 홍석구	당국이 밝고 화려하지만 뒤에서 오는 맥이 조금 약하기에 4등이다.
부사용 이흥도	교하는 삼등
부사과 권순선	山水가 크게 모이지만 힘이 부딪혀 상처가 나는 형국이다.
부사과 이취만	향교 뒤의 龍局은 아꼈만하지만 面前은 그렇지 못하다.
부사과 반호의	터는 상호 힘이 겨루고 있어 이등이다.
검교수 이유필	교하의 巳向山은 龍勢 및 穴局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합쳐지는 한 가운데에 있어 貴龍의 正結之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래의 국장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등이다.
부사용 권순태	교하읍은 뒤의 국면이 맑고 빼어나 아꼈만하지만 혈 뒤에는 힘이 相沖하고있어 삼등이다.
검교수 남언호	교하의 산은 힘이 오는 세력이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유연하여 약해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매우 조밀한 것이기에 이등이다.
부사용 김극만	교하는 이등

〈표 4-22〉 교하의 산론에 대한 간심단의 평가(승릉)

한편 교하 객사 뒤를 재 간심한 뒤 지관들이 내놓은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좌참찬 이상진

月籠의 貴龍됨과 교하 땅의 아름다움은 예부터 칭찬하는 말이 있었다. 월룡의 용맥은 結局이 되어있고, 혈은 법도에 맞다. 하지만 龍勢는 마디마디가 게으르고 느리며 남은 기는 부족하니 흠이 되는 듯하다. 두 개의 혈처 중 향교 뒤의 癸坐 운운한 것은 子坐를 사용할 만하여 局 가운데의 正落인 듯하고, 객사 뒤의 壬坐 운운한 것은 側落이 그 왼쪽으로 십 수보 가량 이동하여 乾坐(북서방향)가 되어 조금은 쓸 만한 듯하지만 이미 乳穴이 아니다.

#### ② 호조참의 정유악

교하의 산을 간심한 즉, 산줄기 龍맥에 있는 氣가 흩어지고 게을러 나약하며, 結穴 역시 眞的이 아니다. 이른바 향교 뒤의 혈은 主星이 치우치고 옆으로 나온 맥은 거칠고 조잡하며, 객사 뒤의 혈은 穴形이 기울고 밝지 않다. 더구나 뒤에 있는 용맥을 손상되어 있다.

#### ③ 부사과 권순선

월룡이 임진 한강 양 강 사이에 놓여있어 落脈이 맑고 기이하다. 산줄기의 帳峽이 겹겹이 쌓여 入局하였으며, 좌우로 구불어진 산줄기에서 맺힌 혈이 풍성하고 안온하다. 그 국장이 밝고 화창하여 조용히 다그치지 않고 큰 강이 朝入하면서 용과 물이 따라 들어와 江水로 만난다. 형세를 點檢한다면, 물결이 얹혀있는 듯 조밀한 局을 이다. 향교 위의 언덕 좌우 산줄기는 굳게 얹혀있는 듯 보이는데 上手에 치우쳐서 次穴인 듯하고, 객사 뒤에는 入穴處가 傷破된 것이 자못 많은 데도 풍성하고 후함이 범상치 아니하다.

#### ④ 부사과 이취만

洪福山에서 월룡산까지 70여 리인데 다 기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龍勢는 월룡에서 入局하는 사이가 10리 이다. 산세는 예쁘고 아름다우며 정교하여

판단하기가 어려운 형상이다. 入首의 경계는 향교의 뒤에 이르러서 太陰金星을 일으키고, 금성 아래에는 인하여 水木金水를 만들었다. 長乳는 좌우의 護砂가 감싸 속이 심히 긴밀하고, 虎頭가 태음으로 미인의 눈썹처럼 아름답고, 局場의 氣는 물과 거리를 두고 있다. 午峰의 坎癸龍은 천연의 午向 局面을 만들어 精光하고 堂水가 盤曲하니, 전의 증거를 참작한 후에 역량이 지극히 커서 큰 강을 둘러싸 합하고 바다와 산을 끼고서 비춤에 이르렀다. 이 혈은 衛護의 자태로 보아 결코 심상한 혈이 아니다. 객사 뒤의 혈은 後龍이 새로 드러나 맺어 진 것으로 작지만 굳게 얹혀있다. 穴情은 散漫하고 案應이 밝지 않으며 음양의 구색이 구차하한 형세가 있어 향교 뒤의 子坐午向의 眞的만 같지 못하다. 다만 大龍이 국을 맺은 후에 남아있는 기가 적어 부족한 듯하고, 山水는 양 강의 合襟과 潮汐水의 차이로 얹혀있기는 하다.

##### ⑤ 부사용 이흥도

월룡의 용은 老부터 嫩까지 뚫고나와 떨어져서 傳變하여 大盡處에서 局을 맺었는데, 양 강의 合襟과 應樂의 산들은 우뚝 솟아 아름다운 성이라 이를 만하다. 盤旋하여 入首한 경계에서 왼쪽으로 돌아 향교의 북쪽에서 떨어져 小浮가 되고, 오른쪽으로 돌아 객사의 북쪽에서 大乳를 만들었다. 大乳는 界습이 분명하지 않고 穴頭가 編斜하여 護砂인 듯하다. 小乳는 穴法이 端的하고 四勢가 화평하며 下手가 힘이 있으니, 여러 증좌를 상고하건대 별도로 하자가 없습니다.

#### (4) 건원릉 우변 산론

초 간심 한 뒤 재 간심하여 관심이 모아졌던 건원릉 내의 산줄기들에 대해서 지관들의 견해는 〈표 4-23〉과 같다.

간심단의 지관	건원릉에 대한 지관들의 풍수적 견해
좌참찬 이상진	건원릉 안의 산은 이등이나 용혈에 큰 문제가 없고, 또 傷破處도 없기에 국용이 가능하다. 오직 그 勢가 느슨하고 안산이 떨어져 긴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호조참의 정유악	건원릉내 우강의 좌향은 묘향지혈이다.
회양부사 정창도	格局이 좋기는 하지만 朝應이 멀어 흠이기에 3등이다.
호조정랑 남궁우	내릉과 격국, 作穴이 모두 법도에 맞아서 네 가지 중 제일이다.
부사과 신경운	건원릉의 右岡은 역량이 크지만 繫束이 부족하다.
부사정 홍석구	건원릉의 南崗은 용혈이 완전하고 堂氣 역시 鍾聚하여 모여 있으니 일등이다.
부사용 이흥도	능 안의 崗은 밝고 화창하다.
부사과 권순선	산줄기의 형국은 귀하고 빼어난 기를 나누어 얻어서 一局을 만들어져 하자가 없다. 건원릉 안의 산줄기는 일등이다.
부사과 이취만	穴道가 풍부하게 잘 구성되어있다.
부사과 반호의	새로 얻은 穴龍과 眞穴이 的極하여 명백하니 일등이다.
겸교수 이유필	卯向山은 용이 名山에서 나오고 혈이 帳中에서 맺어져 垣局이 단정하다. 案朝가 맑고 빼어나며 水神이 법도에 맞으니 일등이다.
부사용 권순태	건원릉 안은 主星이 尊重하고 혈도가 단정하니 일등이다.
겸교수 남언호	산의 용은 참되면서 맑고 귀하며, 혈은 풍부하고 두텁다. 砂는 迴而纏繞하고 水는 모였지만 굽어서 감싸 안았으니 일등이다.
부사용 김극만	건원릉 안은 상이 되고, 교하가 다음입니다.

〈표 4-23〉 건원릉에 대한 간심단의 재평가(승릉)

### ① 좌참찬 이상진

이 산은 건원릉의 水口 사이에 있는데, 넓게 트인 휘장의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도는 행룡의 龍氣가 자못 왕성하여, 穴法 역시 바릅니다. 양 局은 정이 있고 내당은 평온하니, 이는 실로 좋은 형국이다. 맑고 귀함이 비록 부족한 듯하더라도 完美하다. 전면의 朝應이 먼 것 역시 큰 흠결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점친 神穴은 先兆를 따를 뿐만이 아니다.

### ② 호조참의 정유악

신이 삼가 건원릉 안을 살펴보고서 운운한 혈은 本陵과 더불어 모두 형세가 양쪽으로 우뚝 솟아서 저절로 別局을 만들고 그 기운을 묶은 것이 굳게 얹히어 단단하게 고정되어있다. 용맥의 結穴은 안온하고, 좌우로 夾輔하며 전후로 照應하니 역시 모두 법도에 맞다. 당초에 간산했을 때, 여러 신하들이 아름다움을 칭찬한 말이 허물이 되지 않았다.

### ③ 부사과 이최만

엿드려 건원릉 안을 살펴보고서 庚龍西坐(동향)의 혈을 점친 바인 즉, 산천의 형승이 여러 지관들이 논한 바에 이미 다하여 지금 다시 그 사이에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 대개 건원릉 산의 형국과 勢精이 金美玉葉이며 葉開花貴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酉坐의 혈이오리까. 내룡과 穴情, 용호, 朝案, 명당, 水勢가 십분 明的하여 음양의 裁作之法에 이르러서 조금도 부족한 곳이 없으니, 因山을 결정함에 만에 하나라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다.

재간심의 결과는 건원릉 내 우측에 있는 산줄기를 택하는 것으로 歸着 되었다. 숙종은 후일에 雙陵으로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왕의 陵은 正穴을 쓰되, 쌍릉의 尺數가 부족하면 보토 할 수 있다고 했다.<sup>378)</sup> 그리고서 석물은 구 寧陵에 묻힌 것을 새 陵에 쓰도록 하였고,<sup>379)</sup> 영악전을 짓지 말도록 하였다.<sup>380)</sup> 현종의 능소가 건원릉 화소로 정해지고, 석물은 구 영릉에 쓰였던 것을 사용하는 것에

378)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9월13일(갑술).

379)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9월15일(병자).

380)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9월17일(무인).

대하여 조사기의 아들 조감이 “近畿 지역의 士大夫의 墳山 과 農土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하여, 으레 國陵의 形局안에서 조금 나은 곳을 찬양하며, 반드시 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다.”<sup>381)</sup> 이것은 국릉을 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즉 국릉의 입지가 풍수적인 측면에서 길지를 운운 하였지만 그것은 모두 사대부들의 분산과 농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조감의 상소가 있었으나 대행대왕의 재궁은 辰詩에 崇陵에서 하현궁 하였다.<sup>382)</sup> 그리고 산릉의 역사를 마친 뒤 都監을 파하고 각 都監의 당상관 · 낭관 · 지책 제사관 들에게 차등 있게 賞格을 수여하는 것으로 산릉의 조영을 끝냈다.<sup>383)</sup> 〈그림 4-1〉은 현종의 승릉 전경이다.



〈그림 4-1〉 현종의 승릉 (2009년 5월 6일 이덕형 촬영)

381)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9월29일(경인).

382)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12월13일(갑진).

383)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12월30일(기미).

## 2. 18세기에 조영된 경종의 懿陵 산론

### 1) 경종의 의릉

경종은 즉위 4년 만에 창경궁 환취정에서 승하하였다. 당시 경종의 국장을 치르기 위한 삼도감과 총호사가 결성 되었다. 〈표 4-24〉는 경종의 국장 때 활동하였던 총호사와 삼도감이다. 이들은 승정원에서 숙직하였는데 옛부터 내려온 列이었다.<sup>384)</sup>

구분	담당 주무관
총호사	우의정 李光佐
빈전도감 제조	沈 檀 · 李眞儉 · 李明彦
국장도감 제조	趙泰億 · 金一鏡 · 李世最
산릉도감 제조	吳命峻 · 沈壽賢 · 李師尙
수릉관	宗室 洛昌君 李檀,

〈표 4-24〉 경종의 국상시 총호사 및 삼도감 당상

경종의 산릉 간심지에 대한 내용은 간심의 결과를 올린 서계 「간산별단」에 잘 나타나 있다. 당초 간심 대상지는 건원릉 안의 옛 穆陵을 옮긴 곳, 옛 영릉을 옮긴 곳, 건원릉 왼쪽 1岡의 자좌오향, 건원릉 우변의 술좌진향, 광릉 능 안의 達馬洞과 齋寺後岡 및 水砧洞, 현릉의 외백호 안의 梨樹基洞과 瓮巖洞, 순릉의 백호 邊의 자좌오향과 좌변의 을좌진향 등 11곳이었다. 관상감에서 왕의 재가를 받아 간심 대상지로 뽑은 곳은 9곳이며, 나머지 두 곳은 지사의 추천으로 추가한 곳이다. 이곳에 대한 각 지사들의 산론을 분석해보면, 〈표 4-25〉와 같았다.

지사	검교수 곽진곤, 교수 김우하, 훈도 정택, 동지 지여향, 전첨사 박지만, 사과 이철, 사용 나만우, 사용 이춘재
----	--

〈표 4-25〉 경종의 산릉택지 1차 간심단

384) 『경종실록』 권15, 경종 4년 8월 25일(을미).

총호사는 이광재는 〈표 4-25〉에 있는 지관들과 1724년(영조 즉위년) 9월 5일 가장 먼저 볼 만한 산을 골라 출발하였다. 이때 간심단은 경종의 정비인 단의 왕후의 능인 惠陵을 우선 대상지로 삼았다. 별도로 다른 산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먼저 해릉으로 가서 상세히 봉심하고 그 穴形을 살피며 그 넓고 좁음을 헤아려 본 후 다른 곳으로 가서 간산하도록 했다. 해릉을 봉심한 결과, 여러 지사들은 이구동성으로 地勢가 결코 推移하기 어려워 국릉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다시 향한 곳도 건원릉 내의 두 곳이었다. 이곳을 간심한 후에, 광릉과 현릉, 순릉을 차례로 찾아가 간심하는 일정을 잡았다. 이 일정대로 간심한 기간은 5, 6일이 소요되었다. 초5일에 건원릉 내의 두 곳을 간심한 후에 이어서 광릉으로 가서 세 곳을 간심했다. 초6일에는 현릉에 이르러서 두 곳을 간심하고, 초7일에는 성 바깥에 도착하여 초8일에 순릉의 두 곳을 간심했다. 그리고 나서 9월 10일에 「산릉간심서계」를 올렸다.<sup>385)</sup>

총호사는 서계의 서두에서 간심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보고했다. 곧 각 산의 형은 전부터 國陵을 간심할 때 이미 논평을 거친 곳으로서, 지금 여러 지사가 역시 그와 대동소이하다고 했다. 건원릉 내의 양 岡과 광릉 내의 세 岡은 지사들이 똑같이 하자와 흠이 있어 다시 의논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릉 瓮巖洞穴은 위에 큰 돌이 있고, 파주의 順陵 백호 邊이 子坐午向하고 癸丑行龍하는 것도 병통으로 여겼다. 그리고 현릉 외백호 내의 梨樹基洞 및 순릉 좌변의 을좌신향은 여러 지사의 말이 귀일되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國用에 알맞다고 했다. 이때 간심단의 여러 지사들은 건원릉 내에서 옛 목릉과 옛 영릉을 옮긴 곳도 길지이기 때문에, 간심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에 따라 추가로 간심했다. 이 두 곳을 간심한 결과, 여러 지사들은 한결같이 칭찬했는데 목릉을 옮긴 후의 옛 壙은 편안하고 길한데, 당초 옮기자고 발론한 사람은 重論을 입은 바 있었다. 또 해릉과 접한 岡은 神道와 人事가 극히 便順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추가로 여러 지사들이 유별한 곳이라 하여 광릉 안의 達馬洞과 또 한 곳, 守僕 등이 가리킨 齋寺 뒤의 岡을 간심했지만, 알맞은 땅이 아니어서 이 서계 안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게 간심 대상지인 9곳 중에서 7곳은 하자과 병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나머지 두 곳은 지사들의 견해가 엇갈리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쓰기에는 알맞다

385) 『(경종)산릉도감의궤』 계사, 영조 즉위년 9월 10일.

는 것이다. 〈표 4-26〉은 경종의 산릉을 간심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경종의 산릉 대상지는 모두 왕릉 화소지역 이었다.

경종의 산릉 초기 간심 지역	간심 대상지역	결과
	건원릉 내 경종비 단의왕후심씨 해릉	地勢가 결코 推移하기 어려워 불가
	건원릉 내 두 곳	하자와 흙이 있어 불가
	광릉 내의 세 岡	하자와 흙이 있어 불가
	현릉 瓮巖洞穴	위에 큰 돌이 있어 불가
	파주의 順陵 백호 邊	子坐午向하고 癸丑行龍하는 것도 병통
	현릉 외백호 내의 梨樹基洞	순릉 좌변의 을좌신향은 國用에 적합
	건원릉 내 목릉과 영릉 천장지	여러 지사들은 한결같이 칭찬
	광릉 안의 達馬洞과 또 한 곳	알맞은 땅이 아니어서 불가
	守僕 등이 가리킨 齋寺 뒤의 岡	알맞은 땅이 아니어서 불가

〈표 4-26〉 경종의 초기(9월5일 경) 간심지역과 결과

이 서계에 대해서, 영조는 옛 목릉과 옛 영릉, 현릉의 이수기동, 순릉 동변의 을좌 등 4곳을 재심하라고 하교했다.<sup>386)</sup> 아마도 영조는 이번에 간심한 11곳을 씩 내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산릉 재심에는 〈표 4-27〉과 같은데 단지 김우하가 제외되고, 지리에 정통하다고 소문난 土人 경엽이 추가되었다.<sup>387)</sup>

2차 간심단 의 지관	예조판서 이진검, 관상감제조 일경, 산릉도감제조 오명준, 관상감겸교수 박진곤, 훈도 정탁, 동지 지여향, 부호군 박지만, 부사과 이철, 사옹 경엽과 나만우, 부사옹 이춘재
재 간심지역	옛 목릉과 옛 영릉, 현릉의 이수기동, 순릉 동변의 을좌

〈표 4-27〉 경종의 왕릉택지 2차 간심단(재 간심단)

386) 『(경종)산릉도감의궤』 계사, 영조 즉위년 9월 10일.

387) 『(경종)산릉도감의궤』 계사, 영조 즉위년 9월 11일.

재심하러 떠난 일행은 먼저 옛 목릉에 도착하여, 주봉에 올라가서는 마디마다 간심하고 혈처에 이르러 開土하며 옛 현궁의 형지를 자세히 살폈다. 이튿날에는 옛 영릉에 올라 주봉을 두루 살피고서 내려와 6처를 개토하고 간심했으며, 현릉 화소 안의 이수기동에 이르러서도 주봉에 올라 마디마다 두루 살피고 이어서 혈장을 살폈다. 그 결과, 옛 목릉과 옛 영릉은 여러 지관 등이 같은 소리로 일제히 칭찬하여 처음 간심했을 때와 논한 바가 일반이었다. 천륜한 옛 터는 새로 점친 땅과는 다름이 있으므로 이곳의 선택 자체가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었다. 이수기동도 일제히 칭찬하였지만, 그중 하자과 흠이 있다는 말도 없지 않았다. 다음날에는 순릉의 左岡을 간심하였다. 내용은 본릉 分介處 이하와 두루 답사하여 간심하고 혈장 역시 상세히 살폈다. 당시 간산별단을 통해 이 4곳에서 평가했던 지관들의 생각은 대략 세 가지의 견해로 나뉘었다.<sup>388)</sup>

① 〈표 4-28〉 응 겸교수 곽진곤, 훈도 정탁, 동지 지여항 등의 산론이다.

간심지	겸교수 곽진곤, 훈도 정탁, 동지 지여항 등 간심 후 평가 내용
영릉	옛 영릉은 初落부터 혈처까지 庚酉辛轉亥가 모두 극히 귀한 맥이다. 만일 입수두뇌 아래 혈처를 점친다면, 옛 광은 앞에 있어 조금도 하자과 병이 없고, 亥坐로 다시 정한다면 砂水가 법에 알맞아 壬坐보다 우수하다.
목릉	옛 목릉은 용맥이 貴賤이 서로 섞여있는데 위를 점친다면 입수두뇌를 침범하고 아래를 점친다면 좋다고 하더라도 옛 광이 위에 있어 옛 영릉의 萬全만 같지 못하다.
순릉	순릉 좌강은 들판 가운데의 용맥이 바람을 갈무리하고 기운을 모으며 국세가 平順하여 현릉 외백호 내 이수기동의 賤脈보다 우수하다.
총론	4곳의 통론은 옛 영릉이 제일이고, 옛 목릉이 다음입니다.”라고 했다.

〈표 4-28〉 경종의 왕릉택지 재간심 소견(겸교수 곽진곤 등)

② 〈표 4-29〉는 사옹 나만우, 전첨사 박지만, 사옹 이춘재, 사과 이철 등의 산론이다.

388) 『承政院日記』

간심지	사용 나만우, 전침사 박지만, 사용 이춘재, 사과 이철 등 간심 후 평가 내용
영릉 목릉	옛 영릉과 옛 목릉은 龍神行도와 砂水가 정이 있어 혈이 만들어진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양 혈은 모두 천광된 곳으로 定穴裁拵는 불능하다. 지금 옛 광의 상하를 개토하여 상세히 살피면, 옛 영릉 위에는 生土가 있어 봉릉할 수 있고, 옛 목릉 아래에는 生地가 있기에 두 혈은 모두 취용할 땅이 될 만하다.
순릉	순릉 좌강 辛向의 땅은 龍度가 치우쳐 기울고 머리에 이르러 정이 없다. 박지만이 다시 와서 상세히 살피니, 국세는 비록 아름다우나 용의 기운이 느릿느릿하여 흠이라고 했다.
현릉	현릉 외백호 내 이수기동 역시 혈을 맺은 땅이 되지만 구 영릉과 목릉의 혈에 비하면 역량의 대소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총론	용세와 혈법 제반의 귀격은 옛 영릉이 上이 되어 바로 국용에 적합하다. 그리고 立向에 이르러서는 壬坐巽破가 조금 하자와 병이 있기 때문에 고쳐서 亥坐로 정한다면 流神이 度에 맞게 된다. 옛 목릉의 혈 역시 欠處가 없으니 마땅히 옛 영릉의 다음이다.

〈표 4-29〉 경종의 왕릉택지 재간심 소견(사용 나만우 등)

③ 사용 경업 의견은 〈표 4-30〉에 정리해 놓았다.

간심지	사용 경업 등 간심 후 평가내용
목릉	옛 목릉은 이 산이 庚兌行龍이 돈기한 금성이 午丁으로 머리를 드리고 坤未에서 박환하여 땀을 맺어 만든 태음금성이 辛兌로 入首하니 乳穴이 풍후하고 四勢가 자리를 얻으며 명당이 寬平하고 流神이 법에 맞으며 수구가 觀瀾하여 조금도 하자과 병이 없으니 이것은 실로 眞結이 의심이 없는 땅이다.
영릉	옛 영릉의 해좌지지는 佛巖의 元龍이 평지에서 골짜기를 지나 金水에서 帳을 열고 태양 금성이 특별히 서서 가운데에서 중심을 뚫고 낙맥하여 酉辛에서 박환하고 땀을 맺어 만든 腦가 辛에서 亥로 돌고(바뀌고) 혈이 만든 長乳는 오른쪽으로 내려오고 왼쪽으로 떨어지며, 流神은 법에 맞고 內堂은 生水하여 庫墓로 돌아간다. 外局의 大水 역시 巽地로 돌아가니, 夫婦가 짝을 얻고 묘하게 玄機를 합하며 穴星이 단중하고 국세가 圓靜하여 앞은 끌어안고 뒤는 막아서 바람이 갈무리되고 기운이 모이니 극히 귀함이 얻기 어려운 땅이다.
순릉	순릉 좌강 을좌신향처는 용이 간지 수백여보에 왼쪽으로 枝脚이 많고 오른쪽 변은 전혀 이것이 없으니 이는 偏龍이며 전혀 순릉을 호위하는 砂가 되며 결혈의 진위는 논하기에 부족하다.
현릉	현릉 외백호 이수기동은 勢來形止가 용이 있고 국이 있어 혈성이 豐美하고 조안이 정이 있으니 혈을 맺은 땅이라 이를 수 있지만, 흠인 것은 좌우가 낮고 희미하며 바람길에 맥으로 불어 골짜기를 지나 初落하니 그 역량이 크지 않다.
총론	그나마 천륜한 舊基인 옛 영릉이 가장 길하나 이광좌 등은 반대하였다.

〈표 4-30〉 경종의 왕릉택지 재간심 소견(사용 경업 등)

그러자 영조는 산릉도감당상 오명준 등으로 하여금 중랑포를 간심하라고 하였다.<sup>389)</sup> 이에 따라 전별제 남세옥, 유학 유재화, 충의위 오진열을 추가로 데려갔다. 간심 대상지를 추가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빈청에서는 여러 지사들을 불러 국장으로 가합한 곳을 물었다. 그런데 지사들은 모두 앞서 재차 초계한 것 외에 더 들은 바 없다고 하였다. 이때 지사 최두석 등 6인은, 국장 치부문서에서 초출하라는 요구에 이미 각 왕릉 안의 여러 곳과 近畿의 縣邑 및 향교 객사의 터, 朝臣의 家墓山 등을 둘러보았지만 모두 국용에 알맞지 않고, 게다가 어떤 지명은 그 소재처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sup>390)</sup>

〈표 4-31〉에서처럼 이 4곳의 재심에 따른 여러 지관의 견해에 대해서 총호사는 서계에서 언급하였다.

간심지	간심 후 평가내용
영릉	옛 영릉의 형국과 용혈은 여러 견해가 일제히 극히 칭찬하고 또 입수처 바로 아래(後腦)와 옛 광의 위의 평탄한 곳에서 얻은 生土가 자못 길어 한 광을 배치할 수 있다.
목릉	옛 목릉의 용혈 역시 모두 일제히 칭찬하지만 옛 영릉에 비한다면 조금 못하다. 그리고 목릉의 生地는 옛 광의 아래에 있는데, 옛 광의 灰와 돌이 처음에 다 제거하여 없애버린다 해도 그勢는 구 영릉의 옛 광터 위에 있는 생토만 못하다.
현릉	이수기동 역시 모두 칭찬하였지만 하자과 흠이 있다고 하였다.
순릉	좌강은 쓸 만하다고 하는 자가 3인이고 쓸 수 없다고 하는 자가 5인이다.

〈표 4-31〉 경종의 재 간심지역 4곳에 대한 총호사의 서계

영조는 舊 寧陵터가 국용에 합당하다고는 하나 천륜한 곳에 다시 봉릉하는 것은 일찍이 전례가 없으니 다시 살펴 처리하라고 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경종의 산릉으로 사용될 곳을 간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4-32〉와 같다. 당시 총호사 이광좌가 도감 당상과 堪輿師 11명이 살펴본 내용이다.

389) 『(경종)산릉도감의궤』 계사, 영조 즉위년 9월 14일.

390) 『(경종)산릉도감의궤』 계사, 영조 즉위년 9월 15일.

지관	추천지역	내용
총호사 이광좌	구 영릉	구 영릉은 건원릉의 局內에 있는데, 비록 封築에 틈이 있어 천릉을 하였지만 風水가 나쁘다고는 하지 않았기에 구 영릉이 나올 것 같다. 그러나 천릉한 장소는 다시 쓰는 전례가 없으니 오직 성상께서 결정하실 뿐이다.
김일경	중량포	비록 사대부의 집안이라 하더라도 구광터에는 그 어버이를 장사지내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신하들은 중량포를 주장한다.
영조	용인,교하 왕십리	이광좌가 말하기를, 용인·교하의 객사 뒤는 지사들이 좋은곳이기는 하지만 민가가 있어 사용 불가하다. 그래서 선왕조에서도 사용 안함.

〈표 4-32〉 경종의 산릉 택지에 대한 재 간심 이후 산릉 결정과정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영조는 총호사 이광좌와 도감의 여러 당상에게 다시 중량포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모두 국용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大妃에게 승낙을 받고 裁穴도록 하였다.<sup>391)</sup>

중량포는 총호사 등 여러 지사들이 한결같이 찬양하고, 하나의 하자나 단점 없이 크게 길한 땅이라고 하였다.<sup>392)</sup> 총호사 등은 많은 논의를 거쳐 좌향을 신좌인 향으로 정하고, 정혈을 재정한 후에 봉표 하였다.

391) 『영조실록』 권1, 영조 즉위년 9월 16일(병진).

392) 『(경종)산릉도감의궤』 계사, 영조 즉위년 9월 16일.

## 2) 산론 분석

### (1) 건원릉 안의 옛 穆陵을 옮긴 곳

#### ① 겸교수 박진곤

午丁行龍이 束氣結咽하여 坤과 兌방향으로 들어왔다. 窩로 轉하며 太陰이 結腦하고 兌에 들어가 卯를 향하며, 穴形이 團正하고 씩씩한 바람이 기를 모으며 金魚가 습襟하고 水口가 關攔하여 국면이 정이 있고 砂水가 다 아름다워 길지라 할 수 있다.

#### ② 교수 김우하

용의 기운이 왕성하여 구불구불하게 굴곡지고 主星이 분명하여 咽脈을 繫束하고 혈형은 풍부하고 두터워 唇(놀랄 진)氈을 평평하게 깔고 명당은 평평하고 바르며 朝案은 정이 있고 수구가 交鎖하여 실로 씩씩한 바람이 되어 기를 모으는 땅이니 크게 쓰기에 알맞다.

#### ③ 훈도 정탁

朝宗이 壬坎으로 橫落하고 庚兌로 連珠하다가 일으킨 봉우리가 午丁으로 博換하고 丁坤을 뽑아내어 束氣結咽하고 다시 금성을 일으켜 兌入兌作하고 혈형은 端妙하여 勢來形止하고 主客이 서로 대적하며 금어가 합금하고 水城이 곱어 감싸안으며 명당이 평평하고 바르며 五戶가 關攔하며 四維가 정이 있어 국장을 지낼 만한 땅이다.

#### ④ 동지 지여향

水星이 帳 아래의 庚兌로 落脈하고 坤丁으로 박환하여 속기결인하고 태음이 作腦하여 경태에서 혈을 만드니 혈형이 풍후하고 局勢가 주밀하며 流神이 법도에 알맞고 조안이 정이 있으며 명당이 평정하고 수구가 關鎖하니 이것이 眞結로 의심이 없는 혈이다.

⑤ 전 침사 박지만

경태로 낙맥하여 맺은 혈이 단정하고 子午로 서로 마주한 조안이 맑고 빼어나며 天關이 開豁하고 地戶가 交鎖하며 명당이 團聚하고 水法이 또 길하여 조금도 하자가 없으니 바로 크게 길한 땅이다.

⑥ 사과 이철

金水가 帳을 열고 未坤으로 申轉하여 金穴을 만들어서 形이 멈추고 穴이 두터우며 용호가 交回하고 좌우로 물을 生하는데 癸丑艮方의 지형이 낮은 것이 흠결이다.

⑦ 사용 나만우

龍穴과 砂水가 모두 하자나 병이 없으니 이는 眞龍結穴의 땅이어서 바로 국가의 능침으로 쓰기에 알맞다. 옛 혈 아래에 흠족히 남은 땅이 있어 오른쪽을 치고 혈을 세운다면 純美하고도 길하다.

⑧ 사용 이춘재

용의 기운이 왕성하여 서로 맺은 혈이 端的하고 朝對와 水神이 바로 規矩에 알맞는데 능 안에서 혈을 구하고 이것을 버리니 무엇을 논하겠습니까. 이 혈이 옮겨간 곳이라도 옛 광이 위에 있으니 좌변의 조금 아래인 곳에 오른쪽을 치고 혈을 세운다면 만에라도 혈을 傷하는 혐의는 없을 것이다.

(2) 옛 寧陵을 옮긴 곳

① 김교수 곽진곤

庚兌行龍이 乾亥로 入首하여 임좌병향하여 坤에서 辰破를 얻었으니, 법으로 논한다면 官方에서 入首하고 旺方에서 혈을 맺어 長生을 얻었는데 墓로 돌아갔다. 혈형은 정이 있고 바람은 씩씩하여 기를 모으며 金魚가 함금하고 都局이 견밀하며 四維가 서로 應하고 오호가 관란하니 이는 실로 龍眞穴의인데 다만 옛

광이 있는 곳이 정확히 알 수 없어 裁穴이 심히 어려운 것이 흠결이다.

#### ② 교수 김우하

용의 기운과 혈의 기운, 당의 기운, 水神이 모두 格法에 알맞아 큰 쓰임에 알맞다. 옛 광이 가운데에서 위를 침범한다면(扞) 逼窄하고 아래를 占한다면 緩然한 듯한데 혹 위거나 혹 아래거나 상세히 살펴서 裁占한다면 혹 쓸 만하다.

#### ③ 훈도 정탁

맥은 庚兌에서 乾亥로 전환하고 다시 경태에서 亥로 들어가 壬에서 만든 穴形이 정이 있고 금어가 함금하며 도국이 긴밀하고 바람이 씩씩하여 기를 모으니, 이는 실로 眞龍正穴로 다른 의심의 뜻이 없다. 옛 광이 가운데에서 위라면 잠시 급한 기운이 있고 아래라면 맥의 勢가 조금 느슨하여 재혈이 심히 어렵다. 만약 잘 占다면 실로 크게 쓰일 땅에 알맞다.

#### ④ 동지 지여항

용이 경태에서 임해로 입수하여 좌임향명하고 經에서 진파를 얻으니 혈형이 풍후합니다. 뒤에는 鬼星이 있고 앞에는 鋪氈이 있어 주객이 서로 대적하니 龍眞穴的이며 水神이 격에 맞고 사유가 서로 응하여 극히 귀해 비교하기 어렵다. 옛 광을 옮긴 것은 하자과 병을 말하더라도 上下를 裁正한다면 이는 실로 眞龍秘穴의 땅이다.

#### ⑤ 전 첨사 박지만

主星이 尊重하고 龍勢가 활발히 움직여 맺은 목구멍(咽)이 머리에 이르렀으니 穴星이 풍후하고 사방 주위가 주밀하며 조안이 정이 있고 명당이 寬平하며 수신이 법에 맞으니 마땅히 국용의 땅이 될 만하다. 다만 옛 광의 높고 낮음이 정해지지 않아 이것이 의심스럽다.

#### ⑥ 사옹 나만우

龍神이 활발히 움직여 머리에 이르러서 結頂하고 穴道가 분명하며 조안이 정

이 있습니다. 다만 옛 광이 가운데에서 위에는 남은 땅이 없고 아래에는 흩어져 기운이 없는데 다시 혈을 구하지 못하니 애석하고 탄식이 나온다.

#### ⑦ 사옹 이춘재

龍이 길하고 혈이 아름다우며 局이 좋고 砂가 기이하니 이것이 이른바 眞龍結입니다. 조금도 의심의 뜻이 없다. 다만 이미 옮긴 혈은 옛 광의 상하에서 取用 여부를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천견으로 논정하기 어렵다.

### (3) 건원릉 왼쪽 1岡의 자좌오향

#### ① 겸교수 박진곤

穴星이 大抱 가운데에 있더라도 脈勢가 곧바로 내려와 조금도 활동하거나 구불구불한 자태가 없으며 前案은 높이 닦쳐오니 도무지 虛假이어서 결코 논할 수 없다.

#### ② 교수 김우하

龍勢와 都局이 감싸안은 가운데에 있어 감히 칭찬할 만함을 훼손하지 못합니다만, 혈성이 바로 굳어지고 注下하여 停留하는 세가 없으며 朝對와 前案이 높이 닦쳐오니 역시 불만하지 못하다. 이에 건원릉의 護從이지만 결코 혈을 이른 땅이라 할 수 없다.

#### ③ 동지 지여향

용의 기운이 게으르고 느슨하며 혈이 定情이 없으니 이 岡은 건원릉을 호종하는 砂이기는 하지만 裁穴할 땅으로 거론할 수 없다.

#### ④ 훈도 정탁

抱裹한 가운데의 혈형이 조금도 돌아 움직이고 구불구불한 자태가 없으니 이것은 건원릉을 호종하는 砂이다.

⑤ 전침사 박지만

행룡하는 勢가 갑자기 起伏이 없고 혈처가 산만하여 조금도 수습하는 자태가 없으니 혈처를 논할 수 없다.

⑥ 사과 이철

혈형이 곧바로 내려와 조금도 曲動이 없으며 용호가 정이 없고 案도 또 逼高하니 이것은 실로 건원릉의 護砂이니 결코 점칠 수 없다.

⑦ 사용 나만우

龍도가 정이 없고 혈장이 조잡하고 느슨하여 혈을 이룬 땅으로 거론할 수 없다.

⑧ 사용 이춘재

용이 굴곡이 없으며 또 結咽이 없고 혈형은 게으르고 느슨하여 수습하지 못하니 혈을 맺은 땅으로 거론할 수 없다.

(4) 건원릉 우변의 술좌진향

① 김교수 곽진곤

乾亥로 跌落하고 목성이 혈을 맺어 정이 있는 듯하지만 왼쪽으로 蟬翼이 없고 오른쪽 砂 역시 짧으니 실로 硬直되고 吐舌한 땅이어서 국용에 알맞지 않다.

② 교수 김우하

용세와 도국, 砂水, 조안의 합격 여부는 진실로 거론할 수 없지만, 건원릉의 백호가 지근한 땅이라 결코 이것에 유의할 수 없다.

③ 훈도 정탁

뒤 三節이 건해로 질락하여 戌에서 혈정을 만든 것이 명백하며 앞에 前唇이

있고 금어가 합금하여 흙이 없다고 이를 만하지만 건원릉 백호 내의 砂라 결코 ?  
에 거론할 수 없다.

④ 동지 지여향

건해릉이 술에서 만들어져 정혈인 듯하더라도 이 강은 건원릉 내의 백호이므로  
隔岡之原이 없고 占穴動土가 그 미안한 듯하다.

⑤ 전 첨사 박지만

용을 이루고 혈을 이룬 땅이라 하더라도 건원릉 지근의 內砂이며 백호가 옆에  
서 土功을 움직이니 술가가 꺼리는 바 지금 거론하고자 한다면 사체에 미안함이  
있을 듯하다.

⑥ 사과 이철

혈형이 풍후하더라도 건해로 입수하고 물이 巽巳로 돌아가서 다시 논할 수 없  
지만 건원릉 백호 내의 사는 실로 꺼리는 바이다.

⑦ 사옹 나만우

용혈이 정이 있어 취하여 쓸 땅이라 할 수 있지만 이 강은 건원릉 백호의 내사  
와 관계된 즉, 祖塋이 옆에서 토공을 움직이니 옛날 哲師가 경계한 바 있다.

⑧ 사옹 이춘재

우변의 戌坐之原이 勢가 내려오고 形이 머물러 용혈이 취할 만하다고 하더라  
도 이 골짜기는 곧 건원릉 내 백호의 繁砂이어서 재혈하고 動土하여 定함은 堪  
輿가 꺼리는 바 지금 취용은 역시 미안한 일이다.

(5) 광릉 능 안에 전부터 이른바 達馬洞

① 김교수 박진곤

도국과 環抱가 혈을 맺은 듯하지만 脈勢가 雄強하고 亂石이 노출되어 있고  
너머에 들의 색이 보이니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② 교수 김우하

龍身이 웅위하고 局勢가 두루 둘러싸서 眞結이 있는 듯하지만 혈형이 너무 높  
고, 결함은 너머에 들판의 색이 보이고 山根이 갈무리하지 못해 볼만하지 못하  
다.

③ 훈도 정탁

亥龍이 亥에서 丁을 만들고 得水가 巳丙으로 돌아가 용세가 힘준하고 급하며  
혈형이 올라가 드러나고 산근이 흩어져 어지러우며 너머에 들판의 색이 보이니  
어찌 거론할 수 있겠는가.

④ 동지 지여향

용세가 힘준하고 급하며 혈이 매우 올라가 드러나고 용호가 오목하여 결함이  
있고 명당은 낮아 가라앉아서 하자과 병이 裁扞을 허락할 것 같으니 어찌 논하  
겠는가.

⑤ 전 첨사 박지만

亥龍의 산이 내려온 형세가 조금도 緩嫩한 자태가 없으니 혈이 돌출하여 드러  
나고 명당이 기울어 가라앉고 산근이 난잡하여 혈을 이룬 땅이라 이를 수 없다.

⑥ 사옹 나만우

용맥이 直強하고 국세가 또 치우쳤으며 혈이 매우 올라가 드러나고 좌우로 오  
목하여 결함이 있고 혈은 定情이 없으니 거론할 수 없다.

⑦ 사옹 이춘재

용의 기운이 경직되고 강하여 조금도 博換이 없고 혈처는 짧고 오그라들었으며  
또 드러나서 하나도 취할 만한 곳이 없다.

(6) 광릉 능 안에 전부터 이른바 齋寺後岡

① 김교수 곽진곤

壬丙으로 博換하고 午丁으로 行脈하여 마디마다 가지를 낳아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며 구불구불하게 굴곡하여 坤兌로 轉하여 坎이 橫落하여 좌임병향이고 귀신을 빌려 혈을 편안히 하고 명당이 平正하고 丁에 을파를 얻고 오호가 관란하여 정이 있는 듯하여 혈을 맺었지만 後腦가 낮아 희미하고 혈형이 조잡하게 완전하고 헛되이 강해 부드럽지 않고 평평한 밭에 낙하하였으니 이는 절터로 합당한 곳이다.

② 교수 김우하

과연 眞結이어서 의심이 없지만 큰절이 앞에 있습니다. 方書에 이르기를, 절 뒤는 쓸 수 없다고 했고 또 鐘鼓 소리 듣는 것을 꺼린다고 했으니 이는 길한 기운을 놀래고 흐트러트린다는 말이다. 역시 논할 수 없는 곳이다.

③ 훈도 정탁

午丁으로 發跡하여 坤申으로 전환하여 굴곡하며 활동하여 枝葉이 蕃然하고 다시 庚兌로 돌아 壬坎으로 橫落하니 뒤에는 撐鬼가 있고 앞에는 護砂가 있으니 실로 찌칙한 바람이 陽을 향하여 진결이 된 듯한데 뇌는 낮고 혈은 강하며 어지러운 돌이 노출되어서 그 眞的이 국용에 알맞은지를 알지 못하겠다.

④ 동지 지여향

坤申行龍이 경태로 전환하여 뒤에 雙鬼가 있고 坎으로 橫落 하여 임좌병향하고 丙丁으로 득수하여 乙辰으로 돌아가 법으로 말하건대 生方에서 發原하여 旺方에서 혈을 만들며 納氣得水는 墓地로 돌아가기를 모은 듯하지만 龍身을 고찰건대 劫氣를 벗지 못하였다. 이곳의 혈은 절터를 만들었을 뿐이니 다시 의논할 수 없다.

⑤ 전 침사 박지만

감룡은 임좌병향인 곳이며 혈형은 조잡하고 무디며 주성은 기운이 없고 白虎砂는 擎拳(주먹을 쥔 모습)하고 앞의 內砂도 또 배면하여 走攏하니 裁扞의 땅 일 수 없다.

⑥ 사과 이철

용세가 비록 굽어 돌아도 양 물 사이에 끼여서 내려오는데 혈형이 바로 경직되고 백호의 內砂 및 案 아래로 달리는 砂가 凶砂를 면치 못하니 결코 쫓을 수 없다.

⑦ 사용 나만우

龍도와 혈형, 前砂가 모두 하자과 병이 있어 거론할 땅이 아니다.

⑧ 사용 이춘재

절 뒤의 혈과 용의 기운이 치우쳐 나오고 落脈이 조잡하고 경직되며 혈처가 머무르지 않고 平緩한 세를 쌓고 砂法도 또 하자과 병이 많아 재혈처가 될 수 없다.

(7) 광릉 능 안의 水砧洞

① 김교수 박진곤

直形直脚 前案이 고압적이며 寅艮이 虛遠하여 내려오는 것은 짧고 가는 것은 길어 결코 쓸 수 없다.

② 교수 김우하

용신이 강하고 급하며 조잡하고 우둔하며 국세가 기울고 傾側하며 안산이 高逼하여 혈이 형을 이루지 못하여 寅艮으로 공허하고 수법이 내려오는 것은 짧고 가는 것은 기니 거론할 수 없는 곳이다.

③ 혼도 정탁

유좌묘향이며 巽에서 얻고 艮에서 파하는데 맥세는 直長이고 용신은 帶殺하여 결코 쓸 수 없다.

④ 동지 지여항

경태로 낙맥하여 혈형이 기운이 없으며 명당은 逼窄하고 안산은 너무 높으며 계축방의 凹風(맞는지, 이하 동)이 혈을 쏘아대니 혈을 이룬 땅으로 논단할 수 없다.

⑤ 전 첩사 박지만

경태로 맥이 내려오고 용이 흠어지고 어지러우며 혈 역시 경직되었으며 전안은 펍고하고 계축으로 凹風이 혈에 불어대니 혈을 이룬 땅이라 할 수 없다.

⑥ 사과 이철

용맥이 가는 것이 直細하여 실로 맺은 혈이 없으며 좌우로 역시 輔砂가 없고 案은 극히 고핍하고 우변의 天官이 狹逼하여 논할 수 없다.

⑦ 사용 나만우

庚兌之原의 용이 크고 朝對와 水法이 모두 법규에 알맞지 않아 결코 쓸 수 없다.

⑧ 사용 이춘재

용이 흠어져 기운이 없고 혈이 강하여 泡가 없으며 국세가 傾側하고 凹風이 혈을 쏘니 혈을 맺은 땅이라 할 수 없다.

(8) 현릉 외백호 안의 梨樹基洞

① 김교수 곽진곤

巽巳로 박환하여 巽으로 跌落하고 돌아서 辰에서 過峽하고 帶金을 頓起하고 금성이 뽑아낸 辛脈이 경태로 구불구불하여 乾으로 들어가 戌에서 혈형을 만들고 金窩의 辰臺가 단정하고 둥글어 바람을 갈무리하고 기를 모으며 前案은 開面하고 午峰은 정이 있으며 四勢는 주밀하고 水口는 關攔하니 이것은 길지이다.

② 교수 김우하

달리다가 끊어지고 다시 일어난 수성이 박환하고 離丙의 행룡이 巽巳로 서로 전하여 辰脈이 過峽하고 頓起한 星辰이 기울어 떨어지고 경태로 꿈틀꿈틀하고 구불구불하여 乾으로 돌아 結咽하고 희미하게 圓金을 만들며 金窩는 혈을 만들어 좌술향진이며 翻身하고 逆局하여 辛方으로 득수하여 甲地로 돌아가며 명당은 평정하고 조안은 정이 있고 오호는 關鎖하니 대길한 땅이라 이를 수 있는데 다만 坤申坎癸의 방향이 낮고 오목하여 흠결이다.

③ 훈도 정탁

손사로 낙맥한 진맥이 과협하고 또 일어나 박환하고 좌우로 分介하여 중심을 뚫고 가운데로 나와 구불구불 활동하여 束氣結咽하고 다시 일어나 맺은 腦가 둥글고 金作이 龍眞脈的을 만들고 바람을 갈무리하고 기가 모이며 목성이 굽어 감싸안고 수구가 중첩하니 실로 흠이 없는 길지이다.

④ 동지 지여향

大龍이 지나갈 때 돈기한 鶴이 膝邊에서 한 가지를 떨어뜨려 신태로 구불구불하여 乾으로 돌아 혈을 만드니 혈형과 금와는 坤에서 얻고 申에서 파하며 수성이 굽어 감싸안고 안산이 開面하고 수구가 觀瀾하니 길지라 이를 만하다.

⑤ 전 첨사 박지만

용의 기운이 왕성하고 국세가 주밀하며 혈형이 풍후하고 近案이 정이 있고 수

구가 관진하며 명당이 평정하니 이는 眞結의 땅이다.

⑥ 사과 이철

靑溪 가운데서 나온 금수성이 樓下殿을 사직하고서 과협하고 구불구불 굴곡하여 迎送이 분명하며 용솟음쳐 나온 수금성이 스스로 御屏大帳을 만들고 乾脈이 주인을 만들며 혈형이 완비되어 좌우가 蟬翼이고 용호가 귀격이며 水生이 坤申이고 水破가 歸元하며 內案이 극히 뻣뻣하니 이는 국용으로 적합하다.

⑦ 사용 나만우

금토가 주인을 만들고 낙맥 가운데서 나와 行度하는 亥이 泡가 있고 節이 있어 기를 묶고 머리에 이르러 脚을 열고 혈을 만드니 絃稜이 분명하고 蟬翼이 두터이 지키며 淺窩는 開口하여 바람을 갈무리하고 기를 모으며 前案은 정이 있고 국세는 團布하여 혈을 이루니 의심이 없다. 다만 迎砂結作은 역량이 작은 것에 가깝다.

⑧ 사용 이춘재

용세가 웅위하고 小祖가 단정하며 낙맥이 굴곡하여 結咽하고 머리에 이르러 金星水穴의 혈형이 풍후하고 국세가 둘러싸 안고 사방으로 금성이 서로 혈을 비추어 남은 기운이 平鋪하고 전안이 정이 있으며 수구가 관란하니 바로 혈을 맺은 땅이다.

(9) 현릉 능 안의 瓮巖洞

① 검교수 괘진곤

乾亥에서 봉우리를 일으키고 亥脈이 기울어 떨어져서 크고 작은 것이 分介하여 기운을 묶고 咽을 맺으며 다시 일으킨 토성이 맥이 되어 흘러가 점점 내려가서 혈을 만들어 勢가 내려오고 形이 머무르며 금어가 합금하고 명당이 평정하며 수구가 심원하니 처음에 떨어진 全氣의 땅이라 이를 만하지만 後龍이 硬強하고

뇌에 둥근 바위가 있어 실로 작은 흠이다.

② 교수 김우하

午丁行龍이 특별히 일으킨 목성이 좌우로 帳을 열고 중심을 뚫어 가운데에서 나온 八字가 分介하여 속기결인하며 희미하게 일으킨 토성이 층층이 낮게 내려와 입수에 이르고 웅암치의 뇌에서 혈을 맺고 목성에서 양 물이 합금하고 명당이 평정하며 청룡이 머리를 돌려 안을 돌아보아 정이 있고 사방 둘레가 빙둘러 감싸 안고 列陣이 整齊하니 眞結의 땅이라 이를 만하다.

③ 훈도 정탁

건해에서 낙맥하여 大小의 팔자가 끊어졌다가 다시 일으킨 토성이 坎으로 行脈하고 삼절 아래의 낙맥인 목성이 혈을 만드니 혈형은 단정하고 웅암은 뇌에 있어 튼 앞이 풍부하고 둥글며 證石이 앞에 있으며 명당이 평정하고 위는 나누어지고 아래는 합해지며 사방 둘레가 정이 있으며 주객이 서로 대적하고 得水 庫申하여 丙方으로 돌아가고 수구가 관란하니 흠결이 없다고 이를 수 있다.

④ 동지 지여향

주봉이 특별히 서고 조안이 정이 있으며 위로 나누어지고 아래로 합해지며 回龍이 祖를 돌아보는 땅이니 귀함은 말을 할 수 없다.

⑤ 전 첨사 박지만

주성이 특별히 서고 국세가 둘러싸 안았으나 혈의 전후에 이르러서 암석이 보이는 바 아름답지 않아 길지로 논단할 수 없다.

⑥ 사과 이철

내룡의 主勢와 四山の 環抱가 만든 혈이 있는 듯하지만 청룡이 낮게 달리고 혈 위에 巖穴이 서고 아래에 盤石이니 혈을 꽃음은 어려운 듯하니 결코 점칠 수 없다.

⑦ 사용 나만우

용이 있고 국이 있으며 砂가 지키고 물이 성하나 뇌 뒤에 바위가 우뚝하고 혈 머리에 돌이 노출되어 혈형이 있더라도 논할 수 없다.

⑧ 사용 이춘재

용세가 돈기하고 국세가 굽어 감싸안아 혈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 머리에 거석이 우뚝 서있고 틈 앞에 石骨이 드러나 裁扞하기 어렵다.

(10) 순릉 백호 邊의 자좌오향

① 김교수 광진곤

지나는 용이 옆으로 떨어지고 金頭木脚이 강할 뿐 부드럽지 않으며 맥 역시 계축이니 무엇을 의거하여 논할 수 있겠는가.

② 교수 김우하

지나는 백이 비껴 나와 맥세가 直硬하고 丑艮으로 서로 섞여서 문호가 닫히지 않으며 內氣가 갈무리되지 않으니 어찌 논하겠는가.

③ 훈고 정탁

지나는 용의 枝葉과 直脈, 계축의 天關이 심히 좁고 수구가 허하고 머니 어찌 논단하리오.

④ 동지 지여향

지나는 용이 비껴 떨어지고 坎方으로 오목하며 바람이 귀를 베듯이 혈을 쏘고 都局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찌 논단할 수 있으리.

⑤ 전 첨사 박지만

회복한 맥이 계축으로 쌍행이니 술가가 꺼리는 바 거론할 곳이 아니다.

⑥ 사과 이철

용이 가는데 기운이 없고 용호가 정이 없으니 반드시 혈을 맺은 땅이 아니다.

⑦ 사용 나만우

비긴 용이 입수하되 發足處는 오목한 腦가 없고 맥을 끄는 勢는 지나치지 않으며 大局이 枝葉砂를 호위할 뿐이니 어찌 한 점이라도 眞氣가 留注하는 땅이었겠는가.

⑧ 사용 이춘재

용의 기운이 들지 않고 혈형은 조잡하며 대국의 면은 경사져서 족히 말할 수 없다.

(11) 순릉 좌변의 을좌신향

① 김교수 광진곤

그 용세를 보고 또 도국을 살피건대 祖宗山이 卯甲으로 박환하고 특별히 일으킨 목성이 平田으로 달리다가 떨어지고 묘갑으로 가는 맥의 세가 느슨하고 行迤하여 戌 巽 辰에서 乙卯로 돌며 마디마디에 가지를 낳고 그 머리에 이름에 미쳐 좌변에 골짜기가 있고 우변에 가지가 없으니 이것은 곧 楊柳枝格이라. 卯龍은 卯를 만들고 亥丙이 득수하여 庚方으로 돌아가 勢來形止하고 썩썩한 바람이 기를 모으고 위는 나뉘고 아래는 합하며 오호는 관란하고 사유는 정이 있으며 명당은 평정하니 용혈과 사수가 모두 하자와 병이 없어 이는 길지가 된다.

② 교수 김우하

그 來脈을 보고 또 도국을 살피건대 맥이 묘갑을 따라 특별히 일으킨 星辰이 평지로 달리다가 떨어지고 戌 크거나 戌 작게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이어졌다가 다시 끊어져서 이어짐이 오래도록 해서 내려오니 비록 나태하고 느슨하다고 일러도 龔龍이 발한 자취가 다만 강하게 殺을 띤 까닭에, 평지가 구불구불하고

조금 느슨한 연후에 精氣가 모일 수 있으니 어찌 흠이겠는가. 좌묘향유는 곧 법에 알맞고 좌우로 상생하며 水放이 歸元하며 용혈과 砂水가 합격하지 않음이 없다.

### ③ 혼도 정탁

巽巳에서 발한 자취가 祖宗을 특별히 일으켜 평지로 낙맥하고 구불구불 활동하여 巽으로 돌고 辰으로 돈다. 또 卯乙로 돌아 乙龍이 卯로 들어가 좌묘향유이며 亥에서 얻고 庚으로 돌아가 行도가 왼쪽으로 떨어짐이 乾亥의 長生을 얻고 행도가 오른쪽으로 떨어짐이 丙午의 장생을 얻는다. 이 좌우의 장생은 歸元에서 파하니 실로 합격이면서 하자가 없는 길지이다.

### ④ 동지 지여향

묘갑으로 박환하고 특별히 일으킨 목성이 分介하고 낙맥한 수성이 맥을 움직여 마디마디에 가지를 생하고 그 머리에 이름에 미쳐서 왼쪽 가지가 길고 오른쪽 가지가 짧다. 形으로는 楊柳인데 裊가 水城의 大帳 가운데에 있으니 실로 水木이 서로 구제하는 格이라. 자손이 번성하고 榮貴가 千萬이라. 亥丙을 얻어서 庚方으로 돌아가니 천신의 소견이 천만추 만세영이라도 길하여 흉함이 없으니 이는 길지가 된다.

### ⑤ 전 첩사 박지만

후룡이 느릿느릿 맺고 들어가 풍후하고 국세가 두루 감싸안고 명당이 평정하니 이는 곧 具結한 땅이라.

### ⑥ 사과 이철

龍行이 멀리 내려와 큰 들판 가운데서 나와 局을 만든 곳에 枝脚이 많이 생하고 사방 둘레가 두루 감싸안으니 진실로 귀한 땅이지만, 묘룡이 묘에 앉고 용혈이 길이 느슨하여 긴요함이 결혈처를 밝히지 못하고 용두가 혈을 향하니 이는 작은 흠이다.

⑦ 사용 나만우

柳星의 行度에 邊이 있고 변이 없어 머리에 이르러서 게으르고 느슨하며 또 기운을 묶음이 없으니 이는 혈형이 모호한 것으로 취할 수 없고 다만 능을 보호하는 砂이다.

⑧ 사용 이춘재

행룡이 치우쳐 나오고 유성의 행도가 머리에 이르러서 게으르고 무디니 혈형이 있어 국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眞龍正結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12) 중랑포에 대한 최종 간심 내용

① 검교수 괘진곤, 정탁 등

삼각 한 가지가 평지로 落下하여 신태로 골짜기를 지나 임해에서 박환하고 구불구불 남쪽으로 달려 거둑 일어나고 거둑 앞드렸다가 마디마디 生枝하고, 머리에 이르러 다시 일어나 土水城을 띠고 좌우로 分介하여 束氣結咽하고 목성이 혈을 만드니, 혈형이 단정하고 금어가 합금하며 용호가 끼고서 감싸안고 명당이 평정하며 따르는 龍水가 橫攔하고 수구가 관진하며 주객이 서로 대적하고 四勢가 서로 응하며 列陣이 整齊하니 이는 橫落한 全氣의 땅이어서 얻기 어려운 길지라. 辛兌龍이 庚에서 떨어지고 申에서 입수하여 신좌인향하며 坎艮에서 득수하니 乙破라. 左岡의 庚坐之地 역시 勢來形止가 龍眞穴의이고 風藏氣聚니 실로 흠이 없으면서도 이 혈에 미치지 못한다.

② 전침사 박지만

도봉산을 지나오면서 삼각산이 中祖가 되고 大頓特起하여 出身列帳하고 태방에서 금성이 주인을 만들고 이어서 結穴을 만드니 혈성이 풍후하고 국세가 環抱하며 용호가 법과 같고 조안이 정이 있으며 경태로 맥이 귀하고 명당은 평정하며 流神이 법에 맞으니 이는 이른바 眞龍大結의 땅이다.

### ③ 사과 박세옥, 사용 유재화 등

삼각의 낙맥이 경태로 골짜기를 지나고 壬亥行龍이 胎息하여 庚脈으로 입수하여 來勢聳發하니 주성이 존엄하고 용호가 겹겹이 감싸 지키고 명당이 너그럽고 조안이 拱揖하여 정이 있으며 生旺水가 來朝하여 庫方으로 돌아가고 혈처가 평정하니 흠 없는 길지입니다. 좌변 혈처 역시 생기가 있어 쉬 얻지 못하는 땅이다.

### ④ 사과 이철

삼각의 한 가지가 庚兌辛으로 平田에 낙하하여 골짜기를 지나서 구불구불 굴곡하여 마디마디 帳을 열고 머리에 이르러 특별히 일으킨 金水玄武가 庚酉로 입수하여 長乳穴을 만드니 주작이 맞이하 촛추고 용호가 겹으로 안으며 遠祖의 文筆之美가 秀美함에 미치고 朝峰 내외의 명당은 평탄하며 流神이 법에 맞아 경좌묘향으로 乙破니 귀격의 땅이라.

### ⑤ 사용 경엽

삼각의 한 가지가 떨어져 酉辛에서 혹 일어나고 혹 끊어지면서 龍行이 수삼십 리에 크게 일어난 御屏土星 중심에서 나온 맥이 누하전을 사양하고 혈을 만들고 地笏城 아래에 이르니 砂가 굽어 안고 역수와 용호가 均的하며 내외 명당이 관평하고 국세가 완비되어 경좌갑향을 만든 즉, 좌우로 오고가는 물이 합격하지 않음이 없고 그 형세를 논해도 귀함은 말을 할 수 없다.

### ⑥ 사용 이춘재

삼각의 한 맥이 누하전을 사양하고 돈기한 어병토성 중심에서 나온 한 맥이 兌落轉庚하여 혈이 탐욕스런 이리가 되고 사수가 정이 있으며 내당이 관평하고 수구가 관진하며 유신이 법에 맞아 풍장기취 하니 바로 대길의 땅인데 좌변 한 혈 역시 진결처라.

### ⑦ 동지 지여향

용이 삼각에서 변신하여 경태로 다시 壬亥大帳을 일으키고 혈 뒤의 어병은 물

을 띠고서 특별히 서서 結咽하고 ?? 貴龍이 가까이 백여보에 이르러 입수하고 庚申壬坎이 丑艮으로 득수와 합하여 을파니 이 국의 전후좌우가 합격 아님이 없고 귀격이 말할 수 없는데 좌변이 또 한 혈이 있어 풍장기취하니 역시 等閑한 땅이 아니라.

⑧ 부사용 오진열

龍行이 帳 가운데서 평지로 낙하하여 토성이 주인을 만들고 경태낙맥이 맺은 혈이 분명하며 혈형이 풍후하고 용호가 拱抱하며 주안이 서로 마주하고 명당이 평정하여 八將이 다 전연 一砂의 走竄도 없고 한 물의 경사도 없이 장풍취기하고 정결한 땅으로 쉬 언지 못하는 곳이라.

⑨ 사용 나만우

삼각의 한 맥이 평지에서 골짜기를 지나 돈기한 토성 가운데서 나온 낙맥이 轉辛轉庚하여 경좌갑향의 혈을 만드니 혈형과 조대, 水法이 모두 規矩에 맞는 대길의 땅이며 좌변의 한 혈 역시 길하여 쓸 수 있다.

중랑포가 대길하다는 장계가 올라오자, 총호사 이하로 하여금 재심토록 했다.<sup>393)</sup> 그리고는 이곳으로 결정했다. 경종은 경종 15권, 4년 12월 16일 懿陵에 安葬하였다.<sup>394)</sup>

393) 『(경종)산릉도감의궤』 계사, 영조 즉위년 9월 15일.

394) 『경종실록』 권15, 경종 4년 9월 3일(계묘)

## 제2절 왕릉 택지의 산론 검토

### 1. 간심단의 산론 작성 추세

상지관을 비롯한 간심단은 간심 대상지를 살펴본 후 산론을 작성하였다. 지관들이 작성한 산론은 산론 별단이라는 형식으로 보고되었다. 산론의 첫머리에는 직위와 성명을 기록한 후 내용을 기록하였다. 산론은 간심을 한 대상지를 풍수적 측면에서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이다. 이때 산론의 풍수적 내용은 산의 모양과 형상을 위주로 작성된 것과 산의 방향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뉘어 나타난다. 이것은 간심대상지의 풍수적 길흉을 평가하는 풍수법 중 형세론과 이기론이라는 두 개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혹 산의 형상을 동물이나 식물 등 살아있는 유기체의 형상과 비교하여 작성된 산론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산론은 형세론적 측면과 이기론적 측면에서 작성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본고에서 예로 삼은 현종의 승릉과 경종의 의릉을 대상으로 산론 작성의 추세를 검토해 보겠다.

#### 1) 현종의 승릉 간심과 산론

현종의 승릉을 택정하는 과정에서 간심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고양 현달산, 교하 월릉산, 장단 邑堅, 서곡 김영렬 묘산, 갈현, 양주 화접동, 건원릉 내, 영릉 내, 광주 변천, 금천 남자하동 등이었다. 이곳을 간심하는 간심단은 상지관 교수 남언호, 전사용 권순태, 전정랑 신경윤, 전주부 권순선 등과 여러 지관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이 간심한 10곳의 산론을 살펴보면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재 간심지로 선택된 곳이 교하읍의 터, 양주 화접동, 건원릉 내의 우변, 광주 변천 등 네 곳으로 결정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초간심지 10곳 중 재간심지로 선택된 4곳은 모두 선왕의 왕릉과 왕족들의 무덤이 집중적으로 조영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나머지 6곳은 사대부들의 무덤이 집

중적으로 구성된 지역이었다. 상지관을 비롯한 지관들은 이미 왕릉과 왕실의 가족들의 무덤지역은 풍수적으로 길지라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사대부들의 무덤이 집중적으로 구성된 곳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방하였다. 당시 건원릉 내의 우측 산줄기의 간심에 참여한 지관은 회양부사 정창도, 호조정랑 남궁우, 부사용 신경윤, 부사과 권순선, 부사정 홍석구, 부사용 이흥도, 부사용 반호의, 겸교수 이유필, 부사용 권순태, 겸교수 남언호, 부사용 김극만 등이었다. 이들 중 부사용 이흥도는 당초 간심단에는 없었던 인물이었는데 건원릉의 우측 산줄기 간심단에 특별히 동참하였다. 그리고 양주 화접동의 간심을 마치고 건원릉으로 올 때 좌참찬 이상진과 호조참의 정유악, 부사과 이최만 등도 참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곳을 간심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었다. 이들이 작성한 간심 내용은 한결같이 현종의 왕릉을 조영하는 택지로 꼭 들어맞는 곳이라고 극찬을 하였다. 그래서인지 숙종은 내심 현종의 왕릉을 건원릉 우측 산줄기로 정하려는 뜻을 보였다. 숙종의 뜻을 간파한 간심단은 재간심지로 선정된 4곳을 간심한 결과를 내놓았다. 재간심에 참여한 지관 이상진, 정유악, 남궁우, 홍석구, 권순선, 이최만, 반호의, 이유필, 권순태, 남언호, 김극만 등은 건원릉 우측 산줄기가 현종의 왕릉 자리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놓았다. 그리고 다른 3곳 중 광주 변천에 대해서는 정창도, 그리고 양주 화접동은 신경윤, 이상진, 교하에 대해서는 누구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다.

양주 화접동에 대해서는 좌참찬 이상진과 부사과 신경윤을 제외한 나머지 지관들은 옛무덤이 많고, 혈장과 혈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였다. 광주 변천에 대해서는 회양부사 정창도만 당국이 긴밀하고 또 煞을 벗어나 等第를 논한다면 일등이라고 하였다. 나머지 지관들은 용맥이 엉성하거나, 혈이 평온하지 못하다거나, 옛 무덤이 있어서 등의 이유로 불용 판정을 내렸다. 다음은 교하 객사 뒤를 간심한 산론이다. 교하를 둘러본 지관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느낀 견해를 밝히기보다 예전에 평가를 했던 내용으로 산론을 대신 하였다. 아마도 교하 객사 뒤쪽은 간심 대상지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곳이어서 자신의 주장을 새로이 펼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건원릉 우측 산줄기에 대한 내용이다. 건원릉 우측 산줄기는 앞서 언급한 세 곳과는 달리 간심단 전원이 국용으로 적합하다는 산론을 내놓는다. 이러한 간심단이 산론에 대해

서 숙종은 동의하고 현종의 왕릉을 조영하기로 하였다. 이때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신 조사기의 아들 조감은 왕릉택지에 있어서 近畿 지역의 士大夫의 墳山과 農土는 제외하고 國陵의 形局안에서 왕릉택지로 적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sup>395)</sup> 이것은 조선왕릉의 택지 과정에 개입하였던 풍수 요인들이 정치집단의 의도와 담론의 영향권 내에 있었고, 정치적 역학관계에 지배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조선왕릉의 입지는 조선조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 왕릉택지로 사용될 곳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부차적인 행위로 풍수적 길흉을 논했다고 볼 수 있다.<sup>396)</sup>

## 2) 경종의 의릉 간심과 산론

조선시대 왕릉 택지는 보위를 누구에게 물려주었는지에 따라서 택지의 규모와 위상등 면모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국왕 27명중 실질적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보위를 물려준 왕은 제1대 태조, 제3대 태종, 제4대 세종, 제5대 문종, 제7대 세조, 제9대 성종, 제11대 중종, 제14대 선조, 제16대 인조, 제17대 효종, 제18대 현종, 제19대 숙종, 제22대 정조, 제23대 순조, 제26대 고종 등 15명이다. 이중 장자에게 승계를 해 준 국왕은 제4대 세종, 제5대 문종, 제9대 성종, 제11대 중종, 제17대 효종, 제18대 현종, 제19대 숙종 등 7명에 불과하다. <표 4-33>은 자신의 보위를 아들에게 승계를 해준 왕들의 택지로서 사대부의 묘산과 처음으로 사용하는 生地가 선택되었다.

395)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9월29일(경인).

396) 최원석, 「조선 왕릉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능묘를 통해 본 동아시아 제국의 위상 - 조선왕릉과 그 주변 - 』, 2011, 19~20쪽 참조

승하한 왕	왕릉조영 국왕	왕릉택지
4대 세종	5대 문종	세종의 유지에 따라 현릉에 조영한 후 여주 홍제동으로 천장
9대 성종	10대 연산군	군신간의 협의로 광주목으로 결정
11대 중종	12대 인종	중종의 유지로 고양군에 조영되었으나 광주목으로 천장
17대 효종	18대 현종	건원릉 능역에서 여주 홍제동으로 천장
18대 현종	19대 숙종	건원릉 우측 능역으로 결정
19대 숙종	20대 경종	숙종의 유지에 따라 고양군 경릉 좌측 인현왕후와 합장

〈표 4-33〉 장자가 승계한 경우에 조영된 왕릉의 택지

반면에 이복형제 또는 대를 건너서 보위를 이어준 국왕의 택지는 구릉지 또는 기존에 조영된 왕릉의 능역지 주변을 택지로 활용하였다. 그러한 예는 〈표 4-34〉에서 잘 나타난다.

묘호	왕릉 택지 위치	묘호	왕릉택지 위치
제1대 태조	안주검암	제16대 인조	파주에서 교하
제3대 태종	양재 대모산 기슭	제17대 효종	건원릉 능역에서 여주 홍제동
제4대 세종	현릉 옆에서 여주 홍제동	제18대 현종	건원릉 능역
제5대 문종	건원릉 능역	제19대 숙종	건원릉 능역
제7대 세조	양주	제22대 정조	용릉 능역
제9대 성종	광주 광평대군 묘역	제23대 순조	파주 장릉 능역에서 현릉 능역
제11대 중종	고양 원당리	26대 고종	
제14대 선조	건원릉 능역		

〈표 4-34〉 자신의 아들에게 보위를 이어준 국왕의 왕릉택지

〈표 4-34〉를 통해서 살펴보면, 14대 선조 이전과 이후의 왕릉택지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다. 선조 이전의 왕릉택지는 독자적인 왕릉 능역을 확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선조대 부터는 주로 선왕의 왕릉 능역을 왕릉택지로 선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자신의 아들에게 보위를 이어주지 못한 왕들의 택지는 〈표 4-35〉와 같다.

묘호	왕릉 택지 위치	묘호	왕릉택지 위치
2대 정종	정종비 합장	20대 경종	양주목 천장산 아래
6대 단종	강원도 영월	21대 영조	건원릉 능역 효종 구릉지
10대 연산군	폐주	24대 헌종	건원릉 능역 선조 구릉지
12대 인종	고양군 중종의 능역	25대 철종	고양군 희릉 우측 산줄기
13대 명종	양주목 태릉 옆		
15대 광해군	폐주		

〈표 4-35〉 자신의 아들에게 보위를 이어주지 못한 국왕의 왕릉택지

〈표 4-35〉를 통해서 국왕의 택지를 보면, 12대 인종과 25대 철종은 선왕의 능역으로 택지가 결정되었고, 21대 영조와 24대 헌종은 선왕의 왕릉이 천장된 후 남아있던 舊陵地로 택지가 결정 되었다. 다만 20대 경종은 양주목 천장산 아래에 있는 새로운 생지를 택지로 결정하여 왕릉이 조성되었다.

경종은 자신의 보위를 이복동생이었던 연잉군에게 물려주었다. 보위를 이어받은 연잉군은 조선 21대 영조임금이다. 영조는 경종의 왕릉택지를 위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게 하였다. 간심지의 현황은 『경종 의릉 산릉도감의궤』 「간산별단」에 건원릉 안의 옛 穆陵을 옮긴 곳, 옛 영릉을 옮긴 곳, 건원릉 왼쪽 1岡의 자좌오향, 건원릉 우변의 술좌진향, 광릉 안의 達馬洞과 齋寺後岡 및 水砧洞, 헌릉의 외백호 안의 梨樹基洞과 瓮巖洞, 순릉의 백호 邊의 자좌오향과 좌변의 을좌진향 등 11곳이었다. 이 열한 곳은 모두 선왕의 능역과 선왕의 왕릉이 천장된 후 남아있는 구릉지뿐이었다. 이전의 왕릉 능역을 간심할 때는 사대부들의 묘산도 포함 되었지만 경종의 왕릉을 택지하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간심단은 겸교수 곽진곤, 교수 김우하, 훈도 정탁, 동지 지여항, 전첨사 박지만, 사과 이철, 사용 나만우, 사용 이춘재 등으로 구성 되었다. 간심단은 위의 11곳을 간심한 뒤 서계로 영조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올라온 서계에는 간심단의 지관들이 평가를 해본 즉 선조의 목릉과 효종의 영릉이 천장된 후 남아있던 구릉지가 풍수적으로 길지라고 하였다. 영조는 간심단의 결과에 대해서 옛 목릉과 舊 寧陵, 헌릉의 이수기동, 순릉 동변의 을좌 등 4곳을 재심하라고 하였다.<sup>397)</sup> 이때 간

397) 『(경종)산릉도감의궤』 계사, 영조 즉위년 9월 10일.

심단은 김우하가 제외되고, 地理에 정통하다고 소문난 士人 경엽이 추가되었다.<sup>398)</sup> 이들은 영조에 의해서 지목된 곳을 재간심한 후 산론을 통해서 영조에게 보고하였다. 총호사 우의정 이광재는 4곳 중 舊 寧陵이 최고의 입지이며 壙의 위치는 구광에서 입수방향으로 십여 보 물러나 정하면 조금도 하자과 병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서 옛 목릉과 순릉 좌강을 지목하였는데 으뜸은 舊 寧陵地라고 하였다. 영조는 舊 寧陵터가 국용에 합당하다고는 하나 천릉한 곳에 다시 봉릉하는 것은 일찍이 전례가 없으니 다시 살펴 처리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찾아낸 곳이 천장산 아래 지금의 의릉이 있는 곳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최원석은 “조선 왕릉의 입지선정 및 천릉 과정은 왕실 혹은 왕족, 왕과 신하, 신하간의 정치적 세력 관계가 풍수설을 정치적 수단과 外皮로 하여 나타난 정치사적 결과물이었다.”<sup>399)</sup>고 하였다.



---

398) 『(경종)산릉도감의궤』 기사, 영조 즉위년 9월 11일.

399) 최원석, 「조선 왕릉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농묘를 통해 본 동아시아 제국의 위상 - 조선왕릉과 그 주변 - 』, 2011, 15쪽

## 2. 산론의 풍수적 경향성 검토

한국사의 문화적 특성 중 지리와 관련하여서는 풍수지리를 꼽을 수 있다. 풍수지리는 조선왕릉을 조영할 때에도 적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에 조영된 왕릉택지를 대상으로 풍수지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는지 산론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에는 방향을 중요시하는 이기론과 산천의 형국을 위주로 하는 지세론(형국론)이 혼용되어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기존의 연구사례에서 다양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선왕릉을 조영하기 위한 왕릉택지에서 이기론과 지세론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각각 시대별로 나눠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왕릉풍수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왕릉택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론은 조선후기의 풍수론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주로 활용하였던 풍수이론은 방위와 방향을 중시하는 이기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지세론을 중시하는 풍수론을 익히려면 산을 답사하는 오랜 경험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방위론 위주의 풍수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의 역학 이론이 반영된 것으로 다분히 문자 공부만을 통해서도 도달할 수 있었다.<sup>400)</sup> 사대부 문중의 유학자들은 산과 들로 직접 답사를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적용한 논리는 주로 방위론에 입각한 풍수이론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에 이기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되었던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천도지를 계룡에서 한양으로 위치를 바꾸었다. 결정적 이유는 하륜에 의해서 거론된 호순신의 『지리신법』이라는 풍수론 때문이었다. 그 이후에도 조선에서 활용되는 풍수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풍수적 결정을 요할 때마다 『지리신법』은 등장하였다. 그래서 이 법은 다른 풍수이론과 더불어 이기론을 대표하는 풍수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가운데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왕릉택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羅經이론이 도입되었다. 나경이론은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왕릉택지를 위하여 중국인 풍수사 이문통을 초빙하면서 따라

400) 김기덕, 『한중 중세사회에 있어 풍수·도참사상의 전개과정 - 고려초기에서 조선초기까지 천도논의를 중심으로』 2006, 한국중세사연구 제21호, 171쪽.

들어왔다.<sup>401)</sup>

이문통은 이순풍의 후손으로서 임진왜란 당시 군인의 신분으로 조선에 와 있던 자이다. 이문통이 보인 나경은 조선에서 사용하던 輪圖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용도는 완전히 다른 풍수 도구였다. 윤도는 범철로서 능침의 재혈이나 분금시 방위만 측정하는 도구였으나, 나경은 앞과 뒷면에 각각의 양식이 구비되어 산의 길흉을 측정하는 도구였다. 이문통이 갖고 있었던 나경은 당시 당나라 때부터 자신의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던 것이라고 하였다. 이문통에 의해서 전해진 나경과 그 풍수이론은 임금과 사대부들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갔다. 이로서 조선에서는 기존의 이기론과 더불어 나경 이론 그리고 일반적인 형세론 등이 혼합되어 사용하게 되었다.

그 예는 선조비 의인왕후의 택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당시 선조임금은 조선인 풍수사들이 간심하고 추천하는 곳은 외면하였다. 그런 반면에 중국인 풍수사 이문통이 추천하는 곳은 예외 없이 관심을 갖고 따르려고 하였다. 그 예로 의인왕후 박씨의 왕릉을 택지하는 과정 중 교하 아문 뒤 자수산 동쪽 저현에 대해서 중국인 풍수사 이문통과 조선인 풍수사 박상의 등 두 명만 좋다고 하였으나, 조선인 풍수사들은 모두 왕릉 택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sup>402)</sup> 이러한 풍수사들의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선조는 중국인 풍수사 이문통 의견에 동의하여 의인왕후의 택지로 사용하려고 하였다.<sup>403)</sup> 선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영의정 이항복 등은 당판이 좁고 기울어 보토할 곳이 매우 많아 흙을 옮겨올 양이 너무 많고, 안대와 祖宗水 등은 서록 맞대어 있지 못하고, 안쪽의 용호도 낮게 기울어져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문통이 사용하는 풍수법은 조선의 풍수법과 비교를 해보면 모두 맞지 않는다고 했다.<sup>404)</sup> 그럼에도 선조는 옳고 그르고 간에 이곳을 쓰고자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국풍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였던 선조는 결국 영의정 이항복과 총호사 이헌국 등 사대부들의 의견에 따라 의인왕후의 왕릉 택지를 건원릉 좌측 세 번째 산줄기로 정했다.<sup>405)</sup>

401)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21일(신유)

402)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10월 5일(을해).

403)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10월 7일(정축), 答曰: “雖得三處, 當以唐人所定處用之, 他穴, 不可用。”

404)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10월 9일(기묘).

당시 중국인 풍수사와 조선인 풍수사간에, 그리고 조선인 풍수사들 사이에서도 산론이 다르게 나타에도 것에 대하여 정언 이성록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무릇 山家의 설은 역대 이래로 있어 왔으나 각기 자기가 배운 門戶를 주장하고 지향하는 뜻이 같지 않은 까닭에 郭璞을 숭상하는 자들은 胡舜申을 배척하고, 李淳風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越鳳을 그르다고 하니, 그들의 취향과 기호를 한 가지로 통일하지 못하는 것은 또 이치상 필연적인 형세이다.”<sup>405)</sup>

정언 이성록의 말대로 당시 조선에서는 곽박의 형세론과 호순신의 이기론 그리고 이순풍대부터 내려왔다는 나경 풍수론 등 세 개의 이론이 뒤섞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이성록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비평한 것이다. 조선 후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발생한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왕릉 택지는 훗날 왕릉의 조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풍수이론의 적용에 있어서는 형세론과 이기론 등 두 개의 풍수론이 대립하면서도 공존하는 현상을 반복 하였다.

왕릉택지 과정에서 작성된 산론에 실려 있는 왕릉택지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와 후기에 재임했던 국왕 27명 중 연산군과 광해군을 제외하고, 추존 국왕 5명을 합하면 전체 국왕의 수는 30명이 된다. 이들 30명의 왕릉 방향은 〈표 4-36〉과 같다. 조선 전기와 후기에 조영된 왕릉들은 각각 15기씩이다. 그중 남향이라고 일컬어지는 子坐午向으로 조영된 왕릉은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조선왕릉의 택지는 남향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05) 두 번째 산줄기에는 훗날 선조의 목릉이 천장 해 온다.

406)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10월 13일(계미), 夫山家之說, 歷代雖有, 而各主門戶, 旨意不同, 故宗郭璞者, 斥舜申, 是淳風者, 非越鳳。其不能一其趣而同其好, 亦理勢之必然也。

번호	좌향	조선전기 왕릉	조선 후기 왕릉	합계
1	계좌정향	태조, 정종, 문종,	장조(追尊),	4
2	갑좌경향		숙종	1
4	건좌손향	태종, 중종		2
5	자좌오향	세종, 세조,	원종(追尊), 인조, 효종, 정조, 순조, 철종,	8
7	신좌을향	단종		1
9	간좌곤향	덕종(追尊), 예종, 인종,		3
11	임좌병향	성종,	선조, 문조(追尊)	3
12	묘좌유향		순종	1
13	해좌사향	명종,	영조,	2
14	유좌묘향	현종,	현종	2
15	을좌신향		진종(追尊), 고종	2
16	신좌인향		경종,	1
합계		15	15	30

〈표 4-36〉 왕릉의 좌향 현황(『증보문헌비고』 참조)

조선왕릉의 위치를 정할 때 간심에 참여하였던 지관들은 방위를 논하면서 매우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었다. 지관들이 윤도로 방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산줄기 용맥을 어디에 놓고 보는지 여하에 따라서 방위는 달라진다. 산줄기 용맥의 방향성을 토대로 길흉을 가름하는 풍수법에서는 한 치의 차이로 인하여 길지와 흉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왕릉에 있어서 좌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방향을 따지는 이유는 일광이 하루 종일 잘 받고 식생물이 잘 자라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시원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冬節에는 結氷되어 음지가 되는 곳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sup>407)</sup> 조선왕릉의 택지를 정하는 기준에서 방위를 구별하려는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릉택지를 간심하는 지관들은 산론을 작성할 때 형세론적 측면도 고려했다. 형세론적 측면에서 작성된 산론은 형국 위주로 작성된 산론, 용맥 위주로 작

407) 김임규, 『朝鮮時代 王陵에 관한 風水信仰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6, 50쪽

성된 산론, 혈의 性情을 위주로 작성된 산론, 龍虎등 산줄기를 위주로 작성된 산론, 水系 위주로 작성된 산론 으로 구별된다. 대표적으로 〈표 4-4〉에서 회양부사 정창도가 승릉의 택지를 간심하고 작성한 산론에 잘 나타나 있다. 정창도는 교하 월룡산을 看山한 뒤 작성 한 산론에서 첫째, 용맥의 품성 즉 穴處를 향해서 들어오는 산줄기의 형세(龍)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때 龍과 龍脈의 성정은 脈, 起伏, 垂頭, 枝龍, 朝對 또는 朝應 등의 현황과 규모 그리고 역량 등을 평가하여 우열을 가렸다. 둘째, 산줄기가 혈처로 진입해서 생성된 가지 끝에 맺어진 形穴의 大小強弱의 정도를 구분하는데 이것은 穴形의 성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보통 혈의 품성은 窩鉗乳突 등 4가지 혈로 구분된다. 이 4가지 중 왕릉에서 보이는 혈형은 대부분 유혈이다. 이러한 유혈이 長乳인지 短乳인지를 가름하여 혈형의 품성을 가리게 된다. 셋째, 산줄기가 혈에 다다른 이후 양팔을 벌리듯 두 개의 가지로 나뉘고 둥글게 혈처를 감싸안는 정도 즉 砂에 대해서 언급했다. 砂는 용맥이 두 개로 갈라져 혈맥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방의 산세가 둥글게 감싸 돌아가는 형국을 말한다. 넷째, 산줄기가 둥글게 감싸안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을 때 그 안과 밖에서 흐르는 水系의 방향성과 규모 즉 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끝에 가서는 朝山과 案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水系를 암시하였다. 수계는 혈의역량과 형국의 형세 그리고 형국의 조밀함 등을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통 물이 나가는 곳을 水口라 하는데 이곳이 조밀하고 역수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야 길한 局으로 평가한다. 이상 현종의 승릉을 간심한 산론에서는 이 4가지 요소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같은 지역을 간심하고 작성한 산론 중 부사정 홍석구는 〈표 4-5〉에서처럼 主山の 性情에 대해서 “이 산이 높이 우뚝 솟아서 기이하고 빼어나 小祖山 곧 주산이 되는 것이다.” 라고 형세론적 측면에서 산론을 작성하였다. 그리고서 용맥에 대해서는 이기론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용맥이 艮坐(동북쪽을 등짐)로 돌고 꺾어지니, 이는 陰龍이다. 이 용맥이 壬坎(북방)에서 혈을 맺고 기운이 癸水甲木에 속하여 짝이 되었다. 물은 丁未의 正方으로 흐르니, 이는 木局이다.”<sup>408)</sup>

408) 『현종대왕국호등록』 숙종 즉위년 8월 27일.

홍석구의 산론도 정창도의 산론처럼 월룡산은 국용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렇게 원룡산에 대해서는 두 개의 이론이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같은 풍수론을 적용해서 간심을 하더라도 상반된 내용의 산론이 나오기도 한다. 〈표 4-20〉은 현종의 왕릉택지를 위하여 양주 화접동을 재간심한 후 평가된 산론이다. 이 표에 의하면 14명의 지관들 중 신경윤과 이상진만 매우 길한 지역이라고 한 반면에 다른 지관들은 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시의 풍수관을 엿보면 지관 개개인들의 소신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 지기도 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간심 대상지에 대한 산론을 통해서 두 개의 풍수지리 이론이 공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풍수이론을 적용했더라도 지관들의 견해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산론의 내용이 왕릉택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중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제 5 장 결 론

조선왕릉의 조영은 새로 즉위한 국왕이 가장 먼저 수행했던 과제였다. 국왕은 왕릉을 조영하면서 통치자로서의 정통성과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래서 국왕에게 있어서는 왕릉을 조영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자 행사로 인식했었다. 왕릉조영과 관련된 의식과 행사는 왕릉을 조영하기 위한 擇地의 선정에서 출발하였다. 만일 왕릉을 조영한 후 능침에 문제가 생기면 왕릉을 다른 곳으로 천장하였다. 실제로 현재 전해지는 조선왕릉 중에는 풍수적인 이유로 문제가 되어 遷葬한 왕릉이 있다. 천장을 하는 과정 중에는 당초 왕릉택지에 관여했던 관원과 지관들에게 책임을 물어 중형이 가해졌다. 이렇게 왕릉택지는 왕릉조영이 끝난 후에도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이 뒤따랐기 때문에 당시 국장을 이끌어간 관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왕릉택지에 참여하는 관리들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하여 관상감에 소속된 관원과 다수의 지관들을 동원하였다. 이때 동원되는 지관들은 민간신분의 방외지사도 포함되었다.

관상감의 相地官과 지관들은 간심 대상지를 둘러본 후 ‘山論’을 작성하여 총호사에게 보고하였다. 이대 산론에는 여러 지관들이 산을 둘러본 후 풍수적인 측면에서 길흉을 검토한 내용이 실려 있다. 국왕과 총호사 등은 산론을 놓고 우열을 가리면서 葬地를 결정 하였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왕릉을 조영할 때 이와 같은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조영된 왕릉의 택지를 선정하는 과정과 택지선정에 기본 자료로 활용된 산론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연구 범위는 조선왕릉 중 국왕의 왕릉을 대상으로 왕릉택지 과정과 산론을 살펴보았다. 산론은 해당 국왕의 왕릉 조영과정을 기록해 둔 『산릉도감의궤』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연대기자료에도 산론이 게재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疏略하게 기록 되어있다. 그런 이유로 산론과 관련해서는 의궤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현존하는 『산릉도감의궤』는 조선 후기에 작성된 것만 전해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왕릉 조영과정과 산론에 대해서는 조선후기에 조영된 왕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산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등장한 현종과 경종의 왕릉택지를 사례로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조선왕릉의 택지는 어떤 요건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래서 고려말기에 조영된 공민왕릉과 조선 초기에 조영된 태조비 貞陵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왕릉의 조영에 들어가는 치장물 등에서 고려와 조선에서는 차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고려 공민왕릉과 조선 왕릉을 비교해 보면 능침 앞에 조영되는 장명등의 모양이 사각에서 팔각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조선왕릉에서는 장명등 앞에 정중석을 설치하였으나, 태종의 현릉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도비는 세종대까지 치장되었고, 영조대에 이르러 각 왕릉에 표석이 설치되었다.

왕릉의 입지에 대해서는 고려왕릉의 입지는 山中(山麓)이었고, 조선왕릉은 山下의 언덕(岡)에 조영되는 경향을 보였다. 조선왕릉은 능침자리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선택해서 조영하였다. 이때 적용되는 입지요건은 유교적인 측면과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의 요건이 있었다. 조선왕릉은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곳을 택해서 조영되었다. 그런 반면에 고려의 공민왕릉은 조선에서 활용되었던 풍수론적 요건에 符合하지 않았다.

조선왕릉의 遷葬과 천장된 후 남아있었던 舊陵地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에서는 왕릉을 조영한 뒤 능침과 그 주변에 풍수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왕릉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조선 전 기간 중 10번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사실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천장된 왕릉의 舊陵地는 분명 풍수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규명된 자리였다. 그런데 이러한 구릉지가 18세기에 이르러 왕릉택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상지관을 비롯한 여러 지관들이 구릉지를 평가한 산론을 보면 한결같이 吉地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로 영조 임금의 元陵은 舊 寧陵이 있었던 구릉지에 조영 되었고, 현종의 현릉은 舊 穆陵이 있었던 구릉지에 조영되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작용했던 풍수는 자주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어떤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조선후기 왕릉택지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왕릉택지를 위한 기관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왕릉택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유교적인 측면과 풍수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했다. 유교적인 측면은 국왕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서 주로 능제를 올리

기 적합한 위치이어야 했다. 그리고 풍수적 입지요건은 후손의 발복과 관련하여 형세론과 이기론 등 당시 관상감에서 활용되었던 풍수서의 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했다. 이러한 풍수론은 관상감이 관원들뿐만 아니라 국왕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예는 세종조에 있었던 현릉과 한양의 주산과 관련된 문제, 세조대에 능침의 능실 조영법을 석실에서 회격으로 시행한 것, 그리고 정조대에 분금과 광의 깊이를 논했던 사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왕릉을 조영할 때 산릉도감에서 택지선정과 조영의 실무 등을 담당하였다. 본고에서는 각 왕릉을 조영할 때 실무를 담당했던 총호사와 산릉도감 제조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때 왕릉택지로 사용될 간심지를 둘러보기 위한 조직이었던 간심단의 구성과 간심단을 대표하는 상지관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상지관은 관상감의 관원이 맡았고, 때에 따라서는 민간신분으로 풍수에 능한 사람들을 불러 간심단에 합류시키기도 하였다. 이들을 방외지사라 하였고, 관직이 없기에 軍職을 부여하여 활동하게 하였다. 방외자사를 합류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왕릉택지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한편 왕릉택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중 당시 조선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나경을 활용하는 풍수법이 도입된 사실을 파악하였다.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왕릉택지를 위하여 중국인 풍수사 이문통을 영입했는데 이때 나경풍수법이 도입되었다. 이때부터 조선에서는 일반적인 풍수론이었던 형세론과 이기론 그리고 나경을 활용한 풍수법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왕릉택지의 대상지의 현황과 경향을 살펴보면, 15세기에는 승하한 국왕의 유지를 따르면서 택지를 선정하거나 아무런 묘가 없었던 곳 또는 사대부들의 묘산을 선택하여 간심 하였다. 16세기에 조영된 왕릉 중 중종의 靖陵은 왕비의 왕릉을 택정하는 과정에서 장차 본인의 무덤도 조영될 것을 고려하여 택지를 선정하였다. 이후 인종은 부왕 중종의 능침에서 가까운 곳에 조영되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면 왕릉택지의 대상지에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보통 왕릉택지를 위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사대부들의 묘산이 포함되었으나 선조대 이후부터는 왕릉 능력 인근지역 위주로 대상지가 정해졌다. 그리고 실제로 택정된 곳도 왕릉 능력 인근의 산줄기였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로 이어져 기존의 왕릉 능력을 활용하는 예는 정례화 되었다.

제4장에서는 17세기와 18세기에 조영된 왕릉 중 대표적인 사례를 통하여 산론의 내용과 경향성을 검토해 보았다. 본고에서 예로 들은 현종의 승릉은 숙종과 충효사 김수항 등이 논의하여 선정된 곳이다. 그리고 경종의 의릉은 世弟의 자격으로 등극한 영조가 경종의 의릉을 택정하였다. 이 두 개의 왕릉을 조영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론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간심 대상지의 선정과 간심지에 대해서 지관들이 작성한 내용의 경향 등에서 일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현종의 승릉을 선정하기 위한 간심 대상지를 살펴보면 주로 사대부들의 묘산이 주요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경종의 의릉을 선정할 때 선정한 간심 대상지는 당초부터 기존 왕릉 능역 주변과 舊陵地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산론의 내용을 보면 같은 지역을 놓고 평가를 할 때 현종의 승릉 간심지에서는 지관들의 견해가 달리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 반면에 경종의 의릉의 택지를 간심할 때는 천장 후 남아있던 구릉지가 풍수적 측면에서 길지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산론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풍수적 해석은 어떤 경향성을 띄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종의 의릉을 택지하기 위해 작성된 산론에서는 어떤 힘에 의하여 산론의 내용이 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작성된 산론은 왕릉의 택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을 갖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 【참고문헌】

### 1. 資料

『經國大典』

『高麗史』

『國朝喪禮補編』

『國朝五禮儀』

『度支定例』

『續大典』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疑龍經』

『葬日通要』

『朝鮮王朝實錄』

『朱子家禮』

『地理正宗』

### 2. 儀軌

『(경종)산릉도감의궤』(藏書閣圖書 K2-2329)

『(숙종)산릉도감의궤』(藏書閣圖書 K2-2328)

『(인현왕후)산릉도감의궤』(奎 14824)

『(인현왕후)산릉도감의궤』(藏書閣圖書 K2-2327)

『(정성왕후)산릉도감의궤』(奎 13591-1-2)  
 『(현종)산릉도감의궤』(藏書閣圖書 K2-2323)  
 『(효종)산릉도감의궤』(藏書閣圖書 K2-2320)  
 『健陵山陵都監儀軌』(藏書閣圖書 K2-2277),  
 『元陵山陵都監儀軌』(奎 13586-1-2)  
 『인렬왕후국휼등록』(藏書閣圖書 K2-2999)  
 『인조대왕국휼등록』(藏書閣圖書 K2-3001)  
 『仁顯王后國恤謄錄』(藏書閣圖書 K2-3003)  
 『長陵遷奉時山陵都監儀軌』(藏書閣圖書 K2-4803)  
 『현종대왕국휼등록』(藏書閣圖書 K2-3035)

### 3. 研究書

경기도박물관 편, 『顯隆園園所都監儀軌』, 2006  
 고제희 평역, 『손감묘결』, 다산초당, 2008  
 구중희, 『능묘와 풍수 文化』, 국학자료원,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2』, 2011  
 \_\_\_\_\_, 『조선왕릉 1』, 2009  
 \_\_\_\_\_, 『역사의 숲 조선왕릉』, 2007  
 국사편찬위원회,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김두규 역해, 『지리신법』  
 \_\_\_\_\_,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 2005  
 \_\_\_\_\_, 『조선 풍수학인의 생애와 논쟁』, 궁리출판, 2000  
 김해영, 『朝鮮初期 祭祀典禮 研究』, 집문당, 2003  
 문화재청, 『舊禧陵 장경왕후 초장지 보존·정비 보고서』, 2008

양균송 저 · 김두규 교감역주, 『감룡경 · 의룡경』, 비봉출판사, 2009  
 여주박물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2010  
 은광준, 『朝鮮王陵石物志』, 민속원, 1992  
 이몽일, 『韓國風水思想史研究』, 일일사, 1991  
 이범직, 『韓國中世 禮思想研究』, 일조각, 1991  
 이병도, 『高麗時代의 研究』, 아세아문화사, 1979, 개정판  
 이성미, 『산릉도의 제작과 양식』, 대원사, 2012  
 \_\_\_\_\_, 『왕릉의 조성과 택지』, 대원사, 2012  
 이창환,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 1권, 2009  
 이호일, 『조선의 왕릉』, 가람기획, 2003  
 임민혁, 『조선의 禮治와 왕권』, 민속원, 2012  
 임학섭, 『조선왕릉풍수』, 대흥기획, 1997  
 장경희, 『고려왕릉』, 예맥, 2008  
 장서각,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장영훈,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사, 2002  
 정호섭,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2011  
 주희 지음 ·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1999  
 최원석, 「비보(裨補)의 개년과 원리」, 『민족문화연구』 vol34, 2001  
 \_\_\_\_\_, 『도선국사 따라 걷는 우리 땅 풍수기행』, 시공사, 2,000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8  
 \_\_\_\_\_, 『한국의 자생풍수』, 민음사, 1997  
 \_\_\_\_\_ 역주, 『청오경 · 금낭경』, 민음사, 1993  
 韓亨周, 『朝鮮初期 國家祭禮 研究』, 일조각, 2002  
 호순신 지음 · 김두규 옮김, 『地理新法』, 비봉출판사, 2004  
 『지학』, 육일문화사, 2001  
 『風水地理學叢書 礪玉斧/地理新法/明山論/巽坎妙訣』, 경인문화사, 1969

#### 4. 研究論文

- 강제훈, 「조선시대 조참의식의 구성과 왕권」, 『조선왕실의 가례 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_\_\_\_\_, 「조선초기 朝儀의 의례구조와 상징」, 『한국사연구』 vol 137, 2007
- \_\_\_\_\_, 「조선 世宗朝의 조회」, 『한국사연구』 128, 2005
- \_\_\_\_\_, 「조선 초기의 朝會 의식」, 『朝鮮時代史學報』 28, 2004
- 강환웅, 「朝鮮初期의 風水地理思想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金忠鉉, 「孝宗 寧陵의 조성과 陵制의 변화」,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기덕, 「조선의 매장문화의 풍수사상」, 『역사학연구』 44, 2011
- \_\_\_\_\_, 「한국중세사회에 있어 풍수·도참사상의 전개과정」,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 김무영, 「조선왕릉과 명대 묘장제도의 비교연구」, 충남대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문식, 「조선시대 국가 전례서의 편찬양상」, 『장서각』 21, 2009
- 김상협, 「조선왕릉 회격현궁(灰隔玄宮) 축조방법 연구」, 『건축역사연구』 2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2
- \_\_\_\_\_, 「조선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영빈, 「풍수사상에서 본 조선왕릉원묘 조성 기법에 관한 연구 (중)」, 『한국전통문화연구』 5, 1989
- \_\_\_\_\_, 「풍수사상에서 본 조선왕릉원묘 조성 기법에 관한 연구 (상)」, 『한국전통문화연구』 4, 1988
- 김원룡, 「李朝王陵의 石人彫刻-李朝彫刻樣式の 變遷」, 『아세아 연구』 통권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59

- 김임규, 『朝鮮時代 王陵에 관한 風水信仰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6
-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김태일「朝鮮의 王陵과 胎峯의 比較 研究 : 同氣感應論과 風水理論을 中心으로」, 동방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호동, 「성리학의 보급에 따른 풍수도참사상의 변용」,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 김환철, 「조선후기 왕릉 석물조영에 사용된 척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문영식, 「조선후기 山陵都監儀軌에 나타난 匠人의 造營活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文銀順, 「6~7세기 高句麗 왕릉과 百濟·新羅 왕릉의 구조 비교」, 『고구려발해연구』 36輯, 2008
- 박대운, 「朝鮮時代 國王胎峰의 風水의 特性 研究」, 동방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박시익, 「풍수지리설의 산형태의 해석 정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 1986
- 박정해 · 한동수, 「조선 유학자들의 동기감응론 인식」, 『한국민족문화』 41, 2011
- 배상열, 「조선후기 실학적 풍수지리사상의 흐름」, 『종교연구』 52, 2008
- 백남대, 「朝鮮 王室 喪禮에 나타난 陰陽五行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성동환, 「현릉원 천원과 화성건설을 통해 본 정조의 풍수지리관」,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제17집, 2001
- 신재훈, 「조선전기 천릉의 과정과 정치적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58, 2011
- 신지혜, 「조선 숙종대 왕실 喪葬禮 設行공간의 건축특성 : 빈전·산릉·혼전을 대

- 상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안경호, 「풍수와 환경문화 1 형기론을 중심으로」, 『환경철학』 12, 2011
- \_\_\_\_\_, 「조선 능제의 회격 조성방법」, 『정신문화연구』 32, 2009
- 유영교, 「朝鮮王朝後期王陵의 石人石獸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윤 정, 「태조대 貞陵건설의 정치사적 의미」, 『서울학연구』 74, 2009
- 윤여송·최규식, 「문화관광자원의 풍수지리적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초기 왕릉을 중심으로」, 『여행학연구』 9, 1999
- 윤용철,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징발」, 『역사와 경계』 73, 2009
- 이근직, 「신라의 喪葬禮와 陵園制度」,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8권, 2007
- 이기백, 「한국 풍수지리설의 기원」, 『한국사 시민강좌』 제14집, 1994
- 이덕형, 「조선왕릉 조영형식의 변천과 왕릉 입지 고찰」, 『소통과 인문학』 제15집,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2012
- \_\_\_\_\_, 「선조대 유릉 택지에서 드러나는 왕릉 조영의 변화와 원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2010
- \_\_\_\_\_, 「조선후기 사대부의 성리학적 풍수관」, 『역사민속학』 30, 2009
- 이민식, 「조선시대 陵墓碑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이범직, 「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및 그 문헌」, 『한국사상과 문화』 36, 2007
- \_\_\_\_\_, 「조선전기의 오례와 가례」, 『한국사 연구』 71, 1990
- 이상태, 「조선초기의 풍수지리사상」, 『사학연구』 39, 1987
- 이성준, 「경복궁 근정전 월대 난간석주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이수동, 「조선시대 陰陽科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 영, 「朝鮮時代 王陵陵域의 建築과 配置形式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

- 사학위논문, 1992
-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이우중, 「조선 왕릉 광중 탄격(壙中 炭隔) 조성의 배경과 시대적 변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호, 대한건축학회, 2010
- 이재영, 「朝鮮王陵의 風水地理의 解釋과 計量的 分析 研究」, 동방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정선, 「조선 전기 왕릉제도의 성립과 石人 · 石獸양식 연구」, 『美術史論壇』 제29호, 2009
- 이정운, 「현릉원 석물 조성 연구」, 『역사문화논총』 5, 2009
- 이정주, 「세종대-단종대의 정치 변동과 풍수지리」, 『역사민속학』 36, 2011
- 이준호, 「조선왕조 灰隔式 陵寢 연구」, 국민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이형운, 「조선시대 산도를 통해서 본 지리인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희중, 「17·8세기 서울 주변 왕릉 축조, 관리 및 천릉 논의」, 『서울학연구』 17, 2001
- 임민혁, 「조선 초기 국가 의례와 왕권」, 『역사와 실학』 43, 2010
- 장경희, 「조선 시조왕릉의 정자각 내부 의물 연구」, 『한국공예논총』 15호,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12
- 장성규, 「《朝鮮王朝實錄》의 風水地理文獻 研究 : 《靑鳥經》 · 《錦囊經》 · 《狐首經》을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전영권, 「풍수 바로 알기」, 『대한지리학회보』 90, 2006
- 정명호, 「韓國 石燈樣式史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정종수, 「조선초기 喪葬儀禮 연구」, 중앙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정해득,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과 수원 이읍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조운연, 「朝鮮王陵의 陵域 復元에 관한 研究」, 祥明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문, 2009

- 조인철, 「조선후기에 제작된 輪圖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5, 2011
- 최병헌, 「도선의 생애와 나말·여초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연구』 11, 1975
- 최원석, 「조선 왕릉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능묘를 통해 본 동아시아 제국의 위상 - 조선왕릉과 그 주변 - 』, 2011
- \_\_\_\_\_, 「도선풍수의 본질에 관한 몇가지 연구」, 『응용지리』 vol7, 1994
- 최인성, 「朝鮮王朝 王陵武人石像의 甲骨形態에 對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최창조, 「물과 건축 : 풍수사상에서의 수」, 『건축』 36-2, 1992
- \_\_\_\_\_, 「한국 풍수사상의 역사와 지리학」, 『정신문화연구』 14-1, 1991
- \_\_\_\_\_, 「風水說 坐向論上의 吉凶判斷에 관한 緯學的 解釋」, 『地理學』 26,
- \_\_\_\_\_, 1982「조선후기 실학자들의 풍수사상」, 『한국문화』 11, 1990
- 한형주, 「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정비와 운영」, 『역사민속학』 33, 2010
- \_\_\_\_\_, 「15세기 사전체제의 성립과 그 추이」, 『역사교육』 89, 2004.
- \_\_\_\_\_,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황정연, 「조선시대 陵碑의 건립과 御筆碑의 등장」, 『문화재』 42-4, 2009

## ABSTRACT

### A Study on the Selection Land and Sanron(Fungsugiri) of Joseon Royal Tombs

Lee, Duck-hyoung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course of varying royal authority and ruling power in line with site selection and fengshui for royal tombs during the Joseon Dynasty. Construction of royal tombs was the priority of a new king ascending the throne during the Joseon Dynasty. Construction of royal tombs was a way of establishing the legitimacy and authority of a ruler toward people. Thus, any new king viewed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royal tomb for his deceased father as a very important ritual and event. Needless to say, selecting sites for royal tombs was considered highly significant to the extent that they had to be verified in terms of fengshui-based good or ill luck. Discussions on candidate sites for royal tombs were based on 'Sanron' submitted by fengshui experts. Sanron refers to a report written by fengshui experts on good or ill luck of candidate sites after they observed surrounding mountains. Kings and officials called Chonghosa assessed several pieces of Sanron from an office called

Sanreungdogam to decide on final sites for royal tombs. Building royal tombs for deceased kings and queens was subject to the aforementioned process during the Joseon Dynasty.

A king ascended to the throne once he had completed a ritual process called Seongbok.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y did not consider the deceased predecessor to have passed away until a new king completed Seongbok. As a matter of fact, for 5 days till Seongbok, they prepared for the funeral and coronation. A new king appointed persons to organize and lead three Dogams, i. e. Gukjangdogam, Binjeondogam and Sanreungdogam to hold the state funeral for the deceased king. The head in charge of the three Dogams was called Chonghosa and that of each Dogam was called Jejo. Chonghosa appointed was usually the second vice premier. Each Jejo had responsibilities and competencies as a chief of a bureau. The three Dogams organized as such lasted till the end of the state funeral. Chonghosa and Jejo personnel were appointed and dismissed a few times during the state funeral.

Chonghosa and Sanreungdogam organized a system to seek for the site for burial. Gansim or Gansan refers to the acts of assessing and evaluating mountains surrounding the candidate sites for royal tombs. The experts in charge of Gansim were called Jiguans or Jisas, who were led by a head called Sangjiguan. Sangjiguan was an official member of the Guansanggam. The group of people including the Sangjiguan involved in Gansim was called Gansimdan. Gansimdan consisted of government officials called Jisas belonging to the Sanreungdogam and Bangwejisas, who joined the group in recognition of their fengshui expertise. As they were not government officials, Bangwejisas had not official titles. Therefore, they were temporarily assigned military professions so that they could deal with state affairs.

Gansimdan was directed by Chonghosa when they assessed the candidate sites for royal tombs. Candidate sites include those originally marked as such

and others recommended by several persons related. Specifically, candidate sites include where gentry families' tombs were located, mountain ranges surrounding the established royal tombs, residential areas and new sites where no tombs had been established. Interestingly, candidate sites for royal tombs varied over time and under different regimes. This article delved into the causes of varying candidate sites for royal tombs in view of authority of kings.

Firstly,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sites for tomb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reviewed the geographical awareness and concepts among people at that time. Secondly, persons who determined those sites for royal tombs, why they selected certain sites and how long it took for them to make decisions were also explored here. Extant chronicles and other literature including 『Sanreungdogameuigui』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Via such literature review in comparison with existent sites and their conditions, public perception of geography was investigated. This study also inquired into how they used those sites with old pits intended for burial. Thirdly, Sanron emerging in the process of selecting sites for royal tombs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analysed. Covering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for royal tombs, Sanron was the primary reference used by kings and Chonghosa.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Sanron in regard of the fengshui theories applied by the experts in Gansimdan, and the shifts in forms and compositions of Sanron over time and under different regimes.

The approaches taken here have meanings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ose approaches shed light on the assessment criteria for site selection for royal tombs during the Joseon Dynasty. Second, the analysis of Sanron clarifies the content and perception of fengshui as well as the ultimate goals they sought after via fengshui-based site selec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findings here will extend the understanding of royal tombs during the Joseon Dynasty. Nonetheless, this study has limits. First, although site

selection for royal tombs occurred for about a month after a king died, this study hardly mentions things that may have happened after site selection for royal tombs. Further, in analyzing the theories of fengshui in Sanron, it is hard to say that this study apprehends the thoughts of fengshui experts exhaustively. Due to these limits, this study is far from specifying the implications of site selection for royal tombs. Moreover, by failing to review the Sanron on all royal tombs, this study reveals its limitation in identifying the trends of controversies regarding Sanron. Further studies are warranted to deal with these limitations.

【keywords】 Joseon Royal Tombs(朝鮮王陵), Selection Land(擇地), Sanron(山論), Fungsugiri · fengshui(風水地理), Sanrengdogam(山陵都監)

